

23
2022

The Society of 3·15
Democracy Movement

3·15의거



(사) 3·15의거기념사업회
The Society of 3·15 Democracy Movement

걱정없이 **깔끔하게**
좋은날이 올거예요

좋은 데이



72h 산소숙성
소주가 숨쉴때
깔끔함이 살아난다

72h 산소숙성
0% 과당제로

최고의 기술과 제품으로 고객의 신뢰를 받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범한은 압축기와 잠수함용 연료전지를 비롯한 다양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으며 하이넷 주주사의 일원으로 수소충전소 보급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0년 오픈한 서울 마곡의 범한 기술원을 중심으로 세계최고의 수소연료전지 제품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수소연료전지 제조
- 기체압축기 제조
- 선박용 전력 및 통신케이블 제조
- 수소 충전 스테이션



범한기술원(서울 마곡)

이 맛이

청정라거다

호주 청정맥아 100%, 리얼탄산이 되다!



청정라거-테라
TERRA
FROM AGM

본 광고는 100% 호주 청정맥아 100% 리얼탄산이 되다! | 100% WHEAT CARBONATED BEER MADE FROM PURE AG MALT

품질, 납기, 서비스로 고객의 만족을 실현하는 기업



취급품목

냉연·열연강판 | 아연도강판(합석) | 착색아연도강판(칼라합석)
전기아연도강판 | 갈바철판 | 갈바륨강판 | 불소수지강판
칼라시트성형판(V-115외) | 샷다코일 | 각종 스테이틀코일재



현대제철(주) 지정판매점



화영철강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장 희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5
TEL 055. 247. 2425(대)
FAX 055. 246. 3541

■여는 시

너의 이름은,

이재성

녹슨 뱃머리가 부두에 닿는다
귀항이다, 지난 항적의 좌표를 들고 돌아
변한 것은 흰 머리칼뿐만은 아닐 것이다

1960년 3·15의거, 4·19혁명...

자유, 민주, 정의가 적힌 어상자를 나르며
바다의 침묵을 가지고 가대기 치는 선원들
오늘 하루는 길어질 예정이다

1979년 부마민주항쟁...

공기가 바뀐다. 밤바다에 해무가 피어나
숨어있던 쥐들이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
반짝인다, 해도실에서 빛나는 항해일지 보인다

1980년 5·18민주화 운동...

해무 속 어지럽게 돌아가는 나침반
생생하게 적힌 기록에 흥긴한 핏자국이 있다
해도를 펼쳐 그날의 좌표를 다시 찾는다

HOMER
1881

1987년 6월항쟁...

바다로 이어진 미지의 세계 앞에서
두 눈 부릅뜨고 마주치는 그날의 목소리 들린다
좌현을 강타하는 파도에 흔들리는 두 다리

바다가 기다리고 있어, 너의 이름은 무엇인가...

번쩍인다, 관자놀이를 짓누르는 마스크꺼움에 고개를 든다
다시 도착한 남쪽 바다 마산이라는 고향
변한 것은 없다고 말하는 선장 목소리 들린다

젊은 수부여, 출항 준비는 마쳤는가...

선장은 함포만 넘어 동이 트길 기다리고
나는 밤하늘의 좌표를 다시 찍는다
어두울수록 더욱 빛나는 별을 찾는다

출항이다, 나의 이름은 데모크라시호...

별 헤는 밤, 기억의 꼬리를 잡으면
오늘이 어제를 만나 내일로 간다
기다리던 별 하나 선석으로 떨어진다



이재성 시인

2011년 경남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 2012년 제6회 해양문학상 대상 수상, 경남대학교 청년작가아카데미 1기 수료, 2019년 국립해양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학과 수료, 무크 <고래와 문학> 편집장, 시집 『누군가 스물다섯 살의 바다를 묻는다면』.

여는 시 너의 이름은, | 이재성 시인 _ 004

발간사 3·15의거특별법 제정 이후 남은 과제 | 김장희 3·15의거기념사업회 회장 _ 008

3·15의거 제61주년 행사화보 _ 011

제61주년 3·15의거 기념식 축하 | 국무총리 기념사 _ 044

특집 3·15의거특별법&3·15의거발원지기념관

3·15특별법공포관보 _ 049

3·15의거특별법 제정 추진 일지 _ 052

‘3·15의거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문 _ 057

특집 기획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 염진아 변호사 _ 061

3·15의거특별법의 실천과 시민자치 완성 | 정원식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 _ 065

3·15의거와 인권 | 이필우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장 _ 072

[3·15의거발원지 기념관 개관]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민주화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_ 084

특집 논단

마산 3·15의거에 ‘마산 사람’이 없다? | 김정대 경남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_ 093

4월혁명의 서사구조 - 3·15의거가 축소된 배경 | 윤상현 경남대 역사학과 조교수 _ 110

코로나19 시대와 민주주의의 미래 | 김재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조교수 _ 142

3·15의거 고교별 투쟁사 - 마산고등학교 편 | 서익진 창원시정연구원 초빙연구원 _ 159

3·15소식 _ 212



문화의 창

제2회 3·15청년문학상

- 시 당선작 3C9 | 김영옥 경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_ 227
단편소설 당선작 다다를 수 없는 마음 | 김수정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_ 230
동화 가작 선 | 김민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_ 246

제37회 3·15의거기념 전국백일장 공모작 장원

- 고등부 운문 거울 | 정지윤 경기 고양예술고등학교 _ 258
고등부 산문 운동 | 설수진 서울 경인고등학교 _ 259
일반부 운문 안개 | 김남희 _ 262
일반부 산문 습관 | 오현주 _ 263
중등부 운문 나무 | 배소현 통영 총렬여자중학교 _ 266
중등부 산문 취미생활 | 오주솔 마산 성지여자중학교 _ 267
초등부 고학년 운문 봄 | 이예진 경기 함현초등학교 _ 270
초등부 고학년 산문 군것질 | 심소희 거제대우초등학교 _ 271
초등부 저학년 운문 교실 | 박현지 마산 합포초등학교 _ 273
초등부 저학년 산문 생일 | 김예은 마산 합포초등학교 _ 274

제12회 3·15미술대전 대상 수상작

- 서양화 시선1 | 박영옥 _ 282
서각 조가화무 | 박계동 _ 283

3·15의거특별법 제정 이후 남은 과제



김장희
3·15의거기념사업회 회장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알렸던 3·15의거가 6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3·15의거는 불의에 항거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시작입니다. 『3·15의거』 23호 회지 지면을 빌려 3·15의거의 올바른 역사와 3·15의거특별법 제정 이후 남은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60년 3월 15일입니다. 자유당 정권에 의하여 대대적인 선거 부정행위가 자행되었던 제4대 대통령선거와 제5대 부통령선거에 마산은 분노했습니다. 표를 잃은 사람들과 민주당 마산시당부에서는 선거무효를 선언합니다. 오동동 민주당사 앞에 모인 사람들이 마산의 골목과 거리를 가득 채웁니다. 경찰은 부정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마산시청 앞, 남성동 파출소, 북마산 파출소 앞 등 가두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 발사에 이어 칼빈총을 난사합니다.

이로 인해 1차 의거에서 사망 7명(김삼용, 김용실, 김영준, 김영호, 김효덕, 오성원, 전의규), 중상 1명(강용기: 병원에서 투병 중 4월 10일 사망), 실종 1명(김주열)의 열사님 외 부상자와 구속자들이 25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어서 4월 11일 그동안 행방불명 되었던 김주열 열사님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처참한 시신으로 마산 중앙부두에서 떠오르자 격분한 시민들은 다시 2차 의거를 일으켜 싸웠습니다. 이날 밤 다시 경찰의 발포로 김영길 열사님이 사망하고 수십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음으로 4월 12일 마산 시내 소재 8개 남녀 고등학생의 시위와 13일 해인대학(현, 경남대학교) 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3·15의거에 이어 전국에서 4·19혁명 시위가 일어나 600여 명의 사상자가 생겨도 자유당 독재 정권이 물러나지 않자 이승만 정권 타도를 외치며 4월 25일에서 26일 양일간 마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시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산시민과 학생들의 의로운 투쟁은 전 국민의 분노와 함께 4·19혁명으로 이어져 4월 26일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마산에서 두 분(김중술, 김평도)의 열사님이 희생되었습니다.

야속하게 흘러간 계절 속 드디어 2021년 7월 20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인 3·15의거특별법이 법률 제18301호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앞장서 도움을 주신 창원지역 국회의원님과 경상남도지사님, 창원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숭고한 가치와 진상규명, 명예회복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해주시고 앞장서 주신 지역 언론사 여러분과 무엇보다도 3·15의거가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민주화 운동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한결같이 성원해 주신 창원시민, 경상남도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3·15의거의 숭고한 가치가 계승·발전되고 반듯한 기념사업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특별법은 3·15의거에 대한 재평가와 명예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이 법에 따른 3·15의거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되, 광주민주화 운동 피해 조사처럼 서울 중심이 아닌 창원의 지자체와 시민의 주도로 진상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향후 이 법률과 관련 법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민주화 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하여 3·15의거를 4·19혁명으로부터 독립된 의거로 평가하고 인정함은 물론, 부상자, 유족, 공로자 등의 단체를 4·19혁명 관련 단체와 별도의 3·15의거 당사자 법정 단체로 인정하고 설립되어야 합니다.

셋째,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판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3·15의거 국가유공자’로서의 포상과 보상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행 법률에 의해서는 관련자로 판명되어도 ‘4·19혁명 국가유공자’로 포상과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3·15의거기념사업과 의거정신의 선양과 계승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3·15의거기념재단의 설립 및 운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애초 이번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행정부의 반대로 수정되었지만 향후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기념재단은 반드시 설립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61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지만 3·15의거는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임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평범한 시민들의 항쟁 정신은 시대를 이어 계승되어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 운동, 6월항쟁으로 면면히 이어져 우리나라 민주 발전의 횃불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의거의 숭고한 가치와 정신을 제대로 평가하여 민주 역사를 바로 세우고 관련 당사자들의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3·15의거’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국회의원님과 자치단체장님, 언론사,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15의거
61주년
행사화보**



2022. 1. 1.

신년 참배

2022년 1월 1일(금) 새해가 떠올랐다. 이날 참배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 각계 인사들이 국립3·15민주묘지를 찾아 3·15의거 민주 영령께 추모의 뜻과 새해 다짐을 전했다.

3.15 영령 들이시여!
자유. 민주. 정의인 3.15 정신이
확되게 계승되도록 지켜주소서.
*새해인년 새해아래.
(사) 3.15의거기념사업회
회장 김장희.

김장희 회장 방명록



새해를 맞아 국립3·15민주묘지를 참배하는 김장희 회장과 임원



김장희 3·15의거기념사업회 회장의 헌화



하병필 경상남도지사권한대행 행정부지사



허성무 창원시장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참배단에 놓인 화환



김장희 회장의 분향



허성무 창원시장



김하용 경상남도의회 의장



최갑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3·15의거기념사업회 이사진



3·15의거희생자유족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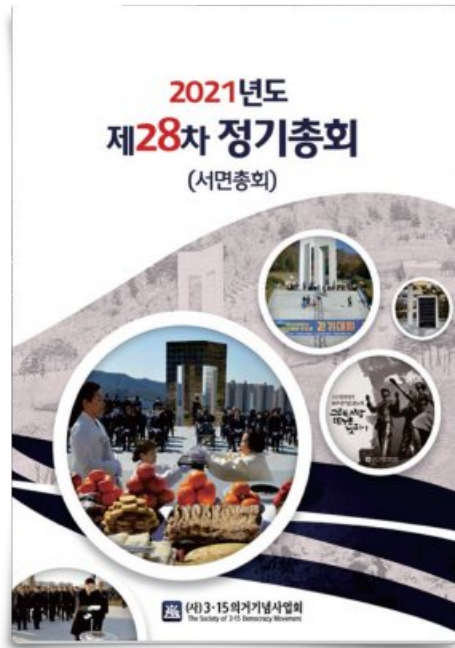
2021.

정기 총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2021년 정기총회는 부득이 전 회원에게 회의 자료를 우편 발송, 승인을 받는 방식인 서면 회의로 대체해 진행됐다. 서면결의로 2020년 사업추진 실적 및 결산안과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했다.

3·15의거 60주년을 보내면서 3·15의거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자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성대한 축제로 만반의 준비를 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행사는 취소되거나 수정되는 아쉬움 속에서도 당초 계획한 다양한 기념사업들이 회원님들의 성원과 관심 덕분에 80% 이상 완료되었다. 이번 제28차 정기총회가 서면으로 진행되는 점에서 진심 어린 양해를 구하고, 3·15의거 61주년을 맞이하는 2021년에는 3·15의 거기념사업회 내부로의 결속과 외연을 확장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또한 지난해 3·15의거 60주년 기념사업에 뜻을 모아주신 관계기관, 연대단체 등 회원님들께 거듭 감사 인사말을 정기총회 자료집을 통해 전했다.



2021. 2. 18.

기념조형물 제막식

2021년 2월 18일(목) 오후 2시 3·15의거기념탑 공원에서 기념 조형물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3·15의거기념조형물 조성 사업은 3·15의거 60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9월부터 추진되었다.

제막식에는 3·15의거기념사업회 김장희 회장, 최형두 국회의원, 허성무 창원시장, 한국성 경남동부보훈지청장, 도의원, 시의원, 의거참가 7개 고교 학교장, 3·15의거 관련단체장, 지역민주화 운동 기념단체장, 3·15의거기념사업회 임원 등이 참석해 3·15의거 민주 열사분에 대한 뜻을 기렸다.

1960년 당시 의거현장에 항쟁의 역사와 가치를 기록하여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에 활용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3·15의거기념탑 경내, 마산의료원 입구, 마산합포구청 앞 이렇게 3곳에 건립하였다.

이 장소들은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반발해 당시 마산시민이 봉기한 의거의 주무대였다.

각 기념 조형물의 비문은 경남대학교 정일근 석좌교수(시인)가 썼으며, 조형물 뒤쪽으로 1960년 당시의 흑백사진이 새겨져 지난 역사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게 했다.

먼저 3·15의거기념탑 앞은 3·15의거 당시 남성동파출소에서 마산시청(현, 마산합포구청)으로 향하던 사람들이 합류한 지점이었다.



교명에 있는 '마산'이란 지명의 학교 학생은 16, 17,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1960년 3월 15일 이전부터 경찰의 감시에 불구하고 부정선거 반대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당일 거리로 나와 일부 학생들은 선두에 서고, 일부 학생들은 부상자를 치료하며 3·15민주의거의 도도한 강물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애국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애국학생'이란 이름을 드립니다. 민주주의 역시 애국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의거탑 비문 중에서...

다음으로 마산의료원(옛 경남도립마산병원)은 2차 시위가 시작된 곳이다. 4월 11일 최루탄이 눈에 박혀 숨진 채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 떠오른 김주열 열사 시신이 마산의료원으로 옮겨졌는데, 이에 분노한 시민이 마산의료원 앞에 모여 투쟁했다.

'아! 김주열 열사'

3·15의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김주열 열사 이름 앞에 '아!' 라는 감탄사를 붙인다. 그건 김주열 열사에 대한 안타까움과 존경을 담은 감사다. (종략) 역사는 김주열 열사에게 빛을 진 셈이다. 그의 주검이 마지막으로 머물렀고 마산시민이 지킨 그의 분노 앞에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기에 어떤 존경과 감사로도 부족하지 않는가!

마산의료원 비문 중에서...

마지막으로 마산합포구청은 3월 15일 당시 개표장이자 시위대의 목적지였다. 이날 마산시청 앞에 모인 시민은 부정선거를 규탄했다.

그리고 그들은 마산시청 앞으로 달려 나갔다. 밤이 깊어지자 1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마산시청 앞으로 강물처럼 여흠여흠 흘러와 정의의 바다를 이루었다.

합포구청 비문 중에서...

3·15의거 기념 조형물은 60주년을 기념하고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시민과 학생들의 불굴 정신을 표현했다.

이날 허성무 시장은 3·15의거를 비롯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함께 3·15의거 기념조형물 제막식을 거행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3·15의거 역사적 가치와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미래세대에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15의거기념사업회 김장희 회장은 "이번에 건립된 3·15의거 기념조형물을 통해 그 당시 3·15의거의 역사적 공간을 현재에 다시 아로새기며, 민주성지 창원역의 역사교육 및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는데 다양한 가치로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산의료원



의거탑



합포구청



2021. 3. 14.

추모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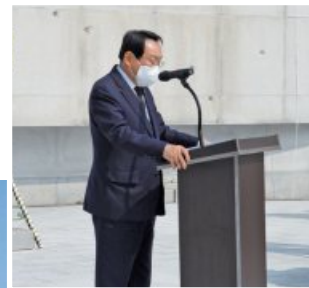
2021년 3월 14일(일) 오전 11시 국립3·15민주묘지 참배단에서 추모제를 가졌다.

이날 추모제에는 최형두, 윤한홍 국회의원을 비롯해 허성무 창원시장, 한국성 경남 동부보훈지청장, 3·15의거 관련단체장과 유가족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추모제는 분향 및 헌다례, 헌화, 묵념 순으로 3·15의거 정신을 기억하고 민주열사를 추모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오무선 3·15의거희생자유족회 회장은 추모사에서 “민주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하나 된 힘을 통해 어려운 시국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3·15의거 민주정신으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상생인 민주주의 가치를 통해 다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김장희 3·15의거기념사업회 회장은 “그날의 함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지속적인 3·15의거 공로자 추가 발굴 및 포상 등 살아계신 선배님들의 예우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무선 유족회 회장



김남영 부상자회 회장



(고)천봉화 공로자회 회장



윤한홍 국회의원



최형두 국회의원



한국성 경남동부보훈지청장



3·15의거기념사업회 이사진



김종배, 안승옥 3·15의거기념사업회 고문



2021. 3. 15.

제61주년 3·15의거 기념식

2021년 3월 15(월) 오전 11시, 국립3·15민주묘지에서 1960년 3월 15일 당시 마산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3·15의거를 기억하는 '제61주년 3·15의거 기념식'이 열렸다. 올해로 61주년을 맞는 3·15의거는 지난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정부 기념식으로 격상되었고, 2011년부터 매년 보훈처가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새 희망을 품고 가고 가고 또, 간다'라는 주제로 정부인사 등 각계대표, 3·15의거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학생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새 희망을 품고 가고 가고 또, 간다"는 자유, 민주, 정의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 있는 외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봄을 이뤄냈듯이, 오늘의 우리도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나아가고 또 나아가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제61주년 기념식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되어 2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추모-기억-전진'의 흐름으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또한, 61년 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봄'을 향하여 새 희망을 품고 죽음마저 불사했던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함께 이어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기념식은 3·15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오전 11시부터 국립3·15민주묘지 민주광장에서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기념공연, '3·15의거의 노래' 제창 순으로 35분간 진행됐다.

기념탑 참배는 3·15의거 참여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3·15의거 참가학교 학생대표가 나란히 추모함으로써, 시민, 학생이 중심이 된 3·15의거 정신을 미래세대인 후배 고등학생들이 자랑스러운 역사로 이어 간다는 다짐과 메시지를 전했다.

3·15의거기념사업회 김장희 회장의 경과보고 영상에 이어 주제영상은 '기억'을 주제로 61년 전 불의한 권력에 당당히 맞서 치열했던 마산의 3월 의거가 혁명의 4월을 열었고, 이 땅에 자유, 민주, 정의의 역사로 살아 있음을 보여줬다.

기념공연은 '전진'을 주제로 3·15의거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 봄을 열었음을 정부기념식 최초로 수중 공연 영상과 무용 공연을 융합한 장르 통합형 공연으로 연출됐다. 이어서 테너 류정필이 소프라노 '몽세라 카바예'의 '함께 가자(March with Me)'를 노래하여 우리의 미래를 위해 다 함께 나아갈 것을 표현했다. 우리나라 민주화 관련 주요 도시를 배경으로 민주화 공묘전의 당선자들이 민주열사께 드리는 감사와 다짐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전했다. 끝으로, 현장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3·15의거의 노래'를 제창하며 기념식이 마무리됐다.



정세균 국무총리



새 희망을 품고
가고 가고 또 간다

제61주년 3·15의거 기념식

국기보존회

새 희망을 품고
가고 가고
또, 간다

새 희망을 품고
가고 가고
또, 간다

제 6 1 주년 3·15의거 기념식

국기보존회

2021. 4. 22.

제13회 3·15대음악제

2021년 4월 22일(목) 저녁 7시 30분 MBC경남 주관으로 3·15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제13회 3·15대음악제'가 열렸다.

3·15뮤직컴퍼니 오케스트라 설진환의 지휘로 테너(은형기, 김바위, 장충식), 바리톤(조승완, 김성진, 김기환), 소프라노(김지숙, 이영령, 정혜원, 김민경, 김주은, 최현서, 배효영, 이하영, 송주연), 발레(강경호, 서지수), 창작곡 작곡가(이형근), 특히 대중성 높은 발라드 가수 린과 추억의 가수 김도향이 출연해 세대와 시대를 아우르는 자리를 만들었다.

또한 이번 음악제는 3·15의거 60주년을 기념해 창작된 3·15詩 노래 10편 가운데 3곡을 무대에 올렸다. 3·15詩 노래 음반 제작에 참여했던 가수들이 무대에 직접 올라 그 의미와 감동을 더했으며, 클래식과 대중음악이 콜라보하는 볼륨감 있는 공연을 보여주었다.

또한 3·15詩 노래 공연에는 백그라운 영상으로 1960년 3·15의거 당시 사진이 조화롭게 영상화되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다.

이날 3·15의거기념사업회 김장희 회장은 "코로나19 시국에도 민주주의 정신은 이어지고 있다"며 "3·15대음악제"가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인사말을 덧붙였다.



발레



가수 린



가수 김도향



2021. 6. 2.

제2회 3·15청년문학상 시상식

2021년 6월 2일(수) 오전 11시 경남대학교 본관 소회의실에서 '제2회 3·15청년문학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3·15청년문학상'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 첫 민주화 운동인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고 청년문학 창작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제정된 문학상으로, 경남대학교와 (사)3·15의거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남대학보사가 주관하고 있다.

제2회 3·15청년문학상 현상 공모

대한민국 첫 민주화운동 3·15의거
자유·민주·정의정신을 계승하며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청년 문학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공모개요

문학 주제: 3·15의거
대상: 1981년 4월 16일(수) 3·15의거 희생자 및 유가족
공제: 1981년 4월 16일(수) 3·15의거 희생자 및 유가족
공제: 1981년 4월 16일(수) 3·15의거 희생자 및 유가족
공제: 1981년 4월 16일(수) 3·15의거 희생자 및 유가족
공제: 1981년 4월 16일(수) 3·15의거 희생자 및 유가족

대상

1등: 100만원
2등: 50만원
3등: 30만원
佳作: 10만원

제출서류 및 방법

제출서류: 원고 1부, 심사위원 2부, 심사위원 2부, 심사위원 2부
제출방법: 원고 1부, 심사위원 2부, 심사위원 2부, 심사위원 2부

접수처

경남대학보사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대로 100-1
전화: 055-244-4000, 4007, 4040

유인사항

- 1등 수상자에게는 100만원의 원고료와 함께 원고료 반환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 2등 수상자에게는 50만원의 원고료와 함께 원고료 반환금 50만원이 지급된다.
- 3등 수상자에게는 30만원의 원고료와 함께 원고료 반환금 30만원이 지급된다.
- 佳作 수상자에게는 10만원의 원고료와 함께 원고료 반환금 10만원이 지급된다.
- 수상자에게는 수상금과 함께 수상증과 함께 수상금 반환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 수상자에게는 수상금과 함께 수상증과 함께 수상금 반환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 수상자에게는 수상금과 함께 수상증과 함께 수상금 반환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 수상자에게는 수상금과 함께 수상증과 함께 수상금 반환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경남대학보사

이번 문학상은 전국 대학생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시 부문에는 총 135편이, 단편소설 부문에는 26편이, 동화 부문에는 5편이 각각 접수됐다. 그 결과 시 부문에서는 김영욱(한국어문학과 3) 학생의 '3C9' 작품이, 단편소설 부문에서는 김수정(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3) 학생의 '다다를 수 없는 마음' 작품이 각각 당선됐으며, 동화 부문에서는 김민(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4) 학생이 가작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박재규 총장과 (사)3·15의거기념사업회 김장희 회장을 비롯해 정은상 언론출판원장, 언론출판원 강종오 행정지원팀장, (사)3·15의거기념사업회 남기문 상임이사가 참석했으며, 3·15청년문학상 정일근 운영위원장과 이재성 운영위원, 조갑상, 배익천, 김문주 심사위원도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했다.

박재규 총장은 “제2회 3·15청년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수상자 여러분을 축하하며 뜨거운 관심으로 문학상에 도전해 준 전국 대학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계승하는 이번 문학상이 미래로 정진하는 학생 여러분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3·15의거기념사업회 김장희 회장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는 이번 문학상을 수상한 수상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청년문학의 장인 문학상과 3·15의거에 관심과 성원을 주신 수상자 및 참가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3·15의거 정신 계승의 햇불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 6. 2.~3.

3·15의거 연극공연 '너의 역사'

대한민국 첫 유혈 민주화 운동인 3·15의거를 소재로 한 연극 '너의 역사'가 2021년 6월 2일과 3일 양일간 오후 7시 30분 3·15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은 3·15의거 61주년을 기념해 (사)3·15의거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극단 객석과무대가 주관, 국가보훈처, 창원시가 후원했다. '너의 역사'는 3·15의거를 배경으로 송고한 자유, 민주, 정의를 위한 그날의 함성과 몸짓을 연극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지역민들에게 3·15의거 정신계승으로 감동을 선사해 왔다.

연극은 1960년 3월 15일 거리와 광장은 피와 비명으로 물들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간 그 시점에서 시작한다. 고등학생, 식모, 철공소 직원, 연탄 나르는 인부, 간호사 등 가장 평범했고 가장 연약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왜 그날 그 장소로 나오게 되었는지, 오성원 열사와 김주열 열사가 왜 거기서 죽어가게 되었는지, 당시 암울했던 시대상황 속에서 자유·민주·정의를 위해 쓰러져 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이어진다.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팀(극작 이희재, 연출 문종근, 작곡 허수현, 안무 김현주, 무대미술 임일진, 음악감독 최현세)이 선사하는 감동의 대서사시와 대한민국 현대사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인 3·15의거를 대중문화예술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다.

공연은 12세 이상 무료 관람으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속 극장 관객 앉기를 실천하며 마스크 필수 착용, 발열, 기침 호흡 유증상자 입장불가, 1미터 거리 유지 대기 줄 서기, 입장 전 발열체크, 손 소독, 문진표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2021. 6. 19.

제37회 3·15전국백일장(공모전) 및 제27회 문학의 밤

‘3·15의거 61주년 기념 제37회 전국백일장’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현장 행사 대신 작품 공모로 진행됐다. 작품 공모는 초·중·고·대학·일반인을 대상으로 초등부 저학년은 교실(운문)과 생일(산문), 초등부 고학년은 봄(운문)과 굳것질(산문)이다. 중등부는 나무(운문)와 취미생활(산문), 고등부는 거울(운문)과 운동(산문)이다. 대학·일반부는 안개(운문)와 습관(산문)이다. 2021년 3월 29일(월)~4월 30일(금) 공모기간 동안 전국에서 1,815명의 학생과 일반인들이 인터넷과 우편 응모에 참여했다. 접수된 작품들은 5월 8일(토) 심사를 통해 선발했다. 당선된 작품은 마산문인협회와 3·15의거기념사업회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5월 17일(월) 오후 5시에 입상자를 발표했다.

문학의 밤은 2021년 6월 19일 오후 2시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학·일반부의 일부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모전 당선작 시상식과 문학강연회가 함께 열렸다. 이번 문학의 밤은 코로나 19로 인해 초·중·고 수상자들은 시상식에서 제외하였다.





2021. 9. 29.

3·15의거 희생자 위령제

2021년 9월 29일(수) 오후 4시 30분 제61주년 3·15의거 희생자 위령제가 국립3·15민주묘지 광장에서 열렸다.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도 위령제는 가을에 열리게 되었다. 매년 의미 있었던 위령제지만 올해는 더욱 의미가 남달랐다.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 회복 등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위령제는 (사)3·15의거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3·15의거 희생자 유족회가 주관하며 허성무 시장, 3·15의거 희생자 및 유족, 민주화 운동 관련단체 등 거리두기 및 방역시침으로 인한 제한된 인원인 49명으로 엄숙한 분위기에서 거행됐다.

그간의 답답함을 해소하듯 행사는 단비 같은 빗방울로 시작되었다. 이날 김장희 3·15의거 기념사업회장은 인사말에 이어 그간 60년 동안 공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많았으며, “내년부터는 진상조사와 더불어 공로자 발굴 사업을 더 많이 해서 부상을 당하고도 국가로부터 나름의 보상의 받지 못한 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허성무 시장은 “「3·15의거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해 3·15의거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3·15의거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이다”며 “지역의 위대한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미래 세대들에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위령제는 추모와 분향 김장희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오무선 3·15의거 희생자 유족회장의 추모사, 시인의 추모시 낭송에 이어 박은혜 춤패의 진혼무와 김옥숙 경남도 소리보존회장의 회심곡이 이어졌으며 추모가요로 가수 이선일, 퓨전국악 신의의 공연으로 마무리되었다.



김장희 회장



오무선 회장



김남영 지부장



허성무 창원시장



2021. 10. 23.

제13회 3·15청소년 영상제 UCC공모전 시상식

(사)3·15의거기념사업회는 2021년 10월 23일(토) 오후 2시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3·15의거 61주년을 기념하는 '제13회 3·15 청소년 영상제 UCC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모전은 지난 9월 6일(월)부터 10월 8일(금)까지 3·15의거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3·15의거를 비롯한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작품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3·15의거 역사 인식과 '자유·민주·정의'의 3·15의거 정신계승,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으로 (사)3·15의거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경남환경미디어협회가 주관하며, 국가보훈처, 경상남도교육청, 창원시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시상식은 지역 청소년들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창원 인디밴드 '옥토'의 축하 공연과 ▲3·15의거 홍보영상 ▲당선작 상영 ▲시상 등 다양한 볼거리로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의 결과 진해냉천초(이수외 4명)의 '기억하겠습니다 3·15의거'가 영예의 대상으로 국가보훈처장상 및 상금 100만 원을 수상했다. 이어서 최우수상에는 마산가포고(지태현)의 '도화선', 의신여자중(이가연)·마산용마고(이성규)의 '내가 미처 몰랐던 역사, 3·15의거'가 각각 수상했으며, 우수상 4팀, 장려상 8팀 등 총 15팀에게 상장과 총상금 470만 원이 시상됐다.

이날 3·15의거기념사업회 김길화 부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번 공모전은 학생들이 직접 3·15의거 유적지를 답사하고 3·15의거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발견하는 작품 제작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3·15의거의 의미를 기억하는 교육이 되었다"며,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하며 청소년과 함께 하는 민주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길화 부회장 인사말



대상 수상(1팀)



최우수 수상(2팀)



우수상 수상(4팀)



2021. 5. ~ 11.
유적지 답사

급변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유적지 답사는 올해 5월과 11월 중 총 4차례가 진행됐다.(5월 26일 호계초등학교, 5월 29일 무학여자중학교, 5월 30일 교육연수원, 11월 16일 경남대)



호계초등학교



무학여자중학교



교육연수원



경남대학교 자유전공학부

2021. 12. 22.

3·15의거 자료해제 학술발표회

2021년 12월 22일(수) 오후 4시에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그루’에서 「1960년 자유당 극비문서 해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제작된 영상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업로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우무석 한국문자문명연구회 이사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박태성 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3·15의거 당시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 관련 문건, 적십자사 보관 부상자 관련 서류, 국가기록원 보유 부상자 명단, 각종 일기장, 성명서 등 이미 발굴되었거나 새롭게 발굴된 자료들을 해제한 자료집과 관련한 학술토론회이다.



2021. 12.

3·15의거 60주년 백서

2020년은 '자유·민주·정의'가 기본정신인 '3·15의거'가 6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였다. 1960년 3월 15일, 마산에서 세계로 울려 퍼진 그날의 함성과 열사님들의 희생 그리고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다. 3·15의거 60주년을 기념해 특별행사의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과 평가를 '기념사업백서'에 모았다.

'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3·15의거의 숭고한 가치가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60주년 특별사업에 노력을 기울였다. 추진위원회는 3·15의거의 미래에 대한 책임 의식과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60주년 특별사업 기조를 중심으로 '2020년 대한민국 첫 민주화 운동, 3·15의거 예순 해!'라는 슬로건을 확정하고 4·19혁명에서 3·15의거의 독립된 첫 민주화 운동의 독자적 위상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또한 3·15의거의 역사성의 의미에 주안점을 두고 시민 참여 활성화로 대중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과 프레임의 다변화를 추구하는 창조성을 지닌 사업개발에 힘썼다. 다양한 ▲60주년 기념제전 ▲60주년 특별행사 ▲연례행사 ▲후원행사 등 전 국민이 3·15의거를 기억하고 정신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업으로 성황리에 마무리하여 백서로써 갈무리할 수 있었다.

2021. 12.

『3·15의거사』 재발간

2021년 12월에 재발간된 『3·15의거사』는 2004년 발간됐던 『3·15의거사』의 증보판으로 일부 보완된 내용이 함께 수록됐다. 이 책은 1960년 3월 15일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로 인하여 항거에 나섰던 3·15의거 이전의 마산역사, 3·15의거 당시의 기록, 3·15의거 이후의 마산 역사, 3·15의거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성과와 미래의 전망을 기록한 것이다. 『3·15의거사』는 전국 공공도서관을 비롯 대학도서관, 관련단체 및 관련 연구자들에게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2021. 3. 19.~31.

3·15의거 61주년기념 삼진미술관 전시회

2021년 3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3·15의거 61주년기념 삼진미술관 전시회가 삼진미술관에서 열렸다.

올해는 모든 사람들의 잠재되어 있는 추억까지도 깨워주는 한국 화가 우순근 작가의 초대전이 열렸다. 평론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몽글몽글한 나무의 표현과 동화 같은 분위기의 오밀조밀 모여 있는 집들과 도식화된 나뭇가지를 몽환적으로 표현하는 우순근 작가는 하나의 형상을 위해 다양한 색들의 조화로움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나타나는 듯하지만 작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계획을 세우고 생각에 생각을 더하여 완성시킨다고 한다.



2021. 4. 8.~13.

제12회 전국공모 3·15미술대전

2021년 4월 8일부터 13일까지 제12회 전국공모 3·15미술대전 시상식 및 개막식이 3·15아트센터 전시실에서 열렸다.



2021. 4. 15.~20.

3·15의거기념 2021 마산아트페스티벌

3·15의거 제61주년을 기념하는 '2021 마산아트페스티벌'이 4월 15일부터 20일 까지 3·15아트센터 제1전시실에서 열렸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아트페스티벌은 금강미술관과 지역미술인들이 참여, 초대작가들의 작품들까지 전시 진행되었다. 3·15의거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마산미술협회가 주관하고 (사)3·15의거기념사회가 주최하는 아트페어이다.



2021. 10. 23.~24.

전국 어르신 축구대회

2021년 10월 23일부터 24일 이틀간 제11회 전국어르신 생활체육 축구대회가 창원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2021. 11. 5.

살매 김태홍 문학의 밤

11월 5일 창원시립마산문학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살매김태홍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사)3·15의거기념사업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지금까지 단편적인 주제로 열린 예년 행사와 달리 김태홍 시인의 문학세계와 삶을 집중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김태홍 시인의 시 제목에서 따온 '물소리에 마음 씻어'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번 행사에서 문학평론가 신덕룡(광주대 명예교수)이 '김태홍시에 나타난 물의 심상'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경남 창원 출신인 살매 김태홍(1925~1985) 선생은 시인이자, 1960년 3·15부정선거와 4·19혁명 등 격동기에 정론직필로 부정과 부조리에 저항했던 언론인이다.



연례행사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	행사내용
기념조형물 제막식	2/18	3·15의거기념탑 공원	3·15의거기념사업회	- 기념조형물 제막식(3·15의거기념탑 경내, 마산의료원 입구, 마산합포구청) - 국회의원, 시장, 관련 단체장 등 50여 명 참석
3·15의거 추모제	3/14	국립3·15민주묘지 (참배단)	3·15의거 희생자유족회	- 추모제 / 참배식 - 유족 등 50여 명 참석 - 도지사, 시장, 도의장 참석
61주년 기념식	3/15	국립3·15민주묘지 광장	국가보훈처	- 정부기념식 (발원지 방문, 참배, 공연) - 당사자, 보훈, 민주화단체외 99명 - 주변 국무총리(정세균)
제13회 3·15대음악제	4/22	3·15아트센터 대극장	(주)MBC경남	- 3·15뮤직컴퍼니 및 초대가수(린) - 시노래 앨범 참여가수 - 일반시민 등 700여 명
제37회 3·15전국백일장 (공모전)	공모 3/29~4/30	마산문협홈페이지 시상 6/19(토)	마산문인협회	- 전국 초저·초고·중·고·대학·일반 (운문, 산문) - 5/17 입상작 발표 (기념사업회 및 문인협회 홈페이지)
제2회 3·15청년문학상	공모 2/15~4/16 시상식 6/2	경남대학교 본관	경남대학교	- 전국대학생 대상, 시, 소설, 동화 - 접수 4/1~4/16 마감 - 5월 당선작 발표
연극 "너의 역사" 공연	6/2~3	3·15아트센터 소극장	극단 객석과 무대	- 시민, 학생 연인원 500명 관람
27회 문학의 밤	6/19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	마산문인협회	- 백일장(공모전)시상식, 문학강연 등 - 수장자 및 문인, 일반시민 40여 명
3·15의거 희생자 위령제	9/29	국립3·15민주묘지 광장	3·15의거 희생자유족회	- 희생자 위령제, 추모공연 - 유족, 시민 등 80여 명
13회 3·15청소년영상제 (UCC공모전)	10/23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	경남환경미디어	- UCC공모전시상, 공연 등 - 청소년 50명 참석
3·15의거 유적지 답사	5~11월	민주화 운동 유적지일원	3·15의거기념사업회	- 전국 중·고교 및 단체 수시접수 - 시내코스, 민주화 유적 전국코스 운영

후원행사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	행사내용
제12회 3·15전국미술대전	공모 3/8~19 전시 4/8~13	3·15아트센터 1, 2, 3 전시실	3·15미술대전 운영위원회 (마산미협)	- 전국 공모전 - 시상식 4월 8일(목) 오후 3시 (3·15아트센터 회의장)
뮤지컬 '삼월의그들' 앙코르 방송	3/14	mbc경남 TV	MBC경남	- 60주년 기념 제작 창작뮤지컬(영상) - 80분 앙코르 방송(13:15 ~14:40)
3·15의거 61주년 기념 삼진미술관 전시회	3/19~31	삼진미술관	삼진미술관	- 한국화가 '우순근' 작품 30점 전시 - 3·15의거 사진 전시
3·15의거기념 2021 마산아트페스티벌	4/15~20	3·15아트센터 1, 2, 3 전시실	마산미술협회	- 개막식 4/15 오후 3시 - 마산미협회원 부스전 - 초대작가전시, 시민 무료 관람
살매 김태홍 문학의밤	11/5	창원시립마산문학관 세미나실	살매 김태홍 기념사업회	- 『마산은』 저자 시인 문학회 - 문학강좌 외
제11회 전국어르신 축구대회	10/23~24	창원종합운동장 외	창원시축구협회	- 전국 어르신축구팀 초청 경기 - 30여 개 팀 참가



제61주년 3·15의거 기념식 기념사

| 정세균 국무총리 기념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5의거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창원시민, 경남도민 여러분, 3·15의거 61주년을 여러분과 함께 벽찬 가슴으로 맞이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성지에 서니, 당시, 불의와 독재에 항거했던 시민들의 뜨거운 함성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피로써 찾은 자유, 총칼로써 뺏을쏘냐!”

“한뜻으로 일어나라!”

우리의 아버지요, 어머니요, 형제요, 이웃이었던 얼굴들이 눈앞에 어려, 가슴이 저러옵니다. 현대사의 세찬 파고를 뚫고 온몸을 던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가슴 깊이 기립니다. 당신들께서 피와 눈물로 일으켜 세우신 이 땅의 거룩한 민주주의 역사 앞에 한없이 숙연해집니다. 긴 세월, 가슴 한편에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묻고 살아오신 3·15의거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3·15의거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발전시켜 오신 김장희 기념사업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귀한 걸음을 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1년 전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의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그렇지만 정의로움으로 뚝뚝 뭉친 마산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불법으로 얼룩진 선거를 규탄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부정부패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비루한 목숨을 연명하려던 독재정권의 야욕에 맞서, 자유와 민주 그리고 정의를 외치며 불같이 일어섰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한 손에 움켜쥔 돌멩이가 전부였지만, 기꺼이 거리의 투사가 되어 무자비한 폭력에 맞섰습니다. 부정선거 개표가 진행된 마산시청 앞을 비롯해, 남성동파출소, 북마산파출소, 무학초등학교, 곳곳에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행방불명됐던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 처참한 모습으로 떠올랐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웠던 열일곱 열사의 죽음 앞에서 독재의 그늘에 시름 하던 마산시민의 의분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다시 폭발했습니다.

시민을 향해 물대포와 최루탄, 심지어 총구마저 겨누었던 서슬 퍼런 독재의 총칼 앞에서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이 땅의 민주주의를 부르짖었습니다.

열두 분의 열사께서 고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250여 명의 무고한 시민이 부상을 입거나 체포되어 모질고 비참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를 향한 마산시민의 피 끓는 열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산에서 타오른 민주화 운동의 불꽃은 기어이 경상도를 넘어,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의 화요일 4·19혁명의 불쏘시개가 되어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봄을 열었습니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 19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노뎃돌을 놓았습니다.

그날의 함성은 우리의 핏속에, 삶 속에, 강인하고 생명력 있는 울림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힘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다시 뜨겁게 타올라, 자유·민주·정의를 향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과 경남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창원과 경남은 언제나 의연하게 일어섰습니다. 일제강점기 백산상회를 설립했고, 일제의 경제침탈에 맞섰고, 3·1만세운동으로 민초들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6·25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의 최후 보루로서 남하하는 적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계공단, 수출자유지역을 중심으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한 시민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지금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창원시민과 경남도민께서 방역의 주체로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도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민과 경남도민의 희생정신과 민주정신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내며, 국난극복에 크나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봄을 위해 온몸을 바치셨던 창원시민과 경남도민의 용기를, 그리고 정의로움을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민주화 운동의 초석이 되었던 3·15의거가 합당한 평가를 받고, 나아가, 민주화 투쟁에 나섰던 열사들의 희생과 그 정신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억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의 긴 터널 속에서 우리 모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힘껏 꽃망울을 틔워 다가올 봄을 알리는 동백처럼, 매화처럼, 코로나라는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꽃망울을 함께 틔워나갑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너도나도 올바르게 잘 사는 일상의 회복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고민하고, 더욱 넓게 헤아리며, 함께 나아갑시다. 서로 나누고 포용하며, K-회복을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3·15의거특별법& 3·15의거발원지기념관

특집기획
특집논단

3·15특별법공포관보

국회에서 의결된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2021년 7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 관

● 법률 제18301호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3·15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3·15의거”란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하여 마산지역에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말한다.

제3조(진상규명) 3·15의거의 진상규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제4조(조사결과 보고 등) ① 진실화해위원회는 3·15의거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진실화해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 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제3조에 따른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진실화해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15의거의 진상규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준용한다.

제7조(특별재심) ① 3·15의거와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원 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재심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제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 실제 판결을 하여야 한다.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재심청구인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제8조(기념사업) 국가는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15의거와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3·15의거에 참여한 사람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벌칙)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대한민국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독재정부의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에 기여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서 4·19혁명의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19혁명이나 5·18민주화 운동 등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왔음.

특히, 2010년도에 4·19혁명 기념일과 별개로 3·15의거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15의거가 4·19혁명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어 법적으로 독립적인 의거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바,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서 진정한 역사적·국가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한국 민주화 운동의 시초인 3·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참여자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한국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15의거특별법 제정 추진 일지

4·19혁명의 일부에서 독립의거로 인정 및 재평가를 통한 법률에 근거한 기념재단 설립 등

2019. 02. 26

김장희 회장, 3·15의거기념사업회 제26차 정기총회(2019) 인사말을 통해 3·15의거의 법적 독립 의거 인정, 재평가, 법률에 근거한 기념재단의 설립 등의 내용으로 '3·15의거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추진을 천명함.

2019. 03. 10

김장희 회장, 이주영 국회부의장 면담, 법률제정 필요성 전달 및 추진 협조 요청

2019. 03. 14~15

경남신문 “3·15는 혁명… 법 개정해 독자 위상 갖춰야” 제하의 기사 보도

경남신문 “4·19에 가려진 3·15… 독자적 위상 갖춰야” 제하의 기사 보도

경남신문(사설) “60주년 앞둔 3·15의거 재평가하자” 제목의 사설 보도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통한 법적 뒷받침으로 4·19혁명에서 독립적인 자리를 찾아야 한다.’

경남신문(기고) 이주영 국회부의장 기고 글 게재

“3·15의거를 3·15혁명으로 승화시키자”

3·15의거를 4·19혁명의 전단계가 아닌 근현대 최초의 독자적인 유혈 시민혁명으로 규정. 헌법 전문에 적시된 4·19혁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었다고 강조

2019. 05.

이주영 의원실 법률안 초안 작성(법제실 검토안)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준비(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19. 05. 29

본회 제84차 이사회 부의안건으로 상정, “법률안 제정 취지, 방향”에 대하여 승인을 득함.
(제2호의안 “3·15의거 관련 법률제정 추진의 건”)

2019. 05. 31

김장희 회장, 허성무 창원시장 접견, “3·15의거 관련 법률 제정 추진” 보고 및 시 차원 협조 요청(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 시 공동대표 제안 등)

2019. 06.13

이주영 국회의원, 법률안 대표 발의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서명의원: 김성찬, 박완수, 윤한홍, 권성동, 송희경, 박덕흠, 여상규, 김성동, 김규환

(의안번호 2021127 소관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의 주요 내용

- 3·15의거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설치
- 3·15의거 정신계승하는 기념사업 추진
- 3·15의거 기념사업을 위한 재단 등의 지원
-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

2019. 10.29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3·15는 혁명이었다”

국회도서관 대강당 / 이주영의원실, 3·15의거기념사업회, 3·15의거학생동지회 공동 주관 / 국회의원, 회원 100여 명 참석

2019. 11. 11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안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이 법률안은 국회행안위에 계류된 상태에서 20대국회가 임기만료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됨.

2020. 03. 20

21대 국회의원 창원지역 출마자 전원에 “3·15특별법 제정 추진”을 선거공약 채택 공문 요청, (대다수 후보자 찬성 회신함)

2020. 06. 27

마산합포지구구 당선자 최형두 국회의원 면담, “3·15특별법 제정” 추진경과와 필요성을 설명, 대표발의 추진 요청, 수락 받음

2020. 09. 28

최형두(마산 합포) 국회의원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여,야,무소속의원 30명 공동발의)

(의안번호 2104263) 소관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2021. 02. 05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최형두 의원, 의안발의 취지 설명

(조현대 열사 사례 등 거론, 진상규명 필요성과 법안제정 필요성 강조)

2021. 02. 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첫 상정 => 안건 과다로 심의 무산

2021. 02. 23

허성무 창원시장, 국회에 ‘3·15의거특별법’ 제정 건의 서한문 발송

2021. 03. 02

허성무 창원 시장 전해철 행안부 장관 면담, 특별법 제정 협조 요청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 한병도 법안1소위원회장 외 상임위 의원님 개별 접촉 및 유선 협조 요청

2021. 03. 0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상정(2차)

(법안 조문 수정 후 다음 회차 소위에서 재 논의하기로 함)

*법안 명칭 수정, 보상 부분 조정, 진상규명 부분 조정 등

2021. 03. 09

창원시의회, “3·15특별법 제정 및 3·15의거 재정립 건의안” 채택

(박성원 의원 발의, 국회, 행정안전부에 건의서 전달)

2021. 03.10~15

지역 언론 법률제정 관련 인터뷰 기사 및 기획기사 보도

(추진배경, 추진상황, 향후 전망 등)

2021. 03.

최형두 의원실, 정부(행안부) 및 전문위원실 수정 법안 협의 완료

(진상규명과 보상 부분 조정)

2021. 04. 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 상정(3차)

(행정안전부와 협의된 수정 법률안 상정-총11개 조문으로 수정)

***원안 의결**(법률안의 주요내용)

- 명칭: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진상규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수행
필요시 자치단체와 협의 위탁 또는 공동수행 가능
- 배,보상: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 기념사업 및 재정지원: 3·15의거 관련사업 예산 일부 지원 가능

2021. 6. 16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

2021. 06. 25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021. 06. 29

국회 본회의(388회 임시회) 통과!!!(공포 6개월 후 시행, 2022년 1월 20일)

2021. 06. 30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념사업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창원시청 정문 앞)

2021. 07. 02

3·15의거특별법 국회 통과 관련 감사장 우편발송
(국회의원 30명, 창원시장, 경상남도지사, 행안부장관 등)

2021. 07. 13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3·15의거특별법)」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공포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2021. 07. 20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공포
(시행 2022.01.21. -법률 제18301호, 2021.07.20. 제정)

2022. 01. 20

법률시행 및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개시

3·15의거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문

61년 만에 '3·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크게 환영 한다

안녕하십니까? 3·15의거기념사업회 김장희 회장입니다.

우리 기념사업회는 지난해 9월 28일, 여·야국회의원 30명이 공동발의하고, 마산합포구 최형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3·15의거 참가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3·15의거특별법)이 2021년 6월 29일 제38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하여 3·15의거기념사업회 전 회원과 창원시민, 경남도민과 함께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이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앞장서고 도움을 주신 마산합포구 최형두 국회의원을 비롯한 창원지역 국회의원과 허성무 창원시장님, 김경수 경남도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15의거의 숭고한 가치와 진상규명, 명예회복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앞장서 주신 지역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3·15의거가 우리지역의 자랑스러운 민주화 운동으로써 자리매김하기까지 한결같이 성원해 주신 창원시민과 경남도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비록 61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늦었지만 이 특별법을 통하여 국가 차원에서 3·15의거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을 규명하고 4·19혁명의 일부가 아닌 4월혁명의 몸통임을 규명하여, 지금이라도 명예회복은 물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당시 의거에 참가하여 부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거나 체포, 구금되어 고문을 당하신 관련 당사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에 걸맞는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한 특별법은 3·15의거에 대한 재평가와 명예회복의 첫걸음이며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우리사업회는 3·15의거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법에 따른 3·15의거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되, 광주민주화 운동 피해 조사처럼 서울 중심이 아닌 창원시 주도, 지역 주도로 진상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향후 이 법률과 관련 법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민주화 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을 통하여 3·15의거를 4·19혁명으로부터 독립된 의거로 평가하고 인정함은 물론, 부상자, 유족, 공로자 등의 단체를 4·19혁명 관련단체와 별도의 3·15의거 당사자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설립되어야 합니다.

셋째,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판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3·15의거 국가유공자’로

서의 포상과 보상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행 법률에 의해서는 관련자로 판명되어도 '4·19혁명 국가유공자'로 포상과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3·15의거 기념사업과 의거정신의 선양과 계승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3·15의거기념재단의 설립 및 운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초 이번 특별법에 포함이 되어 있었으나 행정부의 반대로 수정되었지만 향후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기념재단은 반드시 설립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61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지만 3·15의거는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임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평범한 시민들의 항쟁정신은 시대를 이어 계승되어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 운동, 6월항쟁으로 면면히 이어져 우리나라 민주발전의 횃불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의거의 숭고한 가치와 정신을 제대로 평가하여 민주역사를 바로 세우고 관련 당사자들의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3·15의거'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국회의원님과 자치단체장님, 언론사,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거듭 '3·15의거 참가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며, 그동안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30

(사)3·15의거기념사업회

특집기획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 엄진아(변호사)

3·15의거특별법의 실천과 시민자치 완성
: 정원식(경남대 행정학과 교수)

3·15의거와 인권
: 이필우(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장)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염진아 변호사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드디어 제정·공포되어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민이 먼저 나서 민주화에 앞선 표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했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국민을 무력으로 어떻게 탄압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3·15의거만 한 것도 없다 할 것인데, 이제야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는 것이다.

시행된 법률의 내용은 크게 3·15의거에 대한 정의, 그에 따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협조, 재심, 그리고 국가의 기념사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이란 것은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 규범이다.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률' 이라 한다)은 기본적으로 3·15의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3·15의거에 참가하였던 사람들에게 대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법률의 이름에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것이라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3·15의거는 4·19혁명에 가려져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법률은 제2조에 정의를 두어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하여 마산지역에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마산은 당시 8·15광복으로 귀환 동포, 6·25전쟁으로 피난민이 정착하면서 도시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던 곳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재를 위한,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부정선거를 저지르자, 바로 그 당일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나서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였다는 것이다.

당시의 정권은 어린 학생들이 일어나서 말하고자 한 이야기를 묵살하고, 총칼로 제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산의 사람들은 다시 2차 의거를 하였고, 결국 이는 전국으로 퍼져, 4·19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러한 3·15의거의 정신을 모두 법률에 담을 수는 없지만, 이 법률에서 명확하게 당시 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규정하였다는 것은 3·15의거의 기본정신은 그래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 준다 할 것이다.

마산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3·15의거를 민주화 운동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공허하게만 들렸던 지난날에 비하면, 국가 권력이 법으로 제정하여 민주화 운동이라고 명명하였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뜻깊다고 표현해도 좋을 것이다.

이 법률은 현재까지 제대로 밝히지 못한 3·15의거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3·15의거 관련한 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이나 면소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재심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재심은 법률상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데, 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에도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원래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형사소송법상 제420조에서 정한 사유,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등이 허위임이 증명된 때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3·15의거와 관련한 행위로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과 그 유족들이 보다 쉽게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 재심사유의 범위를 넓힌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국가의 기념사업 의무를 규정한 부분 역시 향후 3·15를 기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이 법률은 법률 명칭에서부터 아쉬움이 크게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어째서 3·15의거로 희생당한 사람들의 명예만을 기리고, 그에 합당한 보상안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인지… 3·15의거가 4·19혁명보다 먼저 별개의 역사적인 의거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의의가 있으나, 3·15의거 당시에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다면 총에 맞아 다친 사람, 경찰을 피하다가 다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망한 사람 및 다쳤던 사람들 그리고 그 총칼을 휘두르는 국가권력을 겪은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지금껏 고통 받아 왔는데, 이 고통은 명예를 찾았으니 이제 잊어야 하는 것인가.

특히 처음부터 배상의 내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발의된 법률에는 있었으나 공포되고 시행되는 법률에는 없다는 점에서 아쉽다. 법률의 수정과정을 거치면서 중요한 부분을 뺐다는 것은 더욱 아쉽고, 아직도 3·15의거에 대한 평가가 저조한 것이라 여겨지는 대목이다.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시초인 3·15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그에 걸맞은 합당한 배상까지 모두 정리되어야 국가와 시민의 진정한 의미의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다른 특별법인 5·18광주 민주화 운동의 경우 처음부터 보상안이 함께 논의되었고, 부마항쟁, 4·19혁명 등도 보상안이 함께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0년이 지나 이제야 법률을 제정하면서 굳이 보상에 대한 부분을 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국가로서도 마땅히 3·15의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고 피해를 입은 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배상을 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이번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2010년에 3·15의거가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고, 2021년에 이 법률이 공포되어 2022년 시행되는 등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알겠으나, 1960년대에 민주화 운동의 효

시라 할 수 있는 3·15의거에 직접 나섰던 영웅들이 이미 70~80대의 나이를 가지고 있다. 세월은 가고 영웅들은 가는 세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시는데, 명예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60년을 기다려온 우리의 영웅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자신의 올바른 행동에 대해 정당하게 인정받고 대접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므로 3·15의거에 관한 진상이 규명되고 진상규명 조사를 통하여 참여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키고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는 이번 특별법 제정의 의미가 크다고 본다.

앞으로 3·15의거에 참여한 우리 지역의 영웅들이 그대로 잊혀지지 않도록 진실화해위원회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염진아 변호사

3·15의거특별법의 실천과 시민자치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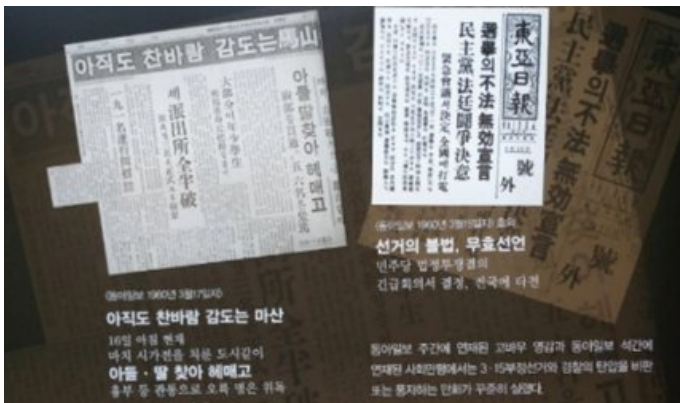
정원식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

1. 특별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 내용

마산시민에게는 3·15의거특별법 제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해준다. 3·15의거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으로서 우리나라 민주화의 모태라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4·19혁명, 10·16부마항쟁, 5·18민주화 운동 그리고 6월항쟁으로 이어지게 해주는 도화선이 되었다는 점이 이를 더욱 강하게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3·15의거를 지방의 한 작은 도시에서 벌어진 시민운동으로 치부하거나 4·19혁명의 일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산 시민항쟁에서 보여준 민주주의의 물결은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역사의 물결이요 신의 섭리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월간 교양잡지 『새벽 1960년 4월호』에 실린 「만화특집: 3·15 선거 만평」



국립3·15민주묘지 3·15기념관 소장

3·15의거특별법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바탕 위에서 제정되었으며, 이 역시 우리 시민들의 민주화 의지와 열망 그리고 자발적 시민참여와 노력으로 일궈낸 결과였다. 다름 아닌 당시의 시민의거에서 싹튼 마산 정신이 아닐까 싶다. 61년 전 3월 시민항쟁 당시 수많은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시위대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던 그 정신이 오늘까지 살아 숨 쉬면서 시민자치의 발판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3·15의거가 특별법으로서의 위상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계기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당시의 아픔과 고통들을 아물게 해주는 후속적인 조치들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특별법에 담긴 내용들이 지역 시민들이 납득하고 맞춤형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담보하는 것이다. 3·15의거 61주년을 맞아 우리 시민들은 또 한 번 더 지역주권과 시민정신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특별법의 특징과 제정 의의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요 법률 조항과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별법의 명칭은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며 약칭으로 〈3·15의거법〉으로 칭하고 있다. 법률 제18301호로 2021년 7월 20일 제정하여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률 명칭으로 ‘특별법’ 용어가 들어있지 않은 것은 이 법의 발의 당시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법의 제6조에서는 “3·15의거의 진상규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하여 다른 법률과의 차이를 두고 있어 특별법으로서의 우선권을 갖고 있다. 또한 제7조(특별재심) ①항에서는 3·15의거와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별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3·15의거법〉이 단일의 특별법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민주화 운동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3·15의거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 3·15의거는 4·19혁명의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 회복에 기여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이었다. 직접희생자 14명, 부상, 구금 등 250여 명 그리고 독립적인 국립3·15민주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점은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그리고 2010년도에 4·19혁명 기념일과 별개로 3·15의거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15의거가 4·19혁명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어 법적으로 독립적인 의거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서 진정한 역사적이고 국가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동법 제2조에서 “3·15의거”란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하여 마산지역에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 운동“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항쟁의 기간, 장소, 이유와 내용, 주체 등 그 핵심 주제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마산시민들에 의한 독립적인 항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2. 특별법 실천을 위한 행정적 과제

독재타도를 위해 목숨을 불사했던 분들이 당시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과 순수 시민항쟁에 대한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바라는 시민 주권적 마음은 상호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에 따른 몇 가지 중차대한 당면한 실천 과제를 제시해 본다.

첫째는 3·15의거특별법의 성격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특별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일이다. 법제처는 이 법의 제정이유를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 4·19혁명과 5·18민주화 운동과 버금가는 시민항쟁, 진상규명과 참여자의 명예회복, 한국 민주화 운동 정신의 계승”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내용만으로도 특별법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담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이다. 현재 입법예고 되어 있는 시행령(안)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데, 진상규명 조사와 신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공무원의 파견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규정하여 특별법의 실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는 특별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그리하여 그동안 3·15의거가 직접적인 독재타도 인정보다 미완의 의거요 항쟁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떼는 일이다. 특히 창원시의 행정 및 입법 자치단체의 관심과 역할로써 행·재정적 지원과 시민들의 동참을 이끄는 일에 지속적인 노력과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특별법 시행령(안)에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실행의지만 있으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2022년부터 1월 시행에 앞서 창원시는 특별법과 시행령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3·15의거와 관련된 입법조례는 『창원시 3·15의거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뿐이다. 시민항쟁 당시의 진상규명과 크고 작은 고통과 희생을 당한 민주투사들의 명예 회복과 그에 걸맞은 보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지역 시민 중심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3·15의거기념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가 아닌 창원시 자체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창원시의 행정적 지원과 시민 주도로 진상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깊고 폭넓은 조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제보와 정보 제공 등 자치의식이 필요하다.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만들어진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3·15의거 조사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하며, 조사의 편의와 효과성 차원에서 당연히 창원시에 꾸려져야 한다.

셋째는 3·15 시민의거와 관련된 유공자들의 처우 문제가 있다. 독재타도 항쟁에 참가하여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거나 체포, 구금되어 고문을 당하신 관련 당사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에 걸맞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별법 제정 전까지 3·15의거 관련 유공자는 3·15의거와 관련된 부상자 등 일부만이 4·19혁명 관련 유공자로 등록되고 부상치료자, 구속자 등 대다수는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특별법에 기반하여 「국가유공자법」과 「국가유공자단체법」에서 정한 4·19혁명 관련자의 공법단체와는 별도로 동법에 준하는 공법단체로 구성, 등록하여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는 2022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3. 3·15의거의 계승과 시민자치 완성

3·15의거가 시민운동으로서 성공을 거둔 요인으로서 시민자발적인 참여의 힘을 말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거야말로 지방에서 태동한 현대적 의미의 시민자치 뿌리이며, 이를 ‘민주마산정신’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데에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다. 오늘날 지방자치의 시대정신으로 수용하여 우리 지역의 시민자치로 착근시키는 계기로서 학습될 것이다. 3·15 시민항쟁으로 61년 전 부정부패와 정치 광란의 역사로 줄달음칠 때에 이 땅에 민주주의를 포기해야 할 위기상황을 반전시키지 않았던가. 당시 마산시민들은 민주주의를 단순히 머리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안았고 온몸으로 실천



『3·15의거 사진집』, 2002. p. 106, 108, 149.

마산시민들은 질서 속에서 정당한 권위를 존중하고 여기에 복종하는 공민적 자유를 외쳤다.

부정 속에서 변덕스럽거나 무분별한 자유가 아니라 정당한 권위를 존중하고 여기에 복종함으로써 존속되고 유지되는 공(시)민적 자유를 달라고 했다.

했던 것이다. 당시 자치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일사불란하게 자연의 섭리처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생각하였기에 연이어 그 물결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시민들이 원하는 민주적 자유는 공존적 상생과 번영을 약속하는 자유였다. 그 자유는 바르고 선하고 분별력과 질서의식을 지님으로써 무한한 창조 의 가능성을 제공하면서 시민의식과 자치 정신을 키워주었던 것이다. 우리는 당시의 시위 현장 사진 속에서 자유와 민주주권을 외치는 모습은 대본 없는 시민질서와 주체의식 그 자체를 엿볼 수 있다.

마산시민들은 권위의

3·15의거의 기본 정신인 ‘자유, 민주, 정의’를 계승·발전시켜 시민자치의 뿌리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과 시민사회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오동동문화광장’을 ‘3·15문화광장’이나 ‘3·15광장’으로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상시 공연하는 무대를 만든다든지, 청소년 문화제를 외부에서 연다든지 하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체험 학습장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15정신에 부응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콘텐츠 사업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3·15의거 기념일을 전후하여 민주·인권교육 주관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사업들은 3·15의거가 10·16부마항쟁과 3·18민주화 운동 그리고 6월항쟁으로 이어주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시작점이고 성지라는 역사적 의미를 담아서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는 일들이다. 오늘날 복잡하고 어려운 이 차디찬 현실을 당시의 시민항쟁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열정적인 자치의식에 스민 따뜻한 온기로써 녹여주기를 기대해 본다.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3·15의거의 ‘민주마산정신’이 오늘날 시민자치의 완성이로 확장해 가는 징검다리요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자치의식을 보여야 할 시점이다.



정원식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
 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
 지방분권경남연대 상임공동대표
 전 법정대 학장

3.15의거와 인권

이필우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장

창원시민-마산사람

2010년 통합창원시가 출범하면서 마산시민들은 창원시민-마산사람이 되었다. 올해부터는 준 광역시급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창원특례시 법안이 통과되고 승격에 따른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추구하는 정체성(가치) 통합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지역 시민의 정체성은 지역사회 속에서 형성되고 존중되고 계승 발전될 때 자존감뿐만 아니라 자기 효능감을 갖는 애향 시민이 될 것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여행지로 선택하는 세계 유명한 도시들이 오랫동안 존재해 온 데는 공통의 이유가 있음을 알고 있다. 도시 규모나 부가 아니다. 역사와 문화 속에 인간주의(humanism)를 추구하려 노력했고 보존을 넘어 오늘날에 계승, 승화시키고 있는 곳들에 발길이 가는 것은 인지상정이지 않을까.

사람 중심 창원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현재 창원시는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 시정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는 “사람 중심 창원 대변혁의 토대 완성”을 하는 해로 보도되었다. 창원시민으로서 반길 일이다. 그리고 특별시 승격으로 늘어날 자치재정 쓰임에는 ‘사람 중심’의 가치를 존중하여 도로, 교통, 공원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글쓴이가 살고 있는 신마산 서항지구 수변공원에는 저녁 때쯤이면 마산만의 밤바다 경치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부쩍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공원에서 종종 길거리 음악 공연이 펼쳐지기도 한다. 저마다 하루일과를 지낸 모습과 사연들은 다양하겠지만 혼자나 삼삼오오 편히 즐기고 있는 시민들을 보며, 문득 작지만 이런 것들이 모일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생각들이 이어진다. 이러한 문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노력과 오랜 과정이 있었는가의 궁금함이다. 이곳에서 창동 쪽으로 조금만 걸으면 낯날 시큰해지는 한쪽 부둣가에 이른다. 멀지 않아 창원시민으로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을 갖고 이를 향유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전당’이 들어선다고 하니 창원시민을 넘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진다.

마산중앙부두

얼마 전 마산중앙부두에 갔다. 김주열 열사의 주검이 떠오르고 발견된 곳이다. 부둣가 경계면 끝자락에는 마산바다를 향해 경사지게 설치된 김주열 열사 동판원형 표지석을 만날 수 있다. 오른쪽 야외무대 벽면에는 관련 내용과 그림들이 그날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이제는 동상까지 제막되고 조금씩 민주성지로서의 의미가 갖춰지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이 있기까지 많은 분의 노력과 협심이 있었음에 창원시민은 고마워할 것이다.

한편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남는다. 김주열 열사 표지석 바다 정면 곁에 계선주(繫船柱/bollard)가 굵은 쇠말뚝처럼 자리하고 있다. 물론 부둣가 배를 정박하기 위해 당연히 있어야 할 튼튼한 구조물로서 설게 당시부터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 계선

주 앞에 설치했어야 했는지 까닭은 모르겠으나 민주주의와 자유를 외쳤던 열사의 뜨거웠던 시선과 목소리가 육중한 쇠기둥에 눌러있는 듯했다. 그래서 제안한다. 표지석을 시작으로 바다에 도넛 모양의 지름 19m 60.4(±11)cm의 ‘김주열 스카이워크’를 설치하여 방문객들이 바다 위에서 상념에 잠겨볼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울타리 설치가 우선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이 단체로 방문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국화축제가 한창인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년에는 창원시가 축제장을 찾는 분들께 이곳 가까이 김주열 열사 인양지가 있음을 안내하고 추모하고픈 시민들이 꽃 한 송이 헌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하고.

3·15의거와 4·19혁명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정의’

역사적 사건은 반드시 앞뒤 맥락이 있으며 3·15의거도 그렇다. 1960년 2월 28일 대구 경북고 학생들에 의해 촉발된 시위는 다른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로 연일 이어졌다. 그리고 서울을 거쳐 3월 8일 대전고, 이후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일어났고 구호에 담긴 공통의미는 ‘학원의 자유(정치로부터)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로 표출되었다. 정·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고교생 시위는 더욱 확대되었고 공권력과의 충돌은 격화되었다.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참정권’을 행사하는 3월 15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공정한 선거 직무를 수행해야 할 사람들에 의해 참정권을 유린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리고 3월 15일 선거당일 마산의 거의 모든 개표소에서 불법으로 자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를 용납할 수 없는 참정권 침해로 본 마산 시민과 학생들의 분노 표출이 대규모 시위로 번져나갔다. 국가로부터 생명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받아야 할 시민들이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자행된 공권력의 폭력에 의해 이날 하루에만 많은 시민과 학생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 4월 11일 김주열 군의 참혹한 시체 발견으로 촉발된 마산의 학생 시민 시위는 3일 간이나 지속됨으로써 전국적으로 번진 시위가 4·19혁명으로 이어졌다. 하여, 3·15의거와 4·19혁명은 ‘자유·

민주·정의'라는 공통 가치를 표방하고 있다.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갖는 의미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이러한 사건들을 인권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때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3·15의거와 4·19혁명이후에도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시민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죽임을 보아왔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성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어진 기본권을 국가가 부당한 공권력을 사용해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이전 정부들도 국제연합 탄생일인 유엔데이(UN-day 10. 24.)를 1953년부터 1976년까지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기념한 것으로 볼 때 인권의 중요성을 알고 관심 가졌다고 짐작된다. 그러나 유엔이 탄생시킨 '세계인권선언'에 담긴 인권보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보장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3·15의거와 4·19혁명을 거치면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이후 광주시민들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인권과 평화'의 가치로 다가섰던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우리 사회도 '인권' 개념이 좀 더 일찍 천착되고 좀 더 널리 인식되었다면,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로 정의되는 3·15의거는 '부정선거에 저항하며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외친 마산시민에게 개인의 생명권과 존엄권을 앗아간 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이라는 의미가 더해져 정립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오늘 3·15의거 정체성을 지니고 사는 창원 시민과 학생들에게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해 세계와 함께 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2021년 7월 29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8301호'로 제정되었고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중요한 내용은 "3·15의거"의 법적 정의뿐만 아니라 명예 회복의 목적으로 "인권 신장과 민주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 향후 3·15의거 정신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도 함께 지향함으로써 세계 시민과 함께 하는 3·15의거로 거듭나길 소망한다.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인권

‘유엔헌장(=국제연합헌장(1945. 10. 24.))은 인권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전문)하고, 인종, 성별, 언어, 종교 등에 차별 없이 모든 인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국제연합(UN·United Nation)은 출범 당시 회원국 51개국에서 현재 193개국에 이르며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부터 국제연합 가입을 위해 노력했지만 냉전시대 등 다양한 이유로 1991년에 이르러 남북이 동시에 가입하게 되었다.

알다시피 「세계인권선언」은 ‘유엔헌장’에 담긴 정신에 따라 제정되었다. 인류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난 후, 전쟁이 갖는 인권침해에 대한 큰 반성을 하는 한편, 인간이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1948년 12월 제 3회 국제 연합(UN) 총회에서 채택되고 선언되었다. 현재까지 존중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의 포괄적 기준이라 할 수 있으나, 도덕적 구속력인 ‘선언’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제연합은 점진적으로 실효성 있는 규약들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에게 비준을 요구하게 된다. “세계인권선언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국제인권법이 필요해짐에 따라 1966년에 채택되고 1976년에 발효된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B규약)’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A규약)’이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일반적으로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Rights)으로 불리고 있다.

A·B규약이 인권에 대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달리, 특정한 주제 또는 집단(group)에 초점을 맞추어 채택된 국제인권협약으로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이 있다. 이들 4개 협약은 A·B 규약과 함께 전통적으로 주요(core) 인권협약으로 지칭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협약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절차적 성격을 규정하는 5개 선택의정서가 있다. 이외에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강제실종협약이 채택되어, 여성과 아동 이외에도 이주노동자, 강제실종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적 규범이 새로 제정되었다.”(‘외교부’ 자료 요약)

이후 대한민국은 유엔이 제정한 인권 분야의 협약들을 비준하고 실천함으로써 2006년부터 지금까지 5번째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이사국으로 선출되었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국제인권협약문

협약명	가입서/비준서 기탁일	발효일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B규약)	1990. 4. 10	1990. 7. 10
– 제1선택의정서[개인진정]	1990. 4. 10	1990. 7. 10
–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미가입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A규약)	1990. 4. 10	1990. 7. 10
– 선택의정서	미가입	
인종차별철폐협약	1978. 12. 5	1979. 1. 4
여성차별철폐협약	1984. 12. 27	1985. 1. 26
– 선택의정서	2006. 10. 18	2007. 1. 18
고문방지협약	1995. 1. 9	1995. 2. 8
– 선택의정서	미가입	
아동권리협약	1991. 11. 20	1991. 12. 20
– 제1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	2004. 9. 24	2004. 10. 24
– 제2선택의정서[아동매매·성매매·음란물]	2004. 9. 24	2004. 10. 24
– 제3선택의정서[개인진정]	미가입	
장애인권리협약	2008. 12. 11	2009. 1. 10
– 선택의정서	미가입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미가입	
강제실종협약	미가입	

자료 출처: 외교부) 외교정책) 인권

「세계인권선언」으로 본 3·15의거

첫 「대한민국헌법」(제1호 제정, 시행 1948. 7. 17.)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1960년 일어났던 3·15의거 정신과 역사적 의의는 마땅히 여기에 부합한다. 다만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찾아보고자 3·15의거 관련 사진집(출처: 3·15의거기념사업회)에 실린 사진들의 설명을 요약해 제시하고, 이를 「세계인권선언」에 접목하였다. 전체 조항이 연관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편의상 자의로 연결지어 보았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세계인권선언」 이후 제정되었고 대한민국이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3·15의거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았다.

부정선거 현장

- *‘3인조, 5인조 투표장 투입’, ‘4할 사전투표’, ‘공무원, 경찰 관권 동원 부정선거 획책’
- *사전 4할 투표 등으로 총유권자 수보다 투표자 수가 많이 나오자 정당성을 위장하기 위해 투표함을 불사르기도 함
- *강제 입당원서에서부터 금권이 난무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제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의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부정선거 항거, 그리고 죽음

- *시위자들은 3월 15일 밤 경찰에 체포되어 마산시청으로 끌려갔다. 경찰봉에 맞고 발길에 차여 많은 부상을 당함(고등학생 포함)
- *3월 15일 무자비한 발포로 무학초등학교의 담벼락에 난 총탄 자국. 경찰은 공포탄을

쏘았다고 발뺠했지만 살상을 목적으로 사람의 가슴과 머리를 겨냥해 발사한 것이 확인됨.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경찰 만행, 체포, 구금

*통행금지령이 발동되어 통금에 걸려 창동 (구)학원사 앞 거리에 많은 시민들이 잡혀 있는 모습

*연행되고 있는 고등학생들

*경찰은 무고한 시민들을 마구 연행해 가혹한 고문을 가하기도 함

*무고한 시민을 북마산 방화범으로 누명을 씌워 체포, 이후 말할 수 없는 고문을 가함

*무고하게 마산경찰서에 구속되어 있는 시민과 학생들의 석방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 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별 받을 때,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평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1조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공개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오, 김주열!

- *3월 15일 밤 행방불명된 김주열 군이 4월 11일 마산 중앙부두 바다에서 발견되어 공권력(경찰)의 잔인함이 세상에 폭로됨
- *바다에 떠 있는 김주열 군의 시체가 배 위에 건져 올려진 모습
- *김주열 군의 시체가 안치된 도립마산병원 앞에서 시체를 내놓으라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학도들이여, 일어나라!

- *김주열 군의 시체가 발견되자 마산의 고교생들은 다시 분개하여 거리로 뛰어나옴
- *마산시민과 고교생(마산간호고·마산고·마산공고·마산상고·마산성지여고·마산여고·마산제일여고·창신고)들이 연도를 메우고 시위
- *마산성지여고 학생들이 김주열 군의 영정에 꽃다발을 바치기 위해 행진하면서 “독재 타도”, “학원의 자유보장”을 외침
- *태극기를 앞세운 채 마산고등학교 학생들이 “폭력 경관 잡아내자”는 구호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
- *고등학생들 시위 구호 “1. 고문한 경찰을 법률에 호소하여 정당한 처벌하라. / 2. 3월 15일에 잡혀간 사람을 무죄 석방하라.”, “학생에게 자유를…”
- *경찰은 여학생들의 시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강력한 저지선을 펼쳐 그들의 행진을 막았으나 비폭력적으로 경찰 제지에 대항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제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속의 ‘생명권·표현의 자유·참여권’

제6조 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며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생명의 박탈이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고 있는 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제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 시에 체포 이유를 통고 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 받는다.

5.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가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모든 시민은 제 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 (b)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 (c) 일반적인 평등 조건 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3·15의거 창원은 인권도시

2000년대 초부터 우리 사회에 인권도시를 만들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 최초의 인권운동이라 불리는 ‘형평운동’이 일어났던 진주에서는 2000년 초기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진주인권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상남도 인권보장 조례」(2013. 12.),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4. 12. 26.),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7. 1.)가 제정되었다. 이후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국 각 지역에서 「○○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라

는 명칭으로 제정되고 있다. 경남은 밀양(2018. 12.), 통영(2019. 12.), 창원(2020. 6.), 김해(2020. 7.), 고성(2020. 12.), 진주(2020. 12.), 거제(2021. 6.)가 제정·시행되고 있다.

조례 제정만으로 인권 친화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사회 운동 중심에서 나아가 제도를 통한 방향 설정은 보편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창원시는 여기에 더해 지난 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내년 초에는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제 창원시민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인권’을 계승·승화시킬 수 있는 추진력과 일정표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이필우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강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전문위원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 센터장

특집기획: 3·15의거발원지 기념관 개관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민주화의 출발점에서 있습니다



1960년 당시



2021년 10월 26일(화) 창원시 마산합포구 민주화거리(명예도로명, 문화의 길 54) 시작점에 있는 '3·15의거발원지 기념관'이 개관했다. 1960년 3월 15일 바로 이곳에서 부정선거로 인해 표를 잃은 마산시민들이 모여들며 민주당원들이 전국 최초로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가두시위를 시작한 곳이다. 목조건물의 옛 민주당사가 위치했던 자리며, 1977년 건립된 건축물을 리모델링 했다. 기념관이 들어서기 전까지 3·15의거 발원지를 나타내는 동판이 바로 앞 거리에 박혀있던 상황이었다.

그동안 (사)3·15의거기념사업회를 비롯한 민주화 단체, 지역구 시의원 및 언론 등 각 계각층에서 옛 민주당사 보존과 3·15의거 기념관 건립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건의했다. 이러한 목소리에 창원시는 민선 7기 출범과 사업비 총 45억 원을 확보하여 2019년 7월 건물매입, 2020년 9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다. 그동안 공사과정에서 민원(연접건물 민원 협의에 따른 공사 지연)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주민과 상인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2021년 7월 3·15의거발원지 기념관 건립공사를 완료했다.



기념관은 총면적 743.84㎡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지하 1층 영상실, 지상 1~3층 역사 전시실로 3·15의거 당시 시대 상황을 표현하고 있으며, 4층은 사무공간과 회의실로 운영된다. 1층에서 4층은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통해 이동할 수 있다. 지하 1층은 계단을 통해 이동할 수 있다. 화장실은 1층에서 4층까지 층마다 배치되어 있다.



1층 전시실

지하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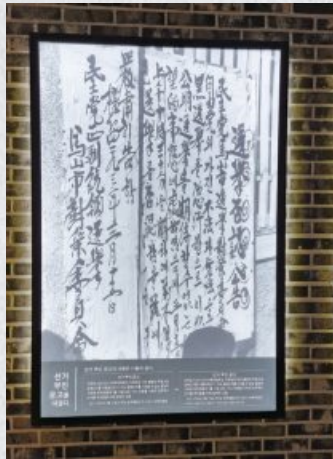


기념관은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사진, 영상, 유물 등을 통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기념관 내 자료는 (사)3·15의거 기념사업회 소장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시민, 학생 등 방문객에게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2021년 8월 6일 ‘3·15의거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9월부터 학예사 등 3명의 전문직원이 채용되어 운영되고 있다.

기념관 정문을 열고 들어서면 안내접수대에서 코로나19 발열 체크 및 방문 등록과 입장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옆 1층 전시실에 들어서면 ‘깊은 울림’을 주제로 ▲대한민국 현대사 연대표 ▲3·15의거 의의 ▲3·15의거 발생 배경 ▲옛 민주당사 재현 입체영상 등 사진 자료와 설명을 볼 수 있다.



부정선거가 자행되다



선거부인공고를 내걸다



3·15의거가 일어나다





2층 전시실



3·15선거 무효 선언문



3·15의거 12명의 민주열사



3·15의거 발생상황 및 이동 경로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통해 2층 전시실에 들어서면 ‘강간한 울림’을 주제로 ▲3·15 부정선거 방법 ▲3·15의거의 전개 과정 ▲3·15의거와 4·19혁명 등 사진 자료와 유물, 영상 방명록 및 인증사진 포토존이 구성되어 있다.

3층 전시실은 '힘 있는 울림'을 주제로 ▲민주화 운동사 ▲민주화 유적지 ▲OX 퀴즈 ▲민주화 서적 ▲민주화 운동 교육실 등 사진 자료와 영상시설이 갖춰져 있다.



3·15의거 OX 퀴즈
민주화 유적지
민주화 운동사



3층 전시실



지하 1층 휴게공간

지하 1층 영상 상영관은 3·15의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감상할 수 있으며, 휴게공간에는 3·15의거를 재현한 아트조형물을 볼 수 있다.

특히, 마산 원도심에 자리한 3·15의거발원지 기념관은 국립3·15민주묘지에 있는 3·15의거기념관과 더불어 그날의 3·15의거 역사 및 ‘자유·민주·정의’인 3·15의거 정신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서 일상 속에 스며들 듯 시민들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기념관에서 느낀 민주화 운동의 다양한 기억을 재해석하고 기념관 문을 나서면 그날의 함성이 다시금 들리듯 대한민국 민주화의 출발점인 이곳에서 바쁜 일상에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민주화 운동의 함성을 듣게 될 것이다. 더불어 역사 현장인 민주 성지 마산 3·15의거 유적지 코스와 연계하여 걸으면 의로운 그날인 3·15의거를 가슴 깊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3·15의거발원지 기념관’에서는 1960년 3·15의거와 4·19혁명이 일어났던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민주화의 역사를 당시의 사진과 영상, 유물을 통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운영시간: 화요일~일요일 09:00~18: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설·추석 당일

관람료: 무료

찾아오시는 길

교통편

시내버스

*순안산부인과/오동동문화광장 정류장 하차(도보 3분 소요)

100, 252, 258, 262, 49, 51, 54, 29, 53, 77

*불종로 이인창치과 정류장 하차(도보 5분 소요)

100, 252, 257, 258, 262, 263, 54, 71, 29, 49, 53, 77

주차시설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집논단

마산 3·15의거에 '마산 사람'이 없다?

: 김정대(경남대 명예교수)

4월혁명의 서사구조 - 3·15의거가 축소된 배경

: 윤상현(경남대 역사학과 조교수)

코로나19 시대와 민주주의의 미래

: 김재형(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조교수)

마산 3·15의거에 ‘마산 사람’이 없다?

김정대 경남대 명예교수

머리말

“마산 3·15의거에 마산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3·15의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전북 남원 출신의 김주열 열사 한 사람뿐이기 때문이다. 1975년 4월에 쓴 <동아일보>의 한 기획 기사는 이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오른쪽으로부터 오성원 · 김삼웅 · 김중술 · 김의규 · 김효덕 · 김영술 · 김용실 · 김영준 · 김주열 · 김영길 · 강용기 · 김동섭 · 김평도. 김주열의 이름 외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름들이다.”¹⁾ 3·15유영봉안소에 안치된 ‘어린 학생·청년 13명’의 영정을 취재한 기사에서 나온 표현이다.²⁾ 그로부터 거의 반세기가 흐른 현재까지도 이 인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사실 때문일까, 3·15의거 사망 희생자 14분 중 동상이 세워진 유일한 대상도 김주열 열사뿐이다.

1) 「비화 제1공화국 <505>: 제18화 4·19혁명 10」, <동아일보>, 1975. 4. 14.

2) 1960년 6월 원호칭(지금의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공식 희생자(사망 희생자)는, 위 <동아일보> 기사에서 김동섭 님이 빠진 열두 분이다. 3·15의거 당시 중상을 입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1961년 2월 28일과 1963년 11월 21일에 각각 작고한 조현대 · 김동섭 님도 희생자로 간주하여 모두 열네 분 열사를 인정하지는 견해도 있다. 현재는 3·15민주묘역으로 옮겨진 이 유영봉안소는 마산합포구 신포동, 이전의 3·15기념회관 별채로 존재했었다.

‘3·15의거 인물’로 김주열만 떠올리는 것은 3·15의거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일이다. 14명의 사망자, 숏한 부상자, 그리고 의거의 거리에서 목숨 걸고 부정 선거를 규탄한 이루어야 할 수 없는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가 3·15의거인데, 한 인물만 부각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일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렇게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까닭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행방불명된 김주열 군이 27일 만에 ‘최루탄 시신’으로 마산 앞 바다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나머지 열사들의³⁾ 희생과 헌신을 널리 알리는 일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다.⁴⁾

이 글은 김주열 열사처럼 나머지 열사들의 이름이 우리 귀에 익어서 “김주열의 이름 외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름들”이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작성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제1차 3·15의거와 제2차 3·15의거가 갖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짚어 볼 것이다.

2. 김주열 열사는 왜 그렇게 강렬하게 기억되는가?

3·15의거는 제1차 의거와 제2차 의거로 나뉜다. 전자는 당시 집권당이던 자유당에 의해 가공할 부정 선거가 자행되었던 그해 3월 15일 경남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항쟁이

3) 열네 분 열사를 ‘김주열 열사’와 ‘나머지 열사들’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 글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김주열의 이름 외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름들”이라는 <동아일보> 보도 내용 때문에 편 의상 그렇게 한 것이다. 해마다 3·15의거 기념식 하루 전에 열리는 ‘추모제’, 3월 15일 당일에 개최되는 ‘기념식’, ‘위령제’ 등에서는 모든 열사가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 당연한 일이다.

4) 그동안 3·15의거기념사업회에서는 여러 열사를 알리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대표적인 예로, 뮤지컬 ‘삼월의 그들’(2020.3.21.~25., 서울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연극 ‘너의 역사’(2020.8.12., 밀양. 2020.10.8., 광주)를 통해 구두담이 소년으로 3·15의거에 참여하여 산화한 오성원 열사를 부각한 점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전통 있는 3·15전국백일장, 3·15청년문학상, 3·15청소년영상제(UCC 공모전), 문학의 밤, 3·15대음악제, 3·15의거 유적지 답사 등을 통해 3·15 영령들을 널리 알리려 애썼다. 그러나 각 열사와 그 행적을 시민들(국민들) 머리에 각인시키는 일을 꾸준히 해 오는 데에는 부족했다는 점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다.

었다. 경찰이 쏜 총기류를 맞아 여덟 명이 유명을 달리했고⁵⁾ 수많은 중·경상자가 속출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유혈 시민 항쟁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갖게 되었다. 제2차 의거는 1960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역시 마산에서 일어난 엄청난 항쟁이었다. 1차 의거 때 행방불명이 되었던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항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발견됨으로써 촉발된 것이었다. 발견되었을 당시 그의 얼굴에는 최루탄이 박혀 있어 시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그림-1〉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발견된 김주열의 최루탄 시신. 〈부산일보〉 허중 기자. 1960. 4. 11.



〈그림-2〉 1973년 풀리처상을 받은 '베트남: 전쟁의 테러'. 〈AP통신사〉 후잉콩 닉 우트 기자. 1972. 6. 8.

5) 김삼웅, 김영준, 김영호, 김용실, 김주열, 김효덕, 오성원, 전의규(가나다순) 등 여덟 열사를 말한다. 이 가운데 김영호·김효덕·김용실·김주열 열사는 현장에서 운명했고, 나머지 다섯 열사는 중상을 입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3월 16일(오성원·김삼웅), 3월 18일(김영준), 3월 19일(전의규), 4월 10일(강용기)에 유명을 달리하였다. 2차 의거 때는 김영길 열사가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4월 26일 오후 부산에서 온 원정 시위대를 계엄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마산의 김평도·김종술 열사가 사망하였다. 1차 의거 때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조현대·김동섭 열사는 끝내 부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1961년 2월 28일, 1963년 11월 21일에 각각 작고하였다. 그동안 3·15의거 희생자 수는 12명 또는 13명으로 오락가락한 적이 있었다. 이것은 사망 시점을 어디까지로 잡을 것인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1차 의거에서 시작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전후 시위 때까지 사망한 사람, 또 그 기간에 부상을 입고 치료하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을 '3·15의거 사망자'로 친다는 것이다.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퇴원하여 생업 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로 복귀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마산 3·15의거 사망자 수는 모두 14명이 된다.

필자는 1960년 3월 15일 당시 마산상업고등학교 수험생⁶⁾ 김주열 군의 최루탄 시신 사진(〈그림-1〉)을 대할 때마다 AP통신사 후임 콩 니 우트 기자가 찍은 ‘베트남: 전쟁의 테러’라는 사진(〈그림-2〉)을 떠올린다. 1972년 6월 8일 베트남 사이공(지금의 호찌민시) 외곽의 트랑 방 마을, 스물한 살의 AP 사진기자에게로 판 타이 킴 폭이라는 아홉 살짜리 소녀가 울며 뛰어왔다. 미군이 그 마을에 네 개의 네이팜탄을 투하한 것이 원인이었다. 엄청난 화력과 폭발음에 놀라 근처 사원에 대피해 있던 사람들이 뛰어나왔을 때였는데, 소녀는 무명옷이 불타 벌거벗은 채였다. 얼른 사진을 찍은 닉 기자는 킴에게 물을 뿌린 뒤 다친 아이들을 차에 태워 병원으로 갔다. 포연이 자욱한 마을을 등지고 공포에 질려 달리는 아이들, 이와는 대조적으로 태연하게 걸어오고 있는 군인들, 초점이 나간 이 한 장의 흑백사진은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아이콘이 됐다.⁷⁾ 이 사진이 반전 운동을 확산시키는 전기를 마련해 주었고 네이팜탄 사용을 금지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될 당시 김주열 군은 얼굴에 쇠붙이(최루탄)가 꽂힌 채 두 주먹을 쥐고 꼳꼳이 선 듯한 자세였다. 그 시신을 인양 현장에서 직접 지켜본 시민들이나, 처참한 모습의 시신이 도립마산의료원으로 옮겨져 안치된 모습을 본 시민들은 눈이 뒤집혔다. 시신 사진은 〈부산일보〉 허중 기자에 의해 국내는 물론 국외로도 빠르게 타전되어 대한민국 자유당 정권의 극악무도함을 만방에 알리는 메신저가 되었다.

사망 희생자 가운데, 제1차·제2차 3·15의거를 통틀어 가장 적극적으로 의거에 참여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필자는 주저하지 않고 당시 마산고등학교 1학년 김용실 군을 꼽는다. 그는 1학년 B반의 급장으로, 키 크고 잘 생기고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통솔력이 있는데다가, 정의감과 봉사정신까지 뛰어난 학생이었다. 그런 김용실이 목하의 부정

6) 당시 김주열 군은 1960학년도 마산상업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기다리던 참이었다. 예정된 합격자 발표 날짜는 3월 15일이었으나, 그날이 정·부통령 선거일로 지정되어 공휴일이 되는 바람에 발표 날짜는 3월 16일로 미루어졌다. 따라서 그때 김주열 군의 정확한 신분은 ‘마산상업고등학교 수험생’이다. 이 상태를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한 바 있다. “김주열 군은 16일 마산상고에 합격되었지만 합격의 기쁨도 가져 보지 못한 채 눈을 감고 말았다.”(『비화 제1공화국』(515): 제18화 4·19혁명 20, 〈동아일보〉, 1975. 5. 3.)

7) ‘21세 때 네이팜탄 소녀 특종 … 63세 난 아직 현장 기자’, 〈중앙일보〉, 2014. 6. 26. 참조.

선거 작태를 보고 가만있을 리 없었다. 마산고등학교 학생 시위를 사전에 주동했을 뿐만 아니라, 미리 친인척들에게 작별의 인사까지 하고 의거에 참여하였다.⁸⁾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갖지 않고서 이런 일을 감행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경찰이 그에게 ‘빨갱이’ 누명까지 씌운 것만 보아도 김용실의 역할이 어떠했는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그렇게 온몸을 불사르며 의거에 투신한 김용실조차, 특별히 3·15의거에 관심을 갖는 일부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인물이다. 그에게는 김주열이 갖는 최루탄 시신 사진과 같은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던 것이다. 극적인 사진의 힘은 이렇게 위대하다.

최루탄 시신의 파장은 매우 컸다. 마산에서는 4월 11일 저녁부터 한밤까지 한 차례 시위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또 한 명이 숨지고 십여 명이 부상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1차 의거 때 경찰의 총기류 난사가 국내를 넘어 국제적 이슈가 되었던 터라 4월 11일 밤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실탄 사격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났다는 것은 그날 밤 시위의 심각성을 잘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4월 12일에는 마산 시내 8개 고교 연합 시위,⁹⁾ 4월 13일에는 해인대학(지금의 경남대학교) 학생들의 시위가 잇따라 일어났다.¹⁰⁾ 각 시위 때마다 헤아릴 수 없는 시민들이 이에 동참한 것은 물론이다.

분노의 바람은 북상하였다. 4월 18일 고려대생들의 시위가 일어났고, 이것은 4월 19일

-
- 8) 이 내용은 필자의 증언 채록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2021년 10월 27일 하오 3시). 증언을 해 주신 분은 김용실 열사의 고종형이자 마산고등학교 21회 동기인 박종근 님이다. 증언에 앞서 박종근 님은 ‘회고록: 마지막 인사 …’라는 조그마한 문서를 필자에게 전달해 주었고, 이 문서를 접한 필자가 박종근 님을 만나 증언을 들었던 것이다. ‘회고록’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들어 있다. “(전략) 헤어졌는데 알고 보니 용실이는 모든 친척 집을 찾아가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날 3·15 데모에 나가 총탄을 맞고 사망하였습니다. 결국 용실이는 친척 집을 다 돌아보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헤어졌다’는 것은 1960년 3월 15일 점심시간에 김용실이 고종형 집을 찾아 점심을 먹고 헤어진 것을 말한다. 김용실은 둘째 고모님 집(박종근 님 집)을 시작으로 하여 주변 친인척 집에 작별 인사를 다녔던 것이다.
- 9) 마산고등학교, 마산공업고등학교, 마산상업고등학교, 창신고등학교, 마산여자고등학교,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 성지여자고등학교, 마산간호고등기술학교(지금 마산대학교의 전신)의 여덟 학교이다.
- 10) 해인대 학생들의 시위는 당시 우리나라 대학 가운데 최초로 일어난 것이었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개략적 내용은 필자가 쓴 「3·15의거는 새롭게 평가되어야 한다」 [『3·15의거』 22호(2021년)]의 164쪽~166쪽을 참조할 수 있다.

대규모 ‘피의 화요일’ 시위로 이어져 4·19혁명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4월 25일 전국 대학 교수들이 ‘시국 선언문’을 낭독하고 거리에 나서자 자유당 정권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다. 4월 26일 마침내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였다. 이와 같이 마산 3·15의거는 우리나라 민주 발전에 크나큰 역할을 하였다. 1차 의거가 없었다면 김주열의 최루탄 시신도 없었을 것이고, 김주열의 최루탄 시신이 없었다면 2차 의거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마산에서 제2차 의거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4·19혁명을 통한 이승만의 그렇게 빠른 하야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은 분명한 일이다.¹¹⁾

3. 나머지 열사들은 왜 그렇게 기억되지 않는가?

우리는 불의에 맞선 마산 3·15의거를 얼마나 알고 있으며, 거기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필자는 필자 자신의 경험을 통해 찾아보기로 한다. 부정 선거가 판을 쳤던 1960년 3월 15일은 필자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기 보름 전이 되던 때였다. 1952년~1960년의 우리나라 학년도는 4월 1일에 새 학년이 시작되어 이듬해 3월 31일에 끝나는 것이었다. 필자의 고향은 당시 경상남도 창원군 상남면(지금의 창원시 의창구 일부 및 성산구 일부 지역)이었다. 마산에서 떨어진 시골이었고 코흘리개 시절이어서 당시 3·15의거가 일어났는지 어땠는지를 전연 알지 못했다. 그와 같은 상태는 초등학교를 다닐 동안에도 마찬가지였다.

막연하긴 했지만, 필자가 처음으로 3·15의거를 알게 된 것은 마산으로 중학교를 다닐 때였다. 3·15의거탑 덕분이었다. 당시 우리는 기차 통학을 했는데, 구마산역에서 마산역(이른바 ‘신마산역’)으로 기차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어느 지점에 의거탑이 차창으로 보였다. 학교에서 구마산역으로 갈 때도 3·15의거탑은 반드시 거쳐야 할 지점이었다. 높이 솟은 탑이 매우 아름다웠고, 검은 색깔로 형상화된 채 한 손을 높이 든 형·누나·아저씨

11) 물론, 다른 형태의 민주화 시위는 끊임없이 일어났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예상 밖 빠른 퇴진의 직접적 원인은 마산 3·15의거가 제공한 것이다.

의 모습이 어린 마음에도 참 의연(毅然)해 보였다. 그러나 내 모교 마산중학교에서 3·15의거 관련 얘기를 들은 기억은 전연 나지 않는다. 3월 15일이 되면 선생님들이 의거 얘기를 들려주셨을 수도 있었겠는데, 남아 있는 기억은 없다는 것이다. 때때로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 관람을 했었고, '3·15회관'은 우리가 들르곤 하던 4대 영화관의 하나였다(시민극장·중앙극장·강남극장과 함께). 그렇지만 그곳이 3·15의거를 기념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지어졌고, 별채로 영령보관소가 있다는 정보 또한 거의 알지 못했다. '노트르담의 꼽추, 아라비아의 로렌스, 벤허' 등등을 3·15회관에서 본 기억이 또렷한 점과 비교해 보면 이것은 참 신기(?)하기까지 한 일이다.

필자가 3·15의거를 어느 정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마산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난 뒤였다. 당시 학교 서쪽 동산 입구 히말라야삼나무 앞에 검은 색깔의 비석 하나가 서 있었다. 앞면에는 한자 세로글로 '김용실·김영준군 민주의거추념비'라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설립 취지를 알리는 긴 글이 실려 있었다.¹²⁾ 그러나 마산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이 비에 대해서, 또 3·15의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으셨던 것 같다. 당시 필자의 생각은 선배님 두 분이 어떤 역사적인 일에 동참하여 젊은 나이에 먼저 가셨구나 하는 정도였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저세상으로 갔다는 생각에, 그 추념비 앞에 가면 '무서움' 같은 것을 느꼈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랬다. 3·15의거 중심 학교의 하나였던 마산고등학교에서조차도 3·15의거는 '묻어둔' 역사였다. 그것은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1960년대 후반, 1970년 초반의 시대 상황과 맞물려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3·15의거를 어떻게 대접해 왔는가 하는 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은 당시 일부 중학교 사회 교과서나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기술된 3·15의거(와 4·19혁명)의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¹³⁾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가 온갖 부정과 협잡 아래 실시되니 이날 마

12) 이 비는 1960년 7월 15일에 세워졌다가, 1992년 4월 19일에 정문 오른쪽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건립되었다.

13) 교과서 관련 내용은 『3·15의거사』(3·15의거기념사업회, 2004년), 600~601쪽을 참조한 것이다.

산에서는 분노에 찬 시민들이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데모를 하다 경찰과 충돌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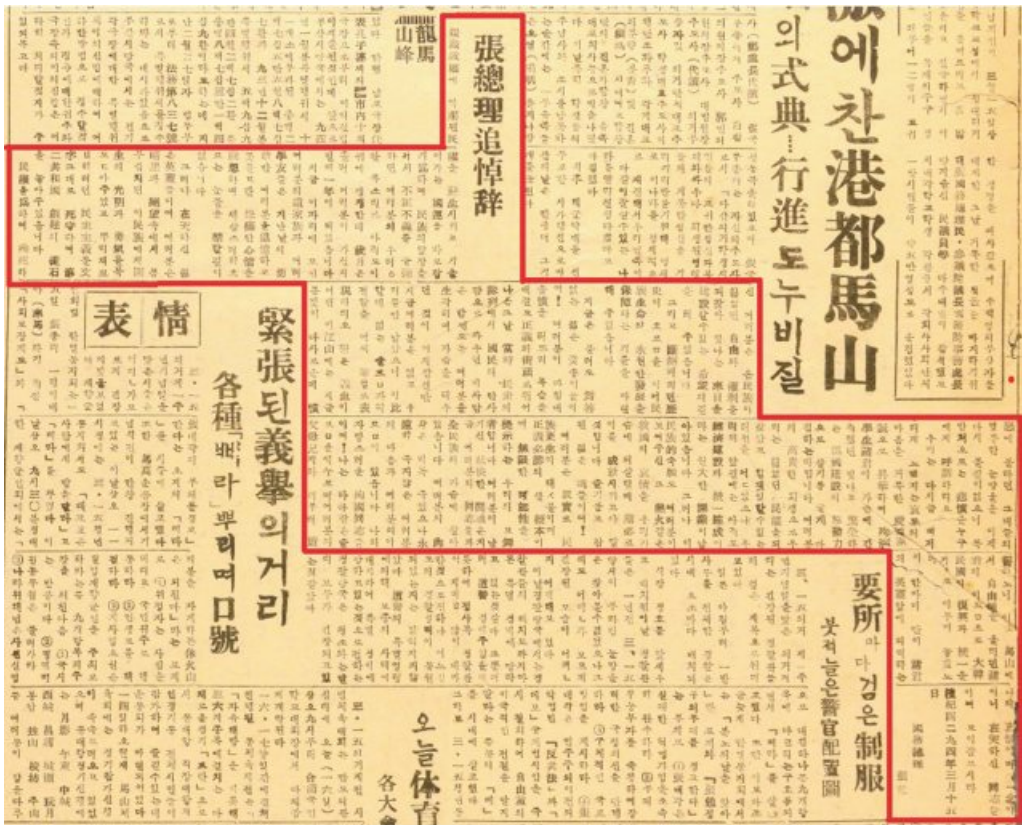
이때 행방불명된 한 학생의 시체가 4월 11일 머리에 최루탄의 파편이 박힌 채 해상에 떠오르자, 그 처참한 모습에 격분한 마산 시민들이 다시 들고일어나 데모를 벌였다. 이 마산의거를 신호로 4월 19일에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도시에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데모가 성난 파도처럼 일어났다.”

위 내용은 1966년에 발간된 중학 사회 2학년 교과서(153쪽)의 내용이다. 3·15 부정 선거로 촉발된 데모를 ‘마산의거’라 칭하면서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해 놓았고, 그것이 4·19혁명의 도화선임을 분명하게 지적해 놓았다. 1966년은 필자가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였는데, 그렇다면 필자도 이 사회 교과서로 공부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은 필자의 기억력 한계 때문일 것이다. 이 점은 1968년에 발간된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이상욱·차문섭 저) 249쪽에 있는 다음의 내용과 상통한다. “3·15 마산의거는 위대한 4·19혁명의 계기를 이룬 장렬한 사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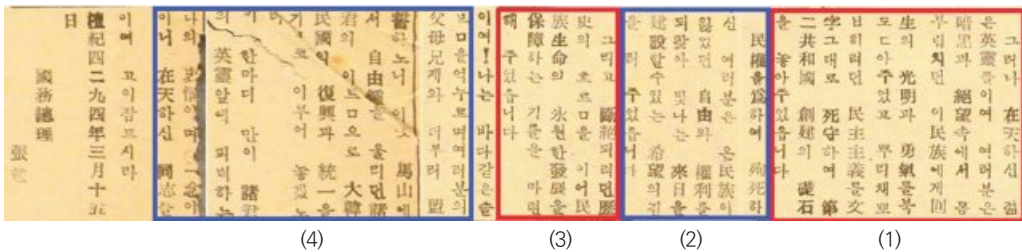
그러나 이런 소수 교과서의 기술 내용과는 달리, 당시 정부의 분위기는 3·15의거와 4·19혁명의 정신을 지워 가는 것이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신군부 정권에서 이런 의거나 혁명을 좋아할 리 없었던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었다. 이것은 3·15의거 제1주년 기념행사를 마산고등학교에서 치렀던 1961년도 경우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제1주년 기념행사에는 장면 국무총리, 곽상훈 민의원 의장, 백낙준 참의원 의장 등 중앙부처의 인물들, 마산시 출신 민의원, 유가족, 시내 각 학교 학생, 각 관공서 및 사회단체 관계자, 일반 시민 등 약 5만 명 정도가 운집하여 오열 속에서 식을 치렀다(〈마산일보〉, 1961. 3. 16., 3면 기사 참조).

이날 추념식에서 장면 총리는 재천(在天)하신 젊은 영령들은 “암흑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던 이 민족에게 희생의 광명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뿌리째 뽑히려던 민주주의를 문자 그대로 사수하여 제2공화국 창건의 초석을 놓아 주었”다고 말한 뒤(그림-4) (1)



〈그림-3〉 장면 총리의 추도사. <마산일보>. 1961. 3. 16., 3면에서



〈그림-4〉 장면 총리의 추도사 일부. <마산일보>. 1961. 3. 16., 3면에서

참조, “민권을 위하여 순사(殉死)하신 여러분은 온 민족이 잃었던 자유와 권리를 되찾아 빛나는 내일을 건설할 수 있는 희망의 길을 터 주었”을 뿐만 아니라[그림-4] (2) 참조, “단절되려던 역사의 흐름을 이어 민족 생명의 영원한 발전을 보장하는 기틀을 마련해 주

있”다고 명령들을 추모하였다[〈그림-4〉 (3) 참조].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형제와 더불어 이곳 마산에서 자유 종을 울리던 제군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부흥과 통일을 기어코 이루어 놓겠노라” 다짐하면서 “이 한 마디만이 제군의 명령 앞에 피력하는 나의 충정이며 일념”임을 강조하였다[〈그림-4〉 (4) 참조]. 이런 행사가 지속만 되었다라면, 3·15의 거에 참여했던 열사들은 적어도 마산 시민들 가슴속에는 영영 잊히지 않는 인물로 각인 되었을 것이다.

박정희 정권도 초기에는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15의거와 4·19혁명을 미화하고 기념하는 작업을 강화하였다. 1962년 3월 박정희 군사 정권은 군사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3·15의거와 4월혁명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헌신짝같이 유린하던 자유당 정부와 기성세대에 대한 신세대의 반동으로서 동양적인 봉건 잔재와 식민지 치하에서 배양된 무기력한 민족성에 대항하여 일어난 혁명이었으니, 그것은 가위 민족적 민주 혁명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던 것이다.¹⁴⁾

그러나 1963년 12월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에 취임하고 공식적으로 정권을 장악하자, 3·15는 서서히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언론 매체에서도 3·15의 이름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박정희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시작한 1964년부터는 3·15의거와 4월혁명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적 저항이었다는 점에서 군사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하였다.¹⁵⁾ 특히, 박정희 정권이 1969년 대통령 연임 금지 조항을 철폐하고 3선 개헌안을 통과시킨 후, 3·15의거는 평가의 대상에서도 제외된 채 역사의 뒀안길에 서고 말았다.¹⁶⁾ 이런 분위기는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1990년대 초반까지도 이어졌다.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 주는 언론 보도 기사 두 건을 소개하기로 한다.

14) 『한국혁명재판사』 제1권(한국혁명재판사 편찬위원회, 1962년), 183쪽. 『3·15의거사』(앞의 책), 550쪽에서 다시 인용.
 15) 『4·19혁명론』(일월서각 편집부, 1983년), 4쪽. 『3·15의거사』(앞의 책), 550~551쪽에서 다시 인용.
 16) 남부희, 「3·15를 어떻게 볼 것인가」, 『3·15의거』 제1호(3·15의거기념사업회, 1995년), 24쪽. 『3·15의거사』(앞의 책), 551쪽에서 다시 인용.

“지난 3·15의거 기념식 날은 관계자 2백여 명만이 의례적인 행사를 마쳤을 뿐 식장은 쓸쓸하기만 했다. 당국의 동원 금지로 학생들은 그들의 선배를 추모하러 나오지도 않았다.”(〈그림-5〉 메모 부분 참조)¹⁷⁾

“30년 전 부정 선거에 항의하다 「독재의 총탄」에 맞아 숨진 마산 3·15의거 희생자 13명을 기리는 영령합동분묘소가 당국과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버려져 있다. 마산 시가지가 내려다보이는 구암동 팔룡산 중턱에 있는 이 영령분묘소에는 30년 전인 지난 60년 3월 15일 당시 자유당 정권이 저지른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 도중 죽어 간 김주열 군(당시 16세·마산상고 1년) 등 13명의 영령비가 서 있다.¹⁸⁾

3·15의거 때 숨진 중학생 3명, 고교생 6명, 일반인 4명 등을 추모하는 이 영령비들은 4·19 이후 부상자동지회(회장: 정갑주·50) 회원 30여 명이 성금을 모아 64년 4월 1백여 평의 부지에 분묘소를 만들면서 세워졌다. 그러나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난 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3·15의거는 의도적으로 격하됐으며 유신과 5공을 거치면서 외면되다시피 했다. 이로 인해 당초 부상자들이 내걸었던 「마산 3·15의거동지회」 간판도 「4·19의거상이자회 경남지회」로 바꾸어야 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¹⁹⁾

앞선 인용문(〈그림-5〉)은 1975년 4월에 게재된 〈동아일보〉 기사의 한 부분이다. 학생들이 참여도 없이 ‘관계자 2백여 명’만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행사’를 마쳤다는 보도는, 5만 명이 운집하여 행사를 치른 제1회 추념식 때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두 번째 인용문(〈그림-6〉)은 그로부터 15년 세월이 흐른 1990년 3월 15일에 작성된 것이다. 전두환 신

17) 「비화 제1공화국 <505>: 제18화 4·19혁명 10」, 〈동아일보〉, 1975. 4. 14.

18) 김주열 군을 ‘마산상고 1년’으로 적은 것은 당시 학제를 이해하지 못한 취재 기자의 착각이다. 김주열 군은 마산상고 시험을 치르고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수험생’이었음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 기사에는 마산고 김용실 군도 언급되어 있는데, 그 학년을 ‘2년’으로 적은 것도 같은 실수이다. 당시 학년도가 4월 1일에 새 학년이 시작되어 다음해 3월 31일에 끝나는 것이라는 점도 앞에서 언급하였다.

19) 「마산 3·15의거 30돌, 영령 묘소 무관심 방치」, 〈동아일보〉, 1990. 3. 15.



〈그림-5〉「비화 제1공화국 <505>: 제18화 4·19혁명」(부분), <동아일보>, 1975. 4. 14.



〈그림-6〉「마산 3·15의거 30돌, 영령 묘소 무관심 방치」(부분), <동아일보>, 1990. 3. 15.

군부 정권에 이어 등장한 노태우 정권 시절의 일이다. 기사의 제목은 「마산 3·15의거 30 돌, 영령 묘소 무관심 방치」이지만, 방치된 것이 어디 영령들 묘소뿐이었겠는가. 이처럼 3·15의거는 위정자들에게 의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3·15의 거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마산고등학교에서조차 3·15의거와 관련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필자가 3·15의거의 실상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한참 뒤의 일이었다.

4. 열네 분 열사 기억법

앞에서 필자는 왜 마산 3·15의거의 인물로 김주열 열사만 부각되고 나머지 열사들은 부각되지 못했는가 하는 점을 두 가지 각도에서 분석해 보았다. 김주열 열사(만)의 부각은 그의 최루탄 시신과 그 보도 사진이 주는 충격성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가 3·15의거의 아이콘이 되는 것은 운명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다른 열사의 이름이 시민(국민)들의 마음에 새겨지지 못한 것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집권한 정권들의 의도적 방해 공작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적어도 3·15의거가 일어난 마산 지역에서라도 그에 따른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졌어야 했지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음을 위에서 길게 설명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더 많은 열사기념사업회를 만들어 그 행적과 이름을 널리 알리는 일이다. 오래 전부터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가 조직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일이다. 3·15의거 당시 산화한 영령들은 학생들인 경우가 많아, 그 기념사업회는 일차적으로 각 학교 총동창회가 주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기념사업회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해당 열사는 물론 3·15의거도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다. 여러 열사기념사업회는 상호 교류하면서 후세들에게 3·15의거 정신을 이어가게 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세를 과시하는 대결 양상으로 치달아서 안 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해 둔다. 이 점은 아래에서 다시 다룬다.

둘째, 학교 교육에 3·15의거의 역사를 필수 과정으로 이수하게 하는 일이다.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지역에서 공동으로 교과서를 만들고 교육과정에 이를 편성하게 한다면 3·15의거 정신은 면면히 이어져 갈 것이다. 교과서 등을 만들 때는 3·15의거기념사업회, 유가족회, 부상자회, 학생동지회,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등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위 첫째에서 말한 여러 열사기념사업회가 꾸려진다면, 그 위원회 관계자도 참여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셋째, 지금 3·15의거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행사에 더하여,²⁰⁾ 가칭 '3·15의거 경시대회'를 열어 3·15의거 정신을 대중화하는 일이다. 우리 지역에는 민간단체인 한글학회 경남지회에서 해마다 한글날에 개최하는 '국어순화 경시대회'라는 모범적인 경시대회가 있다. 2021년 현재 45회라는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회다. 이 대회를 거쳐 간 학생들은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우리말글 사랑 정신을 드높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동량지재로 성장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여 둔다.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에게는 의미 있는 시상을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경시대회는 골든 벨 형식이어도 좋다.

5. 더 많은 열사기념사업회를 만들자

앞에서 필자는 더 많은 열사기념사업회를 구성하는 것이 3·15의거를 널리 알리는 방법의 하나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여러 열사기념사업회는 상호 교류하면서 후세들에게 3·15의거 정신을 이어가게 하는 데 힘을 합해야 하지, 세를 과시하는 대결 양상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말에는 여러 열사기념사업회는 지켜야 할 선은 지켜야 한다는 점이 내포되어 있다. 그 한 예를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에서 가져오기로 한다. 이 기념사업회가 젊은 나이에 산화한 김주열 열사를 추모하면서 그 고귀한 희생 정신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펼치는 것에 필자는 큰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의욕이 너무 앞서서 그랬을까, 다른 3·15의거 관련 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점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비근한 예로 김주열 열사 동상을 세울 때 불거진 문제를 들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필자가 어느 언론사에 기고한 글이 있기에,²¹⁾ 그것부터 보이고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20) 각주 4번에서 언급한 3·15전국백일장, 3·15청년문학상, 3·15청소년영상제(UCC 공모전), 문학의 밤, 3·15대음악제, 3·15의거 유적지 답사 등을 말한다.

21) <경남신문>, 2021. 7. 23.

누가 3·15의거 역사를 두 동강 내는가?

7월 말 마산 중앙부두에서 김주열 열사 동상 제막식이 있을 것이라 한다.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머리를 스쳤다. 늦었지만 동상 건립은 참 잘되었다는 생각과, '3·15의거'와 함께 '4·11민주항쟁'이라는 말을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도 되는가 하는 당혹스러움이 그것이었다.

중앙부두는 1960년 4월 11일 오전에 김주열 열사의 최루탄 시신이 인양된 곳이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뒤 사흘에 걸쳐 마산 시민, 8개 고교 학생들, 해인대(경남대) 학생들에 의한 엄청난 시위가 마산을 강타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북상하여 결국 이승만 독재 정권을 끝내게 했다. 이것이 '제2차 3·15의거'이다. 김주열의 사망일이 3월 15일이고 행방불명이던 그의 시신이 중앙부두에 떠오른 날이 4월 11일이니, 3월과 4월의 마산의거는 동전의 양면이다.

마산(창원시)이 자랑하는 3·15의거를 3월 15일 하루의 사건으로 아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3·15 국가기념일 제정 관련 문서부터 지난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3·15특별법'까지, 3·15의거는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 일어난 사건"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이것은 제2차 의거를 제1차 의거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임을 국회와 정부가 인정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15일의 사건만을 두고 '3·15의거'라 하고, 4월 11~13일의 사건을 '4·11 민주항쟁'이라 부르는 것은 3·15의거 역사를 반토막내는 중대한 사건이다. 유관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4·11민주항쟁'이라는 표현은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에 의해 십수 년 전부터 사용돼 왔다. 민간단체가 이런 용어를 만들어서 쓸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용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려면 유관단체 등 사회적 동의를 필요로 한다. 문제는 그런 용어를 쓰는 기념물이 경남도나 창원시라는 공공기관의 공적 예산을 지원받아 건립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공기관이 사실상 이 용어를 공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적잖은 문제를 야기한다.

'4·11민주항쟁'이라는 용어를 둘러싼 상당히 격렬한 논쟁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펼쳐진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김주열 동상 건립 과정에서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는 3·15의거기념사업회뿐만 아니라 3·15부상자회, 유가족회, 학생동지회 등과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경남도나 창원시 당국조차 논쟁적 사안을 유관 단체들과 아무런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했다고 한다. 김주열 열사의 동상을 세워 창원(마산)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려는 것이 오히려 관련 단체들 사이, 시민들 사이의 갈등만 조장하는 일이 된다면 무엇을 위해 동상을 세우는가. 창원시는 지금이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그곳을 절대 다수의 시민들, 그리고 마산을 찾는 국민들이 환영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창원시의 좋은 뜻이 부디 왜곡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위 글에서 필자는 아래의 여섯 가지를 분명하게 지적해 두었다.

첫째,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인양된 마산 중앙부두에 그의 동상을 세우는 것은 늦었지만 참 잘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점.

둘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 않은 ‘4·11민주항쟁’이라는 표현을 굳이 돌에다 새겨 놓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셋째, 둘째가 부당한 까닭은 제1차 3·15의거와 제2차 3·15의거는 동전의 양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데 따른 것이라는 점.

넷째, 그 기념사업회가 공공기관의 공적 예산을 지원 받아 동상을 건립하는 것인데도 유관 민주 단체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다섯째, 경남도나 창원시 당국조차 논쟁적 사안을 유관 단체들과 아무런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점.

여섯째, 유관 단체들과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시민들 사이에 갈등만 더 조장하는 길이라는 점.

3·15의거기념사업회 등 유관단체들의 항의와 필자 등이 투고한 글로 인해 창원시는 당초 7월 말로 예정하였던 동상 제막식을 10월 25일로 연기하였다. 문제가 되었던 ‘4·11 민주항쟁’이라는 표현이 지워졌기 때문에 제막식이 가능했다.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에서 제2차 3·15의거를 ‘4·11민주항쟁’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적 통념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였다. 국회와 정부의 3·15 국가기념일 제정 관련 문서에는 3·15의거를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 일어난 사건”으로, 2021년 6월 29일 자로 국회를 통과한 ‘3·15 특별법’ 제2조(정의)에는 “이 법에서 ‘3·15의거’란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하여 마산 지역에서 1960년 3월 15일 부정 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공적인 동상을 세우는 데에 사적인 용어를 쓰는 것은 일정한 선을 넘는 일임이 분명하다. 이런 일은 앞으로 자제되어야 한다.

6. 마무리

이 글은 3·15의 거 때 산화한 열사들의 이름이 김주열 열사처럼 우리 귀에 익어서 “김주열의 이름 외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름들”(〈그림-7〉 참조)이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강조하거니와, 이런 필자의 발언은 김주열 열사의 거룩한 희생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열사들의 이름도 김주열 열사의 그것만큼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렸으면 좋겠다는 의미일 뿐이다. 이것은 먼저 가신 김주열 열사의 뜻이기도 할 것이라고 필자는 굳게 믿는다. 어느 죽음 치고 슬프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겠으며, 어느 희생 치고 가치 없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따라서 나머지 열사들의 동상도 적의한 곳에 세워져야 할 것이다.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민주 국가 대한민국이 있다고 필자는 확신하고 있다.

삼가, 먼저 가신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또 빌면서 이 글을 마친다.



〈그림-7〉 “김주열의 이름 외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름들”이라는 표현을 한 〈동아일보〉 「비화 제1공화국 <505>: 제18화 4·19혁명」, 1975. 4. 14. 기사



김정대 경남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겸 고운학연구소장
전 창원시근현대사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의령 국립국어사전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

4월혁명의 서사구조 - 3·15의거가 축소된 배경

윤상현 경남대 역사학과 조교수

초 록

4월혁명의 주제에 대한 전유는 1950년대 한국 자유주의 세력의 성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동아일보』는 대구학생시위-마산시위-4·19 시위를, 선구자-희생자-구원자라는 영웅 서사구조를 통해 3개월여 동안의 운동에서 기층민을 수동적인 희생자로 구성했다. 이들은 4월혁명에서 대학생들을 자유진영체제의 질서유지대로 적극 호명함으로써 보다 체제유지적인 상층 부르주아적 위상을 보여주었다.

자유주의세력으로서 민중에 대한 엘리트주의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사상계』, 『경향신문』, 흥사단계열은 개신교, 천주교 등 일제 시기 이래의 종교적이고 도덕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었으며, 청년학생들을 민권운동, 자유와 권리를 위한 저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77권 제4호(2021.11.30)에 실린 논문을 수정 전제한 글입니다.

*주제어: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3·15, 4월혁명, 비상입법회의

Liberalism, Liberal Democracy, 3·15, April Revolution, The Special Legislative Council

항운동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사월혁명의 향후 과제로서 정신혁명을 강조함으로써 청년 학생들을 정신적으로 이끌고 계몽하며 지도할 지식인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지식인혁명'이라는 틀을 구성하고자 했다. 소부르주아적인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던 이들은 '실력양성론'과 같은 준비론을 통해 불안정한 지식계급이 성장하고 안정화할만한 물질 토대와 시간적 경제적 준비기간의 확대를 추구했으며, 관념적이고 종교적인 지적 체계들로 다른 계급들과 구별 짓고자 했다. 당시 제안된 '비상입법회의'의 기각과 만들어진 신회는 기성 계급구조를 유지하고 '반공'을 자명한 종교로 내면화하게 했다.

1. 4·19 학생운동? 혹은 4월혁명

4월혁명은 2·28 대구사건으로부터 3·15 마산사태를 거쳐 4·19 시위와 4·25 교수단 시위 및 4·26 시위까지 약 3개월 이상 고등학생, 일용노동자, 대학생, 교수 등 도시지역의 다양한 계층이 참가한 운동이었다. 기층빈민부터 남녀노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참가자들에 관한 실증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혁명은 여전히 대학생이 주도한 학생운동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최근의 4월혁명 관련 연구들은 도시빈민 등 다양한 4월혁명의 주도세력을 실증적으로 드러내거나¹⁾ 『사상계』 지식인들이 4월혁명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해석했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다.²⁾ 이상록도 일찍이 '민주주의 대 독재'라는 이항대립의 틀을 넘어서서 대학생 및 언론 매체들에 의해 기층민중의 데모가 전유되었음에 주목했으나 4월혁명 이후의 지식인들의 흐름이 '경제제일주의'로 수렴되었음을 강조하여 언론매체들이나 각 사회세력들의 계층적 계급적인 차이를 간과한 측면이 있었

1) 오제연(2014), 「4월혁명의 기억에서 사라진 사람들」, 『역사비평』 106, 역사문제연구소.

2) Shimokawa, Ayana(2014), 「4·19 해석의 재해석: 『사상계』 지식인이 만들어낸 4·19 민주혁명」,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다.³⁾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들과 이 시위를 전달하는 언론매체들의 지식인들과 언론매체‘들’을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계급적으로 동질적인 지식인들로 전제하거나, 대학생들과 지식인들을 구분하지만 각기 다른 그들의 행동의 배경에 대한 분석과 설명들을 결여함으로써, 결국 지식인 주도의 경제담론으로 흡수되어간 4월혁명이라는 새로운 네러티브로 수렴되어 4월혁명이 대학생·지식인 주도의 학생운동이었다는 서사구조를 오히려 넘어서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 글에서는 4월혁명에 관해 몇 가지 논점을 제기함으로써 4월혁명 자체와 그 해석을 둘러싼 논의를 진전시켜 보고자 한다. 우선 혁명에는 사회계층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혁명에서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도 다기한 사회세력들이 연관된다. 그 역할에 따라서 최소한 당시 혁명에 참가한 사회세력들, 이 혁명을 지켜보며 해석하여 전달한 세력들, 이때 구성된 혁명의 네러티브를 재생산했던 사회세력들, 그 과정에서 정치적 권력을 획득한 세력들 등이 있다. 특히 ‘당시 이 혁명을 지켜보며 이를 해석하여 최초의 네러티브를 구성하여 전달한 세력들’이 혁명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 이미지를 형성했는지에 관한 담론적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의 논점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기표 자체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관한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동아일보』, 『사상계』 등의 언론매체 — 때로는 4월혁명에 참가한 대학생 — 들을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 전제하는 측면이 있다. 헌법학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정의할 때, 헌법적 제한적 정부, 법의 지배, 개인의 권리의 지지라는 점에서 자유주의를 정의하고 보통선거에 의한 정부 선출을 민주주의로 정의하여, 이 둘의 결합을 자유민주주의로 정의해왔다.⁴⁾ 이러한 정의는 자유민주주의를 법치, 개인의 권리, 제한적 정부, 보통 선거 등 ‘정치 문제’로 치환하고, ‘민주주의’도 가장 협소한 의미의 정치로 치환하는 효과를 낳는다. 4월혁명을 둘러싼 사회세력들을 모두 자유민주주의 ‘세

3) 이상록(2011), 「경제제일주의의 사회적 구성과 ‘생산적 주체’ 만들기 — 4·19~5·16시기 혁명의 전유를 둘러싼 경험과 전략들」, 『역사문제연구』 15, 역사문제연구소. 1960년대부터 4월혁명과 관련된 방대한 기존 연구 성과들은 오재연과 이상록의 연구의 서론을 참조할 수 있다. 본고는 그 이후의 연구성과들의 논점에 방점을 두고 다루고자 한다.

4) 조한상(2015),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원광법학』 31,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력'으로 정의하는 순간 그 언어적 효과는, 이들이 '정치문제'를 둘러싸고 싸웠으며 빈곤 및 후진성 등 경제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 '경제문제'로 수렴되었다는 당대 논의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는 점이다. 그들의 '지향'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들을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세력'이라고 분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자유당-민주당-4월혁명 학생들이 모두 진정한/왜곡된 정도의 차이만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세력'이 되어, 사회운동의 문제가 도덕의 문제로 치환된다. 이 테올로기적 사회세력은 그들의 주장 및 지향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각 사회세력들은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서 정치 문제에 접근하며 격렬한 정치적 변동기일수록 그들의 정치경제적 입장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회경제적 위치를 보다 드러낼 수 있는 범주화가 필요하다. 자유주의 밖에서 서구 자유주의의 역사를 서술한 연구가 사회세력을 지칭할 때 냉전자유주의를 사용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유사한 관점을 표현한 것일 것이다.⁵⁾

이 글에서는 1950년대 사회세력들, 특히 자유주의적 지식인들 및 언론매체 내부의 다양한 세력들의 연원과 이들의 지성사적 배경에 관한 연구에 기초하여, 3개월간의 혁명 당시 언론매체들이 4월혁명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리고 매체들 간의 어떤 편차는 없었는지 그러한 내러티브가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정치적 세력은 고정적이라기보다는 정치경제적 결점점이 되는 시기에 이합집산하면서 유사한 사회문화적 경험을 통해서 그 경향성이 두드러지고 강화된다. 1950년대 자유주의 세력들은 4월혁명의 전개과정 및 그 성격의 해석에서 적극적인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참여를 했으며, 4월혁명 이후 정치적 권력을 잡게 되는 제2공화국기에 정치적 차이가 극대화되면서 그 양 세력의 갈등이 극적으로 표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언론사 사주로서 국무총리 혹은 국토건설본부 기획부장, 신민당 국회의원 등을 역임할 만큼 적극적인 정치적 실천을 보임으로써 보다 담론 분석이

5) 앤서니 아블라스터(2007), 『서구 자유주의의 융성과 쇠퇴』, 나남.

용이한 대표적인 두 매체 『동아일보』와 『사상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한다.⁶⁾ 이 글에서는 이들이 사월혁명을 어떻게 전유하였는지 그 과정을 재구성함으로써 이러한 전유가 어떠한 역사적 결과와 의미를 낳았는지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일간지와 월간지의 매체적 특성을 고려해서 정량적 접근보다는 담론 분석을 시도하고 개념사적 방법으로 보완하고자 했다.⁷⁾

2. 혁명의 과정과 주체 — 『동아일보』의 4월혁명 서사구조

2.1. 2·28 대구사건 — 신익희·조병옥의 죽음과 연관 짓기

4월혁명의 과정은 사건이 일어난 공간과 주도세력을 고려할 때 크게 네 단계의 결집점이 있다. 첫 번째는 3·15선거 전 대구에서 있었던 2·28 대구사건, 그리고 3·15 선거 당일의 마산사건, 세 번째가 서울지역 4·19 직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위운동, 네 번째가 4·26 교수단 시위 및 이승만대통령 하야이다.

『동아일보』에는 1960년 2월 15일 서거한 민주당대통령후보 조병옥의 영결식 및 그와 관련된 기사와 대구에서 열린 자유당의 동원선거 기사가 나란히 게재되었다. 2월 28일과 29일 양일간 『동아일보』는 1면 지면에 27일 대구에서 있었던 자유당의 강제동원에 대해서 “사 년 전 故해공선생이 사자후를 한” 곳에서 약 이십만 명의 시민이 강제 동원되었다고 보도했다.⁸⁾ 29일자에 1200여 명의 대구고교 학생들의 시위는 3면에 2단짜리 기사로 실렸지만⁹⁾ 다음날인 3월 1일자 1면 전면 6단 기사에는 ‘대구학생데모사건’과 관련하여 민주당이 장면박사 연설 날의 “강제등고명령”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기사가

6) 1950년대 『사상계』의 편집방향, 편집위원들의 성향, 그들의 출신지 등 매체적 특성에 관해서는 윤상현 (2019), 『『사상계』의 시기적 변화와 ‘개인’ 개념의 양상』, 『인문논총』 49,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2장 참조.

7) 개념사 방법론에 관해서는 친관타오(『관념사란 무엇인가 1 이론과 방법』, 푸른역사, 2011) 등을 참조.

8) 『동아일보』 1960. 2. 28. 『동아일보』 1960. 2. 29.

9) 『동아일보』 1960. 2. 29. 「학생들이 시위, 학원을 정치도구화말라고」.

실렸고, 1면이 거의 민주당 관련 기사로 도배되다시피 했다.¹⁰⁾ 당일 석간에도 1면 기사에 다시 대구사건을 다루었는데 민주당과 자유당의 입장을 실을 때도 순서를 민주당 — 자유당 순으로 게재했다.¹¹⁾ 칼럼기사에서 민주당 구파와 신파 간의 내분과 갈등을 비판하면서도, 민주당 관련 논설 및 기획기사가 계속 실리고 있었다.¹²⁾

『동아일보』는 4년 전 신익희의 죽음과 같은 장소에서 자유당 유세에 시민들이 강제 동원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기사 옆에 조병옥의 서거 기사를 같이 실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신익희의 죽음에 대한 모독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이들 신익희·조병옥 두 사람의 죽음이 연속된다는 점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편집을 사용한다. 대구학생시위 자체의 기사보다도 그 사건과 관련된 민주당의 태도와 대응기사에 더 많은 기사를 실음으로써, 보도지면을 통해 『동아일보』 및 민주당이 자유당과 정치적인 전면전을 치루고 있다는 ‘인상’을 전한다. 학생시위운동 자체보다 그에 대한 정치권 특히 민주당의 기사가 전면으로 다루어진다.¹³⁾ 여기에 민주당 구·신파 간의 갈등을 연일 보도함으로써 『동아일보』가 민주당에 비판적이며 정치적으로 객관적이고 정치적 입장이 없으며 중립적인 포지션에 있는 듯한 태도를 유지한다.

『동아일보』가 3·15 직전까지 학생시위를 전달하는 방식은, 학생의 ‘학원의 자유’ 시위를 민주당의 부정선거 반대투쟁이나 장면 유세와 관련지어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 여타의 대중매체가 거의 드물었던 1950년대에 일간신문의 반전면 기사를 사진과 함께 뽑는 편집 방식의 강력한 표현수단을 구사했다.¹⁴⁾

10) 『동아일보』 1960. 3. 1. 「민주발전에 헌신, 장면박사, 부산서도 선거유세」, 「광주학생사건상기, 민주당, 경찰폭행규탄담화」, 「선거후에 다시 회합, 민주당」, 「정계스냅 — 용감한대구학생에 경탄」

11) 『동아일보』 3월 1일 석간, 「서거 '뽐'에 휩쓸린 경남북」.

12) 『동아일보』 1960. 3. 1. 석간, 「조박사 수행20일, 햇빛 못본 정책을 간명 정치적 최후유언된 셈」; 『동아일보』 1960. 3. 3. 「논단, 새로운 정국과 민주당의 금후」; 『동아일보』 1960. 3. 3. 「불법단체 제재책은?」; 『동아일보』 1960. 3. 4. 「도살장에 몰린 민주주의」; 『동아일보』 1960. 3. 6. 「건전한 야당으로 발전, 신구파 감정초월에 감격」; 『동아일보』 1960. 3. 4. 「민주당, 정부의 '선거방침지령' 전모폭로」.

13) 『동아일보』 1960. 3. 7. 「사실 권력에 늘리고 생활고에 지친 시민들」; 『동아일보』 1960. 3. 8. 1면 1면기사 「부정투표방지에 전력」; 두 번째 기사 「이대통령 종신제론까지 군인 공무원 등 2천명 동원」; 『동아일보』 1960. 3. 9. 1면기사 「민주당, 3인조 투표방식 폭로」; 『동아일보』 1960. 3. 11. 1면기사 「모의투표지 폐지도 록」; 『동아일보』 1960. 3. 14. 1면기사 「부정선거 시정을 요구, 민주당 이대통령에 공개장」.

14) 『동아일보』 1960. 3. 11. 「전국에 번지는 학생데모 '학원의 자유' 외치며」.

2.2. 3·15, 4·11 마산시위 — 축소하기와 거리두기

『동아일보』는 3·15 선거 당일 「호외」를 발행하는데 기사는 단 하나였다. 「선거의 불법 무효선언, 민주당 법정투쟁결의」라는 기사였고 3월16일에는 「민주당 선거의 무효선언」이 헤드라인 기사였다. 이날 선거당일 전국 각지에서 테러사태가 있었음을 보도하면서, 민주당 마산시당 간부들이 3월 15일 부정선거 규탄을 주장하다가 “마산서 데모 군중이 지서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마산중심지에서 수 천 군중들이 ‘부정선거를 즉시 정지하라’고 외치면서 시작된 데모는 마침내 경찰과 충돌 일개 경찰지서를 파괴하고 또 한곳의 지서를 소실시키고 칠 명의 사망자와 칠 십 여 명의 부상자를 내는 일대불상사를 빚어내었다. 이들 군중은 경남경찰국을 비롯한 마산주변경찰서에 급파한 응원대에 의하여 이날 밤 11시경 겨우 진압되었다. 즉 이날 하오 7시 30분경부터 무질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수천 명의 군중들은 마산시가를 휩쓸기 시작, 남성동 지서를 포위하고 돌을 던져서 지서창문과 기물을 파괴¹⁵⁾(이하 강조는 인용자)

사건을 전하는 태도에서부터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전달하지 않고, 경찰지서를 습격한 사건을 먼저 전하고, 기사의 맨 말미에 가서 하오 3시에 있었던 부정선거 배경 시위에 경찰들이 소방차를 몰고 와 해산시킨 일을 전했다. 경찰지서를 습격한 폭력행위의 사건이 훨씬 주목되는 점이고 이 “무질서”한 군중들은 “겨우” 진압되었다고 함으로써, 빠르게 마땅히 진압되었어야 한다는 점을 전달한 다음에 이 데모가 폭력화된 배경을 언급했다. 이러한 태도는 다음 날 사설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마산사건에 대한 사설이지만 반 이상이 민주당 본부의 선거무효 발언과 미국 워싱턴 주민의 반미 우려라는 여론에 대한 사설이 차지했고, 마산 시위에 관해서는 “불행한 일”로서 상대적으로 짧게 부정적으로 언급되었다.

15) 『동아일보』 1960. 3. 16. 석간 3면 「마산서 데모군중이 지서를 습격」.

경남마산에서는 뜻밖에도 수천군중이 데모를 하다가 철명 사망, 근 오십명이 중경상했으며, 또 데모대의 투석, 방화로 경찰서지서 삼개소를 파괴 혹은 소실한 불상사를 일으킨 뒤에, 심야에 이르러서야 흥분된 군중을 겨우 진압했다한다 ... 물론, 이번 마산사건은 극히 불행한 일이었고, 또 없었던 것만 못하게 크나크게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이긴 하지 마는 ... 당국자와 여당은, 이번 마산사건을 의법처단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사상자에 대한 적절한 처리와 사후수습책에 있어, 그들이 연소학생들이니만치 정상을 참작, 온건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각별히 바란다.¹⁶⁾

이들은 민주당 본부에서 말하듯이 이승만이 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 부정선거가 무효가 되기를 바라지만, 이 일이 이러한 폭력적인 시위로 화하는 것은 빠르게 ‘진압’하기를 바란다. 부정선거에 항의해야 한다고 학생 시위를 대서특필하며 선동에 가까운 기사를 헤드라인으로 전면에 실기는 했지만, 그 분노가 수 천 군중이 되어 경찰서를 향해 가는 것은 “의법처단”을 해도 좋은 행위이고 “연소학생들”만의 치기 어린 것으로 축소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16일자 기사를 통해 『동아일보』 논설자는 이 시위의 참가자들이 “사망자나 부상자는 유아로부터 성장년에 이르는 각계각층”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주도자를 학생으로 축소한 후 이 폭력사태의 의미도 축소해서 의법 처리하라는 태도를 보인다. 부정선거에 항의하고 반대는 하지만 공권력에 의한 수 명의 타살이 일어났는데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타살당한 군중의 방법이 평화적이고 질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제로 삼았다. 마산사태가 정치문제로 비화되자 『동아일보』는 칼럼을 통해 3월 17일 폭력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마산사건을 어린 사람들의 ‘실수’로 폄하한다.¹⁷⁾ 이 칼럼에서 『동아일보』는 민주주의의 핵심이 “질서유지”이고 폭력성이 개입된 시위를 들어 그 시위의 주체들을 20세 전의 학생들로 축소함으로써 ‘시민 전체’, 인간과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어린 ‘학생’들의 폭력 문제가 된다.

16) 『동아일보』 1960. 3. 17. 석간 사설.

17) 『동아일보』 1960. 3. 17. 「황설수설」.

경찰의 총탄에 의한 7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그 다음날인 18일 『동아일보』의 사설은 선거에 관한 비판적 사설을 전했을 뿐이고, 정치 칼럼란인 ‘정계스냅’에도 선거에 관한 의원 간의 기사만이 실려 있다. 3면에서야 마산사건에 대해 각 기관이 “발포 합범여부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¹⁸⁾ 이 이후에도 마산사건에 대한 사설이나 칼럼 없이 사회면 기사만이 실리다가 3월 20일이 되어서야 국회 내무위원회를 보도하면서 헤드라인 기사가 되었다.¹⁹⁾ 인명에 대한 이러한 무감각,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큰 기본권에 대한 이러한 무감각은, 장면 유세현장에 강제 동원한 학생들의 “듣는 자유”라는 기본권에 대한 긴 반박기사와 대조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마산지역이 한국전쟁기부터 좌익성향이 강했다는 묵시적인 요인 외에도²⁰⁾ 이들 『동아일보』의 논진이 되었던 일제시기 이래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성향도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1910년대 제일유학생이던 송진우, 장덕수 등은 ‘천부인권’ 자체를 시기상조라 하여 그 권리를 부인하기도 했으며, 인간의 기본 권리를 유보할 수 있는 것으로 다루기도 했다²¹⁾ 3월 20일에야 데모대에 실탄을 쏘았다는 사실을 문제 삼는 사설이 실렸다. 그런데 이 사설이 내놓은 해결책과 민심수습책은 다음과 같았다.

경향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선거보복을 그만두게하고, 야당계라고 해서 파면 되었던 공무원들을 복직시키고, 마산사건의 관계자들을 관대히 대접하여주고, 경향신문정간처분을 해제하여준다고 하면 민심은 대변에 풀어진 것을 확실히 내다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다시 불법선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공약구장실현에 매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써 성의를 보여준다면 백성들은 곧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²²⁾

18) 『동아일보』 1960. 3. 18.

19) 『동아일보』 1960. 3. 20. 조간 「정부와 야당 보고 현격, 국회 내무위 마산사건에 질의」.

20) 이은진(2004), 『근대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21) 윤상현(2019), 「관념사로 본 개인 개념 — 유명론적 전환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6(2).

22) 『동아일보』 1960. 3. 20. 석간 사설 「또 민심수습책을 말함」.

수습책에서 『동아일보』는 “백성”들에게 시혜를 베풀고 범법자들인 사건관계자들을 대접해주면 백성들이 이 사건을 곧 잊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엘리트적 태도를 보였다. 마산 사건에 대해 이승만정부와 자유당이 “민주당 또는 어른들이 뒤에서 어린 학생들을 선동해서 앞장을 세워 죽인 것”이라고 한데 대해 반박하면서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을 선동하고 격려했다는”²³⁾ 입장을 강조했다.²⁴⁾ 마산사건의 진상 그 자체보다도 자유당의 민주당 공격을 반박하고 뒤집기 위해 “아이들”이 주도했음을 재삼 강조한 것이다.

한편으로 「정계스냅」이라는 칼럼은 정식 기사가 아닌 민주당 국회의원의 말을 전하는 방식으로 마산사건의 원인과 당시 상황에 대해 칼럼을 실었다.

“이번 사건으로 총살된 사람이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거의 전부가 극빈층의 자제들뿐인데 그들이 어찌서 ‘데모’대 선두에서 희생을 당했는가하면 극빈층가정에는 전혀 투표를 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지 않았던 까닭에 부녀자들이 내 표를 달라고 지서 앞에서 외쳤을 순간 그들이 느낀 가정적인 울분이 마침내 폭발을 하였던 것이라”고 설파… 어떤 16세 되는 여학생은 총에 맞아 비틀거리자 경찰관들은 이 여학생을 방망이로 구타하여 거의 절명케 하여 시궁창에 밀어 넣어 버렸는데 뒤에 근처의 시민들이 끌어내어 치료하여 겨우 생명은 건질 수 있을 듯하고 성남동 파출소에서는 어떤 30세 식모를 벗겨놓고 0부를 방망이로 구타한 만행을 자행하였다는 이야기²⁵⁾

마산시위의 원인이 극빈층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주도세력과 희생자들이 대부분 극빈층의 자녀라는 중요한 전언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취재나 분석기사는 『동아일보』에 실리지 않았다. 더구나 시위에 참가한 “부녀자”들이 표를 달라고 외친 원인은 “가정적인 울분”이 폭발한 것이라는 전언을 실었다. 말미에 “이야기”라는 마치 ‘전

23) 『동아일보』 1960. 3. 22. 「마산사건과 학생」.

24) 『동아일보』 1960. 3. 25. 「국회조사단의 落穂 마산사건」.

25) 『동아일보』 1960. 3. 26. 「정계스냅」.

해 들었으니 그냥 신는다’는 뉘앙스의 보도 태도로, 후속 기사도 없이 가십성의 칼럼으로 전달되었다. 특히 두 여성 희생자에 대한 폭력 장면의 묘사는 현장에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자세하고 생생하며 여수순천사건을 연상시키면서 자극성을 띠고 있다. 독자에 대한 이러한 기사의 효과는, 1) 여성의 어린 나이를 적시하고 자극적이고 현장에 있는 듯한 구체성으로 인해 관음증적인 강렬한 소비를 부추기며 2) 엄숙하기 그지없는 1면 정치란 기사에 대비해서 정식기사가 아닌 국회의원 동향 등을 보내는 칼럼란에 전달함으로써 어떤 책임 소재 없이 가볍게 소비하도록 하며, 3) 독자로 하여금 이 어둡고 ‘순수하지 않은’ 뉘앙스를 풍기는 사건에 대해 보도자가 갖고 있는 심리적 거리를 보여준다. 그리고 결국에 이러한 보도 태도에는 보도자 및 편집자의 사건에 대한 거리뿐만 아니라 읽는 독자들에게도 그 심리적 거리를 전달한다.²⁶⁾

4월 11일에는 3·15 당시 시체가 발견됨으로써 마산에서 삼천여 시민이 데모를 개시하고 제2차 마산사태가 발발했다. 다시 총 백여 발이 경찰에 의해 발사되었고, 1명이 사망하였으며, 마산에는 수만 명의 시위로 확대되었다.²⁷⁾ 경찰응원대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천여 명이 경찰서 주변에서 도로를 막고 밤 11시까지 시위를 계속했다. 삼천 명의 군중이 경찰서와 피출소뿐만 아니라, 동양주정회사, 도자기공장 등을 파괴하기까지 했다.²⁸⁾ 그러나 『동아일보』 12일 석간 사설에는 기사만 있을 뿐 사설이나 칼럼은 언급하지 않았다. 12일에도 마산에는 만여 명의 군중 데모가 있었는데, 4·13 석간 사설에야 ‘이런 불상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자유당정부가 삼일오선거의 불법 무효를 솔직히 자인하고 자유선거를 다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현책’이라 할 것이라고 언급되었다.

이미 상황은 4월 11~13일의 마산항쟁이라고 부를 만한 시점이었는데, 『동아일보』는 시위가 폭력성을 띠는 순간 이를 경계하고 냉각시키려 애쓰며, “민중항쟁의 전위조직이요 관권에 대한 항거의 거점인 민주당”이 기본방침을 세울 것을 촉구하였다.²⁹⁾ 수만 명의

26) 역사적으로 남성화자는 ‘여성’을 보호받을 어머니에 가까운 성과 그렇지 않은 창녀에 가까운 소비대상으로서 성으로 대상화하여 구분해왔다. 권명아(2005), 『역사적 과시즘 -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정치』, 책세상.

27) 『동아일보』 1960. 4. 12. 석간.

28) 『동아일보』 1960. 4. 12. 석간

29) 신상초, 『동아일보』 1960. 4. 15. 조간 논단 「민주공화국은 어디로」.

마산 시민의 참가에도 불구하고 이 제2 마산사건은 3면 사회면의 지역란에 몇 단 정도로 보도되었다.

2.3. 4.19 — ‘모범적인 대학생 시위’, 영웅 신화의 서사구조

18일 오후 1시부터 고대생 3천명은 ‘마산사건 책임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마산학생 석방하라’, ‘기성세대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는데, 이철승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고(故)인촌선생도 인생의 역사는 구원하다는 말씀으로써 학생들이 도에 넘는 행동을 삼가도록 교훈하신 것을 고대학생들은 상기해야 된다’고 충고하고 농성데모를 하던 학생들은 농성을 중지하고 해산했다.³⁰⁾

마산에서 발단한 학생데모는 각지에 파급되어 18일에는 부산 동래고교와 서울 고려대학생들이 데모를 감행했으나 과격한 충돌은 없었고 특히 고대학생시위는 이를 제지하려는 데서 경찰과의 충돌이 약간 있었을 뿐 처음부터 이성과 질서를 잃지 않은 것이 다행 —.³¹⁾

마산의 폭력사태에 계속된 유감을 표명했던 『동아일보』는 ‘이성과 질서를 잃지 않’은 고대학생시위를 1면 전면 기사로 실었다. 18일부터 대학생시위로 된 점을 새로운 방향으로 주목하면서 ‘자유민권운동’으로 명명하였다. 19일자 사설은 비상계엄령의 선포로 “사태가 진압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데모군중도 “냉정을 회복하여 파괴행위는 없도록 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한다.³²⁾

중요한 사태가 발생한 4월 19일에 대한 20일자 석간 사설은 『동아일보』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사태가 실력발동으로 진정될 때 데모학생들에게 ‘관대’해야 한다는 것, 다른

30) 『동아일보』 1960. 4. 19.

31) 『동아일보』, 1960. 4. 19. 「우주선」.

32) 『동아일보』 1960. 4. 20. 석간 사설 「시국수습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는 자유민권운동이나 민주투쟁을 곧장 재선거 실시로 연결한다는 점이다. 이미 시위대를 향한 실탄사격의 정황이 자세히 알려진 상황임에도 시위가 조속히 냉정을 찾고 재선거 실시라는 선에서 빠르게 봉합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3·15 선거를 전후로 한 시기 민주당과 『동아일보』의 반정부 투쟁은 상당한 영향력 특히 따로이 정치적 혁신조직 등을 갖지 못한 지역에서는 대단한 대중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 시기의 사설 및 기사들은 열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마산시위에서 자발적이고 폭발적인 견잡을 수 없는 시민의 힘을 목격한 후에는, 반여당투쟁과 분열적인 민주당 비판은 계속되지만, 이들 시민운동을 가능한 ‘학생들’의 것으로 가두어서 당대에 짜인 구조 밖으로 어떤 식으로든 확대되는 것을 제어하는 태도를 보였다. 4·19가 일어났을 때 이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보여준다.

“4·19사태는 하도 어마어마해서, 장차 행정부나 국회가 이 중대한 문제를 어찌 처리할 것인지 아득한 것 같다”³³⁾

마산사건의 배경은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투표지를 전체 배분하지 않은 것, 공장들에 대한 습격에서 알 수 있듯이 빈부 격차와 정경유착 등 복합적 이유들이 혼재되어 있었다.³⁴⁾ 그러나 『동아일보』에서는 두 시위의 주체를 ‘학생들’로 한정하면서 시위의 원인으로 부정불법선거‘만’으로 축소하고 결국 그 운동의 해결책은 ‘재선거’로 제한하고자 했다. 『동아일보』의 이런 태도는 20일, 21일에도 견지되었다. 4·19는 “모처럼 모범적이며 순수한 학생시위였던 고려대학 ‘데모대’로 표현되었다.”³⁵⁾ “온갖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순진한 학도들이 불의에 항거하다 흉탄에 쓰러진 이날 그들이 흘린 피의 대가는 반드시 갚어져야 될 것”³⁶⁾으로 보도되었다.

33) 『동아일보』 1960. 4. 21. 석간 「국가초난국의 타개와 긴박한 민심의 진정을 위하여」.

34) 『동아일보』 1960. 3. 26. 『동아일보』 1960. 4. 12.

35) 최태웅, 『동아일보』 1960. 4. 25. 「국민의사대로」.

36) 오화섭, 『동아일보』 1960. 4. 25. 「피의 대가는 온다」.

『동아일보』가 4월혁명에 관해 의도와 관점이 보다 확연히 드러나는 기획 기사를 보낸 것은 4월 25일자였다. 이 기사는 『동아일보』가 이 사건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어떤 사건을 길거나 짧게 서술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는지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드러난다. 사건의 역사적 기술에서 구성방식이 드러나는 것이다. 먼저 이 기획 기사의 제목은 “4·19의 햇불, 대구학생 ‘데모’로 발화 마침내 운명한 자유당식 민주주의, 고대생은 역사적 선봉”이었다. 중요한 내용을 한 번에 보여주는 기사 제목에는 마산시민의 시위는 제외되어 있다. 대구의 ‘학생’시위에서 고‘대생’의 시위로 자유당에 저항한 시위를 핵심줄거리로 구성된다.

그것은 지금은 옛날의 추억으로 살아있지 대구 학생 ‘데모’에서부터 불꽃이 붙었던 것이다. 대통령입후보를 잃은 민주당이 허전한 발걸음으로 유세행각에 올라 침통한 얼굴로 야당도시 대구에 도착하여 “야 동포야 들어보라”고 외치는 날이었다. 역사적인 2월 28일 — 이날이 바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은 학교에 압력을 넣어 야당연설을 학생들이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일요일교를 시킨 것이다 … 이후 3월 5일 서울에서 약 1천명이 대구학생의 뒤를 따랐다. 3월 8일 대전에서 대전고교생 1천명이 3월 10일 대전에서 대전상고생 3백명이 3월 10일 충주에서 충주고교생 3백명이 역시 3월 10일 수원에서 수원농고생 3백명이 3월 12일 부산에서 해동고교생 130명이 3월 12일(중략) 이렇게 약 반 달동안 언 듯 따져도 무려 6, 7백여 명의 학생이 매일같이 아우성친것이다. 그러다가 드디어 3월 15일이 왔다. 한국의 남단인 조고만한 항도 마산에서 필경은 피의 항쟁이 전개되고 만 것이다. “부정선거를 물리치라!” “학원의 자유를 달라”라고 외치고 일어난 마산의 학생 및 시민들에게 경찰은 실탄으로 제지하기에 이르러 이 고장에서 처음으로 칠명 이상의 피살자가 생긴 것이다 … 다음 경찰은 이들에게 무지무지한 고문으로 보복하였고 또 이들에 공산누명까지 씌우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에 떨은 마산시민은 위축되어 꿈작 못하고 있었으나 그 외의 고장에서는 마산사태를 책임지라고 외치고 나온 것이다 … 마산시민은 또다시 봉기하고 만 것이다. 이 여파는 결국 서울을 울

려 4월 18일 고려대학 전교학생을 분격시키고 만 것이다. 실로 대학 ‘데모’의 횃불을 들고 일어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역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한 것³⁷⁾

기사의 내용에서 학생시위에 대해서는 시위의 날짜와 참가 학생 수까지 적시하지만 마산시위는 사망자의 숫자만이 나오며 시위참가자의 구호까지는 나오지만 시위참가 시민들의 숫자는 나오지 않는다. 시위에 참가한 숫자로도 그 주체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사망자만 나오는 마산 시위는 수동적이며 희생자적인 뉘앙스를 주게 된다. 반면 고대 학생은 “전교학생”이 분격했다고 하여 주체세력의 인원수가 정확히 표기된다. 주체를 능동적이고 명확히 표현해준다. 이 기사의 내러티브는 삼단계의 극적 계기들로 구성된다. 선구적인 대구 등 ‘학생’ 시위와, 누명과 고문에 “위축되어 꿈작 못하고 있었”던 희생자 마산 시민, 이를 구원하고 “인도”한 서울 ‘고대 학생’ 시위라고 하는, 선구자-희생자-구원자라고 하는 구성이다.³⁸⁾ “거룩한 애국운동”의 ‘주체’는 “학생”이 되며 지역의 기층민은 구원의 ‘대상’이 된다.

거의 무의식적이라고 할 만한 이러한 내러티브 구성은 ‘학생들’이 정치적 권력 의도로 부터 순수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한편에서는 혁명 직후 이 혁명의 주체세력들을 정치 권력 문제와 정치적 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설득하기 용이한 위치에 머물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 그들이 “다음 정권을 담당할 준비가 되어있는”이라고 호명했던 민주당 등이 권력을 가져올 세력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서사구조는 AP기자가 쓴 4·19 기사, “AP기자가 본 그동안의 정경, 김주열군과 4·19, 전국시위의 폭발점, 잔인한 경찰행동을 규탄”이라는 기사와 강조점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제목에서부터 전국시위의 시발점을 마산사건과 연결 짓고 있다.³⁹⁾

37) 『동아일보』 1960. 4. 25. 석간 「4·19의 횃불」.

38) 이러한 선구자 - 희생자 - 구원자의 내러티브는 고대신화와 각종 설화들에 보편적으로 쓰인 일종의 영웅 신화의 서사구조다. 영웅 탄생 신화의 구조에 관해서는 조철수(2003), 『수메르신화』, 서해문집 참조.

39) 『동아일보』 1960. 4. 26. 「AP기자가 본 그동안의 정경, 김주열군과 4·19, 전국시위의 폭발점」; 언어 구성을 통해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내는 이론적 논의에 관해서는 롤랑 바르트(1997), 『현대의 신화』, 동문선 참조.

2.4. 4·26 — ‘비상입법회의’는 혁명정부인가 무정부상태인가?

4·19 이후 마산에서는 일반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4월 24일에 흰두루마기로 단장한 오십 세 이상 200여 명 마산애국노인회 회원들이 “책임지고 물러가라 가라치울 때는 왔다”는 구호를 외쳤고 오만 군중이 이에 합류하였다. 교통은 완전히 마비되고 마산은 한때 삼 만 명의 시민이 마산거리를 뒤덮었다.⁴⁰⁾ 『동아일보』는 “그들 사복경찰관 중에는 현금 반환을 내놓고 이걸로 약주나 사잡수시고 데모는 그만두십시요하며 사정사정하는 장면도 있었다”고 보도했다.⁴¹⁾ 4월 25일에는 50세 이상 할머니 약 300명이 ‘죽은 학생 책임지고 이대통령 물러가라’ ‘충맞아죽은 학생원한이나 풀어주소’ 등의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였고 이 마산시위는 5만 군중으로 보도되었다.⁴²⁾ 노인과 할머니들의 주도로 시작된 3차 마산시위는 최소 주민의 5분의 1이 참가한 것이다.⁴³⁾ 지역에서 일어난 자발적인 시민들의 대통령 하야 시위는 “경찰에게 술값을 받”는 시위로 묘사되며 사회면 3면에 2단 기사로 실렸지만, 같은 날 서울지역 교수 시위는 1면의 전면 헤드라인 기사가 되었다.

서울에서는 25일부터 26일 새벽까지 258명의 서울시내 각 대학교수가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대학을 출발하여 종로-을지로입구-미국대사관-국회의사당까지 행진하였다. 그리고 4월 26일 데모대가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다. 2시 개의를 앞둔 국회의사당 방청석에까지 데모대가 밀려들어갔다. 그러나 이철승은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니 다먹은 밥에 코빠치지 말고 선을 넘지말고 질서를 유지해야한다”는 무마연설을 하였고 데모대는 해산하기 시작했으며,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학생들의 호소에 따라 국회방청석에 몰려든 시민들이 모두 나가게 되었다.⁴⁴⁾ 의사당 앞 정문 및 복도 등을 학생자치대가 경비하는 가운데 개의가 되었고, 대학생 수습반이 의사당 입구와 복도 경비를 섰다. 대학생 수습대가 없었다면 국회는 개원 조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40) 『동아일보』 1960. 4. 25. 「마산서 노인데모」.

41) 『동아일보』 1960. 4. 25. 석간 「순경들이 술값 주며 호소 마산노인들 ‘데모’말라고」.

42) 『동아일보』 1960. 4. 26.

43) 이은진(2004), 앞의 책.

44) 『동아일보』 1960. 4. 27. 석간 「정계스냄」.

그런데 시민들이 국회의사당까지 점령했으나 기존 국회의원들이 ‘개헌후 국회해산’이라는 현상유지책으로 의결하면서 4월혁명을 봉합한 다음날인 27일 이를 반복해야 한다는 주목할 만한 발언이 있었다. 27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던 주요한은 “현행 헌법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이번의 ‘데모’에 참가했던 학생 대표, 교수단 대표, 변호사 대표, 신문편집인협회 대표, 공명선거추진위 대표, 비자유당계 정당 대표 등 약 백 명으로 비상입법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서 과도내각을 구성, 정부통령선거를 실시해야 된다”, “지금은 혁명상태니까 헌법 기능을 정지해서 국회를 즉각 해산한 다음 ‘비상입법회의’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⁴⁵⁾ 혁명세력으로 구성된 ‘비상입법회의’를 만들고 단시일 내에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기초하여 통과시키고 신헌법에 따라 정부를 조직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복간된 후 최초의 사설인 4월 28일자 사설에서 주요한 의원의 발언에 대한 사설을 실었다.

이 구상은 곧 헌법을 정지하고 **혁명정부를 수립하지는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번 사일구 반독재혁명이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평화시위로 출발했고 또한 지금도 어디까지나 질서 있는 사후수습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의거학생들이 ‘이승만정부 물러나고 정·부통 선거 다시하자’고 외쳤지만 그러나 이대통령이 정권을 포기하는 형식이 역시 법의 질서에 따랐고 그래서 또한 법의 질서에 따라 정부통령선거를 다시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요 지혜로운 방법이다. (중략) **불란서 제오공화국도** 혁명에는 특림이 없지만 역시 지혜로운 국민이기에 합헌적 해결에 성공하지 않았던가. (중략) 비상입법회의라는 새로운 권력기관이 생겨가지고 국민의 수임도 없이 개헌을 하고 정부를 세운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산실에서 진통한 연혁을 저버리는 처사... 혁명정부가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그 회원국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이는 **극히 위험**⁴⁶⁾

45) 『경향신문』 1960. 4. 28. 『조선일보』 1960. 4. 28. 「국회해산 후 재선거실시」; 『동아일보』 1960. 4. 28. 「정계스냅」.

46) 『경향신문』 1960. 4. 28. 「사설, 비상입법회의는 존립의 근거가 없다」.

『경향신문』이 주요한의 비상입법회의안을 ‘혁명정부’안이라고 비판하면서 모델로 끌어들이는 예는 1958년 드골의 제5공화국으로 이들은 알제리 전쟁으로 불안해진 프랑스 국민이 제2차 대전 직후 은퇴한 강력한 프랑스를 주장했던 ‘드골장군’을 다시 불러들여 국민투표를 통해서 입법부를 약화시키고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실현했던 사건이다. 『경향신문』 사설은 사월혁명 이후의 사태가 비합법적인 상황으로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 불안을 잠재울 강력한 지도자로 군인 출신 드골을 끌어들이던 프랑스의 예까지 나갈 정도의 지극한 불안과 두려움을 보여준다.

『동아일보』는 민주당 정책위의장 주요한의 기존 국회 해산 및 ‘비상입법회의’안을 “무정부상태”를 초래하는 제안으로 맹비난하면서 칼럼에서 스케치하듯 다룰 뿐이었다. “학생들이 민주제단에 거룩한 ‘피’를 흘린 것이 이 나라의 헌법을 정지시키고 국가를 무정부상태로 몰아넣어 암흑화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착각을 하신다면 위험천만”이라는 전언을 실었다.⁴⁷⁾ ‘비상입법회의’안처럼 혁명세력을 직접 정치에 참여시키는 것은 ‘무정부상태’를 야기할 일고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듯 기사화 자체를 하지 않았다.

반면 『조선일보』는 이들 매체 중 유일하게 정식기사로 비교적 비중 있게 그 내용을 자세히 기사화하면서 이 발언이 “민주당 신 구파의원간의 새로운 분규를 재연시키게 되었다”고 논평했다. 이들 세 언론매체의 혁명 후 권력재편에 관한 논평은 4월혁명에 대한 이들의 정치적 입장을 보여준다. 『동아일보』가 학생 및 일부 시민 등 혁명참가세력들이 정치에 참가하는 것을 무정부상태라 하여 적극적으로 제어하고자 했다면, 『경향신문』은 기존 법의 테두리가 허물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했고, 『조선일보』는 한 발 뒤에서 민주당 내 신구파의 분란이 생길 것이라면서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며 혁명의 문제가 아닌 민주당내 싸움으로 한계 짓고 있었다.

또한 『동아일보』는 비상입법회의를 정식기사로 다루지 않은 반면, 다수의 지면을 ‘대학생수습대책반’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대학생수습대책반’은 자유당의원을 포함한 기존 국회의 본회의 경비를 서고 군부에 의해서 각 경찰서에 배치되기까지 하며, 자유-민주당 체제를 비난하는 운동단체를 경찰에 고발하여 체포되도록 하는데 이 정황

47) 『동아일보』 1960. 4. 28. 「정계스넵, 무정부상태는 피의 보답아니다」.

을 자세히 보도한다.⁴⁸⁾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주된 혁명의 주체이며 희생자들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사당에 진입했던 시민들은 이들 경비 대학생들이 자신들이 대학생들이라고 밝히고 저지했을 때 모두 의사당 밖으로 나갔고, 본회의는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만’ 진행되었다. 『동아일보』는 사실을 통해 대학생들이 질서 유지와 ‘치안’을 담당해줄 것 그리고 언론사도 보호해 줄 것을 호소하고 격려했다. 혁명의 주체를 시민과 민중이 아닌, 학생들 그 중에서도 순수하고 계몽된 ‘대학생들’로 한정함으로써 재선거를 통한 정권교체 — 민주당 등 자유주의세력의 집권이라고 하는 기획으로 혁명을 제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독재 자유주의 언론의 위상으로 대학생 및 중간층 시민들에 대한 헤게모니적 영향력도 확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월혁명 이후 뒤늦게 복간된 『경향신문』은 주요한의원의 이 ‘비상입법회의’를 복간 후 첫 사설로 비중 있게 다루었지만, 이를 ‘혁명정부’를 세우는 안이라고 비판하였다. 비상입법회의는 얼마든지 그 역할의 한계를 정할 수 있으며 혁명 주도세력이 참가하여 목소리를 내고 기존 국회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 등에 관해 논의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혹은 이 두 신문이 사설에서 한 그 논의를 이 비상입법회의든 어떤 자리에서든 혁명의 주도세력의 요구사항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 주요한의 ‘비상입법회의’는 당시 자유주의가 제출할 수 있었던 가장 급진적인 안이었을 것이다.

혁명을 통해 대통령이 하야한 상태에서 자유당계가 그대로 있는 국회에서 의결에 따라 개헌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허정 과도정부 수반은 27일 개헌-대통령선거-국무총리 임명안을 선언했다. 자세한 것은 국회와 상의한다는 단서를 덧붙이기는 하였지만, 허정에게 이 역할을 맡기는 것까지 이승만의 지시사항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 방안대로 혁명 이후의 과정은 전개되었다. 이 안에 따라 7·29 총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에도 자유당 의원들이 존속하였고, 지방에서는 더욱이 자유당계 인사들이 지방의 경제적 이권세력들 및 경찰 지방관료들과 결탁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출마하게 된다. 특히 마산지역에서는 자유당계 인사들의 국회의원 선거 출

48) 『동아일보』 1960. 4. 27. 석간; 『동아일보』 1960. 4. 28.

마를 저지하려고 하는 시위와 학생들의 처절한 단식투쟁이 이어졌다.⁴⁹⁾ 출마를 저지하지 못했던 삼천포 지역에서는 자유당계 인사 투표용지를 불태우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민주당계는 총선 전후 과정에서 제1공화국의 부정축재자들, 재벌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사월혁명 이후 ‘비상입법회의’와 같은 논의가 전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구 정치구조 및 자유-민주당의 정치세력들이 같은 구조 속에서 온존한 상태에서 사월혁명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 부정선거를 막는 차원에서부터 대의제도 자체의 계급적 차별이 완화되는 차원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 결실을 맺기 어려웠다는 점을 보여준다. 혁명의 시작까지는 자유주의 세력의 운동과 노력이 따르지만, 혁명이 시작된 이후에는 자유주의적 틀 내에서 — 기존의 법적 틀 안으로 운동을 고사시키려는 자유주의 세력의 배가된 노력이 진행되었다.

3. 혁명의 성격 짓기 — 『사상계』의 지식인혁명/정신혁명

3.1. 자유민권운동

4월까지 『사상계』는 3·15 마산사건을 ‘학생테모사건’으로 명명하다가 이후 ‘사월혁명’으로 부르는데, 여기에서 운동의 주체세력과 관련된 장준하의 생각이 편집장으로서 쓴 「권두언」에 자세히 나온다.

‘일당독재의 실을 확연히 노출시켰고 일부 악질지도층은 악랄한 공산당의 수법으로 백성의 수족을 뽕뽕 묶어 버리려 들고 있었다.’ 한편 ‘민권운동을 자부하는 양당은 집권당과 행정부의 非를 들어 인기전술로 일시 국민의 마음을 모으려는 데는 힘쓰나, 민족의 장래를 위한 애국정성의 결여에서인지 민권운동이라기보다는 나만

49) 『경향신문』 1960. 7. 13. 「대거출마에 반발심 격화일로 반혁명세력규탄 마산서 대학생 연좌테모」; 경향신문 7. 20. 「시민투위를 구성」; 『경향신문』 1960.7.24, 「마산투위 실력행사키로」; 『동아일보』 1960. 7. 20. 「잡아넣라고 아우성, 이용범씨 규탄테모 창원군 도처에 파급 합세하는 군민격증, 단식환자도」.

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듯한 혹한 싸움으로 자당내의 통일조차 유지치 못하는 경향을 보여 주어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나라의 正氣를 외치고 不正과 不義에 항쟁하려는 純情無垢한 어린 학도들의 뒷통수를 방맹이로 후려갈기거나 어린 가슴에 총뿔리를 대어 피를 흘리게 하는 따위 야만적 행동은 부정에 항거하는 군중의 시위를 막겠다고 7,80명의 인명을 살상케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요.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부정과 불의에 항쟁은 못할망정 오히려 야합하여 춤춘 일부 종교가, 작가, 예술가, 교육가, 학자들의 醜態다. 선거통에 한몫 보자고 敎友의 수를 팔아가면서 쪽지를 들고 돌아다니는 목사장로 따위의 축복을 바라고 그가 높이 든 팔 아래 머리를 숙이고 ‘아-멘’으로 화창하는 신도들에게 **신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⁵⁰⁾

이 권두언에는 지도층, 야당, 공무원, 학도들 및 종교가, 작가, 예술가, 교육가, 학자 등 지식인층, 그리고 신도들이라는 사회집단이 등장한다. 여기에서 일부 악질 지도층은 ‘악랄한’ 공산당의 수법으로 백성의 수족을 묶어 버리는 정신적인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광적으로 날뛰는 민주공화국을 망치는 이들이다. 그 다음 비판의 대상은 불법선거를 수행한 공무원들인데, 이들은 “불법을 감행하라는 명령에까지 그렇게 성실하게 임하는 관원들의 행위에 개탄을 마지 않는다”⁵¹⁾다 하여 이들의 행동은 “개탄”의 대상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성직자, 교육자, 예술가, 학자들의 추태는 “가슴 아픈 행위”이다. 장준하로서는 그 심리적 거리 및 그에 따른 책임감이 가장 가까운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일차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자이며 더 깊게는 성직자, 교육가, 예술가, 학자군에 가장 가까운 책임감과 거리를 느끼는 군으로 스스로 사회심리적 위치를 잡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화이트 지식계급군에게 미혹된 일반 민중 신도들은 “신의 저주”를 받을 대상이다. 기본적인 합리성이 부족한 민중에 대한 화이트칼라의 자유주의 지식인다운 엘리트주의

50) 장준하(1960), 「권두언 창간 7주년 기념호를 내면서」, 『사상계』 4월호.

51) 장준하, 위의 글, pp. 18-19.

적 면이 있었다고 보인다.⁵²⁾ 물론 장준하는 그 다음 글에서 예술가, 작가, 교육가 등을 비판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들의 직업을 그만두라는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학자들에게만 “반역자”라는 보다 엄격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지조없는 예술가들이여 너의演技를 불사르라. 너의 연기는 독부의 미소떠운 독약섞인 술잔이다. 부정에 반항할 줄 모르는 작가들이여 너의 붓을 꺾으라. 너희들에게 더 바랄 것이 없노라. 양의 가죽을 쓴 이리떼같은 교육가들이여 토피를 던지고 관헌의 제복으로 갈아 입거나 정당인의 탈을 쓰고 나서라. 너희들에게는 일제시의 노예근성이 뿌리깊이 서리어 있느니라. 지식을 팔아 영달을 꿈꾸는 학자들이여 진리의 곡성은 너희들에게 반역자란 낙인을 찍으리라.”⁵³⁾

장준하가 이들과 가장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며 기대하는 계층은 “純情無垢한 학도들”이다. 3·15 시위에서 앞장 선 것은 학생들이었지만, 1000명에 가까운 시민들, 다양한 계층이 함께 했고 농부 등이 총탄을 맞기도 했다는 사실이 이미 같은 호 『사상계』 기사란에 자세히 게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담론에는 장준하의 정치심리적인 선호도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 부정선거에 항거한 시민들은 아직 “민도”가 낮은 “백성”들로서 주체라기보다는 여전히 “계몽”의 대상이며, “학도”들은 교양 있는 중간계급의 맨 하위 후보군으로서 도덕적으로 “무구(더러움이 없는)”하며 순수한 계층으로 항거의 주체가 될 만한 존재인 것이다. 그의 종교적이며 도덕주의적이고 중간계급 지식인의 엘리트주의적인 면이 이러한 3·15 시위의 주체들에 대한 전유의 심리적 배경으로 일조했다고 할 것이다.

동시에 ‘백성’이라든가 ‘민권’이라는 표현이 동아일보 기사 및 칼럼에서 보다 더 많이 자주 사용된다.

52) 장준하, 위의 글, p. 19.

53) 장준하(1960), 「권두언 창간 7주년 기념호를 내면서」, 『사상계』 4월호.

오직 백성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나라 이 백성이 체득케 하기 위하여서였고 이대통령의 총명이 이에 미쳐 국민의 의사에는 누구나 복종한다는 전례를 만들어 국부로서의 만대의 숭앙을 받아 주기를 바라는 간곡한 마음에서였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오직 후진에게 희망을 걸고 이 나라의 민도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노라. 온 국민이 올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계몽의 역군이 되겠노라. 이 나라에 민권이 확립될 때까지 꿋꿋이 싸우겠노라.⁵⁴⁾

한국의 민권운동도 이제 피를 흘리기 시작하였으니 만방의 자유민들 앞에 머리를 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천인이 공노할 관권의 야만적 횡포아래서도 그저 울고만 있는 유약한 백성이란 낙인은 우리에게 다시는 찍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은 쓰레기통 속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다림 같다’던 망언도 이제 취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입으로 ‘자유’를 논할 자격을 얻었으며 행동으로 민권을 과시한 실적을 남겼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삼일오 총선거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특히 마산지구에서 무참히도 순사한 민권의 사도, 정의와 자유의 용사들의 젊은 영혼 앞에 두 손을 모아 그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⁵⁵⁾

장준하뿐만 아니라 『사상계』 편집위원인 역사학자 김성식도 “자유와 民權을 위한 학생들의 투쟁운동”이라 하여 사월혁명을 ‘민권운동’으로 보고 있다.⁵⁶⁾

이들은 왜 인권이나 인간의 권리 및 자유 등의 표현 대신에 굳이 ‘민권’, ‘민권운동’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했을까. 민권은 개개인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집단주체인 민의 권리운동이다. 이 표현은 동아시아에서 19세기말 20세기에 사용한 용어이고 특히 대한제국기 독립협회 등의 운동에 사용했다. 개인이라고 하는 고유한 존재의 인간의 권리와 자유보다는 집단적 민의 자유와 기본 권리 운동이며 주로 중간계급인 신지식인 층들이 이 운동을 담당했다. 중국에서는 향신층 출신의 변법세력들이 1898년경 주도했

54) 장준하(1960), 앞의 글.

55) 장준하(1960), 「민권전선의 용사들이여 편히 쉬시라」, 『사상계』 5월호(1960년 4월 10일 발행).

56) 金成植(1960), 「學生과 自由民權運動」, 『사상계』 6월호, pp. 66-67.

고, 일본에서는 1890년대 자유민권운동도 지식층의 운동이었다. 1898년 독립협회의 민권운동도 중인층 및 일부 양반출신들이 주도한 운동이었다. 중국의 경우는 민주주의라는 표현조차 이들 향신층의 정치적 진출 및 권력신장을 주장한 것이었고 자신들이 진출한 의회 등의 기구를 통해 민의 자유 및 권리를 신장하고자 한 운동이었다.⁵⁷⁾ 이러한 관점에는 민중은 여전히 계몽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시각, 18세기 로크나 20세기 초 우드로 윌슨이 필리핀 등의 식민지민에게 취했던 시각이나 루스벨트의 신탁통치안에 스며있는 탈식민지민에게 취했던 관점이기도 하다.⁵⁸⁾ 장준하가 4·19를 굳이 민권전선, 민권운동으로 표현했던 것은 19세기말 대한제국기의 민권운동이 식민지 시대를 거쳐 단절되었다가 다시 정부권력으로부터 인권의 자유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역사적 정황이라는 점이 작용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계몽기의 자유주의 지식인, 또는 식민지민에 대해 백인 자유주의자들이 취했던 계몽주의적 엘리트주의적 시각이 작동하기 쉬운 역사적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동아시아 자유주의가 보여주는바 개인의 천부인권과 같은 인간 개인으로서 권리와 자유보다는 집단적인 민, 민족의 자유 및 권리를 강조하는 집단주의적 특성도 간과할 수 없다. Natural right를 천부인권이라고 번역했던 일본에서는 19세기말 자유민권운동이 처절히 진압된 뒤 대정데모크라시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미미하며 중국도 1920년대 신문화운동기의 개인주의 시대를 제외하고 자유주의 세력이 대만에서 살아남았을 뿐이다.⁵⁹⁾

이러한 민권운동이라는 표현은 다른 한편으로 자유주의 지식인이 자신들을 ‘교육자’ 및 계몽자로서 역할 했으며, 혁명 이후로도 여전히 교육자이자 계몽자로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할 공간이 남아 있을 수 있게 한다.

57) 양일모(2017), 「근대 중국의 민주 개념」, 『중국지식네트워크』,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9(9), pp. 53-83.

58) 윤상현(2016), 「주권, 세계 구상,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계보」, 『개념과 소통』 17, 한림과학원; 윤상현(2013), 『『사상계』의 근대 국민 주체 형성 기획 -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 『개념과 소통』 11, 한림과학원.

59) 진관타오(2011), 『관념사란 무엇인가 2 관념의 변천과 용어』, 푸른역사; 윤상현(2019a), 앞의 글.

3.2. 지식인혁명/정신혁명

『사상계』는 『동아일보』와 달리 사월혁명에서 지식인들의 역할을 유난히 강조한다. 이 혁명의 기반은 교수 교사들이며, 이를 촉진해준 것은 언론인, 그리고 여기에 희생되었으며 주도한 세력은 학생들이다. 혁명세력은 혁신세력이나 여타 정당을 지지한 바 없다는 주장은 정치정당과 연결되지 않은 지식인의 혁명이라는 정의로 이어진다.

사월혁명은 자유와 민권의 선각자인 이 땅의 지식인들의 손에 의한 혁명이다. 그 기반을 닦아온 것은 정객들 보다는 양심 있는 이 나라의 교수들과 교사들을 포함한 지식인들이오 이에 박차를 가해준 것은 신문이나 잡지들을 포함한 매스컴의 힘이오, 그 불길이 되어 탄 것은 가장 감수성이 강하고 정의감이 가장 두터운 학도들이었음이 분명하다. 혁명군중의 입에서 어떤 정당의 만세를 외치는 구호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혁신을 부르짖는 어떠한 정치인에게도 그 발을 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다.⁶⁰⁾

이 권두언은 6월호로 1960년 5월 20일 발행되었으니, 4·26 이후 이미 대략 한 달 정도 경과된 이후이다. 『동아일보』가 사월혁명에서 민주당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연관성을 강조했다면 『사상계』는 사월혁명을 교육계, 언론계가 이끌고 학생들이 그에 따라 일어난 것으로 서술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혁명의 주도세력과 관련된 엘리트주의는 『동아일보』와 『사상계』에 유사한 점이 있으며 이는 대중에 대한 불신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이와 반대로 일반 대중은 문맹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과거의 인습과 도덕에 얽매어 윗사람을 향하여 투쟁한다는 자체가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 대다수가 그들에 의하여 구성되었다는 의식도 없고, 다만 남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유와 민권이 무엇인지 자각조차

60) 장준하(1960), 「권두언, 또 다시 우리의 향방을 闡明하면서」, 『사상계』 6월호.

할 수 없는 형편이요, 그 때문에 어떠한 혁신운동에도 그 반응은 지극히 미약한 것이었다. 그들이 어떠한 혁명운동에 가담한다 하여도 그것은 그들을 압박하는 현재도를 뒤집어엎는데 있는 것이요, 자유와 민주주의가 무엇이 좋고 나쁜지 아지 못하고 있는 때가 많다. 그러니까 그들도 자유 민권의 담당자는 되지 못한다.⁶¹⁾

유럽의 자유주의운동도 시작은 민중의 기본권 요구 운동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들의 남다른 대중에 대한 불신과 지식인 엘리트주의 등은 대체로 그들이 한국사회를 후진적으로 인식하고 서구에 대한 환상이라고 할 만큼의 이상화된 서구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⁶²⁾

혁명 이후 방향을 논하는 문제에서는 그 우선순위가 특징적이다. 1) 지식층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 2) 자유우방들이 믿을 만한 정책, 3) 국민 생활향상에 전력하는 정책이다. 우선순위에서 국민 생활향상이 최우선이 아니라 지식층이 납득할 만한 정책이 우선되다는 점이나 자유우방이 불신하지 않을 만한 정책이 우선순위를 점한다는 것은, 민생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기존 지식인층이 바라고 자유우방이 바라는 한계를 넘지 말라고 하는 방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프랑스혁명의 예에서 보이듯이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자발적인 민중의 혁명 다음에 권력을 잡은 자유주의 세력들은 급진적 민중들과 격렬한 투쟁을 했던 프랑스혁명의 예를 상기한다면, 근대민족국가 초기이며 노동 세력보다 농민이 70% 정도 대다수를 점하고 있던 계급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지식인 중심의 자유주의 세력이 사월혁명을 ‘지식인들의 혁명’으로 ‘지식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할 방향으로’ 전화시키기를 의도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책은 이 나라 지식층에게 완전히 납득 이 될 수 있는 투명한 정책이어야 하며 그러한 정책만이 수행의 묘를 얻게 될 것이

61) 金成植(1960), 「學生과 自由民權運動」, 『사상계』 6월호, pp. 66-67.

62) “물론 선진각국에서와 같이 정치가 공의에 벗어나지 않고 사회적 불의가 없을 경우에 학생들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후진성을 많이 지닌 국가는 … 근대정신에 따라 먼저 각성한 학생들에 의하여 민주적 학생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 위의 글, p. 66.

다. 일부 정당이나 정객들의 야욕이 숨어 있는 정책은 앞으로 그 생명을 가지지 못할 것이며 종래의 집권자들에게 멸시를 당하였던 이 나라 지식층의 준엄한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둘째로 자유우방들에게 오인과 불신을 받을 만한 요소는 모든 정책면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유민주국가군의 일원임이 뚜렷하다. 이 대오에서 뒤질 수도 없고 탈선도 허용되지 않는다. 오직 우리에게만 이 대열 속에 정렬하고 이 대열 속에서 전진함이 있을 뿐이다. 사월혁명은 국민의 강렬한 투지와 자유우방의 견결한 지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지 어떤 한쪽의 萎縮이라도 있었던들 부정애 계속 항거하는 단결된 국민의 역량이 없다면 수포화했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는 까닭⁶³⁾

여기서 “집권자들에게 멸시를 당하였던 이 나라 지식층”이란 언술은 장준하 자신이 속한 서북계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면서 또한 자신이 속한 지식인 계층의 불안한 위상에 대한 심리적 자의식적 묘사로도 읽힌다.⁶⁴⁾ 이승만 하야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지켜본 자유진영에 대한 의식은 『동아일보』와 『사상계』가 동일한 지점이다. 다만 『동아일보』가 사월혁명이 반미적 요소가 없다는 점을 끊임없이 미국에 알림으로써 대한민국의 탄생으로 자기세력이 지배그룹의 사회 상층세력으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면에서 유엔 가입과 가입국들의 승인이라는 보다 이해관계에 기초했음을 강조하는 형식을 띠었다면, 『사상계』는 자유진영이라는 군대의 “대오” 속에서 “탈선” 조차 허용되지 않는다고 표현함으로써 우방이 알던 모르던 바라보고 있던 그렇지 않던, 그들에 대한 의존에 강박적일 만큼 자각적이며 자발적이라는 심리적 절박성의 차이는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4월혁명의 향후 과제로 『사상계』는 정신혁명을 강조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번 혁명의 직접 계기는 부정선거와 마산학살이었지마는 그 목표는 반민주, 부패, 독재에 대한 항거였었고 이 목표는 현재에서도 변함이 없는 것. 반민주요소의

63) 장준하(1960), 「권두언, 또 다시 우리의 항방을 闡明하면서」, 『사상계』 6월호.

64) 장준하(1983), 『장준하전집』 1, 사상사 참조.

배격을 위한, 부패세력의 소탕을 위한, 도제세력의 재등장을 막는, 일대 정신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 정신의 쇄신운동이다 …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정신운동만이 — 개개인의 머리와 가슴속에 부식되는 민주혁신에 대한 신념만이 —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점 이미 혁명을 수행한 바 있는 학생은 절호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하는 것이다 … 정치정당에서 한걸음 떨어져서 민주, 쇄신을 위한 정신운동을 견지해 나갈 경우 그 힘은 저번 혁명 때보다도 더 큰 위력을 가져올 수 있는 것.⁶⁵⁾

정당정치와 떨어진 정신운동을 강조하는 이러한 경향은 일제 시기 안창호 계열의 실력양성운동을 연상시키는 면이 있다. 정신수양을 강조하는 것이 흥사단의 전신인 수양동우회 계열의 전통이기도 하며, 이들이 따랐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 및 영혼을 물질보다 강조하고 관념적 성향을 반영하기도 한다. 정치적으로는 제국주의로부터 직접적인 저항보다 정신수양과 교육 및 실업양성을 통한 준비론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준비론적 경향은 사회계층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안정적인 부르주아 계급이나 중산층으로서 재생산기제를 마련하지 못한 소부르주아적 입지점에서 시간적 재정적 성장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독교적 경향과 사회계층적 입장이 『사상계』의 사월혁명 이후 운동의 과제에서 정치권력의 문제를 소거한 ‘정신혁명’ 주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⁶⁶⁾

『사상계』의 편집위원 김성식도 후진국에서는 중산계급이 아닌 학생들과 지식인들에 의해서 민주적 학생운동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서 사월혁명 이후 정신 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⁶⁷⁾ 그는 사월혁명을 오스트리아의 빈혁명과 비교하지만, 빈혁명 당시 학생 정부가 수립되어 무려 7개월간 빈을 점령하고 학생정부를 운영한 것에 관련해서는 언급

65) 고병익(1960), 「『혁명』에서 운동으로」, 『사상계』 6월호, p. 119.

66) 정신혁명과 관련해서는 유명론적 논쟁을 거치지 않았던 한말 자유주의적 전통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며 다른 글에서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전자에 관해서는 윤상현(2019a), 앞의 글 참조.

67) “우리는 지금까지 李朝五百年의 연장된 정치체제를 가졌던 것이나 이제부터 비로소 새로운 민주와 도덕과 양심의 정치체제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혁명으로 우리는 **정신적 혁명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金成植(1960), 앞의 글, p. 71.

이 없다. 누가 권력을 잡거나 정치적 행동에 관해서도 논구가 없고 도의적 혁명, 정신혁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안으로 등장한다는 면에서 이는 『사상계』의 한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4월혁명의 주체에 대한 전유는 1950년대 한국 자유주의 세력의 성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동아일보』는 보수적인 사회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시위가 친북한이나 친공산주의 등으로 오독되는 것에 적극 반대했다는 측면에서 ‘오열’이 개재되지 않은 ‘순수한’ 학생들만의 시위이기를 기대했다고 할 수 있다. 선거가 아닌 시위에 의한 정권교체라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사월혁명을 이들 학생들만의 시위로서 한정하고, ‘친미’라는 자유진영체제가 흔들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동아일보』 계열이 그만큼 상층 부르주아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들은 대구학생시위-마산사건-4·19에서 선구자-희생자-구원자라는 영웅 서사구조를 통해 결국에는 3개월여 동안의 운동에서 ‘대학생’이 이 운동의 영웅이 되도록 했다. 참가수와 기간으로 보면 중고등학생 및 남녀노소 시민들의 몇 달간 진행된 사건이었지만, 마산사태와 비교되는 “모범적이고 순수한” 대학생 중심의 의거로 재생산 되는 것이다.

1950년대 『동아일보』는 정권이 교체된다면 언제든 기득 권력이 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풍부한 상층 부르주아로서 이들의 자유주의는 영국 보수당의 자유민주주의나 자신들이 보수야당이라고 비판했던 민주당 못지않은 체제 수호라는 보수성을 띠고 있었다. 또한 이들이 주조한 친미적 자유주의, 사적 소유재산권에 대한 철저성 등의 특성들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가 결국 보수 세력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던 것처럼 현대 한국 자유주의가 기득권력이 되어 보수화되었을 때 그 구성 요소의 기원으로 자리하게 된다. 이질적인 군대에 의한 정부에 대해서는 반정부 투쟁세력이었으나 민주화로 군인세력이 물러난 이후에는 이들 구성 요소의 전통을 유지한 보수적 세력으로 위치지어 갔다.

한편 1950년대 자유주의를 이끈 한 그룹이라 할 『사상계』, 『경향신문』, 흥사단계열은 개신교, 천주교 등 일제 시기 이래의 종교적이고 도덕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었으며, 막별이꾼, 농부, 잡역부들보다는 중간계급 후보군, 그들 중에서도 어리므로 도덕적 흠결이 덜할 수 있는 청년 학생들을 민권운동, 자유와 권리를 위한 저항운동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이 청년 학생들을 교육할 교육자의 역할로서 지식인의 위상을 부각시켰으며, 사월혁명의 향후 과제로서 정신혁명을 강조함으로써 청년 학생들을 정신적으로 이끌고 계몽하며 지도할 지식인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지식인혁명’이라는 틀을 구성하고자 했다. 현대문화의 불안과 신경증을 넘어서 소부르주아적인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던 지식인들은 ‘실력양성론’과 같은 준비론을 통해서 불안한 지식계급이 성장하고 안정화할만한 물질 토대와 시간적 경제적 준비기간의 확대를 구하거나, 관념적이고 종교적인 지적 체계들로 다른 계급들과 구별 지으며 사회 내에서 위상의 안정화를 이들은 중간계급의 중하층으로서 신분상승과 하락이 일어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입장으로 인한 불안함을 정서적 특징으로 한다.⁶⁸⁾ 자의식적인 지식인으로서 흥사단계열의 지식인들은 이러한 지적 전통을 한 축으로 하고, 1950년대 생산관계에서 탈거된 월남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더욱 불안한 소부르주아적인 위상 속에서 사월혁명의 폭발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 ‘정신혁명’이라고 하는 또 다른 준비론적인 물러섬을 주장했다.

사월혁명기 자유주의 중 상대적으로 가장 급진적이라 할 수 있었던 주요한의 ‘비상입법회의’는 혁명을 주도했던 학생, 지식인 등으로 비상입법기관을 구성하자는 안이었지만 당시의 계급구성 자체가 뒤흔들릴 것을 원치 않았던 그들 내부에서 묵살되었으며, 향후의 정치적 구도를 바꿀 수도 있었던 혁명 직후의 권력문제를 둘러싼 이 안에 대한 각 정치세력들의 논란은 그들의 정치경제적 입지점을 정확히 보여주었다.

롤랑 바르트에 의하면, 현대의 신화는 어떤 동기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지지만 그 신화를 듣고 이용하는 사람은 ‘신화가 이성화되어 매우 자연스러운 이야기’로 받

68) 부르주아의 심리적 특성에 관해서는 피터 게이, 고유경 역(2005), 『부르주아전, 문학의 프로이트, 슈니츨러의 삶을 통해본 부르주아계급의 전기』, 서해역사 참조.

아들이는데, 이것이 신화의 '숨은 힘'이다. 현대의 신화는 '지배적인 가치나 태도를 자연스럽게 정상적이고 당연하고 영원하며 자명한 상식처럼' 만들어 '세계를 고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냉전 시기 지역민들의 수개월에 걸친 저항과 죽음에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투표용지조차 주지 않았던, 시위 참가만으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던 권력이 없는 자들의 질긴 저항이 뒤엉켜있었다. '계몽되고 순수한 대학생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의거'라는 단면적 신화는, 기성 계급구조의 세계를 고정시키고 '반공'을 그 시대의 더욱더 자명한 신화와 종교로 만들었다.



윤상현 경남대 역사학과 조교수

서울대 박사, 한국근현대사 전공,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자유주의, 동아시아에서 '개인' 개념의 역사등을 연구 중

[참고문헌]

〈자료〉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思想界社, 『思想界』, 1953-1970.
 학민사편집실편, 『사월혁명자료집, 四一九의 民衆史』, 학민사.
 일월서각, 『四一九革命論』, 일월서각.
 張俊河, 1983, 『張俊河전집』1-3, 사상사.

〈논저〉

김상태(2002), 『근현대 평안도 출신 사회지도층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문지영(2005), 「한국의 근대국가 형성과 자유주의」, 『한국정치학회보』 39(1).
 양일모(2017), 「근대 중국의 민주 개념」, 『중국지식네트워크』,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9(9).
 오제연(2014), 「4월혁명의 기억에서 사라진 사람들」, 『역사비평』 106, 역사문제연구소.
 윤상현(2019a), 「관념사로 본 1910년대 '개인' 개념의 수용 양상 — 유명론적 전환과 개체로서 '개인' 인식」, 『인문논총』 76(2),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윤상현(2019b), 「『思想界』의 시기적 변화와 '개인' 개념의 양상」, 『인문논총』 49,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윤상현(2016), 「주권, 세계 구상,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계보」, 『개념과 소통』, 17, 한림과학원.
 윤상현(2013), 「『사상계』의 근대 국민 주체 형성 기획 —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 『개념과 소통』 11, 한림과학원.
 이상록(2011), 「경제제일주의의 사회적 구성과 '생산적 주체' 만들기 — 4·19 ~ 5·16시기 혁명의 전유를 둘러싼 경합과 전략들」, 『역사문제연구』 15, 역사문제연구소.
 이은진(2004), 『근대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조철수(2003), 『수메르신화』, 서해문집.
 조한상(2015),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원광법학』 31,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석률(2004), 「1960년대 한국 민족주의의 분화」,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과 지식인』, 선인.
 Shimokawa, Ayana(2014), 「4·19 해석의 재해석: 『사상계』 지식인이 만들어낸 4·19 민주혁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롤랑 바르트(1997), 『현대의 신화』, 동문선.
 앤서니 아블라스터, 조기제 역(2007), 『서구 자유주의의 융성과 쇠퇴』, 나남.
 진관타오·류칭핑, 양일모 외 역(2011), 『관념사란 무엇인가 1 이론과 방법』, 푸른역사.
 진관타오·류칭핑, 양일모 외 역(2011), 『관념사란 무엇인가 2 관념의 변천과 용어』, 푸른역사.
 피터 게이, 교유경 역(2005), 『부르주아전, 문학의 프로이트, 슈니츨러의 삶을 통해본 부르주아계급의 전기』, 서해역사.

코로나19 시대와 민주주의의 미래

김재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조교수

들어가며

2019년 12월 30일, 세계보건기구(WHO)에 ‘COVID-19’(이하 코로나19)라는 신종감염병이 보고된 지 벌써 1년 반 정도가 지났다. 이 기간 세계적으로 1억 6천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3백 3십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는 이미 흑사병, 스페인독감, 두창, AIDS/HIV 등에 이어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전염병 10위 내에 포함되었다. 2020년 12월경부터 백신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나 영국을 제외하고 2021년 5월 18일 현재까지 1회 이상 접종률이 50%를 넘는 나라는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백신에 의한 집단 면역은 아직 갈 길이 멀기에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는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 역사적으로 전염병의 창궐은 엄청난 사망자뿐만 아니라 정치적 불안이나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방역 기술이나 정책의 발전을 가져오기도 했다(윌리엄 맥닐, 2005). 코로나19 역시 수많은 사망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충격과 변화를 가져왔다.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 차별이 그중 한 사례이다.

한국 사회 역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일상에서 마스크는 이제 필수품이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구의 이동과 사회적 접촉이 감소했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대표적으로 관광업 분야 등이 급속히 쇠락했다. 반면 배달업, 택배업, 또는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급부상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최재천 외, 2020). 한편 한국 사회는 코로나19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처한 국가로 손꼽힌다. 최근 블룸버그(Bloomberg)에 의하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국가 중 한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이스라엘, 대만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¹⁾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초 ‘뉴노멀(new normal)’로서 소위 ‘언택트(untact)’라고 불리는 ‘비대면’ 사회와 산업이 주목을 받았고, 한국 정부와 사회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한국 경제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바이러스의 종식은 예측하기 어려우며, 완전한 비대면 사회로 이행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한국 사회 역시 다양한 사회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 글은 지난 1년 5개월여 동안 코로나19가 야기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고, 코로나19 방역의 성공 뒤에 가려진 사회 문제는 없는지,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2. 글로벌 생명 헤게모니(global bio-hegemony) 경쟁 시대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학자인 피터 테일러(Peter Taylor, 1996)에 의하면, 국제적인 위계질서는 역사적으로 ‘헤게몬(hegemon)’으로 불리는 소수의 국가에 의하여 형성되며, 이러한 질서는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 헤게몬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인 힘까지 포함하는 국제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함으로써 국제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해 왔다. 헤게몬 국가는 17세기에는 네덜란드, 19세기에

1) The Best and Worst Places to be as Variants Outpace Vaccinations, Bloomberg, 2021.04.26.

는 영국, 20세기에는 미국이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21세기로의 전환을 기점으로 미국의 헤게모니가 흔들리면서 국제관계가 다극화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고 거의 모든 국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 및 사망자가 급증하게 되자 국제사회에서는 새로운 기준 및 지표가 등장하게 된다. 확진자, 사망자, 검사 및 치료, 회복자 수 등 방역 능력이 중요해지게 되면서, 이 기준에 따라 국가의 순위가 새롭게 매겨지기 시작했다. 2020년 초중반을 거쳐 이러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생명정치적(bio-political)’ 환경에서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평가받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헤게모니 경쟁이 발생한 것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한국, 대만, 홍콩, 베트남, 몽고 등의 국가에서 방역의 성공을 자국의 체제 또는 민족의 우월성의 증거로 간주하는 민족주의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현상을 암스테르담 대학의 클로에(Kloet, et al., 2020)는 ‘생명정치 민족주의(bio-political nationalism)’라는 개념으로 포착하여 설명했다. 이러한 새로운 민족주의적 현상은 동아시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역사적으로 처음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다. 19세기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지배 확산과 이로 인한 무역 및 인구이동의 증가에 따라 흑사병, 콜레라, 한센병, 매독 등과 같은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한 국가의 방역 능력은 그 국가의 문명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로 인식되었다. 예를 들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한센병의 유행율이 높고, 이를 통제할 적절한 방역 수단이 없는 국가는 열등한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한센병 환자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사회에서 제거하고자 했다(김재형·오하나, 2016; 2019).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 사스(SARS)나 메르스(MERS)와 같은 신종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도 지속되었다. 방역 실패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의 중심지가 된 국가 및 지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낙인과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코로나19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열등한 지역 또는 문명으로 낙인 찍혔던 비서구권 국가들 중 일부는 방역에 성공하고 있는 반면, 서구권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방역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한국, 대만, 베트남, 몽고 등의 국가에서 방역의 성공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헤게모니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필자는 이를 ‘글로벌 생명 헤게모니(global bio-hegemony)’ 경쟁으로

개념화한 바 있다.²⁾ 특히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놓고 다투는 시점에서 미국이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자, 중국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성공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헤게모니를 차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를테면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 주요 협력 국가인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에 의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수단과 경로로 여러 국가를 지원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넓혀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역시 새로 집권한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흔들렸던 미국의 위상을 다시 잡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이러한 글로벌 생명 헤게모니 경쟁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소위 ‘K-방역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사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가 합심하여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통제했다는 여러 외신과 전문가의 평가로부터 비롯되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정부의 효율적인 방역 능력과 제도뿐만 아니라 높은 시민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외신의 평가는 한국 사회가 서구사회를 따라 잡았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우월의식은 한국에 새로운 생명정치 민족주의를 형성시켰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2020년 초, 방역과 관련한 정치적 논쟁과 혐오의 확산을 잠재우고 사회적 통합을 가져옴으로써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동시에 이를 기회로 국제사회에 한국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도 계속되었다. 이렇게 한국 사회는 생명정치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생명 헤게모니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생명정치 민족주의의 성격은 무엇인가? 그리고 생명정치 민족주의는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인가? 이로 인하여 비가시화된 문제는 없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생명정치 민족주의가 부상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서구 시민들이 인구 통제에 대하여 반발하는 반면, 한국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자, 한국의 코로나19

2) 김재형, 「글로벌 생명 헤게모니 경쟁과 대한민국: K-방역 모델이 놓친 문제들」, SNUAC 다양성+Asia, 2020

대처에 찬사를 보내던 서구사회는 그 원인을 서구는 민주주의, 한국 등 동아시아는 권위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구분하기 시작했다. 즉 민주주의적인 서구사회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가 개인에게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를 강요할 수 없지만, 유교문화적 동아시아 사회는 권위에 순종하기 때문에 방역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리엔탈리즘과 인종주의적 해석에 대해 한국의 언론과 지식인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예를 들어 변호사인 네이던 박(Nathan Park)은 기고문을 통해 서구의 이러한 시각이 오리엔탈리즘적 산물이라 주장했다.³⁾ 이에 따라 한국의 방역 성공의 원인을 문화적 요인으로 돌리던 서구의 평가는 방역에 대한 한국 사회의 담론 지형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한국의 방역 성공이 권위주의적 문화 때문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제도와 시민성 덕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된 것이다.

한국의 방역 성공이 권위주의적 문화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성공이 과연 민주주의 제도와 한국 사회의 높은 시민의식 때문일까? 코로나19 연구들에 의하면 방역의 성공 여부는 초기 대응에 달려 있었다(Khosrawipour, et al., 2020; Ke, et al., 2020). 초기 대응에 성공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후에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초기 대응에 실패한 서구 국가들은 코로나19를 막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초기 대응은 국가의 방역 시스템과 관련되며, 한국의 방역 당국은 이른바 ‘3T(Test-Trace-Treat)’라고 하는 ‘검사·확진’, ‘역학·추적’, ‘격리·치료’를 중심으로 초기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기술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방역 성공은 검진 기술력과 디지털 추적 기술력, 의료 제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15년 메르스의 사례를 본다면 단순히 방역 기술 역량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시민건강증진연구소·건강세상네트워크, 2016). 이러한 관점에서 방역 능력이란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governance)와 이를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통한 정부의 신뢰성 증진, 그리고 시민의 협조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초기 방역 성공에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 및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가 큰 공헌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Nathan Park, "Confucianism Isn't Helping Beat the Coronavirus", Foreign Policy, 2020.04.02.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술력도 높고 민주주의 제도, 그리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가 잘 형성된 것으로 평가받던 서구 국가들은 왜 초기 방역에 실패했을까? 미국의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한 코로나19의 대확산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과학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인 태도라는 평가(Hatcher, 2020)가 대부분이지만, 유럽의 사례를 보았을 때 이러한 행정부의 무능이나 비합리적 태도만으로 서구의 실패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초기 대응에서 보다 중요한 요소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각 국가와 사회가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했는지에 달려 있었다.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2000년대 신종감염병의 경험을 통해 초기 대응에 실패했을 때 막대한 피해에 대한 인식이 강했던 반면, 서구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위기 의식이 약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실패로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기 확산 이후에 강력한 인구통제 정책을 도입했던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이나 베트남, 몽골은 국경을 봉쇄함으로써 초기 확산을 막았다. 한국 또한 조금 늦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위기의식 덕분에 큰 저항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이 코로나19 초기 방역에 성공한 이유는 훌륭한 방역 시스템과 더불어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 신종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훌륭한 방역 시스템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와 이를 위한 민주주의적 제도가 필수적이지만, 한국의 초기 성공이 수준 높은 민주주의 제도와 높은 시민의식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상황은 장기화되고 있다. 초기 대응의 성공 덕분에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다른 국가들처럼 심각해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지만, 인구가동의 통제와 이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는 시민들의 경제와 일상생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생존의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3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와 2.5단계를 오가는 상황이 몇 개월에 걸쳐 지속되면서 시민의 피로도가 극심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제반 피해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코로나19와 방역 정책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피해는 수치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비가시화되고 있다.

결국 한국의 방역 성공의 원인을 과도하게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체제의 성숙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평가할 수 있다. 코로나19 시대에 한국 사회의 타자에 대한 혐오, 엄격한 통제와 감시 및 처벌에 대한 시민사회의 허용성의 증가, 특정 사회집단에서 감염 위험의 증가, 방역 정책에 대한 불평등한 사회적 분담, 젠더 불평등의 심화, 디지털 감시 기술의 확산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장기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시대에 방역의 평가가 단순히 확진자, 사망자, 각종 경제지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검증된 적이 없는 방역 성공의 원인으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찬양은 수많은 문제를 비가시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장기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태도는 더 많은 민주주의의 문제를 양산할 것이다.

3. 사회적 약자, 그리고 마스크 시민권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코로나19를 어떻게 경험했을까? 그리고 한국 사회의 코로나19 경험과 한국의 민주주의, 시민성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을까? 2020년 1월 21일 한국에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등장하여 급속히 확산된 가짜뉴스와 혐오 담론의 양상,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은 한국의 민주적인 시민성의 수준을 의심케 하는 것이었다. 코로나19를 피해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넘어올 것이며 이들에 의하여 전염병이 확산될 것이라는 담론이 점차 힘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혐오 담론은 언론에서 생산하는 ‘가짜뉴스’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당시 한 언론사는 ‘정부가 중국인에게 건강보험을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혜택을 줌으로써 건강보험이 적자’라는 내용의 거짓 기사를 보도했고, 이러한 내용의 기사는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정당화했다. 심지어 중국인을 입국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무려 7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혐중 담론’을 부추겼는데 2020년 2월 3일 심재철 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즉시 중국인을 전면 입국 금지시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인에 대한 혐오 담론은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확진자 중 외국인은 극소수였으며, 당시 위험 지역으로 낙인찍혔던 외국인 거주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도 없었다. 그럼에도 혐오 담론은 그 대상을 계속 옮겨 다니면서 한국 사회에 확산되었다. 재중동포에 대한 혐오가 시작되면서 이들의 주거지가 집중된 지역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김으로써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많은 재중동포가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이 과정에서도 한 언론사에서 해당 지역을 비위생적인 곳으로 묘사하여 혐오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혐오의 대상이 된 것은 한국 정부에 의해 전세기로 귀국한 우한 지역 교민들과 유학생들이었다. 이들을 격리 수용하는 장소를 섭외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방역 당국은 매뉴얼에 근거하여 대처한 반면, 한국 사회는 불안과 공포에서 비롯된 혐오 담론을 생산했고, 동시에 사회적 타자를 배제시키려 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타자화시키고 이들 집단을 위험한 대상으로 묘사하면서 혐오하고 사회적으로 배제시키는 행태는 역사 속에서 수차례 반복되었다. 20세기 초 샌프란시스코에서 흑사병이 창궐할 때 백인들은 인종주의에 근거하여 그 원인을 중국인에게 돌렸고 이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흑사병은 더욱 창궐했다(체이스, 2003). 코로나19 상황에서 미국 역시 중국인 혐오를 강화하면서 이들의 입국을 막기 위한 방역에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이탈리아로부터 코로나19가 전파되면서 뉴욕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즉 역사 속에서 전염병의 원인을 특정 집단에게 돌리고 그들을 혐오하고 배제시킴으로써, 전염병을 극복하려던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전염병이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일제 강점기 조선에서도 한센병 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강화하고 이들을 모두 격리시킴으로써 전염병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질병의 확산을 가져왔다(김재형, 2019). 이는 혐오 담론이 가져오는 특정 집단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결국 확진자나 확진 의심자들을 숨게 만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염병을 더욱 확산시키기 때문이다. 결국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 또는 동료 시민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선택할 경우, 결과적으로 전염병 통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초기에 가장 낙인이 찍혔던 집단은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였다. 종교집단인 신천지는 이 종교에 소속되어 있는 신자가 31번 확진자가 되고, 이후 이 집단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자 이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시작되었다. 코로나19는 신종감염병으로 당시 한국 사회 어느 곳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신천지는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몰리면서 이들의 비정상적인 종교활동, 또는 비정상적인 행동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되었다고 묘사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묘사를 주도한 곳은 기독교계 언론이었다.⁴⁾ 신천지 교주가 대국민 사과를 했고 정부는 신천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신천지 시설은 모두 폐쇄되었고 교인들은 낙인과 차별을 경험해야만 했다. 하지만 신종감염병의 확산에 있어 신천지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교활동도 문제가 될 수 있었다.

2020년 2월 프랑스에서도 한 개신교 기도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었으며,⁵⁾ 종교집단을 통한 집단확산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미국에서는 유대인의 종교집회에서 다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다.⁶⁾ 이는 종교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은 종교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교활동의 특성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한국에서도 개신교 교회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⁷⁾ 심지어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잘 알려진 상황에서도 종교모임이 이어졌다. 이렇게 종교모임을 지속한 일부 개신교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시민적 책무와 종교모임이라는 종교적 의무 사이에서 후자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교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했던 집단감염에 대해서 신천지 수준의 강력한 비난이나 통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면 2020년 2월 한국사회는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낙인찍힌 신천지에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이들을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배제함으로써 사회의 불안감을 잠재우려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특정 집단을 타자화하고 이들을 낙인찍고 배제하려는 한국 사회의 움직임은

4) <신천지와 ‘전면전’ 선포한 CBS·국민일보>, 미디어오늘, 2020.03.03.

5) <프랑스, 2월말 기독교 기도회에서 ‘코로나19 원폭’ 터졌다>, 연합뉴스, 2020.04.02.

6) “When Covid Flared Again in Orthodox Jewish New York”, The New York Times, 2020.10.08.

7) <‘코로나19’ 종교시설 집단감염 개신교회가 절대다수>, 연합뉴스, 2021.05.11.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의사, 간호사 등의 특정 직업군이 위험집단으로 낙인찍혔고, 특정 지역이 낙인찍혔으며, 특정 성적 취향 역시 낙인찍혔다. 심지어 확진자 또는 확진 의심자에 대한 동선 공개가 일반화되면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개인정보가 공개되자,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확산되었다(유현미 외, 2020). 지자체는 무분별한 개인정보를 공개했고, 시민들은 확진자의 사생활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지어냈으며 이는 하나의 ‘스포츠투’가 되기도 했다. 2020년 5월 무렵부터 시민들은 누구나 낙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으면서 정보공개를 최소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개인정보보호, 그리고 특정 대상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 사회가 깨달은 것이다. 2020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졌으며, 그 결과 차별금지법률 제정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찬성했다고 밝혔다.⁸⁾

한국 사회가 사회적 타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강화할 때,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는 확산되기 시작했다. 2020년 2월 20일 청도 대남병원에서 확진자가 등장한 것을 시작으로 장기 수용시설 내 집단감염이 확산되었다. 좁고 열악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수용되는 정신병원이나 노인시설 등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격리시설의 열악함과 이곳에 장기간 수용되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 문제가 한국 사회의 주목을 받았지만, 곧 엄격한 방역 대책을 세우고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갔다. 코로나19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통해서도 확산되었다. 2020년 3월 9일 서울시 구로구의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좁은 공간에서 많은 인원이 장기간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며, 주로 비정규직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집단 감염에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별다른 보호 없이 일하면서도 취약한 노동조건 때문에 불만을 건의하기조차 힘들었다. 마스크를 쓸 수 없는 노동조건, 감염 예방 조치의 부재, 재택근무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아

8)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코로나19, 국민들의 차별에 대한 민감성 높여”>, 2020.06.23.

플 때 설 수 없는 노동문화가 집단감염의 최적의 조건이 되었고, 곧 전국의 여러 콜센터가 집단감염지가 되었다.

다음으로 마스크를 둘러싼 혐오와 정치적 논쟁, 그리고 사회적 배제에 대해 살펴볼수록 하자. 코로나19의 확산 초기에 불확실성이 극도로 증가함에 따라, 전파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등 서구와 세계보건기구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도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취했다.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쓸 때 오히려 일선의 의료진이 사용할 마스크가 부족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뚜렷한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빨리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다. 마스크를 강제한 중국 정부에 의해 중국인들은 충분한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수박 껍질과 같은 기상천외한' 마스크를 쓰기도 했다. 동아시아는 사스나 조류독감,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을 지속적으로 겪어왔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마스크가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꼈던 것이다. 또한 한국 사회는 근래 황사나 미세먼지 등 공기의 질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다. 반면 서구사회는 과학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마스크에 부정적이었으며, 시민들 역시 마스크는 범죄자들이 쓰는 것이라는 문화적인 거부감 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한국에서 코로나19 초기에 마스크는 각자도생의 이유로 착용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개인들은 마스크를 사재기하기 시작했고,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거리를 헤매야 했다. 이 과정은 혼란스러웠고 시민들은 정부에 마스크를 공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중국 등에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지 않는 정부를 또다시 친중 정권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공기의 질의 저하로 인한 건강의 문제가 강조될 때 한국 사회는 구조적인 발생 원인과 정책상의 해결책을 고려하기보다는 마스크 쓰기라는 개인적 행위로 이를 극복하고자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시민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으로는 마스크 쓰기밖에 없다고 인식하자, 마스크 품귀 현상은 중요한 사회

적 의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사적인 물건이었던 마스크는 전염병의 확산 과정에서 정부가 공급을 책임져야 할 공공재가 되었고, 시민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 보급을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인식했다. 이에 시민들은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마스크 공급은 정부의 방역 능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마스크의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던 시기에 정부는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적 마스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필자는 이전 글에서 이를 ‘마스크 시민권(Mask Citizenship)’으로 개념화했다(김재형 외, 2020; Kim, 2020). 시민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자신을 ‘취약한 주체’로 규정했고, 국가에게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 결과 마스크 분배는 국가의 책임이 되었고, 마스크 사용은 개인의 권리가 되었다. 이는 시장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반대로 국가의 책임이 되자 마스크의 권리를 두고 ‘우리’와 ‘타자’를 구분하는 새로운 정치가 발생했다. 마스크의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우리’에 포함되지 않은,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이라는 한국 사회의 타자들이 정부의 마스크 공급으로부터 배제되었다. 마스크 배분이 시장에 의해 이루어졌을 때는 비싸기는 해도 누구나 평등하게 구매할 수 있었으나, 공공재가 되자 시민권을 둘러싼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2020년 3월 7일 전국이주인권단체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6개월 미만 체류 이주민, 유학생, 사업자등록 없이 농어촌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미등록 체류자 등 수십만 명이 배제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⁹⁾ 난민 역시 정부의 마스크 공급으로부터 배제되었다.¹⁰⁾ 이는 다른 인종을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제도적 인종주의’라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마스크를 제공받을 자격을 행정적 편의상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했지만, 이러한 기준은 방역과 관련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더 나아가 시민권을 기준으로 마스크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자 한국인들과 밀접히 접촉하고 있는 외국인의 감염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전체 방역을 위태롭게 했다. 결국 시민권의 문제로 방역에 접근하게 되자 방역의 ‘사각지대’가 한국 정부

9) <인권단체, 이주민 차별 없는 마스크 구매 대책 시행 촉구>, 매일경제, 2020.03.07.

10) <건보·신분증 없는 난민·이주노동자, 공적마스크 소외 ‘방역 구멍’>, 한겨레, 2020.03.13.

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마스크 부족 문제가 해결된 4월 20일에 서야 공적 마스크를 외국인에게도 지급했다. 마스크 분배에서 나타난 제도적 인종주의와 이로 인한 방역 사각지대의 문제는 긴급재난지원금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한국 사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기존의 방역 시스템은 대체로 큰 문제 없이 작동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재했기 때문에 정부는 세부적인 정책을 만들 수 없었고 시민들은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국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를 타자화하고 그들을 혐오하고 낙인찍고 차별함으로써 이러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자 했다. 하지만 전염병의 역사적 사례나 코로나19에 대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전염병의 위협을 사회적 타자를 배제함으로써 막으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방역의 실패를 가져오고 공동체를 더 큰 위협에 빠트리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했으며, 이렇게 공개된 시민들에 대한 혐오도 빠르게 확산되었다. 불확실성 속에 발생한 공포를 잠재우기 위한 사회적 타자화, 배제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확장된다. 더군다나 이러한 경향은 정부의 마스크나 긴급재난지원금 등 추가적인 방역 대책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시민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제가 이루어졌고 이 역시 전체 공동체를 위협에 빠트리는 것이었다. 결국 이 시기 한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는 어떠한 교훈을 얻었는가이다. 우리 사회가 얻은 교훈은 사회적 배제의 효능감인가, 아니면 연대를 통한 위기 극복의 필요성인가. 즉 민주주의 내용의 구체적인 모색 및 실천 방향에 대한 성찰과 논의가 필요하다.

4. 나가며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각국의 방역을 평가하게 되면 한국은 분명 방역에 성공한 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 근래 백신의 안정성 및 수급과 관련한 정치적 논쟁이

있지만, 현재 백신 확보에 성공하고 접종률이 높은 국가 대다수는 초기 대응에 실패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면 한국은 엄격한 방역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도 최소한의 사망자와 확진자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국가로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사망자와 확진자 수로 코로나19의 경험을 평가하는 것은 절반의 평가일뿐이다. 한국 사회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어떠한 문제를 겪었는지, 사회적 약자들은 어떠한 경험을 했으며, 방역을 위해 누군가 배제되지 않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위험사회’로 잘 알려진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 1992)은 ‘위험은 그 사회에 원래 존재했던 다양한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 시기’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심화된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의 구조가 위험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될지 모른다는 점이다. 코로나19는 방역 성공의 기억으로만 남을 것인가, 아니면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가 심화된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위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특정한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5월 초에 실시된 웹조사 결과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한국 사회가 권위주의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¹¹⁾ 이 조사는 ‘우리나라를 망쳐 놓고 있는 극단주의를 제압할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정부 권력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국민을 쓸데없이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등을 질문했는데, 답변 결과는 2016년 KGSS(Korean General Social Survey;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모든 문항에서 권위주의적 경향이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즉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책의 효능감이 권위주의적 성향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Amat et al., 2020). 권위주의적 태도의 증가와 더불어 앞서 여러 사례들에서 지적한 것처럼 위험에 대한 지나친 민감함으로 비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책임을 덮어씌우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이들의 열악한 거주 및 노동환경의 개선 노력 없이, 이들을

11)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갈림길에 선 한국 편>, 시사인, 2020.06.12.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낙인찍어 강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게 했다. 그 결과 수십만 명의 외국인들이 검사장에서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모이게 되어 이들을 감염에 노출시켰다.

결국 진단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과 같은 기술적 노력으로는 코로나19와 신종감염병이 발생시키고 더욱 악화시킨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신종감염병의 위험은 비슷하면서도 항상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스, 조류독감,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을 여러 차례 겪었지만,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러한 이유에서 단순히 기술력을 높이는 것으로 이러한 위험들에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우리는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사회적 방식들에 대한 성찰 및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급박한 위기에 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사회가 잃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중요한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하여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첫째, 위험에 대처하는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비정규직 등 취약 집단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들을 취약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종감염병 등 위기에 직면해 사회적 약자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기에 포용적인 공동체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기는 추적과 감시, 진단기술, 치료제, 백신 등 기술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적인 시민의식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예를 들어 중국은 강력한 통제 기술로 코로나19를 극복한 것으로 인식되지만, 그전에 그러한 권위주의적 문화 때문에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 결국 21세기의 새로운 위기에 맞설 수 있는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언택트’ 또는 ‘플랫폼 사회’로의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와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더욱 포용적인 사회로의 총체적인 변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성찰과 전망』(33호): 민주공원발간 2021년 여름호

[참고문헌]

공성식, 김미선, 김재형, 김정환, 박해남, 백영경, 오하나, 유현미, 장진범, 추지현,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코로나19와 일상의 사회학』, 돌베개, 2020

김재형, 『'부랑나환자' 문제를 둘러싼 조선총독부와 조선사회의 경쟁과 협력』, 『민주주의와 인권』 19(1), 126~164쪽, 2019

김재형·오하나, 『한센인 수용시설에서의 강제적 단종·낙태에 대한 사법적 해결과 역사적 연원』, 『민주주의와 인권』 16(4), 153~200쪽, 2016

김재형·오하나, 『이행기정의를 통해 본 일본 한센인 운동, 1946~2009』, 『사회와 역사』 121, 289~331쪽, 2019

김재형, 『글로벌 생명 헤게모니 경쟁과 대한민국: K-방역 모델이 놓친 문제들』, SNUAC 다양성+Asia, <http://diverseasia.snu.ac.kr/?p=4245>, 2020a

마릴린 체이스, 『격리-전염병에 맞서 싸운 한 도시의 기록(1900-1910)』, 어윤금 옮김, 북키앙, 2003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세상네트워크, 『인권 중심의 위기대응: 시민, 2015 메르스 유행을 말하다』, PHI 연구보고서 2016-01, 2016

윌리엄 맥닐, 『전염병의 세계사』, 김우영 옮김, 이산, 2005

최재천, 장하준, 최재봉, 홍기빈, 김누리, 김경일, 정관용, 『코로나 사피엔스-문명의 대전환, 대한민국 대표석학 6인이 신인류의 미래를 말한다』, 인플루엔셜, 2020

Amat, Francesc, Albert Falcó-Gimeno, Andreu Arenas, Jordi Muñoz, "Pandemics meet democracy: Experimental evidence from the COVID-19 crisis in Spain", SocArXiv. April 6. doi:10.31235/osf.io/dkusw, 2020

Beck, Ulrich,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Sage Publications, 1992

Gonzalez-Reiche, Ana S., et al., "Introductions and early spread of SARS-CoV-2 in the New York City area", Science 369, pp. 297-301, 2020

Gugushvili, Koltai, et al, "Votes, populism, and pandemic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65(6), pp. 721-722, 2020

Hatcher, William, "A failure of political communication not a failure of bureaucracy: the danger of presidential misinformation during COVID-19 pandemic", Th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50(6-7), pp. 614-620, 2020

Ke, Ruian, Steven Sanche, Ethan Romero-Severson, Nick Hengartner, "Fast spread of COVID-19 in Europe and the US suggests the necessity of early, strong and comprehensive interventions", 2020 <https://www.medrxiv.org/content/10.1101/2020.04.04.20050427v2>.

Khosrawipour, Veria, Hien Lau, Tanja Khosrawipour, Piotr Kocbach, Hirohito Ichii, Jacek Bania, Agata Mikolajczyk, "Failure in initial stage containment of global COVID-19 epicenters", Journal of Medical Virology 92(7), pp. 863-867, 2020

Kim, Jaehyung, "Mask dynamics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n the COVID-19 era", News Letter 87 Autumn 2020,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sian Studies, 2020

Kloet, Jeroen de., Jian Lin, Yiu Fai Chow, "We are doing better": Biopolitical nationalism and the COVID-19 virus in East Asia."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2020

Mystal, Elie, "The Media Is Helping Spread Trump's Coronavirus Racism", The Nation, March 20, 2020

Pérez-Peña, Richard, Donald G. McNeil Jr., "W.H.O., Now Trump's Scapegoat, Warned About Coronavirus Early and Often", The New York Times, May 7, 2020

Rogin, Josh, "South Korea shows that democracies can succeed against the coronavirus", The Washington Post, March 11, 2020

Taylor, Peter James, The Way The Modern World Works: World Hegemony to World Impasse. Chichester ; New York ; John Wiley, 1996



김재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조교수

의료사회학, 역사사회학과 인권과 관련된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 연구에 참여했다. 논문으로는 「식민지기 한센병 환자를 둘러싼 죽음과 생존」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절멸과 갱생 사이: 형제복지원의 사회학」,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등이 있고, 단독 저서로는 「질병, 낙인: 무균 사회와 한센인의 강제격리」가 있다.

3·15의거 고교별 투쟁사

마산고등학교 편

3·15의거 고교별 투쟁사

- 마산고등학교 편 -

서익진 창원시정연구원 초빙연구원, 전 경남대 교수

무릇 모든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이고, 개인사는 사회사와 분리해 이해될 수 없다. 마산고등학교 학생들의 3·15의거 참가를 되돌아보는 이 글 역시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환경을 도외시하고는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해서 무엇보다 3·15의거 이전까지 마산고등학교의 변천과 마산고등학교 학생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불가결해 보인다.

마산고등학교는 1936년 5년제 마산공립중학교로 출발해 1951년 마산서중과 마산고등학교로 분리되었다. 애초 마산중학교는 전국 최초의 한일 공학(共學; 한국인과 일본인 4:6 비율)이자 마산 최초의 인문계 남학생 중등학교로 출발했다. 공학이 된 것은 당시 마산에 한국인 남자 중학교 설립 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일제가 대륙침공을 위해 내선 일체와 황국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의도적으로 승인한 내선공학의 최초의 사례로 보게 타당할 것이다.

교사는 전부 일본인이고 학생의 절반 이상이 일본인인 학교에서 한국인 학생이 민족 의식을 배양하거나 특히 표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마산중학교의 한국인 학생 중에는 우발적으로든 조직적으로든 일제의 폭압에 저항하고 민족 독립을 위해 노력한 학생이 적지 않았다.

1942년 4학년 이도환과 서기수는 태평양전쟁 승리를 자랑하는 일본인 학생을 구타해 혹독한 고초를 겪고 퇴학당했다. 같은 해 3학년 조우식과 김희구가 '경남 학생 건국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해 일본 패망과 조국 광복에 대한 계몽 운동, 군사시설 배치도 작성, 일경 2명의 바다 침수, 김해농업학교 강부근 학생을 통한 조직 확대 등의 활동을 하다가 1944년 7월에 발각되어 김희구는 1945년 3월 옥중에서 순국하고, 조우식은 광복과 함께 석방되었다. 1944년 4월에는 8기 박기병, 박우식, 김영재, 조미성, 강성중, 박성수 등 6명¹⁾과 7기 김학득, 강순중 등 2명, 6기 이주국이 '마산중학교 독립단'을 결성, 반일 활동을 벌이다가 7월에 발각되어 옥고를 치르다 광복과 더불어 석방되었다.

1945년 3월 23일 졸업식 직후 화장실 칸막이벽에 그려진 일본 패망을 의미하는 벽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주모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5기생 8명(김종국, 남기옥, 노재철, 방성출, 백창기, 윤세주, 이근철, 이달형)의 비밀결사가 드러나 모두 체포된 뒤 이달형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이 옥중생활을 하다 광복과 더불어 석방되었다. 그 벽화는 '일본의 운명은?'이라는 제목 아래 호랑이, 사자, 독수리, 악어가 좌우상하에서 중앙의 외나무다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을 노려보는 음각 그림이었다.

이러한 마산고등학교 학생들의 반일 저항 정신은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난 동족상잔의 6·25전쟁에 학도병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마산고등학교에서는 100명이 출전했고, 전사자 수는 불명이지만 복학생은 22명뿐이었다. 6학년의 경우 재학생 156명 중 62명이 출전했다.

이처럼 3·15의거 발생 이전에도 마산고등학교 학생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민족 말살과 북한 공산당의 침략에 맞서 싸워왔다. 이러한 선배들의 부정과 불의에 대한 저항정신이 후배들에게 면면히 이어져왔을것임에 틀림없다.

이제 그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어떻게 싸웠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죽거나 다치게 되었는지를 3·15의거 참가자들 자신의 글과 말 그리고 이들의 유가족과 친구들

1) 이것은 홍중조 편 '김무신 평전'에 따른 것이고 '마산고등학교 80년사'에는 박기병, 박후식, 강영재, 조이섭, 강정중 5명만 거론되어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1명이 추가된 것은 김무신의 증언이나 기록될 수 있는 점을 감안했고 2명의 이름이 다른 것은 개명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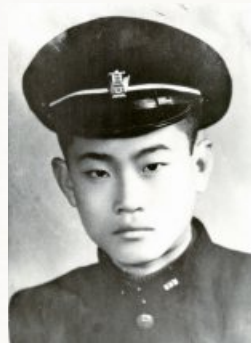
이 공식·비공식적으로 한 증언을 통한 기억을 바탕으로 추적해 보기로 하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스토리의 주연들을 간단히 소개해두자. 서술의 편의상 존칭은 모두 생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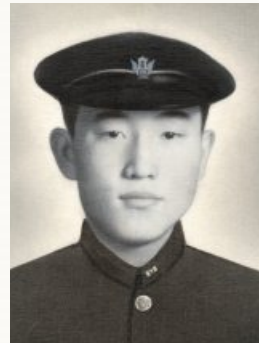
3·15의거, 마산고등학교의 주역들

먼저, 사망자인 김영준과 김용실 두 분 열사이다.

김용실(1년)은 본적은 진동리이지만 가족이 마산으로 이사온 후 1943년 마산 창동에서 태어났다. 1960년 당시에는 마산중학교 진학 무렵 다시 이사한 곳인 추산동 권투도장 뒷집에 살았다.



김영준



김용실

조부모님과 부모님 그리고 8남매의 대가족이었다. 용실은 장남으로서 위로는 누나가 둘, 아래로는 남동생 2명과 여동생 3명이 있었다. 부친이 3대 독자라 용실의 출생은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축하했을 정도로 경사였다. 그는 다복한 가정에서 자라 착실하고 건강한 성품을 가졌고, 마산중학교를 거쳐 마산고등학교에 진학해 1학년 B반 급장을 할 정도로 희생심과 정의감이 강한 모범생이었다. 의거 참가 1년 전 거리에서 술 취해 피투성이가 된 노인을 업고 도립마산병원으로 데려와 간호원들이 감격했는데, 1년 후 시체가 되어 도립병원에 온 것을 본 간호원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했다는 일화가 있다.²⁾

2) 마산고등학교총동창회는 김용실과 김영준 두 분 열사를 비롯해 당시 마산고등학교 학생으로서 3·15의거에 참여했던 분들의 행적을 추적하여 마산고등학교 학생들의 3·15의거 참여사를 책으로 편찬하기 위해 당시 동기나 후배 또는 가족이나 관련자들의 증언을 듣고 있다. 이 글은 마산고등학교총동창회의 허락을 받아 여러 사람의 증언 녹음을 듣고 새롭게 밝혀진 사실도 반영했음을 밝혀두면서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김영준(3년)은 1941년 신의주에서 출생해 6·25전쟁 때 피난 차 남하했다. 부모님과 남자 3형제가 제각기 흩어져 내려왔음에도 운 좋게 모두 모일 수 있었다. 월남 후 얼마 안 있다 부친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아래서 마산중학교를 거쳐 마산고등학교에 진학해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큰 형은 육사를 졸업하고 대위로 여순사건에 참가해 전사했다.

3·15의거 당시 둘째형은 군 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집에는 모친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지극한 효성과 착실한 성품을 지녔으며, 대학 진학에 고민하던 모범생이었다. 그의 3·15의거 참여 배경이나 과정은 현재로서는 거의 오리무중에 가깝다. 단지 3월 1일 1차 의거 때 시청 앞-장군동 다리 부근-에서 하북부 관통 총상을 입은 후 마산시청 지하실로 옮겨졌다가 다시 도립마산병원으로 옮겨져 냉돌방에 방치되어 있다가 18일 하오 9시에 사망한 것으로만 알려져 있다.

다음, 민주투사라 불릴만한 분들로서 부상자인 김무신, 김정세, 박광규, 서기홍, 송정명, 황의신과 참여자인 박문달이다.

김무신(1년)은 진전면 창포리 출신이다. 유학자 집안으로 어릴 때는 가정형편이 나은 편이었지만 갈수록 형편이 나빠져 중학교 다니던 때부터 항상 학비를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 3·15의거 날에는 반월동 85번지에서 누님 집 근처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의거 전날인 3월 14일부터 석방되던 3월 20일까지 자신의 활동과 생각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한 일기를 남겼다. 이 일기 덕분에 3·15의거의 리얼리티가 상당히 살아나고 이 글의 내용도 풍부해질 수 있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가 사용한 단어와 문체는 물론 사고의 깊이 등으로 미루어 대단한 지력과 글솜씨를 가진 학생이었다.

김정세(2년)는 중성동에서 외조모를 모시고 부모님과 5남매가 살았다. 3월 15일 여동생 정희(성지여중 2년)도 총을 맞아 남매가 부상자가 된 희귀한 사례다. 부상으로 2차 의거에는 참가하지 못했다.

박광규(3년)는 함천군 초계 출신으로 초계중학교를 졸업하고 마산고등학교로 진학했다. 마산 상남동에 이모 집이 있었지만 신월동(현 중앙고 근처)에서 하숙을 했다. 1차의거에서 체포되어 석방되었고, 2차의거에도 참가했다. 그는 공부를 잘한 편은 아니었지만 온순 착실하고 내향적인 성격이었고, 공무원이나 교사가 꿈이었다.

서기홍(1년)은 신월동에 있는 외가에서 외조부모 슬하에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았고, 부친은 이미 작고했다. 외조부는 법원에서 일하는 야당 지지자로서 보통의 공무원과 달리 동아일보를 구독하셨는데, 기홍은 동아일보가 여야 실정을 숨김없이 보도하는 신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1차 시위에서 경찰에 붙잡혔다가 석방되었고, 2차 시위에도 참가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웠고 성적과 출석이 좋지 않았다. 단지 정의감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송정명(1년)은 거제가 본가로 자산동 친척집에 거주했다. 1차 시위에 참가해 총상을 입었고, 입원 중이어서 2차 시위에는 참가하지 못했다.

황의신(1년)은 상남동에서 조부모, 삼촌 숙부, 고모, 여동생 둘, 남동생 하나와 같이 지냈다. 부친은 구마산 황의원을 운영하는 황창주 의사였다. 부친의 교육열은 대단했고 본인도 근면했지만 부친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듯했다. 1차 의거에 참가해 마산고등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지만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본인의 증언도 다른 기록이나 정보도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박문달(3년)은 마산 창동 본가에 거주했고, 우수한 학업과 온건하고 착실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었다. 의거 당시 지금의 학생회장에 해당하는 학도호국단 운영위원장이었다. 1차 의거에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3·15 야간 시위에 어깨동무하면서 참가했다는 기술만 있지만, 2차 의거에서는 마산고등학교 학생을 대표하여 마산고등학교 학생 단체 시위를 주도한 경위를 상당히 자세히 증언했다.

그들은 왜 3·15의거에 참가했던가?

3·15의거는 사실상 부정선거에 항의한 민중봉기이지만 학생의거라 불릴 정도로 많은 중·고교생이 참가했다. 4월 11일부터 3일 동안 전개된 2차 의거에서는 당시 마산의 8개교가 사전논의 하에 학교별로 단체시위를 벌였고, 이러한 조직적인 시위의 동기도 너무나 뚜렷했다. 4월 11일 오전에 3월 15일 시위에 참가해 행방불명되었던 김주열 학생이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참혹한 시신으로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3월 15일 1차 의거에서는 학생들 사이에 어떤 조직적인 사전논의도 없었다. 말 그대로 자발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굳이 사전논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는 친구들 사이에 ‘7시에 시청 앞에서 모이자’는 약속이 있었거나 그런 소문을 듣고 따랐을 뿐이다.

1차 의거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학생 중에는 마산고등학교 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다. 마산고등학교 학생들은 왜 3·15의거에 주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가했던 것일까? 그들 자신의 말과 글을 통해 그 이유를 찾아보면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학생들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해석을 벗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젊은 정의감을 더욱 불태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첫째, 가정 사정과 세상에 대한 불만이다. 김정세는 회사원인 부친이 1년이 멀다 하고 시골 변두리로만 전근 다니시는 것을 보고 소위 백이나 돈 없이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이고, 깡패들이 자유당 앞잡이로 설쳐대는 세상이며, 이런 세상은 뭔가 잘못됐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당시 대학생들과는 달리 고교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라 걱정하는 마음도 남달랐으며, 항일 감정에서 시작해 깡패들이 정치권에서 판치는 세상,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이 모든 불신풍조를 마감해야 한다는 의식으로 뭉쳐져 있는 등 학업 이상으로 정치와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다.

합천 촌놈 박광규는 시골에서 도시로 나와 보니 빈부 격차가 심하고 국민 전체가 너무 못 산다는 걸 알았고, 이걸 국가가 잘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서기홍은 ‘보릿고개’라는 말이 웅변하듯 국민의 살림살이가 어려웠고, 정치도 꽤 시끄러웠다고 보았다.

둘째, 대구 2·28 경북고 학생 시위 등 타 지역 학생 시위의 영향이다. 3월 11일에 부산 동래고 학생 두 명이 마산으로 넘어와 마산고등학교 학생위원장을 만났고 그 이튿날에는 다른 고교 학생위원장들을 찾아가 “마산 학생은 무얼 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들은 학생 시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시위를 설득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마산의 학생 대표들은 감시가 극심한 지금 상황으로는 시위가 불가능 하다며 오히려 타일러 보냈기

때문이다. 당시 마산의 고교들에는 수많은 학생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동아리들 간의 교류도 활발했다. 다른 고교 학생들의 증언도 참고할 만하다. 마산상고 3년 학생회장 김양부는 2·28 이후 마산상고에서는 대구에 응원군을 파견하자는 웅성거림이 있었고, 2·28 이후 경북고 학생 몇 명이 내려와 마산상고생들에게 2·28과 시국을 설명하며 협조를 부탁한 뒤 부산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으며, 부산 동래고의 이형우라는 친구가 자신을 찾아와 대구 얘기를 하면서 3·15부정선거 관련 데모 얘기를 한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안명희(성지여고 3년 학생회장)는 동래고 펜팔친구가 부정선거 항의 데모 계획을 짜고 있는데 마산에서도 필요하면 보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부산 동래고 학생들이 마산으로 넘어와 시위를 선동했다는 소문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3월 1일 마산고등학교 학도호국단 훈육부장이자 3학년 대의원인 정종식의 집에 1학년 B반 급장인 김용실을 비롯한 18명이 모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학생들이 좌시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3월 6일을 기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이 거사 모의가 누설된 탓인지 학교마다 형사와 교사들의 감시가 심해져 실행에 옮기지 못하자 그들은 전전공급했다. 이 모임에 참가했던 김정세는 2·28 대구 학생시위가 마산 학생들에게 가장 확실한 동기부여를 했으며 자발적으로 3·15의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마산 학생들은 시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시위에 나설 적당한 시기를 노리고 있었다.

셋째, 학교의 부당한 대응이다. 김정세는 당시 마산의 고교 당국들이 학생들을 묶어두려고 학년말 시험을 3월 초순에서 14일까지 강행했다고 했고, 박광규는 3월 16일부터 학기말 고사라 데모에 신경 쓸 틈이 없었고, 15일 저녁에도 집에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국의 지시로 교사들은 방과 후 가정방문을 핑계로 학부모들을 찾아가 자유당에 투표할 것을 권유하고 다녔고, 김용실처럼 학생 간부이거나 요주의 학생은 따로 불러 데모에 가담치 말라고 설득하거나 퇴학당한다는 등 겁을 주기도 했다. 마산고등학교 학도호국단 학생위원장이었던 박문달은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언행을 감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틈틈이 친구들과 모여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와 정의가 충만한 새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고 공공연히 얘기를 나누어왔다”고 말했다.



마산경찰서 담장에 올라가 선언문을 낭독중인 마산고교 박문달 학생 대표(마고20회 졸업앨범)

김무신의 일기는 말한다. “14일 아침 조례시간에 김치은 교장선생님이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기봉 선생을 모실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이 각 부모에게 잘 부탁해야 한다’는 식으로 훈시하는 것을 듣고 절대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는 명령에서 다시 은근히 공리적이고 타산적인 이권에 눈이 어두워져 이부하는 형식의 훈시를 듣고 신성한 학원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나 자신, 마산고등학교의 전당에서 속으면서 배워왔다는 비굴감을 느꼈다. 더욱이 학원의 총책임자가 하물며 이런 추태만상이 다분한 언어를 사용하고 공작대원의 일원이라 생각하니 나의 가슴은 터질 것 같다. 지상에 소생한 이래 하루아침에 마음이 이토록 아팠던 적은 없다.”

끝으로, 노골적인 부정선거이다. 김용실은 선거 전날까지 할머니의 투표번호표가 나오지 않아 분노하고 있었다. 김무신도 3·15선거 전날까지도 누님의 번호표가 나오지 않았음을 확인하자 “가슴은 뛰고 입은 굳게 다물고 불끈 쥔 주먹에는 진땀이 차고, 한숨이 나온다. ‘두고 봐라!’ 속으로 다짐했다.” 3·15의거 발발 사흘 전인 12일 마산방송국 앞에서 김무신은 우연히 서기홍을 만났다. 그가 “기홍아! 이제 거센 태풍이 몰아닥칠 모양이야! 온 시민이 들고일어날 것이 틀림없어! 그러니까 거사가 일어날 시간에 기홍이 니도 거리로 나와야 돼!” 하자 기홍이도 무신이의 결연한 의지 못지않게 불의에 맞서 행동에 나설 마음을 굳혔다. 둘은 굳은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다. 김무신은 14일 방과 후 귀가 중에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다. 할아버지가 “학생, 내일이 선거 날인데 이놈의 방장, 동장 놈이 찾아와서 ‘작대기 하나 밑에 안 찍으면 좋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는 으쓱대며 인사도 없이 지나가니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었기에 이 모양 이 꼴이냐?”며 원망과 두려움에 찬 하소연을 듣고 “할아버지, … 염려 마십시오. 결코 정의가 불의 앞에 머리를 굽히는 법은

없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후 집으로 돌아와 내일 거사계획 작성에 몰두했다.

송정명은 “당시 부정선거 얘기가 신문지상에 간혹 나오긴 했지만 국민 누구나 자유당이 이기봉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명백한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고, 박광규도 “당시 분위기가 신익희 후보에 이어 조병옥 후보의 갑작스런 서거로 동점심이랄까 민심이 민주당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었고, 자유당이 국민의 호응을 받고 있던 장면 박사를 밀어내고 이기봉 씨를 부통령에 역지로 당선시키려 한다는 풍문이 많이 나돌았다”고 했다. 박문달도 3·15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온갖 부정, 부패, 불의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광경을 수없이 보고 또 들었으며, “3·15 선거 날, 자유당의 부정행위, 즉 4할 사전투표, 3인조 5인조 투표장 투입, 금권 관권 동원 등 만행을 보다 못한 민주당원이 선거포기를 선언하고 ‘부정선거 다시 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갔고, 이에 시민들이 합세해 자유당 정권에 대항해 싸우게 되었다”고 말했다.

3월 13일 밤, 마산상고 2년 김상룡 등 3명이 시험 답안지 뒤에 “백만학도여 쫓기하자!”, “자유당을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쓴 뼈라 1백여 장을 도심 곳곳에 뿌리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리고 시내 요소요소에는 “마산 학생이여 일어나라! 조국의 위기는 바야흐로 내일로 박두했다!”는 내용의 격문도 나붙었다.

3월 14일 오후 6시 무렵, 민주당사 앞에서 정견발표를 듣기 위해 군중이 모여 있었다. 그 속에 섞여 있던 학생 3백여 명이 갑자기 “협잡선거 바로잡자!”고 외친 뒤 조병옥 박사와 부통령 후보 장면 박사 만세를 소리 높여 부르면서 시위에 돌입했다. 곧 경찰이 출동하고 사소한 공방이 오갔으나, 민주당원들이 간곡하게 만류해 20여 분 만에 시위대는 해산했다.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허윤수가 막대한 이권을 받고 자유당으로 넘어가는 변절 사건으로 민심이 뒤숭숭하고, 또 불길한 조짐들이 반복되어 오는 와중에도 자유당의 부정선거 준비는 물밑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3·15의거 전야, 마산 시내 전역은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였다. 마치 폭풍전야처럼 대지는 숨을 죽이고 사위는 적막했다.

투쟁의 현장에서...

3월 15일, 드디어 역사적인 선거 날이 밝았다. 아침 7시 정각 마산경찰서와 남성동파출소 양쪽에서 투표 시작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오늘도 여념 없이 생을 찬미하는 검붉은 태양이 온 지상에 복된 누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일기를 시작하는 김무신은 눈을 뜨자마자 즉시 시내 사정을 살폈다. 예상대로 동·반장들이 흰 베에다 검은 색으로 ‘자유당’이라고 쓴 완장을 차고는 온 거리를 활보하며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완장을 강제로 떼맡긴다. “부탁합니다. 헤헤. 이 분 잘 아시죠?” 하며 아부를 떨기도 했다.

김무신은 아침밥 먹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이미 약속한 대로 붉은 색연필과 도화지를 가지고 500미터 정도 떨어진 친구 송원주의 집을 찾아갔다. 반월동 입구의 자기 집에서 친구 집으로 가는 대로 한 복판에 투표소가 있다. 투표소 주위의 길 입구마다 새끼줄로 이중삼중으로 망을 쳐놓았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공짜 술이나 얻어먹고 노름판에 가서 근거 없는 시비를 걸어 입치레나 하던 아니꼬운 족속들이 만취 상태로 모여 오고가는 사람을 붙잡고는 “여기, 여기 찍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요?” 하며 싸움을 걸듯이 공갈을 친다.

김무신은 집으로 되돌아가 시계를 풀어놓고 다시 만반의 준비를 한 후 투표소 앞을 지나가는데, 신경마비제를 맞아 혼수상태 빠진 듯한 반공청년단원 한 명이 “야, 학생. 저리로 돌아가!”라고 호통을 치자 “무슨 권리로 국민의 자유를 함부로 농락하느냐”며 당당히 쏘아부쳤다.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살펴보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도리어 권리를 빼앗기고 나오는 표정들이다. 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보인다. 컷전에 “아주머니, 어떻게들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불만에 가득 찬 말투로 대답한다. “아유, 말도 마. 학생! 내가 찍고 싶은데 찍고 나오는데 자기네들이 목표로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다시 끄집어내서는 자기네 손으로 다시 찍고 안 그러나?” 무신은 친한 다른 아주머니를 만나자 똑 같이 물어보았다. 그녀는 무신을 바빠 집으로 데리고 가더니 마루에 앉자마자 자유당 지방간부들의 목적 대상인이 아니면 명심해 두었다가 나중에 보자는

식으로 협박을 하더라며 “세상이 뒤집혀야 할기다”라고 말했다. 무신은 치가 떨리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속으로 생각한다. “‘혁명,’ 내 힘으로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오전 10시 경 김무신이 친구 집에 도착했다. 이 친구도 울분에 쌓여 있었지만 부모님 경계가 엄하여 오늘 하루만은 맘대로 처신하지 못하는 신세다. 준비해온 두 장의 큰 종이에 하나는 국민에게 다른 하나는 자유당 간부에게 보내는 각서를 썼다.

『국민에게 보내는 각서: 경애하는 부모·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오인은 투표소에서 하는 자유당 간부놈들의 처사와 실제 우리의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불의의 명령은 우리들의 주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이미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부모·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가고 없는 우리 선조들의 업적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연한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자유와 평등, 권리를 보지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고 영구한 발전을 누려야 할 이 마당에서 자유가 없고, 평등이 없고, 권리가 없이 불의를 보고도 수수방관해서야 되겠습니까? 선거법에 있어서 그 종류는 여러 가지이나 어떤 선거이고 간에 그중 하나를 택하게끔 엄연하게 기본법이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비밀투표와 공개투표가 동시 실시되는 모순이 현재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부모·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애타는 심정 억제할 수 없어 삼가 고개 숙여 존배하게 되는 오인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10대 소년, 비천한 한 가내의 맏아들입니다. 너그러우신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부디 몸 건강하십시오. 이만 총총.』

『자유당 간부에게 보내는 각서: 요사모사한 인간 자유당 간부 여러분! 이렇게 서두부터 불손한 언사로 대하게 된 원한에 찬 이유를 알겠습니까? 이렇게 글월을 상서하게 되는 소인은 여러분들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나이로 학원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불의를 타파하려는 정신의 소유자, 학생의 한 사람입니다. 오인은 호소합니다. 원한에 찬 호소입니다. 당신들 중에도 오인과 같은 아들, 딸을 둔 간부들도 계십니다. 양심이 있고 냉정한 이성으로써 자녀들을 교육시킨다면 가만히 두 손 가슴에 얹고 반성해 보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영원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네들의 조상이 남기고 간 업적에 피를 더럽혀 천추만대에 밝힐 용기가 있다면 이 각서를 보는 즉시 찢어버리고, 반대의 생각이시면 퇴장하여 계몽은 못할망정 가내혁명이나 시키십시오. 오인은 죽음을 각오한 하느님의 계시를 받은 비천한 몸입니다.』

김무신은 각서를 돌에 싸서 하나씩 던졌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있긴 했지만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른 길로 빠져 나왔다. 얼마 후 결과가 궁금해 현장에 가보니 ‘국민에게 보내는 각서’는 산산조각이 나 길바닥에 널려 있고, 다른 하나는 목적지도 도달하지도 않았다. 다시 주워 와서는 같은 내용의 각서를 세 개 더 썼다. 이번에는 투표소에서 2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경찰서장 관사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뒤 들어가서 장독대에서 돌에 싸 각서를 던졌다. 투표소 마루에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쿵쿵 났다. 성공! 호탕한 마음으로 돌아 나왔다. 12시 쯤 다시 현장에 가보았다. 사람들이 그걸 보았는지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게 아침때의 분위기와는 달라보였다. 그러나 좀 어색한 기분이 감돌아 세심히 살펴보니 역시 반응은 신통찮다. 실망한 그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며 새삼 각오를 다졌다.

한편 추산동에 살던 김용실은 선거 당일 오전에도 할머니 투표번호표가 나오지 않았음을 확인한 뒤 추산동사무소에 항의하러 갔다. 거기서 번호표는 발급되었고 이미 투표까지 완료된 상태라는 말을 듣고는 경악했다. 곧장 번호표를 가져갔다는 반장을 찾아가 따졌지만 그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용실을 무시했다. 사전투표의 소문이 사실임을 스스로 확인한 용실은 터질 듯한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³⁾ 정오 무렵에 둘째고모 집을 찾아가 고종형이자 마산고등학교 21회 동기인 박종근과 점심을 먹었다. 그 뒤로 마산에 살고 있는 친척집들을 일일이 찾아가 문안인사를 했다. 이로 미루어 그는 무언가를 하기로 단단히 마음먹었고, 그 와중에 혹시 자신의 신상에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직감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집에도 투표번호표가 안 나왔는지를 확인할 목적도 있었을 수

3) 김용실 모친과 큰누나의 증언에 따르면, 집에 유권자가 5명인데 투표권이 한 장만 나와 부모들이 항의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을 듣고 용실이가 흥분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필자의 짐작으로 증언을 받아 적거나 녹취할 때 ‘한 명이 안 나왔다’는 말을 ‘한 명밖에 안 나왔다’로 잘못 적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여기에는 다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김용실의 친구들, 특히 배종길의 증언에 따르면 민주당 자체 조사위원회가 김용실 집을 방문했을 때 용실이 할머니가 울고 계셨는데, 그 이유를 묻자 자신의 표가 안 나와 용실이가 분노해 시위에 참가하는 바람에 죽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라는 용실 부친의 설명을 직접 들었다. 다음, 당시 유권자 총수의 20~40% 정도에게 번호표를 주지 않고 이를 사전투표에 활용하는 것이 자유당 부정선거 전략의 하나였는데, 그렇다면 유권자 5명의 가족이라면 1~2명의 번호표를 주지 않는 것과 그 대상을 가족 중 가장 반발력이 약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이 전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있지만, 어쨌든 이 날 특별히 친척어른들에게 문안인사를 드려야 할 다른 어떤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오후 3~4시 경에는 창동 외삼촌댁을 방문했는데, 이 시점은 인접한 오동동에 소재한 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원들이 주도하는 가두시위가 진행 중이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시위를 보았거나 들었을 것이고, 또 저녁에 다시 모이자는 소문도 들었을 것이다.

이 무렵 김정세와 서기홍도 시내에 있었다. 가족 모두와 함께 시내 나들이를 나갔던 김정세는 1시 30분경 점심식사를 마치고 불종거리를 지나가다가 민주당사에서 선거포기를 알리는 스피커 소리를 들었다. 눈물이 핑 돈 그는 민주당사 앞에 운집해 있는 학생들을 보고 자기도 저쪽에 가겠다 하니 부친이 만류했다. 그래서 일단 집으로 갔다가 목욕탕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그 길로 바로 민주당사로 다시 나왔다. 오후 4시경이다. 대략 1~2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가두시위를 하고 있었고, 경찰이 민주당원들을 연행해 가는 것을 보았다. 그 직후 서기홍이 이곳에 도착했다. 그는 이미 낮 1시쯤 신월동 집에서 나와 맞추어둔 교복을 찾으러 구마산에 갔다가 주인장이 그의 친구와 하는 대화에서 민주당사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집에 돌아왔는데, 호기심을 못이겨 시내로 다시 나왔던 것이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민주당 방송을 듣지는 못했지만 민주당원들이 데모하다 잡혀간 상황인 것 같았다. 군중은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가 개표 시간이 가까워오자 나중에 모두들 시청으로 가자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일단 해산했다.

김무신은 신월동 투표장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위에는 푸른 셔츠 아래는 교복을 차려입고 헌 군화를 신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구마산을 향해 갔다. 하오 5시 조금 지났을까 민주당 시당부 앞 노상에 도착했다. 시당부 2층에 설치된 스피커에서는 그가 평소 사숙해온 정남규 도의원의 목소리가 부정선거 강행, 모의공작 등등 불의를 공개하는 피눈물이 나는 듯 목 메인 원한에 찬 절규를 토한다. 무신은 온몸에 찬물을 끼얹은 듯 소름이 끼치고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갑자기 그동안 쌓여 있던 분노가 폭발했다. “경비 경관! 넌 뭐냐?” 하며 집어던진 돌이 경관의 머리에 명중했다. 시민들이 “와-!” 하며 치고, 밟고, 박고 난장판을 만들었다. 혼란한 틈을 타서 빠져나와 콘티넨탈 다방[현

코아양과] 앞을 지나 건너편 25시 다방 앞 아스팔트 노상에서 들으니 콘티넨탈 건물 옥상의 자유당 스피커와 민주당 시당부 옥상의 민주당 스피커가 마치 대결을 벌이는 듯하다. 사람들은 모두 민주당 스피커에만 귀를 기울이는 듯했다.

김무신은 25시 다방 뒷골목에서 친구들을 조우했다. 김정운, 서기용(홍), 송원수(주) 등 친구 5명은 “오! 김군”하며 뜨거운 악수를 청하는 무신의 씩씩거리는 음성과 얼굴, 행동, 몸차림을 이상하게 생각했을 지도 모른다. 이들은 작은 골목길로 이동했다. 무신은 오늘 일을 규탄하기 위해 오후 7시 시청 앞에 집결하자고 제안하고, 각자 이를 최대한 많은 친구들에게 알리고 또 주변에 전파해달라고 부탁했다. 친구들 모두 전적으로 동의했다. 시간이 없으니 빨리 실행하자며 즉시 헤어졌다. 무신은 이런 용기와 기백을 가진 친구들이 고맙고 자랑스러웠다.

김무신이 골목에서 나오는 순간, 길쭉한 셀럼 담배를 손가락에 낀 놈뎡이 한 놈이 “야! 학생 잠깐”하면서 다가선다. 형사 타입의 30대 인상과 아저씨가 팔을 잡아당기며 끌고 가려고 한다. 김무신은 욕설과 비난을 마구 퍼부으면서 돌맹이를 쥐고 공세를 취한 뒤 뛰어서 도망쳤다. 100미터 정도 죽자고 달린 뒤 아무 반응이 느껴지지 않아 일단 멈춰서 뒤돌아보니 그놈은 없고 마산고등학교 선생님들만 보인다. ‘아차’ 하면서 다시 달렸다. 시민극장 앞 주차장에 도착하니 마침 시내버스가 서 있어 바로 집어탤다. 버스 안에 있는 십여 명의 학생들 중 납득할만한 학생들에게 귓속말로 전언하자 모두 재고의 여지없이 찬성한다. 그는 형이나 친구도 동반해 달라고 부탁했다. 일은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은데 그의 가슴은 조금 전 겪은 모험 탓인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다.

김무신은 신마산 마산극장 앞에서 하차했다. 친구 포섭을 위해 다방들을 뛰면서 돌았고, 상급생이든 하급생이든 전화번호를 아는 친구들 모두에게 전화를 걸었다. 1시간 만에 200명 정도는 확실하게 포섭한 것 같았다. 다시 누님 집을 찾았다. 누님은 저녁식사를 차려주면서 유달리 좋은 반찬을 준비하셨다. 무신은 자신의 행동을 짐작하신 건 아닌가 생각했다. 그러나 저녁은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화가 치밀어 들어갈 곳이 없었던 탓이다. 푸른색 샤스를 흑색 샤스로 바꿔 입고는 약속시간에 맞추어 나갔다. 신월동과 장군동을 지나가면서 계속 친구 포섭에 열중했다.

송정명도 저녁에 시청에 모여서 개표 못하게 하자는 소문을 들었다. 어둠이 깔리기 직전인 6시 무렵 저녁을 먹고 나온 많은 사람들이 시청 개표 현장으로 가고 있었다. 그는 이 무리에 합류했고, 무학국교 앞에서 시내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시청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구름같이 길을 짝 메웠고,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마산 시민이 전부 다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사람들은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

서기홍은 민주당사 근처에서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오후 6시 반쯤 약간 밝을 때 집을 나왔다. 시청 앞까지 못 가서 세무서 뒤에 있는 유정다방 인근에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일반인은 많지 않았다. 시내 민주당사 근처에 있던 김정세는 군중들이 저녁 7시 시청 앞에서 다시 모이기 위해 흩어진 후 도보로 시청을 향해 갔다.

김용실은 7시에 사람들이 시청 앞에 모이기로 했다는 사실을 최소한 알고 있었고 데모에 참가할 생각이 확고했음이 틀림없다. 용실은 오후 늦게 고모 집에 레코드 받으러 간다며 나갔다 왔고, 저녁 먹고는 식구들과 방에서 같이 노는 등 가족들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다. 7시 경 자산동 쪽에서 ‘와, 와’ 떠드는 소리가 들리자 창가에 나가 보는 모친에게 런닝 바람에 놀던 용실이 잠시 구경하고 오겠다며 나갔다. 동생들은 용실 형이 현 워카 끈을 조여매고 시계를 보더니 ‘아직 빠르다’고 중얼거리며 나가는 걸 봤다.

오후 정각 7시, 시청 옥상에 걸린 스피커가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외친다. 시청 전방 약 100미터 지점에 6명의 학생을 동반하고 막 도착한 김무신은 “오나 이놈 좋다!”면서 입을 굳게 다물었다. 시청 앞에 가니 친구 20~3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 서로 악수를 교환한다. 스피커가 “개표하겠습니다”를 연달아 외친다. 경찰들이 방망이와 총을 메고 아스팔트 양편에 죽 늘어선다. 학생은 무조건 돌아가라 한다. “왜 돌아가라는 거요? 우리는 의무를 당당하게 치루었으니 그 대가로 권리가 엄연히 부여되어 있는데 왜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요!” 경찰들이 “개새끼! 무슨 잔소리야.” 하면서 쫓아온다. 학생들은 법원 뒷골목으로 도망쳤다.

조금 있으니 구마산 군이 “와-!”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진군해왔다. 구마산에서 만났던 김군이 선두에서 지휘하고 있다. 모두 함성을 울리며 총집결하니 도합 500명은 충분하

다. 김무신이 법원의 높은 뒷담에 뛰어올라 말했다. “... 이 거족적인 행사의 순수한 의의는 과거 12년 동안 묵었던 이승만 독재-부패 정치에 항거하고 박탈당한 우리의 주권과 불의를 배타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데 제1목적이며, 제2목적은 선조들의 유업을 손상시키지 않음이 우리들의 도덕적인 의무인만큼 일치단결하여 질서정연한 학생 본위의 거사를 치르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동 면에 있어서는 아스팔트로 나가 스크램을 한다. 구호는 ‘부정선거 다시하자’ ‘민주주의 사수하자’ ‘학원의 자유를 달라’ ‘이승만 독재 물러나라’이며, 이 중 아무것이나 좋습니다. ... 아무런 제지가 없을 때에는 우리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시청까지 입청한다. 만일 심한 제지가 있을 때에는 우리도 과감히 대적한다. 이상입니다.”

모두들 “웁소!” 하면서 큰길로 나섰다. 시청 전방 200미터 떨어진 동방건물 아스팔트 거리이다. 약속대로 건아들의 위풍을 과시하며 당당하게 구호를 외치며 전진 또 전진, 시청으로 쇄도해갔다. 그러나 시청 앞에는 이미 경찰이 지프차, 소방차 등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고 있었다. 지프차와 소방차의 헤드라이트가 그들의 눈을 비추었지만 시위 군중의 절규는 계속되었고, 점점 시청 쪽으로 접근해간다. 한전 지점을 지나 도립마산병원 근처에서 행진이 막혔다. 드디어 경찰이 무차별 구타를 가하기 시작했고, 공포를 쏘아대며 사이사이 최루탄도 발사했다. 시위군중은 공포에 떨며 후퇴했지만, 이때부터는 시위대도 돌과 나무를 무기로 삼아 대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직적인 경찰 앞에는 불가항력이다. 최루탄 공세는 더욱 심해졌고, 학생 시위대는 전의를 상실했다. 김무신이 원했던 평화시위는 이미 물 건너갔고, 사태는 악화일로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세무서 뒤쪽에 있던 서기홍은 소방차가 불을 켜고 군중을 비추고 물대포를 쏘고 해서 헤드라이트를 깨기 위해 돌을 주워 던졌다. 기홍은 무학국민학교 앞의 상황은 잘 몰랐지만, 장군천 시장에서 다시 모여 시청 진입을 시도했다. 이때는 아직 정전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세무서 뒤에 모여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소방차가 가로막아 물대포를 쏘았다. 이때 여학생들이 돌을 많이 주워다 주었고, 서기홍 등은 ‘경찰들 온다’ 하면 그쪽으로 가서 돌을 던지곤 했다.

송정명과 김정세도 무학국교와 몽고간장 앞에서 시청에 이르는 대로 시위 군중 속

에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일진일퇴를 반복했고, 송정명은 한 8시까지 그랬다고 생각한다. 이 혼란한 와중에 김용실은 우연히 둘째 남동생(김태실, 마산중 3년)을 만났다. 동생이 “형, 언제 나왔노?” 하고 묻자 그는 “지금 사담할 시간 없다”며 앞으로 뛰쳐나갔다. 동생은 이후 살아있는 형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이 무렵이었을 것이다. 소방차 한 대가 돌연 군중에게 라이트를 비추며 물대포를 갈기며 질주해오기 시작하자 시위대는 돌을 던지며 대항했다. 김정세도 가세했다. 소방차 운전자가 돌에 맞았는지 소방차는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무학국교 앞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전신주는 넘어지면서 세 동강이 났고, 폭음과 함께 마산시 전체가 정전되었다. 어둠 속에서 시위대는 곧장 시청으로 전진했다. 그런데 도립마산병원 근처에서 처음으로 총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실탄 사격이 시작된 것이다. 시위군중이 후퇴하기 시작하자 경찰들이 밀고 나오기 시작했다. 총탄 소리에 송정명은 겁이 났다. 김정세는 이성을 잃은 채 북마산 쪽으로 도주했고, 김용실 동생은 수도산 쪽으로 도망쳤다.

서기홍은 법원 쪽으로 이동했는데 여기도 경찰들이 총질을 해댔다. 시청으로 좀 더 가까이 가는 순간 서기홍은 자기 바로 옆에서 친구 하나가 총을 맞는 것을 보았다. 같은 학교 동급생인 김용실이었다. 용실이 ‘으’ 하며 쓰러지자 기홍은 머리칼이 짹 솟으며 순간 자신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뒤돌아서서 다시 법원 쪽으로 이동했다. 거기서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위급한 상황이라 한 두 명은 옆집 담을 넘어갔다. 서기홍도 담을 넘어가려는데 총알이 날아와 쓰러졌다. 땅에 얼굴을 처박고 엎드렸다. 경찰들이 달려와 그의 머리를 사정없이 쳤다. 피가 주르륵 흘렀다. 네댓 명이 같이 잡혔다. 경찰이 어깨, 팔꿈치, 무릎관절을 따다닥 때리니까 다들 꼼짝을 못 했다. 경찰이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라 하자 엉겁결에 두 사람이 일어섰다. 경찰들이 그들을 몽둥이로 사정없이 쳤다. 이가 다 날아가고 머리와 얼굴에 피가 났다. 손을 머리에 올리라 해서 서기홍은 손이 안 올라가 머리를 숙여서 올렸다. 그들은 반공청년단이 2열종대로 서 있는 사이로 시청으로 끌려갔다.

8시 30분쯤 되었을까. 총질과 투석의 격전은 계속되는데 시위대는 악전고투의 연속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학생 데모대, 돌질 하면서 뒷걸음치다 넘어지는 학생도 부지기수다. 김무신은 총탄에 맞아 ‘우윳!’ 비명을 내지르며 쓰러지는 동생 또래의 한 청소년의 처절한 모습을 보았고, 날카로운 비명을 수없이 들었다. 경황없이 후퇴하면서도 뒤돌아서서 돌질을 했다. 남전 앞에서 전열을 가다듬고자 했다. 갑자기 장소가 밝아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전 이 사람들 뭘 하는 거요. 불을 끄시오! 불을 꺼!’라고 고함쳤다. 빨리 불이 꺼지지 않자 옆의 친구들이 돌을 던졌다. ‘쨍그랑’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그의 신경을 거스른다. 그때 구마산과 북마산 방향에서 온 데모대원 5천여 명이 당도했고, 시위대의 힘은 배가되었다. 수십 명의 여학생이 스커트 앞자락에 돌멩이를 가득 담아 와서 데모대원 앞에도 부리고 갔다. 김무신은 3.1독립의거 때 통치마를 입은 의신여학교 학생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치는 광경이 떠올랐고, 마산 여성의 대단함에 감격해 왈각 눈물을 쏟는다. 그러나 사태는 위기상황으로 치닫는다. 증가하는 경찰의 공세가 더욱 맹렬해지자 데모대는 뿔뿔이 흩어진다. 김무신도 친구들과 헤어져 버렸다. 경찰의 무차별 총질에 투석으로 대항하다니 바위에다 계란치기였다.

박광규는 신월동 하숙집(현 중앙고 근처-웁진이)에서 내일 치를 학기말 고사를 위한 시험 공부 중인데 친구 임문길이 찾아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갑자기 정전이 되어 무슨 일인가 싶어 촛불을 켜놓고 친구와 함께 잠깐 밖으로 나왔다. 하숙집 앞 큰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너희는 거기서 뭐 하노. 시내는 큰일 났다. 데모하고 야단이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아차 싶어 신마산에 있는 마산극장까지 내려갔다. 거기서 마산시청으로 가려고 하니 도로는 이미 막혀 있었다. 할 수 없이 그 아래쪽에 있는 철길을 타고 시청 뒤쪽을 통해 자산동 입구에 있는 전도관 건너편까지 달려갔다.

거리는 수많은 군중의 함성, 최루탄 가스, 총소리 등으로 온통 이수라장이었다. 자산동에서 시청 앞에 이르는 대로에서 쌍방 간 격렬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었다. 경찰이 아래쪽을 겨누고 쏘는지 총알이 보도를 맞고는 위쪽으로 튀어오르면서 ‘핑핑’ 소리를 냈다. 그들은 이 자리를 피하려고 기어서 전도관 쪽으로 건너가 데모대에 합류했다. 수백 수천의 학생이 한데 어울려 시청 쪽으로 쭉 갔다가 경찰이 총격을 가하면 뒤로 밀리고, 다시 전진했다가 후퇴하는 상황이 오랫동안 반복되었다. 많은 여학생들이 돌을 계속 주워

날랐다. 이미 총소리도 나고 치열한 공방전 중에 시위대에 합류했는데, 총알이 아스팔트 위로 불꽃이 튀기는데도 박광규는 이상하게도 총격에 대한 공포나 무서움 같은 게 전혀 들지 않았다. 아마 총의 위력을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시위군중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매우 흥분한 상태라 총소리조차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그때 누군가 여기서 이려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외치면서 어딘가를 향해 진로를 바꾸자고 했고, 박광규 등은 그 뒤를 따랐다. 이들은 변절자 허윤수 집인지도 모르면서 물려가 돌을 마구 던졌다. 그 후 누군가가 또 장군동으로 가자고 고향친다. 모두들 그쪽으로 가면서 '시청을 점거해야 한다', '부정선거 개표를 못하게 하자'고 외쳤다. 장군동 다리에 도착했다. 이미 그곳에 있던 몇몇 사람들과 합류해 뜻을 모으고 있는데 갑자기 '포위되었다', '빨리 도망가자'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광규는 그때까지 동행하던 친구 임문길을 찾았다. 그가 보이지가 않아 할 수 없이 혼자 마산경찰서 방향으로 마구 달렸다. 뒤에서 누군가가 불렀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갑자기 뭔가가 그를 '퍽' 하고 쳤고,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다고 느꼈다.

송정명이 속해 있던 시위군중은 이쪽은 불리하다 싶어 시청으로 진출할 다른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길마다 사람들로 꽉 차 있고 경찰이 총을 계속 쏘니까 다들 주저하고 있었다. 결국 법원 뒷길로 해서 장군동 시장 앞으로 진출하기로 했다. 일부는 법원 골목으로 가고, 일부는 길도 넓고 사람도 제일 많은 장군천으로 진출했다. 송정명은 장군천 쪽으로 합세했다. 장군천에서 시위대는 한 다섯 번 진격했지만 방어막을 뚫지 못하고 밀렸다. 경찰은 장군천까지만 오고 그 이상은 추격하지 않았고, 50미터 사이를 두고 대치했다. 그러다가 구호가 커지면 경찰이 진격해 데모대가 밀리고 경찰이 물러나면 그 자리를 데모대가 차지했다. 송정명 역시 처음에는 총소리가 겁났지만 나중에는 겁조차 없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총은 무서웠고, 밤은 깊어가고, 오래 동안 시위하다보니 지치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생기면서 시위 세력은 서서히 세력도 약해져갔다. 정의감과 울분에 모인 사람들이었지만 총칼 앞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치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총소리가 났다. 송정명은 총 맞은 줄도 몰랐다. 도망가려는데 저절로 쓰러졌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한쪽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다리에 피가 흐

르고 있었고, 같이 싸우던 사람들은 다 숨거나 도망가 버리고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송정명은 덜컥 겁이 났다. “아,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경찰이 밀어닥쳐 총 맞은 2~3명을 시청으로 끌고 갔다. 운신이 어려웠던 송정명은 붙들린 사람들의 등에 업혀 갔다. 송정명이 부상당해 끌려간 뒤에도 시위는 계속되었다.

김무신은 친구들과 헤어진 후 남전 옆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갔다. 경찰의 군홧발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오자 그는 엉겁결에 어느 기와집 지붕으로 올라갔다. 오가는 경찰 놈들의 머리통을 후려갈기기에 최고의 적지였다. 양쪽 바지에 잔뜩 들어 있는 돌맹이로 산타루(경찰을 지칭하는 은어) 머리통썰이야 능히 구멍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의 앞은 폭 10미터, 길이는 100미터 정도의 남전 앞 대로이다. 아직 도주하지 않은 데모대원들이 20미터 전방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그가 숨어 있는 기와지붕 아래로 살쥬이 마냥 산타루들이 허리를 굽히고 뽀뽀 기어간다. 행동 개시! 돌로 총공세를 퍼부었다. 경찰들이 뒤통수를 싸안고 퇴각하기 바쁘다. 그런데 또 다른 놈들이 “저기 한 놈 있다”고 고함을 치더니 총을 쏘기 시작했다. 김무신은 줍처럼 체포하기 어려운 호 지대에 있지만 실탄이 없다. 그렇다고 남의 집 기와장을 던질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나 경찰의 맹공세로 포위될 처지다. 두리번거리보니 장독들이 옹기종기 있다. 빈 장독 안에 숨었다. 생명의 은인, 장독에게 감사했다. 한참 웅크리고 있으니 전신이 마비될 듯이 저러오고 친구들이 어찌 됐는지 알고 싶고 바깥사정도 궁금해 미칠 것 같아 다시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웬걸? 나와 보니 앞에도 경찰 뒤에도 경찰, 호랑이 굴에 들어왔다. 최후의 순간을 맞았다고 생각한 그는 높이 10미터 정도 되는 남전 고층건물로 공중 도피전을 감행한다. 뒤에서 돕는 자가 있어 뒤돌아보니 어떤 여학생이다. 평소 턱걸이 두 개도 제대로 못하는 자신이 그야말로 밀림의 타잔을 연상시킬 정도이니 스스로 자신의 초능력에 탄복했다.

이즈음 김정세는 북마산 쪽으로 도망가다가 중앙극장 어귀에서 또 다시 총 소리를 들었고, 땅바닥에 섬광이 번쩍했다. 총소리와 함께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반복하면서 북마산파출소 부근에 있는 우리약국 앞에 이르렀다. 그 앞에 휘발유 드럼통 두 개가 있었다. 청년 몇 명이 드럼통의 물을 부어버리고는 드럼통 뒤에 몸을 숨기고 드럼통을 굴

리며 전진했다. 김정세도 이들과 합세했다. 이윽고 북마산파출소 안에 있던 경찰들은 당황해서인지 총마저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

김무신은 남전 옥상에서 주변을 살펴보고 안전해 보이는 테니스장으로 살금살금 기어갔다. 담 너머에서 경찰들이 웅성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길이 5미터 정도의 휴무관 속으로 피신했다가 5~10분쯤 지나 관에서 나왔다. 도로로 나갈 수는 없어 자산동 전도관 쪽에 있는 남의 집 담을 무작정 넘었다. 그의 발아래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치를 떨며 서성댄다. 이때 북마산 쪽 밤하늘이 흰해졌다. 북마산파출소에 불이 난 것이다.⁴⁾ 9시 30분경이다. 좀 있으니 그가 서 있는 발밑으로 소방차가 쏟아져 지나간다. 마침 지붕 위에 바람을 막기 위해 얹어둔 무게가 3킬로그램 정도 나가는 돌들이 널려 있었다. 전력을 다해 돌을 던졌다. 돌 하나가 소방차의 엔진 카바 위에 명중했고, 연이어 '와장창' 하며 유리창도 부서진다. 그는 통쾌감을 느끼며 공공물의 파괴자란 생각도 없이 계속 돌을 던졌다. 산타루가 맞으면 능히 즉사할 정도로 무거운 돌이다.

경찰들이 “야! 저기 한 놈 있다”고 외치면서 총을 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위기일발이다. 그는 살기 위한 막다른 행동이라며 높이 5미터 정도의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엉덩이에 거름에 섞인 푸석한 흙더미가 느껴진다. 정원의 부드러운 흙과 나지막하게 자란 연산홍 위에 떨어진 것이다. 일어나서 걸음을 떼려는데 돌을 쥔 손에 무엇인가 미끈한 감촉이 온다. 피였다. 총알이 이마 위를 스쳤고, 그 피가 뺨과 어깨를 타고 내렸다. 극도의 긴장과 흥분상태라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그의 발 앞에는 경찰들이 깔렸다. 담 모서리에 몸을 숨기고 때가 오길 기다렸다. 얼마 후 경찰들이 모두 자동차를 타더니 구마산 쪽으로 이동해 갔다. 즉시 행동을 개시했다. 총상 치료를 위해 지창용이라는 동교하급생의 집을 찾아갔다.

김정세가 속해 있던 북마산파출소 쪽 시위대는 다시 시청으로 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는 이동 중 중앙극장 쪽에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고무신이 찢어지고 발바닥에는 끈끈한 타액이 계속 흐르고 있어 겁이 덜컥 났다. 북마산파출소에서 경찰

4) 북마산파출소 화재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경찰이 조작했던 것처럼 방화가 아님은 확실하다. 파출소 안에 있던 난로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확실치 않다. 최근 테모대가 경찰을 공격하기 위해 던진 화염병이 원인이라는 증언이 나왔는데, 이 역시 추가 증언 등 확인이 필요한 상태이다.

과 대치하던 중 다리에 총탄을 맞았던 줄도 몰랐던 것이다. 그는 시위대를 빠져나와 모친이 다니던 전산부인과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작대기에 의지해 귀가했다.

김무신은 지창용의 집에서 이마 위 총상을 간단히 응급처치한 뒤 한숨을 돌렸다. 그는 헤드라이트를 비추던 자동차가 원망스러웠고, 발포 경관들의 잔악한 행위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경찰 트럭과 소방차의 내왕을 저지할 수단을 찾느라 고심했다. 무연화약을 만들 요량으로 집에 전화를 걸어 동생에게 화학약품 ‘KNO₃Cl(염소산칼륨)’ ‘P₄O₄(적인)’ ‘Mg(마그네슘)’ 등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런데 누님이 이를 아시고는 “질서정연한 데 모를 한다더니 총소리까지 들리니 이게 웬일이냐?” 하시며 노발대발이다.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애원조로 명령하지만 이 판국에 그런 명령이 통할 수 있을까?

김무신은 이제 ‘모로토브-칵테일(화염병)’ 만들 생각을 굳혔다. 가까운 친구 집을 찾아가서 다짜고짜 집에 휘발유 있냐고 물어본다. 친구는 없다며 머리를 도리질 한다. 할 수 없이 석유로 화염병을 만들어 대로로 나갔다. 자산동 향원다방 앞 노상에서 데모대원 약 50~60명이 악전고투를 하고 있었다. 발화선에 불을 붙여 경찰 쪽으로 던졌다. 아니나 다를까, 그제 병에 든 석유가 무슨 폭발력이 있을까. 병이 깨지면서 기름만 연소해버렸다. 경찰들이 가하는 충격에 또 다시 후퇴했다.

김무신은 서성동 빈민촌으로 내달았다. 경전선 철뚝굴을 지나 으스스한 골목으로 피신했다. 거기서 칼빈 총을 손에 쥔 코트 차림의 어떤 아저씨와 자기 또래의 친구 한 명을 만났다. 세 명은 서성동 빈민골로 이동해 긴급 비밀모의를 했다. 김무신은 총을 가진 아저씨가 누구 편인지 정체를 확인한 뒤 총이 어디서 났냐고 물으니 북마산파출소에서 주었다 한다. 총알이 한 발 들었다고 해서 원한의 대상인 헤드라이트를 부수기로 합의했다. 아스팔트로 나가 아저씨가 과녁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실패했다.

그래서 김무신이 화염병을 만들자고 제안하자 모두 반색했다.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시외버스-필자) 주차장에 가서 휘발유를 구하기로 했다. 주차장은 굳게 닫혀 있고, 주유소는 조용하다. 문을 두들기자 40대 아저씨가 나왔다. 반민주행위자를 처부수는데 휘발유가 필요하니 한 말만 달라고 간청했다. 무조건 “없다”는 대답에 아저씨가 그의 앞가슴에 총을 갖다 대며 협박했다. 김무신이 아저씨를 만류한 뒤 차근차근 설득했지만

주인이 자물쇠로 잠가 두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김무신 일행은 다시 화물차가 있던 곳으로 갔다. 거친 아저씨가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운전수를 깨워서 “빨리 휘발유 한 말만 내놔-” 하면서 총으로 협박했다. 놀란 운전수가 고무호스로 급히 휘발유를 뽑기 시작했다. 김무신은 화염병 제작에 필요한 다른 물품을 준비한다. 사이다병 20여 개와 정종, 탁주라고 쓰인 무명베를 찢어서 도화선을 만든다. 즉시 휘발유를 반병



(김무신)3월 15일 밤 시위자들은 경찰에 체포되어 마산시청으로 끌려갔다. 경찰병에 맞고 발길에 차여 많은 부상을 당했다. 맨 앞 머리에 봉대를 감은 사람은 마산고등학교 재학생인 김무신 군(김일규)

씩 채워 놓고 베 안쪽에 돌을 넣고 단단히 싸맨 뒤 베에다 휘발유를 흡입시켰다.

이제 죽음을 각오한 비장한 대결을 위해 출발한다. 김무신 일행 세 명은 자산동 입구 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철물상 뒤편의 진주선 철로쪽에 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스팔트 쪽으로 달려갔다. 경찰들은 자산동 앞에서 쓰리쿼터, 지프차, 트럭들을 집결시켜 놓고 마치 게릴라전을 하듯이 골목 구석구석에 숨어 있다. 경찰들과 약 10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대치했다. 이윽고 모든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이들이 가세한 데모대에 집중한다. 김무신이 맨 앞장을 섰다. 두 손에는 화염병을 들고, 위 포켓에 넣어둔 성냥을 의식했다. 캄캄한 골목길을 내달리는데 갑자기 ‘뿡!’ 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무신은 의식을 잃었다. 경찰이 칼빈 소총 개머리판으로 그의 정수리를 찍었던 것이다.

고문과의 투쟁

이제 우리의 주인공은 모두 거리 투쟁의 무대에서 내려갔다. 누구는 죽었고, 누구는 중상을 입고 체포되었고, 또 누구는 상대적으로 경상을 입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특히 체포된 자들에겐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청에 끌려간 서기홍은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10시 반쯤이었다. 시청에서 조서를 꾸몄다. 경찰들은 조사 중 노다지로 오만 욕설을 다했다. 여자들한테도 집에 있지 않고 뭐 하러 나왔냐며 갖은 욕을 퍼부었다. “누구한테 사주 받았노?”, “돌 얼마나 던졌노?” 하면,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매에는 당할 자가 없다. 경찰들은 마산경찰서 소속이 아니라 타지에서 온 것 같았고, 정말 많이 때렸다. 다들 나이도 어린데. 손가락 사이에 연필을 끼워가지고 뺨 돌리면 꺾테기가 벗겨질 정도인데, 그렇게 누르면서 “돌 몇 개 던졌노? 다섯 개 던졌나” 하면 그냥 “예, 예” 하게 된다. 시키는 대로 조서를 받고 난 사람은 다들 녹초가 되었다. 조서를 다 꾸민 사람은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지만, 다들 얼마나 맞았는지 전신이 아파 누워 있지를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도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잡혀 들어온다. 한 번은 마치 지나가는 버스를 세워 승객들을 잡아온 것 같았다. 암흑천지 속에서 시청 안까지 총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렸다.

송정명도 시청으로 끌려왔다. 시청 안에는 총 맞고 잡혀온 사람들과 시청직원으로 가득했다. 개표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는 동기생 한 명과 같이 있었다. 시청에 있는 경찰들은 악에 받쳐서인지는 몰라도 잡혀 온 사람들을 큰 범죄자 취급하는 분위기였다. 이마에 총을 맞아 현장에서 즉사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들어왔다. 그동안 다친 사람들만 보다가 죽은 시체를 처음 본 송정명은 “아, 이거 보통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경찰은 이 사람이 죽었다고 판단하고 어디론가 데려갔다. 시청에서 경찰은 치료도 안 해주었다. 치료해줄 사람조차 없는 것 같았다. 새벽 2시쯤에서야 비로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옷을 찢고 보니 총알이 관통한 곳에 피가 아이스크림 같이 굳어 있다. 그는 이 와중에도 다행히 뼈가 안 다쳐 빨리 나올 것 같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잡혀온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면 지나가던 경찰이 조용히

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사람들은 얘기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자정 가까운 시간이었을 것이다. 박광규가 깨어보니 마산경찰서 유치장이다. 화장실 옆 바닥에 내동댕이쳐져 있다. 조금 정신이 들어 눈을 떠보니 많은 학생과 시민이 잡혀 와 있고, 분위기가 대단히 험악했다. 여학생도 더러 있었다. 경찰들은 여학생도 때리고 구둑발로 짓밟고 하는데, 정말 잔인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마산상고 3명, 마산고등학교 2명, 공고 1명 등 여섯 명의 학생과 같은 감방에 가두어져 있었다.

그 무렵 마산시청 지하실에서 김무신이 깨어났다. 왁자지껄 하는 소리에 눈을 뜨려고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눈이 떠지지 않는다. 손을 들어 올리려 했으나 팔이 말을 듣지 않는다. 아픔은 없는데 일어날 수도 없다. 꿈 속 같지만 틀림없는 현실이다. 차츰 정신이 들었다. 팔과 다리는 무지막지한 타격을 받았고, 관절이 아파 움직일 수 없음을 알아챘다. 몸뚱이는 피에 젖어 온몸이 적적하다. 겨우 한쪽 팔을 움직여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린 피가 달걀 흰자위 같이 응고한 핏덩이를 옷으로 고이 닦았다. 이제 눈이 뜨이고 간신히 일어났다. 사방을 둘러보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오른쪽 옆에는 친구 김용실의 시체가, 왼쪽에는 누군지 모르는 자기 또래의 시체가 있지 않은가. 천지가 공노할 참사에 기겁한 그가 밖으로 기어나갔다. 경찰이 “한 놈이 살아나온다” 하면서 날카롭게 부러진 끝 날을 가진 참나무 몽둥이로 마구 치며 가슴을 찌른다. 무신은 사지는 붓고 신경은 마비되어 아픔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다시 쓰러졌다. 경찰이 머리를 숙이고 꿇어앉으려 했다. 머리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3월 16일(화)을 알리는 밤 12시 사이렌이 울린다. 김무신은 끌려온 지 두 시간 정도 지난 것으로 짐작했다. 둘러보니 끌려온 시민이 150여 명은 되어 보였다. 살기와 공포가 감도는 시청 내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긴장된 분위기 속에 잔인무도한 살인 경관들의 만행이 그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인간 도살장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지가 떨리기 시작하며 눈꺼풀이 저절로 감겨진다.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쓴다.

시청 지하실에서 정각 1시에 취조와 조사 작성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일단 부녀자와 18세 미만 아동은 모두 석방했다. 제외된 김무신은 이루지 못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대한변화사협회 회원들이 도립마산병원을 방문하여 시위대에 참가 부상 입원 중인 마산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송정명 군으로부터 증언을 정취하고 있다.(김일규)

육체적 고통을 감수하며 소원을 위한 사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최대한 많은 시간을 벌고자 제일 뒤에 섰다. 취조는 먼저 성명, 본적, 현주소 따위를 물은 뒤 데모 참가 동기로 이어진다. 모두들 책상 앞에 서자마자 경찰의 강한 주먹세례를 받는다. 알고 보니 거짓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김무신은 사람들이 싸울 때는 당당히 싸워놓고 이제 와서는 자기 본위주의로 돌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다.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못이겨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어떤 형사는 바른 말 하라며 권총을 무릎 앞에 탁 풀어 놓고 공포 분

위기를 조성했다. 그래도 송정명은 경찰이 용공으로 몰려고 하는 데는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정했다. 김무신의 차례가 왔다. 경찰이 “왜 데모했나? 아니 왜 폭동을 일으켰나? 말해봐!” 제 단엔 잘난 채 빠기면서 묻는다. 무신은 “학생의 입장에서 본의를 망각하지 않는 이상 사실만을 말하겠으니 몸에는 손대지 마십시오”라고 정중히 말하며, 폭정의 모순을 지적했다. “몇몇 관료배들에 의해 좌우된 현 시국의 모순성과 이에 동조한 부정선거의 강행, 주권 박탈을 기도하려는 불의에 항거하여 세계만방에 이를 공고하여 유구찬란한 선조들의 찬업에 더러운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소위 당신네들이 말하는 폭동의 발로였다고 봅니다.” 경찰이 “소위 그것이 학생의 본분이나”면서 발길로 찼다. 그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취조형사는 김무신을 학생 주모자라고 생각했는지 진술

을 바꾸었다. 갖은 아량도 보이고 환심을 사려고 유도하는 말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나도 말이야, 자네 같은 아들을 두고 있는 몸이고 해서 상통하는 점이 많겠다. 그런데 누가 뒤에서 조종을 하고 데모를 하자고 꺾이더냐?” 하며 묻는다. 그러면서 셀럽 담배를 하나 끄집어내서는 담배 피울 줄 아나 하면서 권한다. 김무신은 속으로 가소롭게 생각하면서 “내 자의의 행동입니다”라고 답한다. 형사는 “좋아!” 하면서 같은 질문을 무려 다섯 차례나 반복했다.

새벽 3시경이다. 노도처럼 웅성대던 마산시청은 쥐죽은 듯 고요하다. 시청 내부는 거의 정돈되었다. 총 관통상과 생명이 위독한 자는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이어서 이 동식 침대 행렬이 들어온다. 김무신은 혹시 하며 눈을 부릅뜨고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전 자기 옆에 있던 김용실과 또 다른 두 구의 시체, 모두 세 구의 시체가 실려 나간다. 무신의 친우인 용실의 죽음을 다시 확인하면서 괴로움에 어쩔 줄 몰랐다. 차라리 같이 죽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는 울통이 막혀 더 이상 말이 안 나왔다.

송정명은 도립마산병원으로 실려 갔다. 그러나 치료는커녕 방치되다시피 했다. 경찰은 외부인과 접촉도 못하게 하고 취조만 했다. 이런 상태가 한 3일간 계속되었다. 나중에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울고불고 했다. 의사는 총알이 허벅지를 관통했지만 운이 좋아 신경만 끊어졌다며 조금만 옆으로 갔어도 동맥이 끊어져 위험할 뻔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소아마비 환자처럼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신경이 끊어지면서 근육이 다 죽어버려 평생 다리를 절게 된 것이다.

시간은 무심했다. 마산의 도심 전역에 걸쳐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치열한 전투의 밤이자 마산시청과 마산경찰서로 잡혀간 시위자들의 처절한 고난의 하룻밤이 지났다. 3월 16일 오전부터 마산고등학교 교정에는 지난 밤 2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퍼졌다. 마산고등학교 학생들은 슬픔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교실마다 또는 운동장 구석구석에서 울분을 토하거나 거리로 나가 시위하자는 의견 등으로 분분했다. 학도호국단 운영위원장 박문달은 이 난관을 돌파하고 수습해야 할 막대한 책무를 느꼈다. 그래서 전체 학생의견을 수렴하고 대책회의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만반의 준비

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교 선생들의 감시가 더욱 엄중해지고, 경찰마저 학교를 들락거리면서 학생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리고 마산 시내에는 경찰들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가는 검거 선봉이 불고, 용공으로 몰아 구속하고 있었다. 이처럼 학내의 엄중한 감시와 시내의 살벌한 분위기가 계속되자 마산고등학교 학생들의 움직임도 점차 잠잠해져갔다.⁵⁾

김무신의 일기는 말한다. “생을 찬미하는 찬연한 햇빛은 온 지상만상에 복된 장을 마련하고 있건만 내가 있는 이곳 시청 안은 살기와 인간 도살기가 떠도는 생지옥이다. 자유가 없고 구타와 신음이 충천하는 생지옥 그 자체다. 어제 저녁도 오늘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해 기운이 없는 것은 고사하고 하물며 생리현상인 노폐물도 자유롭게 버릴 수가 없으니 그야말로 어떤 인간이 이런 참상을 짐작할 수 있으랴. 차마 생각하면 할수록 온몸에 전율이 흐른다.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절망감이 엄습한다. 문득 일제하 애국지사들이 이런 참상을 당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이 되자 마산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의 개인별 취조가 시작되었다. 박광규는 당시 배우 최남현 씨를 닮은 담당형사의 얼굴을 지금까지도 기억한다. 형사는 처음부터 “누구의 지령을 받아 데모를 했느냐”며 용공분자로 몰았다. 그런 일 없다고 하면 거짓말 한다며 연필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늘리는 등 갖은 고문을 가했다. 그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린다. “바른 말 해라. 그래야 니가 산다”며 협박도 했다. 광규가 “바른 말 할 것이 없다”고 하자 뒤에서 누군가 그의 목덜미를 잡고 땅바닥에 꿰대기를 쳤다. 또 흠씬 두들겨 맞고 기절했다. 형사들은 한결같이 “간첩 지령으로 데모했다”는 자백을 강요했고, “너희들 부모도 담임선생도 빨갱이다. 도장 찍어라”며 협박하고 욕박질렀다.

이날 오후 4시, 서기홍과 김무신 등 마산시청에 잡혀 있던 20여 명은 마산경찰서로 이송되었다. 김무신은 조그만 진동에도 통증이 느껴지는 머리를 질질 끌며 쓰리코터 위로

5) 이날 오전 구속학생 석방을 요구하는 학생 시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끌려올라갔다. 사방에 늘어선 사람들, 어제 밤에 아들 딸, 형제를 잃은 부모형제들의 아우성이 어렴풋이 들린다. 마산경찰서에 도착하니 유치장도 숙직실도 아닌 겨우 세로 3미터, 가로 5미터 정도 되는 콘크리트 방 안에 무려 50여 명을 집어넣는다.

시간이 흘러 밤 7시가 되었다. 겨우 주먹만 한 밥 한 덩이를 나눠준다. 김무신도 밥덩이를 받아 들었지만 심한 갈증과 현기증에 조금도 목으로 넘길 수가 없다. 잇몸이 부어 더욱 그러했다. 결국 탄 애에게 쥐버렸다. 모두들 맛있게 먹는다. 무신은 생각한다. “갈증 때문에 목이 타도 물 한 모금이 없고, 소변 대변도 합동으로 치워야 하니 어찌 불평이 없고 반항이 없겠는가? 이 비겁한 놈들, 조국을 매도하려는 모리배들! 간판 좋고 허울 좋은 국산품 애용이란 선전에는 몰두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잇속을 챙기는 사람들아, 이래놓고 나라에는 충성이요, 국민의 지팡이라고 자랑하느냐 말이다!”

이날 밤 잠도 못 자도록 해놓고는 날이 새도록 무려 수십 차례나 취조와 고문이 반복된다. 김무신은 심한 출혈에 빈혈을 일으키고 쓰러져 있는 제수중(마산중학교 3년)을 발견하고, 자신이 있는 장소로 옮겨 창문에서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끔 무릎 위에 눕혀놓고 생각한다. “하늘이 공노할 일이지 왜 이런 어린 것을 잡아 가둬 놓고 죽이려고 하는가? 잔인무도한 경찰 놈들아! 동족 간 상쟁이라면 너희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나.” 그러면서 밖에 있을 때 자신을 많이 따라 동생처럼 사랑하던 수중이가 쾌차하기를 하느님께 빌고 또 빌었다.

3월 17일, 수요일 날이 새며 창밖이 밝아온다. 오늘도 맑은 날이다. 김무신은 제수중을 간호하느라 잠 한 숨 제대로 자지 못해 몸이 휘청거린다. 그러나 수중의 몸이 많이 회복된 것을 보고 천만다행이라 생각했다. 오늘 하루 내내 누구는 경찰관 동생, 누구는 형사 동생, 조카, 삼촌, 오촌, 육촌, 칠촌, 팔촌... 마구 풀려나갔다.

아침에 서기홍은 경찰들이 강경술 등 민주당 사람들을 유치장에 분산 수용하는 것을 보았다. 서기홍은 옆방에 들어온 사람이 정남규 씨의 아들인 정현팔 씨라고 생각했다. 강경술 씨가 학생들이 잡혀온 걸 알고 어디서 구했는지 알사탕을 하나씩 나눠주었다. 조

서는 다 꾸몄으니 고문은 더 이상 당하지 않았다.

해가 서산에 숨바꼭질할 때다. 마산경찰서에 이용범이 나타났다. 학생들 앞에 두둑한 뱃장을 내밀고 서서는 “학생들, 쓸데없이 그 놈의 빨갱이 민주당 놈들한테 꼬여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 하면서 비서에게 만 오천 원을 내주면서 소고기국밥, 건빵을 사다주라고 했다. 김무신은 인간적, 도덕적 관념으로는 고마운 일이나 어린 몸에도 그 이면에는 뭔가 음흉한 모의가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뇌리를 스친다. “이 뱃장 두터운 놈! 이 중대한 문제를 빵으로 해결하려는 이 무뢰한 같은 놈! 이번 사건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다.” 박광규도 이용범이 면회 와서 국밥을 시켜주면서 “어쩔려고 그런 일을 했느냐, 각하가 걱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그런 일 하지 마라” 등 이런저런 말을 들었다. 그런데 서기홍은 이용범이 넣어주었다는 국밥을 보지도 못했다. 잡혀온 다른 학생들이 일곱 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자신이 아는 사람은 신마산 서씨 선배 한 사람과 마산고등학교 동기생 김무신밖에 없었다.

김무신은 조금 후 어떤 여자 한 분이 중국편빵을 한 아름 싸들고 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아유, 학생들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배고픈데 이것 얼른 먹어요”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오늘 어쩐 일이야. 복이 터진다”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김무신은 말이 없다. 가슴속에 웅크린 또 다른 적개심 때문이다. 빵을 들고 들어선 그 여인은 바로 이용범의 처였던 것이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되었다. 경찰이 마산고등학교 학생 3명, 마산상고 학생 3명, 마산중학교 학생 1명, 일반인 8명 등 모두 15명의 명단을 부르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 어쩐지 김무신은 언짢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동생뻘인 제군이 “형님, 집에 가시면 내 소식 좀 전해주시시오”라고 부탁하는 말을 듣자 일단 “오냐”하고 대답했다. 자기가 없는 후 수종의 일을 상상하니 마음이 쓰렸다. 짐작대로 석방이 아니었다. 되레 유치장에 감금되었다. 다른 친구들의 얼굴은 아예 창백해졌고, 김무신의 마음도 두근거렸다. “생전 처음 들어가 보는 곳일 뿐만 아니라 죄인만 가둬두는 이런 곳에 애국자(무신은 자신을 두고 한 말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가 애국자가 아니면 누가 애국자란 말인가-필자)들이 들어가서 고생을 해야 하니 이것만 봐도 오늘날의 정치적 모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어쩐지 침묵만이 감도는 이곳은 허전과 고독감뿐이다.” 무신은 “취침!” 하는 경관의 목소리에 치를 떨었다.

3월 18일 목요일이다. 날씨는 여전히 맑았다.

“기상!” 소리와 함께 모두들 일어났다. 김무신의 자리는 옆에 변소가 있어 냄새가 코를 찌른다. 감방에는 모든 것이 먼저 들어온 사람이 우선이다. 아침밥도 제일 뒤에 들어온 사람이 날라야 한다. 식사시간이다. 할머니 한 분이 커다란 그릇에 밥을 이고 왔다. 겨우 300그램 정도이다. 게다가 순 콩보리밥에 찬이라곤 모재기(해초) 밖에 없다. 그래도 모두들 맛있게 먹어치운다. 박광규는 나라 경제 전체가 안 좋은데 경찰이 변변한 음식을 제공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오후다. 흰 수염이 나신 할아버지 한 분이 끄끔 앓으며 들어오신다. 김무신은 우선 몸을 보호해서 겨우 바르게 누우시도록 돕는다. “할아버지는 어쩌다 들어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15일 저녁에 북마산에서 내려오는 데모대를 선동했다고 오늘 붙잡혔단다. 경찰에서 바른말 하라면서 마구 몽둥이질을 하기에 우선 내 몸이나 성하고 보자 싶어 한 짓도 했다 안 한 짓도 했다고 마구 뇌까렸지” 하신다. 연세 많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다시 김무신은 울분이 터진다. 할아버지 연세를 묻자 “내 나이 육십 둘인데 오십 넷이라고 했네.” 왜 그러셨냐고 물으니, “아니, 그놈들이 안 한 짓도 했다고 꾸며 죽이려고 하니 어찌 하늘이 통탄할 노릇 아니겠는가! 그래서 마치 거짓 죽임을 당한다는 뜻에서 오사(誤死: 형벌이나 재난을 당하여 비명에 죽음-필자)라고 했네.” 태연자약하게 말씀하신다. 김무신은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생각한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와 조국을 위하여 더군다나 우리 세대를 위하여 몸소 노신을 아끼지 않고 이런 거사를 치러서 지금은 이런 장소에서 손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저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너무나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오후부터 취조와 고문이 시작되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대최악의 인상 고약한 악질분자는 다 모인 모양이다. 비명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늙은 할아버지를 앓혀 놓고 “이 개자식, 바른말 못해!” 하며 몽둥이로 후려친다. 이 참상에 김무신은 이빨이 갈

릴 정도의 분함과 증오심이 폭발할 것 같았다.

해질 무렵이 되자, 하늘도 슬픈 것인가. 음산한 하늘에서 가는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한 다. 다음은 김무신 차례다. 주모자를 찾아내기 위한 무자비한 고문이 시작되었다. 내가 주모자라고 해도 거짓말이라며 고문한다. 김무신은 이렇게 계속 심하게 맞으면 죽을 것만 같아 3학년생이 시켰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때부터 학적부를 가져오고 마산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닥치는 대로 불러왔다. 새빨간 거짓말이니 여러 선생님들만 고생했다. 날이 저물었다. 김무신은 “오늘은 고문의 날”이라고 규정했다.

마산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용공분자로 몰아가는 취조가 여러 날 계속되자 박광규는 지치기도 하고 정신이 흐려졌는지 어떤 게 옳은 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어린 마음이지만 마음속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빨갱이로 몰려서는 안 된다. 정말 이견 아니다. 차라리 나 혼자 죽는 게 낫다. 나 혼자 죽겠다”라는 각오를 단단히 했다. 며칠 후인가 정남규 비서라는 사람이 부상한 상태로 들어왔다. 그 사람이 “이러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일단 경찰이 시키는 대로 응해주어라. 일단 살아남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재판 중에 변호사를 통해 고문을 견딜 수 없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그래서 박광규는 고민 끝에 “그래 나만 죽자. 나만 죽으면 되는 것이다”라는 결심을 굳히고, 경찰이 시키는 대로 도장을 찍어 주고 말았다. 박광규는 이 일이 너무나 억울하고 참혹해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고, 자신의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다.

3월 19일 금요일이다. 어제 저녁부터 내리던 비가 오늘도 쉬지 않고 내린다.

김무신은 오늘도 고문과 취조가 계속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조바심을 친다. 그의 감방에 몸이 여윈 젊은 사람이 사지가 부러진 모양인지 허리를 굽힌 채 겨우 안으로 들어온다. 형용할 수 없는 고문의 참상이다. 그는 몸을 눕히지를 못했다. 무신은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무릎을 받쳐 베개로 삼게 하고, 두 팔로 그의 어깨를 주물렀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얼굴에 핏기가 돌아오자 무신의 마음도 기뻐다.

몇몇 애연가들은 담배를 피울 수 없어 발광을 했다. 밥을 가지고 들어오는 할머니에게 몰래 담배 부탁을 한다고 왱자지껄하다. 그래도 모두들 돈은 좀 가지고 있었던 모양

이다. “할머니 담배 하나 사다주십시오.” “아유, 들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게 아니고 500환 가져가서 한 갑만 사다주세요.” 나머지는 가지라는 뜻이다. 마음이 좋은 간수도 있었지만 피할 수 없이 날카로운 눈초리를 가진 간수도 있다. 곰보에다 괴뢰군 인상을 한 간수 한 명은 얼굴값을 했다. 천환쫘 받고는 담배 한 두 갑 사다주면 끝이다. 자신도 그걸 짓을 하면서 다른 순경이 하는 것은 치를 떨며 못 보아 넘기니 기괴한 인간이 아닐 수 없다. 그뿐 아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라 해도 조금만 눈에 거슬리면 “이놈의 새끼, 개새끼”를 마구 퍼붓는다. 김무신은 결국 분노를 터뜨렸다. “아저씨 보십시오. 여기 계시는 할아버지는 아저씨 아버지와 같이 도덕적으로 대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비록 불의를 타도하려다 마수의 손아귀에 걸려들어 지금은 여기 있을망정 인간 내면에 실존하는 인간으로서의 마음가짐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인상 더러운 이 간수는 자기 짠에 화가 바짝 난 모양인지 마구 욕설을 퍼부으며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한다. 무신은 통쾌했다.

민주당 조재천 의원이 와서 “나는 국회의원 조재천이다. 참 잘했다. 나는 변호사 자격이 있다.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마. 명예를 걸고 석방하는 데 노력해주마. 지금부터는 몸 건강해라. 많이 먹고 편히 쉬거라. 뒤에는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며 몇 번이나 격려하고 사식까지 넣어주었다. 박광규는 조 의원의 말에 정말 많은 위안을 느꼈다. 그 뒤 석방될 것이라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다. 특히 간수들이 “너희들은 석방될 거다. 하지만 완전 석방은 아니다. 필요할 때 다시 부른다.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했다.

밤 10시쯤 “취침!” 소리에 맞춰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학생들은 모두 일어나!” 하며 잠을 깨운다. 김무신은 무슨 일일까 두렵기도 하고 반가운 기분도 들었다. 학생들이 밖으로 나갔다. 간수가 특별히 학생들은 석방시키라는 이기봉 선생의 특명이 있어서 내일 석방시킨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기뻐다. 다시 유치장으로 들어와 밤을 새웠다. 이날 밤 김무신은 자기 옆자리에 언제 들어왔는지 이상한 사람이 앉아 있음을 알아챘다. 그는 언뜻 교련 시간에 배운 프락치 전술을 상기하고 일행 모두에게 말조심 하라고 일러주었다.

3월 20일 토요일이다. 비가 계속 내렸다. 아침 일찍 “기상!” 소리에 모두들 잠을 깬다.

오늘은 마산에 파견된 국회조사단이 온다고들 했다. 오전 11시경, 임문석 의원과 법관 몇 분이 왔다. “나는 변호사이고 이분은 민의원 임문석이니 무서워하지 마시고 서명과 날인을 하고 기탄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김무신은 매우 품의 있고 위엄에 찬 말씀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학생 개개인을 면담했다. 서기홍은 이들이 경찰이 네 호주머니에서 무슨 쪽지가 나왔다고 말을 지어내더라고 전하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대들기까지 했다.

박광규는 집에서 걱정할까봐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초저녁에 석방되는 순간 모든 생각, 말, 행동이 중단되었다. 그래서 특별한 기분이 들지 않았다. 담임인 양재은 선생님이 저를 인수하러 오셨다. 담임선생님은 광규를 보자마자 “잘 있었나. 어떻게 지냈느냐, 건강하지?” 하시면서 위로해주셨다. 경찰서 건물 밖으로 나오자 “어디 갈래? 이모 집 갈래?” 하신다. 광규는 “아니오, 하숙집으로 가겠습니다” 하니, 선생님은 “하숙집에 누가 있나? 우리 집에 가자” 하셨다. 자산동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물수건으로 몸을 닦고 파스 등으로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하룻밤 재워 주셨다. 이튿날 아침 선생님은 “오늘 중으로 집으로 가거라.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당부하시며 보내주셨다.

저녁 10시, 김무신 등이 고대하던 석방 시간이다. 그러나 무신의 마음은 여전히 개운치 않았다. 그의 표정이 얼마나 묘했으면 수사계뿐만 아니라 고문 형사들까지 고까운 표정을 지었을까. “이놈, 한 번 더 들어가 봐야 알겠나!” 으박지르면서 저놈의 주둥이는 수궁할 줄을 모른다고 뇌까렸다.

2차 의거, 또 다시 거리로

1차 의거가 일단 마무리되었지만 실종된 김주열을 찾아 마산 시내를 헤매고 다니는 주열의 모친의 피맺힌 행동은 그치지 않았다. 마산 시내의 분위기는 착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밑에는 용암이 부글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4월 11일 월요일이다.

오전 11시 경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 오른 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시체 한 구가 떠올랐다. 이 소식은 곧 온 마산 시내에 알려졌다. 참혹한 시체가 행방불명되었던 김주열 학생으로 밝혀지면서 시민은 물론 마산의 8개 고교는 물론 유일한 대학인 해인대의 학생들도 분노했다. 오후부터 시체가 안치된 도립마산병원으로 몰려와 시체를 본 시민과 학생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시위로 돌입했고,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서기홍은 4월에 2학년으로 진급했다. 3월 15일 1차시위에서 겪었던 일을 잊기 위해 카메라를 하나 사서 집 인근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4월 11일 동네사람들이 모여 있어 가보니 “김주열 시체가 떠올랐다”, “도립마산병원에 안치되어 있다”고들 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과 같이 가서 얼굴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의 모습을 직접 보았다. 누가 찼는지는 모르지만 “부정선거 다시 하자!”고 적힌 프랭카드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이 프랭카드를 나무에 묶으려니 노끈이 부족했다. 그래서 한쪽에는 혁대를 풀어서 묶었다.

2차의거가 시작되었다. 서기홍 무리는 저녁때부터 신마산 쪽으로만 밤새도록 돌아다녔다. 시청 주위를 돌았고, 우체국 광장에서는 사람들이 마산경찰서장 지프차를 끌어내 불을 지르는 것도 보았다. 군중은 함성을 지르며 열광했다. 다른 시위대가 시청에 난입하는 것을 보긴 했지만 서기홍 등은 시청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학교에서 이 소식을 들은 김무신은 즉시 도립병원으로 달려갔다. 기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흥분한 시민들이 노도와 같이 구마산 쪽으로 내달리고 있었다. 문득 3월 15일 밤 마산시청 지하실에서 깨어난 자신과 옆에 있던 시신들이 생각났다. 그래서 동아일보 지사를 찾아가 기자 한 사람에게 경찰서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얘기했다. 김용실 시체와 다른 시체 한 구를 보았으며, 그날 밤 새벽에는 세 구의 시체가 실려 나가는 걸 보았는데, 그 중에 김주열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데모대의 구호도 바뀌었다. “협잡선거 다시 하자!”에서 “살인선거 다시 하라!” 심지어는 “이승만 정권 물러가라!”로 말이다. 그리고 새로운 구호도 등장했다. 아주머니들은 “김주열을 살려내라!”고 양갈진 목소리로 외쳤고, “고문경관 처단하라!”고 고함들을 질렀다. 거리가 사람들로 가득 차 신·구마산 교통은 완전히 두절되었다. 일부 데모대원들이 불 켜진 건

물마다 투석을 하는 바람에 마산 시가지는 암흑천지로 변했다. 분노의 대열은 마산경찰서를 향했다. 가는 길에 누군가 ‘가련다 떠나련다’로 시작하는 유정천리 가사에 돌아가신 민주당 지도자들 이름을 넣어 개사한 곡을 선창하자 모두들 따라 불렀다. 이들 속에 있던 김무신은 자신도 모르게 콧잔등이 시큰해지며 눈물까지 쏟아졌다. 이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잃은 허망한 마음과 향후 나라의 운명 걱정애 목이 멘 것이다.

경찰서 앞에 도착한 군중은 “경찰은 사과하라!”, “마산사건 희생자를 살려내라!” 하는 구호를 외치는 함성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열기가 천지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인파의 규모와 그 호응의 열기는 3월 15일 밤 1차 의거를 훨씬 압도할 정도였다. 일부 데모대가 경찰서 정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경찰서를 보니 여기서 당했던 일들이 저절로 떠올랐던 김무신과 시청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서기홍 등도 이들과 합류했다. 경찰들은 데모대의 기세에 완전히 겁을 먹은 듯 모두 경찰서를 버리고 도망쳤다. 악에 받친 감정이 머리 끝까지 차올라 행동은 두려움이 없었고 거침이 없었다.

김무신은 경찰서로 들어가자마자 발에 채인 막대기를 집어들었다. 유리창을 닳치는 대로 파괴했다. ‘쨍그랑’ 소리가 묘한 쾌감과 흥분을 돋운다. 서기홍은 사무실의 서류뭉치들을 끄집어내어 흩뿌리고 짓밟았다. 김무신은 마치 이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겪었던 수모와 곤욕에 대해 보복하는 기분이었다. 고문경찰을 박살내는 것처럼 분풀이를 했다. 부록송아지처럼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나니 쌓이고 쌓인 울분이 싹 가시는 것 같았다. 한결 마음이 후련해지자 경찰서 마당으로 나왔다. 트럭 세 대가 보였다. 무신이 큰 돌을 주어 있는 힘을 다해 차량에 던지자 다른 청년 학생들도 가세했다.

오후 8시 30분경이다. 한 건장한 청년이 “나를 따르라! 허윤수 집을 박살내자!”고 외친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무신은 그를 뒤따라갔다. 가는 도중에 마산시장 관사가 있었다. 시위대가 몰려가서 “박영두 시장은 몰려가라!”고 외쳤다. 일부 과격파는 집안으로 쳐들어와 살림 세간, 장롱 등을 박살내고 내부시설 일부를 파손했다. 그리고는 허윤수의 집을 향해 다시 내달렸다.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허윤수 집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다. 와르르 담을 허물어뜨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장독, 가재도구 등을 깡그리 파괴했다.

김무신이 외쳤다. “시민 여러분 저는 마산고등학교 학생입니다. 허윤수의 옆집은 저희 학교 이순섭 선생님 댁입니다.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애타게 부르짖자 어떤 시민이 “학생 알았네, 걱정 말게” 하며 무신의 손을 덥석 잡았다. 분위기가 일순 조용해지면서 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모습이 나타났다. 무신은 자기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허윤수의 집은 마치 폭격 맞은 것처럼 초토화되었다.

시위대 일부는 구마산으로 나아갔지만 다른 일부는 다시 경찰서로 되돌아갔다. 김무신은 경찰서로 가는 대열에 합류했다. 경찰서 앞에는 시민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입구에 이미 바리케이트를 치고 방어진을 구축하고 있었다. 담벽을 은폐물로 삼고 카빈총으로 무장한 경관들이 데모대를 노려보고 있었다. 시위대 중 일부가 투석을 시작하자 김무신도 같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경찰에 대한 적개심이 일기 시작했다. 저주스런 경찰을 맞추고 싶었지만 번번이 빗나갔다. 그때 경찰의 몸에 맞았는지 ‘퍽’ 하는 소리가 났다. 통쾌감을 느끼기도 전에 무술경관인지 몇몇 경찰들이 튀어나오더니 학생들을 낚아챘다. 소방차도 물대포를 쏘아대기 시작했다. 격렬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그러는 사이에 “무신아~ 무신아!” 하며 애절하게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바로 누님의 목소리였다. 얼마 전 데모로 곤욕을 치른 것을 너무나 잘 아는 누님이기에 보자마자 “이놈아, 니가 미쳤나! 데모하지 말라고 그렇게도 사정했는데 미친놈이 아니면 와 이런 짓을 하노?” 하시며 속사포처럼 쏘아댄다. 그러면서 무신의 몸을 외락 끌어안고 펑펑 우신다. “누님! 잘못했습니다.” 무신은 균중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4월 12일 화요일이다.

이날 마산고등학교의 분위기는 전교생이 분노와 정의감에 들끓어 올라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바로 시위로 돌입해 경찰의 만행에 항거하고 독재정권 타도에 앞장서지는 의견이 절정을 이루었고, 일부 학생은 빨리 행동하지 않는다고 학도호국단 운영위원장 박문달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박문달은 사태가 만만치 않은데다 김주열의 처참한 주검을 그냥 보고 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첫 시간 수업이 끝나는 10시에 전체 대의원회의를 소집했다.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김주열 군



김주열 군의 시체가 발견되자 마산시내 남녀고등학생들은 다시 분개하여 4월 12일 거리로 뛰쳐나왔다. 독재타고 학원의 자유보장을 외치고 있는 마산고등학교 시위대(4·19그날의 함성)

의 억울한 주검에 항의하기 위해 시위를 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곧 전교생 1,500명이 운동장에 집결했다. 그 사이에 학교 측은 학생들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음을 감지하고, 퇴학시킨다고 공갈 협박하고 일부 간부학생들은 감금까지 하면서 시위 저지를 시도

했지만, 민주·자유·정의에 불타는 학생들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오후에 접어들자 학교 측의 만류를 무릅쓰고 간부학생들이 주동해 앞장서고 거의 모든 학생이 당당히 교문을 박차고 거리로 뛰쳐나갔다. 태극기를 높이 들고,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살인경관 잡아내자!”, “부정선거 다시 하



살인 경관 잡아내자는 피켓과 태극기를 앞세우고 시위중인 마산고교학생들

자!”, “김주열 군을 죽인 경찰을 처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해 나아갔다. 이들의 외침이 천지를 진동시키는 듯했다. 시내 중심가를 거쳐, 마산시청을 지나 마산경찰서 앞에 총집결한 뒤 연좌데모에 돌입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박문달이 전체 학생을 대표하여 선언문을 낭독했다. 그 주요 내용은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는 각오를 표명하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자유당 정권 몰러낼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었다. 마산고등학교 학생 시위대는 정정당당하고 평화롭게 시위를 벌인 후 자진 해산했다. 김무신, 서기홍, 박광규 등이 이 단체 시위에 끝까지 함께 했음은 당연한 일이다.



책가방 들고 시위 중인 마산고교 학생들(주영진)



마산고교 시위대가 시민들의 격려 속에 마산경찰서 앞을 지나 마산시청 쪽을 향하여 행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지난 4월 14일 목요일이다. 두 명의 경찰이 박문달의 집을 찾아왔다. 이들은 신문기자를 사칭해 그를 불러낸 후 바로 지프차에 태워 마산경찰서로 연행했다. 경찰은 박문달을 지하실에 감금한 뒤 24시간 밤낮으로 취조했다. 시위한 이유가 뭐냐, 사주자는 누구냐, 불은빼라 내놔라. 바른 말 하지 않으면 학교에 다니지 못 하게 하겠다, 유치장에 바로 처넣어 세상구경 못하게 하겠다는 등 강압적인 취조를 계속했다. 박문달은 굴하지 않고 “부정 불의에 맞서 그리고 국민들의 총의에 따라 데모를 선도했다. 나 개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다. 우리 총 학생들의 뜻이었다. 처벌을 하면 달게 받겠다”며 당당히 맞섰다.



마산고교 학생회장 박문달 군이 국회조사단 앞에서 증언하고 있다.

마침 국제신문 기자 한 사람이 우연히 박문달의 고통스러운 취조 광경을 보았다. 4월 15일자 국제신문 사회면 톱으로 박문달의 구속 기사가 실렸다. 이 소식을 들은 전교생이 분개해 다시 거리로 뛰쳐나오려는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다. 당황한 학교당국은 경찰관계자와 숙의한 후 데모 재발 방지를 확

약하고 박문달의 석방 결정을 받아냈다.

4월 18일 월요일, 김무신은 마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3·15마산의거 국회진상조사단 제35회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질문의 목적은 동아일보에 보도된 자신의 말이 확실한 것인지를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무신이 4월 11일 동아일보 마산지사를 찾아가 했던 얘기가 자신이 시청 지하실에서 김주열의 시체를 봤다는 식으로 잘못 보도된 데 기인한 것이다. 이 보도로 인해 그동안 김무신은 수많은 기자들이 학교에까지 찾아오는 등 괴로움을 참을 수 없어 이번 증언으로 확실히 매듭을 짓기 위해 증언을 수락했다. 증언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이 본 대로 얘기하고 혹시 김주열이 아니었을까 짐작만 했을 뿐 자신은 김주열을 생전에 본 적도 없는 사이이며 시청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시체를 본 기억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혔다.

김주열의 참혹한 시신과 이로 인해 발생한 마산 2차 의거의 불길은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결국 서울에서 4·18 고대생 데모에 이어 ‘피의 화요일’ 4·19혁명이 일어났고, 4월 25일 전국교수단 시위까지 일어났다. 국내외로부터 특히 미국 측으로부터 하야 압박을 받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4월 26일 오전 10시 30분 하야성명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민권 투쟁은 결국 승리했다. 이틀 후 이기붕 일가는 권총으로 집단 자살했고, 사저 이화장에서 칩거하던 이승만 대통령 내외는 5월 29일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다.



1주년 추도제에서 재학생을 대표하여 마산고등학교 3학년 이실 군이 추도사를 낭독하고 있다.(허중)

이승만 대통령이 가야한 4월 26일 민권 승리의 기쁨을 채 만끽하기도 전에 마산 시민은 때

아닌 불청객을 맞아 전전긍긍했다. 이날 하오 3시 경 이른바 ‘부산원정대’라 불리는 부산 시민 데모대원 2,000명이 차량 50여 대를 타고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리 세상이 왔다!”며 공공기관들을 사정없이 부수고 다녔다. 서기홍을 비롯한 마산고등학교 학생들도 이들을 제지하기 위해 나섰다. “너거들 마산 와 가지고 마산 살림 손 못 된다. 하지 마라!”고 말했고, 직접 작대기들을 들고 공공기관을 지키기도 했다. 부산원정대는 하룻밤을 지낸 후 민주당 간부 이양수의 설득 등으로 부산으로 되돌아갔다.

열사 가족들과 투사들의 후일담

김용실 모친은 3월 15일 저녁 두 아들이 나간 후 10시경이 되어도 안 들어와서 마음 졸이고 있는데 육감이 이상했다. 총소리는 계속되고 총 맞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용실의 큰누나 옥주 씨는 목욕탕에 있다가 데모 소리에 바로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모친이 아들 두 놈이 집 나갔다면 방을 동동 굴리며 걱정이 태산이다. 총소리가 요란한데 어머니 심정이 어떨지 걱정이 되었다. 군중들이 집 앞을 지나면서 “이 집 마산고등학교 학생 총 맞았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모두들 정신없이 뛰쳐나갔다.

아버지는 혼자, 어머니는 딸 셋과 함께 ‘동병원’, ‘시민외과’ 등으로 미친 듯이 용실이를 찾아 돌아다녔다. 병원마다 총 맞아 신음 중인 부상자는 수두룩했지만 용실이는 없었다. 용실 어머니는 입술이 바싹바싹 타는지 연신 입술에 침을 발랐다. 밤 10시 경 신타은행 맞은편 ‘구외과’에 들렀다. 폐를 관통당한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구외과에서 간호원한테 도립병원에 전화를 부탁하는 중인데 경찰이 들이닥쳤다. 여기 있는 사람은 모두 빨갱이이라며 간호부만 빼고 모든 사람을 병원 앞에 있는 남성동파출소로 연행해갔다.

용실의 모친 일행은 총 맞은 아들 또는 동생을 찾으러 다녔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큰누나는 하도 빨갱이로 몰아붙이기에 순진하게도 이 사태가 정말 빨갱이 소행인 줄 알았다. 파출소에는 학생들이 많이 잡혀와 있었고, 유리조각이 흩어져 있는 바닥에 얼굴을 쥐어박으며 문초하는 게 끔찍하기 짝이 없었다. 모친은 용실이가 저렇게 맞아도 좋으니 살아만 있길 바랐다. 이들은 여자라선지 매를 맞긴 했지만 다행히 별다른 문초는 없었다. 그러나 새벽이라도 내보내주면 다시 용실이를 찾아 나설 생각이었지만 내보내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거의 뜬 눈으로 지낸 다음날 새벽녘 버스로 본서로 이송되었다. 그중 여자는 20명 쯤 되었다. 다다미방에 앉혀놓고 이름들을 다 적더니 심문을 시작했다. 경찰은 12살 딸부터 줄줄이 심문했지만 다들 용실이 총 맞았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다녔다는 말 외에는 듣지 못했다. 이들을 빨갱이라며 몰아붙이긴 했지만 특별히 많이 두들겨 패지는 않았고, 조사도 끝났다. 그런데 21살짜리 딸에게는 매질도 하고 욕도 하고 “네가 처녀인가 양갈보인가 밤에 뿔 하러 돌아다니노” 하면서 한 두 명의 경찰이 양갈보인지 조사해보자며 농지거리를 하면서 꼬챙이로 치마를 걷어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들이 잡혀온 시민 학생들을 빨갱이라고 자백하라며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사람들이 지르는 비명소리에 소름이 짝 끼쳐 정말 무서움을 느꼈다. 게다가 이들은 전날 저녁을 먹은 후 16일 오후 5시가 되도록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

이렇게 가족들이 경찰서에서 고충을 당하고 있는 동안 용실이 부친은 이들이 경찰서에 연행된 걸 알고 오히려 안심했다. 팔방으로 용실이를 수소문하던 중 도립병원에 시체 세 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 곧장 확인하러 갔다. 병원에는 마산경찰서 직원은 없고 타 지

역에서 파견된 경찰관으로 딱 차 있었다. 김해서 온 경찰관 한 명이 안면 있어 사정사정 해서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부친은 용실이의 시체를 확인하고는 역장이 무너져 말이 안 나왔다. 자신이 삼대독자인데 장남이 시체로 누워 있으니 그 심정이 어떠할지 짐작할 만 하지 않은가. 16일 저녁에 경찰이 보호실로 들어와 김용실 가족을 불러서 용실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용실 모친은 아들의 시체를 찾았다는 소리에 졸도했고, 의사가 와서 주사를 맞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곧바로 시신이 안치된 도립병원으로 달려 갔고, 용실 부친을 만났다. 모친은 나중에 국회진상조사단 앞에서 용실이란 살아 있다면 때 맞은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실 열사가 총을 맞은 장소가 어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다. 한 곳은 시청 앞 대로이고 다른 한 곳은 북마산파출소 앞 시위 장소이다. 가족들이 사고를 알게 된 것은 추산동 집 앞을 지나가던 시위군중이 “이 집 마산고등학교 학생 총 맞았다”는 외침을 들었을 때였다. 이 군중이 북마산파출소 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면 거기서 총을 맞아 누군가에게 업혀 갔다는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옥주 씨는 총알이 왼쪽 이마에서 뒷머리로 관통해 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간호원이 용실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절명한 상태였다고 말했다는 것, 도립마산병원이 시청 앞 대로에 있다는 것, 둘째 남동생이 시청 앞 시위대 속에서 형을 만났다는 것, 용실이가 체격이 좋고 데모대 앞에서 진두지휘를 하니까 집중 겨냥해서 쏘았다는 누군가의 얘기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시청과 몽고간장 사이 어딘가에서 총을 맞아 즉사한 것을 누군가 도립병원으로 옮긴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본 게 아니니 어느 게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⁶⁾

6) 이에 더하여 시청 앞 세무서와 장군천 시위에서 용실이가 총 맞은 것을 직접 보았다는 서기홍의 증언 그리고 시청 지하실에서 용실의 시체를 직접 보고 또 다른 시체 두 구와 함께 실려 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김무신의 증언, 그리고 기홍과 무신은 용실과 같은 1학년생이며 서로 잘 아는 사이였음을 감안하면 시청 앞 어딘가에서 총을 맞고 죽은 용실의 시체를 어느 경찰이 시청 지하실로 옮겨놓았고, 그 다음날 다른 곳에 있는 사망자와 부상자를 모두 도립병원으로 이송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용실이 총 맞은 곳은 북마산파출소 인근이 아니라 시청 인근이라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3·15의거사에 북마산파출소에서 죽은 것으로 기술된 부분은 고쳐져야 할 것 같다.

김용실 열사 용공 조작 사건

3월 15일 당시 경찰은 검거된 사람들을 용공으로 몰기 위해 고문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여러 증언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이 심지어는 시체에다 불온뼈라를 넣어 오열로 날조하려 하고자 했다. 산 사람보다는 죽은 사람을 조작하기가 쉽다고 생각한 것이 틀림없다. 문제는 그 대상이 김용실 열사였다는 데 있다.

당시 경남도립마산병원 박정석 원장은 증언한다. 《3·15의거 수사 차 부산지검 한옥신 부장검사 일행이 래마하였을 때 3월 19일에 서윤학 검사가 시체검안 차 나를 찾아왔다. 주치의인 내가 검안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 형사들이 신문지에 돌과 ‘뼈라’를 싸온 것을 제시하면서 “영감, 이것이 시체 호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하자 서검사가 의문이라는 듯이 고개를 기웃거리며 이 시체를 처리한 직원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때사 매일신문에 보도된 관에 빨갱이 운운과 경찰이 병원을 경비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4~5인의 간호원을 집합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나이가 어린 간호원을 대동해 갔다. 당시 각 병원에서 운송해온 시체를 사후 처치와 동시에 병력을 기록하려고 주소 성명이 쓰인 신분증이라도 있을까봐 간호원에게 호주머니를 들추어보라고 하였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보고를 나는 이미 듣고 있었다. 형사들이 제시한 돌과 소위 불온 ‘뼈라’가 시체에서 안 나왔다는 것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수사관으로서 서검사의 착안이 예민하였다는 것을 마음 든든히 여기고 있었다. 물론 간호원도 그런 물건이 없었다고 명백히 증언을 하고 돌아왔다. 다음날 검안서를 원장실에서 쓰고 있으니 “원장님 검안서에다 돌과 뼈라가 들어 있었다고 써 주십시오” 하면서 권총을 옆구리에 잘 보이도록 차고 위세당당하게 부탁을 하기에 “세계 어느 나라 의사가 그런 것을 검안서에 쓰느냐? 그만한 상식도 없이 어떻게 형사를 하느냐?” 하면서 거절했더니, 이제는 경찰에 협조하는 견지에서 꼭 써 달라고 위협했다. 그래 이 자식이 나를 어떻게 보고 하는 말인가? “당장 이 방을 나가라”고 호통을 치니 “정말 못 하겠나?” 하면서 옆구리 권총을 만지작거리면서 반말을 쓰기 시작하기에 “정말 못 하겠다” 하였더니 “보자! 두고 보자!” 하면서 문을 박차고 나간 것이다.》

이제 부산지방검찰청 한옥신 부장검사의 증언을 들어보자. 《마산 사건의 제물인 시체

는 이날 밤 11시경부터 그 이튿날 아침까지 모두 마산도립병원에 안치케 하고 검사를 받게 하였다. 이때 서윤학 검사가 돌아오더니 김용실 군 시체 속에서 불온뼈라 두 장을 발견했다는 경찰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 군 호주머니에 돌도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불온 뼈라 내용은 “협잡선거 물리치고 공명선거 이룩하자”, “이승만은 죽어라 인민공화국 만세” 등 만년필로 학생노트 같은 데 쓰여 있었고 피 흔적도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에게 그 뼈라를 가져오게 해서 필적을 보니 아주 노련한 글씨여서 고등학생으로서는 감히 쓸 수 없는 필적이었으며, 한눈에 봐도 날조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였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이 불온문서를 발견했다는 노 경위 등 몇몇 경관을 불러 물었더니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 진상을 캐봤더니 (1)김 군은 두부 관통상으로 절명했으니 자기 손으로 뼈라에 피를 묻힐 틈이 없었고, (2)피 흘린 곳은 머리 뿐인데 그 뼈라가 들어 있었다는 김용실 군 왼쪽 호주머니나 그 근처에는 한 점의 핏자국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고민의 도가니에 빠졌다. 15일 밤에 검진했던 도립병원 의사와 간호부를 조사했다. 그러한 뼈라는 발견 못했다는 답변이다. 한 팔에는 책보를 끼고 한 팔은 맨주먹으로 정의를 찾았던 김 군은 그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오열이라는 처참한 꼴로 꾸며져 영원의 암흑 속에 매장될 뻔 했던 것이다.》

이렇듯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소신 있게 행동한 도립마산병원장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들 덕분에 경찰에 의한 김용실 열사의 용공조작은 실패로 돌아갔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이들의 행동은 시위 참가자들 못지않은 용기를 필요로 했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조작된 것일지라도 용공의 증거가 나왔더라면 김용실을 중심으로 어떤 용공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3·15의거 이후의 사태도 다르게 전개되었을 수도 있었다. 그만큼 이 용공조작 사건은 중요한 순간이었다. 용감한 병원장과 간호원 그리고 정의로운 검사 덕분에 젊은 영혼들이 흘린 고귀한 피가 헛되지 않게 되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경찰들은 용실이 친구들이 데모를 할까봐 용실의 시체를 가족에게 내주지 않았다. 가족들은 한밤중에 아무도 몰래 시체를 인도받아 화장을 했다. 그래서 그의 묘는 유품으로 만든 가묘만 있다. 가묘는 국립3·15민주묘지에도 있다.

김영준 열사에 대한 자료나 증언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그런데 『증언록』에 실려 있는 박정석 도립마산병원장의 증언 속에 김영준 열사 얘기가 나온다. 증언 중 김영준 열사 관련 부분만 인용해보자. 《... 총탄 부상자를 우선 이송하고 밤새도록 수술의 모든 처치를 몇 간호원들과 직원들과 합심해서 했다. 그 부상자 중 한 학생이 “선생님 내가 살겠습니까? 고향은 신의주, 현주소는 신포동, 올해 시내 마산고등학교를 나와 어머니, 형 해서 가족은 삼인인데 형은 군문에 있습니다. 동무들이 서울의 대학으로 떠나는데 송별 저녁을 먹고 평소에 어머니가 잠은 꼭 집에 가서 자라는 말씀이기에 동무들이 위험하다고 못 가게 하는 것을 뿌리치고 가는데 경찰이 오기에 담장에 붙어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관은 제 배에다 마구 총알을 쏘았습니다. 형이 군에서 받는 기천 원 돈을 내 학비에 보태 쓰라고 그대로 소로스 보내줍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샅바느질과 시장에서 야채를 팔아 저를 공부시켰는데 어머니를 도우기 위해 꼭 살아야겠습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는 못 올 길로 떠나고 말았다. 그 젊은이의 목소리가 지금도 내 귀에 들리는 것 같고 담가로 실린 채로 나에게 호소하던 그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박 원장이 말하는 환자가 바로 김영준 열사임은 쉽게 알 수 있다. 인용된 그의 말에 따르면, 하늘이 무심하게도 그는 3·15의거 당시 우연히 시위대에 휩쓸렸고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에 그만 희생을 당한 것이다.

모친의 말처럼 영준은 창자가 배 밖으로 빠져 튀어나와 이미 말라 있었지만 숨은 끊어지지 않았기에 방치되지 않고 제때 제대로 치료받았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모친은 영준이가 중태에서 혼미한 정신으로 “땡땡땡, 너는 이북 놈이다”라고 말하면서 총 쏘는 시늉을 하더라면서 아무래도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원장이 들었다는 김영준 열사의 말로 미루어보면 총탄을 맞은 뒤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경찰들에게 어디론가 끌려가 무슨 말을 들었던 게 아닌가 짐작할 뿐이다.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⁷⁾

7) 미스터리는 또 있다. 최근 마산고등학교 총동창회 편집위원들은 김영준 열사의 동기생들과 참가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놀랍기 짝이 없는 새로운 증언을 들었다. 하나는 김영준 열사가 같은 집에 살던 동기생과 함께 시위하러 간다며 나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날 밤 시청 앞 시위에서 시위대 앞으로 나가 헤드라

김영준의 둘째 형님 김영필은 유가족 모임에서 김용실의 큰 누나 김옥주 씨와 자주 만나게 되었다. 동생을 잃은 슬픔을 서로 위로하다가 사랑에 빠졌고, 결혼하게 되었다. 죽은 동생들이 맺어준 연분이 아닐 수 없다.

김무신은 잡혀 들어간 지 만 5일이 지나 석방되었다. 나오니 신문기자들이 맹공세를 퍼붓는다. 그는 마치 영웅이나 된 것처럼 사진 찍히는 것이 싫었다. 경찰서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석방된 학생 7명을 차로 곧장 구마산 자유당 시당부인 무진회사 2층(지금의 국민은행)으로 데려갔다. 그곳엔 학교 담임선생님, 교감선생님을 비롯해 허윤수 외 자유당 간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학생들을 앉혀놓고 다과연을 베푼다. 허윤수 의원이 학생들의 잘못이 크다며 앞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강조하며 말했다. 김무신은 외치고 싶었다. “새 시대의 대세에 공리적 타산으로 자신의 이익과 권세를 위하여 배운 망덕한 13만의 원수, 아니 2천만의 원수! 과연 배우는 우리에게 무슨 염치로 저런 말을 할까?” 울분이 다시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선생님들과 자신의 보호자인 재종형님이 무섭게 쏘아본다. 더욱이 재종형님은 자유당 경남조직부장이다. 무신은 그가 “피투성이가 된 내 모습에 얼마나 놀랐을까”를 생각하고, 고향에서는 부모님과 자형 댁에서는 누님과 자형이 얼마나 걱정하고 또 그야말로 나 하나 때문에 집안 식구 모두가 사색이 되어 조바심의 날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12시 10분경 자형 댁에 도착했다. 오늘 밤에도 누님은 근심과 조바심으로 여태까지 잠을 못 이루고 있었다. 어쨌든 옥중의 몸으로 출옥이라는 영광에 이르기까지 무려 5일 만에 걱정과 근심을 덜게 되니 이때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2014년 김무신 평전을 출간한 홍중조 선생은 그를 “갖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어떤 악조건에 맞닥뜨려도 굴하지 않았던 성격의 소유자 … 자유당 독재에 … 한 몸 불살라 뜨거운 불꽃이 되어 항거 … 말의 연금술사 … 특유의 선동가”라고 평했다. 일기로 추정컨대 그는 조국과 선열에 대한 존경심과 정의감이 투철한 학생이었다. 그는 3·15의

이트 불빛을 온 몸으로 받으며 ‘총을 쏘지 마시오’라고 외쳤던 청년이 바로 김영준 열사였다는 것이다. 이 증언들은 상기 박원장의 증언 내용과 상충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교차검증과 더 많은 증언을 들은 후에야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거 1차 의거의 주역의 한 사람으로 손색이 없으며, 3·15의거를 소재로 하는 미시사적 탐구를 위한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음에 틀림없다. 졸업 후 어려운 가정형편에 독학으로 연세대에 진학했지만 졸업은 하지 못했고, 나중에 언론사 기자가 되어 김천과 울산에서 근무했다. 80년대 초 전두환의 언론통폐합과 기자 강제해직 때 그만두고 인쇄업을 운영해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집안과 종중을 돌보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매진하다 과중한 업무로 암에 걸려 1997년에 사망했다.

서기홍은 어떤 연유로 석방되었는지는 몰랐다. 어쨌든 유치장에서 나오니 학교 선생님 두 분이 기다리고 계셨다가 “야, 이놈들 고생했다”며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가셨다. 그도 김무신 등과 함께 자유당사로 갔다. 서기홍은 허윤수 의원이 오란다 빵을 하나씩 주며 “고생 많았다. 학생은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기억했다.

서기홍은 적십자 명단에 올리고 할아버지하고 잘 아는 집 밑에 있는 김완길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다리에 금이 갔다고 기브스를 하고 앞니를 치료하고 3일 간 누워 있다가 퇴원했다. 집 말고 다른 데서 자면 불안감을 느껴 집에서 통원 치료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퇴학당한 것으로 짐작했지만 아니란 걸 알고 다시 등교했다. 자신이 겪었던 일을 아는 학생도 있었지만 모르는 학생도 적지 않아 좀 놀랐다.

서기홍은 졸업 후 서울로 올라갔다. 대학 입학시험에 한 번 실패하고,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마산고등학교 학생 대표로 건국포상을 받게 되었다. 그는 객지생활 하느라 그런 상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래서 모친이 대신 상을 수령했다. 나중에 모친에게 들었는데, 자신이 잡혀가고 난 뒤 모친이 담임선생을 찾아가 어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자 선생님은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시오. 그놈 생각하는 세상하고 나는 사상이 틀리오” 하며 야박하게 굴었다는 것이다. 20년이 지난 후 서기홍이 담임선생을 만나 그런 얘기를 하니, 선생님은 기억이 안 난다고 둘러대었고, 대신 술 한 잔 시주면서 위로를 해주었다.

박문달은 “이승만 하야 후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앞장서서 거리질서 유지, 수업 정상화 등 사태 수습에 들어가자 저도 학생간부와 함께 술선수범하여 신명을 바쳐 질서 회복에

앞장섰다” 그리고 “43년이 지난 지금 회상하면 마산고등학교 대표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척박했던 이 땅의 자유·민주·정의를 지키는 데 조그마한 손뚱자국이나 남길 수 있었다는 데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정명은 서울 중앙메디칼센터에서 신경을 이어주는 수술을 받았지만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애초 감각이 없던 발바닥에 감각이 10분지 1 정도 돌아오는 데 15년이 걸렸다. 평생 정상으로 돌아오기는 어렵게 되었다. 여기서 2달 입원한 뒤 동래에 있는 재활원에 가서 한 3개월 정도 물리치료를 받았다. 당시에는 재활의학이 발달하지 않아 이 재활원이 한국에서 유일했는데, 시설도 열악하고 인력도 부족했다. 송정명은 그 다음해에야 복학을 할 수 있었다. 그는 말했다. “총 맞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걸로 후회하지는 않았다. 나만 의분을 가진 게 아니고 전 국민 다 그랬을 것이다. 부상을 무릅쓰고 같이 나서서 4·19혁명의 원인을 제공하고, 자유당 종말을 고하는 데 앞서 싸웠다는 게 자랑스럽고, 후손들에게 떳떳이 말해주고 싶다.”

김정세 부친은 3월 16일 새벽 4시경 아는 택시기사를 수배해 어젯밤 부상당한 아들 정세와 딸 정희를 데리고 진해 통합병원을 향해 출발했다. 정희는 목욕 간다고 해놓고 돌아오지 않는 오빠를 찾아오라는 부모님 심부름을 나왔다가 시위 군중에 휩쓸려 총을 맞았다. 진해로 가고자 한 것은 마산에는 모든 병원에 수배령이 내려져 있어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진해로 가려면 두 곳의 검문소를 통과해야 하는데, 정희가 계속 피를 흘리고 있어 잘못하면 치료는커녕 빨갱이로 몰릴 위험이 컸다. 부친은 이불로 정희를 감싸고 있는 아이가 추위를 타서 그런다고 둘러댔다. 경찰들은 의심하지 않고 통과시켜 주었다. 운이 좋았다. 김정세 남매는 진해 통합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거기서 소개해준 김덕호 외과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원장이 순수 야당 맨이어서인지 이들의 의로운 행동을 장하게 생각했고, 자식이 없어서인지 이들을 자식처럼 자상하게 대해주었다. 그렇게 치료 받던 중에 정권이 교체되었다. 야당 정치인들이 직접 이들을 방문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들딸이라며 용기를 북돋워주었다. 김정세는 증언 당시까지도 괴로워했다. 여동생은 두부 관통상으로 정신을 잃어 보름 후에 깨어났고, 한동안 사람을 식별하지 못하고 기억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후 부친도 지병이 나서 일찍 작고했다. 김정세는 이 모든 게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보상받고자 한 일이 아니어서 국가 유공자 신청도 안 했고 보상도 안 받으려고 했고, 양친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김덕호 원장께서 국가보훈 관계를 인지하고 대신 신청해서 이루어졌다”고 증언을 마무리했다.

박광규는 석방된 날 밤을 담임선생님 집에서 지내고 다음날 바로 하숙집으로 갔다. 한없이 울었다. 너무 서럽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 계속 울었다. 감방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고문을 많이 받지 않았는지 모두 자기보다 건강했다. 자신은 아프고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그들은 음식도 잘 먹고 이야기도 잘 하고 대체로 괜찮았다. 그래서 그는 “참, 나는 촌에서 자랐고 또 부모님이 찾아오시지 않은데다가 경찰서 등에 손을 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내가 더 고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석방되던 날 저녁에 비가 온 것 같은데 담임선생님이 우산을 가지고 오셔서 너무나 반갑고 고마웠다. 여지껏 선생님을 따듯이 한 번 모시지 못해 너무나 은혜를 모르고 살아온 것 같아 송구스럽기만 하다.

박광규는 석방 후 고통과 후유증, 지중하라는 엄중한 경고에 대해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두려움도 공포도 없었고, 오로지 분한 마음밖에 없었다. 억울하고 참담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고, 응어리진 마음을 어딘가 호소하고 부르짖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몸과 마음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던 차에 이모님이 본가에 연락해 모친이 하숙집으로 찾아오셨다. 모친과 같이 바로 촌으로 내려갔다. 모친은 도착하자마자 개를 잡아 고와 먹이고 동네의 간호사 수소문해 주사 맞는 등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 하셨다. 그러저럭 어느 정도 치유된 후 개학에 맞추어 마산으로 돌아왔다.

박광규는 경찰이 다시 불러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감에 항상 쫓겨 있었고, 정권이 바뀔 거라는 기대도 별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고대생 데모로 시작된 일련의 사

태로 상황이 점점 발전하면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는 순간 “아! 이제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저절로 들었다.

박광규는 고문 후유증으로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계속 악몽에 시달리니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결국 바라던 대학에도 못 들어갔다. 군 복무 중에도 머리가 계속 아프다고 호소해도 군의관은 이상 없다는 진단만 내렸다. 그는 증언 당시까지도 술잔을 들면 손이 떨렸다. 두통과 잔병 등 때문에 진통제와 기타 약들을 달고 살았다. 집사람이 자기 같은 사람한테 시집 와서 마음고생이 많아 미안할 따름이다. “이게 내 운명인가, 내가 겪어야 하는 시련인가” 하면서 후회하기보다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살아왔다.

사실 이 사건으로 그의 인생길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고문 후유증으로 공부에 열중하지 못하니 만사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동아대 농학과를 졸업한 뒤 한일합섬에서 근무하다 그만두었다. 그해 국가고시 처음 생겼는데 경북사대에 응시해 실패하고 재수했다. 심리적 불안정으로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다. 1969년 5월부터 교사생활을 시작했고, 1970년 강수자(52) 씨를 만나 결혼했고,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내서에서 살고 있다. 증언 당시 내서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박광규는 말한다. “3·15의거는 이 땅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씨앗이며, 4·19혁명의 도화선이자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민중항쟁의 시초라고 본다. 매년 3월 15일이면 수업 중에 어린 학생들에게 3·15의거가 왜 발생했는지,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마산시민의 위대한 의거정신을 들려주면서 너희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5·16 쿠데타로 3·15의거와 4·19혁명이 역사적으로 희석되었다. 늦었지만 이제 그 정신을 되찾고 계승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근래 3·15성역공원이 조성되고 3·15의거탑 주변이 테마 공원화되면서 그 위상을 드높이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 벽돌 한 장 쌓는 마음으로 우리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 부정과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않은 정신이야말로 마산의 정신이고, 시민 모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39년 전 우리가 목숨 걸고 쟁취했던 그 자유와 민주주의 정신을 현재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매도하고 있는 듯해서 유감스럽다. 위정자들은 신뢰

받는 정치를 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 국민도 선거 시에 먼 장래를 생각하고 투표해야 하고, 바르고 정직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이 나라의 민주정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마무리글

무엇보다 먼저 서두에서 밝힌 바처럼 이 글에서는 모든 이름에서 존칭을 생략했음을 다시 밝혀둔다. 존경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글쓰기의 편의에 따른 것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이 글을 쓰면서 필자가 지어낸 스토리는 전혀 없다. 단지 여러 증언과 글들을 취합해서 중복된 것을 추리고, 나름의 순서대로 재조합했다. 따옴표로 인용된 글뿐만 아니라 모든 글이 원자료에 있는 그대로다. 단지 글을 좀 순화하거나 요즘 말로 바꾸거나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쳤을 뿐이다. 그래서 일일이 출처와 인용된 곳을 표시할 수 없었다. 글 전체가 인용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은 비록 부족하지만 당시 마산고등학교 학생 신분으로 3·15의거에 참여해 많은 적든 흔적을 남긴 투사 분들의 행적을 추적하고자 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열정이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났다면 만족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많은 학생들이 3·15의거에 참여했을 것임에 틀림없지만, 증언 등 관련 기록의 부재로 이 글에 포함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향후 이미 알려져 있는 참여자들은 물론 전혀 알려지지 않은 참여자들의 활동에 관한 새로운 증언이나 자료가 더 발굴됨으로써 더 많은 주인공들이 등장하면서 좀 더 생생하면서도 좀 더 풍부한 스토리를 가진 마산고등학교 학생들의 3·15의거 투쟁사가 쓰여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번 호에는 마산고등학교 편만 실리지만, 마산의 다른 고교를 대상으로 이러한 글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각 열사와 투사를 개별적으로 추적하는 미시사적 연구도 이어짐으로써 3·15의거의 역사적 리얼리티를 더 잘 구현할 뿐만 아니라

3·15의거 본사의 내용이 더욱 풍부하고 더욱 정밀해져서 언젠가는 3·15의거사 개정증보판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미 6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기에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이러한 미시사적 연구와 추적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 부재로 공로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상의 공로자들의 억울함도 풀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참고자료]

김양부·안명희, “마산 남녀8개교 시위 참가 사전모의”, 녹취 970221, 3·15의거기념사업회, 『3·15의거증언록』.
 김무신, “내 옆에 김용실 군 시체가”, 1960년 3월 20일 작성된 일기, 3·15의거기념사업회, 『3·15의거증언록』에 재수록.
 김옥주·김영필 부부, “서로 동생 잃은 슬픔 달래다 사랑 싹터”, 녹취 1996년 4월 30일, 3·15의거기념사업회, 『3·15의거증언록』에 재수록.
 김정세·김정희 남매, “북마산파출소 앞서 함께 총 맞아”, 녹취 1998년 9월 14일, 3·15의거기념사업회, 『3·15의거증언록』에 재수록.
 - 마산고등학교총동창회, 『마산고등학교 팔십년사(1936~2016)』, 2016.
 - 마산고등학교총동창회 3·15의거특별위원회 증언 녹음기록, 2021.
 박광규, “누구의 지령을 받아 데모했느냐”, 3·15의거기념사업회, 『3·15의거증언록』에 재수록.
 박문달, “경찰 연행에도 그 뜻 굽히지 않아”, 박정석, “시체에 불온뼈라 투입 강요 거부”, 3·15의거기념사업회, 『3·15의거증언록』에 재수록.
 서기홍, “조사받을 때 노다지 욕이었지”, 3·15의거기념사업회, 『3·15의거증언록』에 재수록.
 서기용(서기홍), “무신을 그리는 마음”, 홍중조 편저, 『김무신, 그 불꽃 같은 삶』, 불휘미디어, 2014.
 송정명, “시청 진입 중 경찰증원군에 포위 총상”, 3·15의거기념사업회, 『3·15의거증언록』에 재수록.
 안순이·정현팔, “남편과 아들을 비밀당원으로 몰아”, 3·15의거기념사업회, 『3·15의거증언록』에 재수록.
 이명선(김용실 모친), “도림마산병원서 아들 시체 찾아 장례지내”, 1960년 3·15의거 국회진상조사 증인 속기록, 1960년 3월 27일, 3·15의거기념사업회, 『3·15의거증언록』에 재수록.
 홍중조 편저, 『김무신 그 불꽃 같은 삶』, 불휘미디어, 2014.



서익진 창원시정연구원 초빙연구원, 전 경남대 교수

3·15 소식



미얀마의 봄, 우리가 지지한다, 김장희 3·15의거기념사업회장

2021년 2월 25일 3·15의거기념사업회



2021년 2월 25일 3·15의거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김장희 3·15의거기념사업회장은 '경남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쿠데타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미얀마 국민을 향한 군부의 강경 진압에 깊은 우려와 함께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 회장은 "3·15의거는 정부 수립 이후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부정선거에 시민과 학생들이 저항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 시위였다. 미얀마 국민들의 군부 쿠데타를 향한 저항 역시 민권과 민주주의를 찾고자 하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고 본다." 김 회장은 미얀마 군부 세력의 강경 대응에 대해 "군부 쿠데타 발발 이후 미얀마 전역에서 모든 업종이 참여하는 총 파업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군경의 무차별 발포로 4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치는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권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3·15의거 당시 정부는 3·15의거를 공산당이 개입하여 일으킨 폭동으로 조작하고 시민과 학생들을 용공분자로 몰아 민주화 운동의 본질을 변질시키고자 했다. 이처럼 현재 미얀마 군정도 시위대가 폭동과

무정부 상태를 일으키도록 선동했다고 호도함은 물론, 5인 이상 집회도 금지하고 민주 인사들을 감금하는 등 인권유린 행동들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군부가 아무리 억압해도 국민의 저항정신은 용솨음 칠 수밖에 없다. 국가가 국민을 탄압할 때 국민은 반드시 저항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체득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어 "민초가 국가 권력에 대항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지만, 시민들의 연대가 큰 힘이 된다는 것을 3·15의거, 4·19혁명, 부마민주화쟁 등 국내 민주화 운동 속에서 발견했다"면서 "상인·구두담이·학생 등 각계 시민들이 시위에 동참했고, 여성들은 돌맹이를 주워서 가져다주며 시위를 도왔다. 이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주의를 되찾아올 수 있었다"며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마산의 민주화 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 국민들에게 "민주주의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용기를 잃지 말길 바란다. 미얀마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가길 기원한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경남도민에게도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민주주의란 국민의 의사결정에 의해 국정을 운영하는 정치체제다.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를 찾기 위한 미얀마 국민들의 저항운동은 더 거세질 것"이라며 "과거 엄혹한 시절 우리도 외신 기자·언론 등 타국의 도움을 받아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었다. 우리도 이번 미얀마 사태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미얀마 국민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3·15의거시 및 창원의 문학인 초상화 전시

2021년 3월 3일부터 시작



창원시는 '캘리로 만나는 3·15의거시'와 '문학 창원을 빛낸 문학인의 얼굴'이라는 주제의 전시를 창원시청에서 개최했다.

2021년 3월 3일부터 시작된 이번 전시는 61주년을 맞는 3·15의거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뜻과 문학 창원의 문학인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3·15의거시는 1층 로비에서, 문학인의 초상화와 대표작은 4층에 전시되었다.

이번에 전시되는 3·15의거시는 총 20편으로 캘리그래피로 제작됐으며, 창원에서 활동하는 4명(김옥란, 김현숙, 박은진, 서민정)의 캘리 작가가 작업에 참여했다.

'피로 세운 탑'(김용복), '마산은!'(김태홍), '안공에 포탄을 꽂은 꽃'(유치환), '다시 이 땅에'(이광석), '3·15의거 헌시'(이석), '역시 마산은 이 땅의 변방이 아니라는...'(이선관), '애기봉 산자락엔'(최명학) 등의 작품이 전시됐다.

전시 작품 원문은 창원시립 마산문학관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의로운 그날을 기억하다' 온라인 사진전

2021년 3월 8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는 제61주년 3·15의거 기념일을 맞아 2021년 3월 8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사진전을 개최했다.

'의로운 그날을 기억하다'를 주제로 3·15 민주묘지관리소 홈페이지를 통해 1960년 3·15의거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3·15의거 기념사업회 소장 사진 90점을 공개했다.

3·15의거 창작뮤지컬 '화요일'

2021년 3월 15일 오후 3시 경남도교육청 공감홀

경남도교육청은 2021년 3월 15일 오후 3시 경남도교육청 공감홀에서 학생 출연진과 관련 유관기관, 본청 직원 등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자체 제작한 창작뮤지컬 '화요일' 상영회를 개최했다.

이번 뮤지컬은 전문배우가 아닌 지역의 일반 중·고등학생 16명과 교사 1명이 출연한 작품으로 뮤지컬 영상은 경남도교육청 공식 SNS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정의의 3·15정신을 교육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뮤지컬 '화요일'은 1960년 3월 15일, 김주열 학생 사망 첫 보도일인 1960년 4월 12일, 이어서 민주주의 혁명으로 진행된 1960년 4월 19일이 모두 화요일이었다는 것에서 착안한 것이다.

'화요일'은 1960년 3월 마산상고 학생으로 입학할 예정이었던 남원 출신 고등학생 김주열이 부정선거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과정과 김주열의 어머니가 실종된 김주열을 애타게 찾아다니는 모습, 부산일보 기자가 김주열 시신을 처음 보도하면서 3·15의거가 4·19혁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총 15곡으로 표현한 뮤지컬로 경남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이 연출 및 무대감독을 맡았다.

학생뮤지컬 4부작 -

화요일(1부) https://youtu.be/_blYdpx3Qvw

화요일(2부) <https://youtu.be/0Jd-AOxdDtI>

화요일(3부) <https://youtu.be/su6U48U3lmg>

화요일(4부) <https://youtu.be/dh3TzWookwM>



‘3·15의거 61주년 기념 열사 추모식’

2021년 3월 15일 오후 마산고등학교 추념비 앞

마산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021년 3월 15일 오후 마산고등학교 추념비 앞에서 ‘3·15의거 61주년 기념 김영준(19회) 김용실(21회) 열사 추모식’을 열었다.

총동창회는 “청운의 큰 뜻을 조국의 민주화와 맞바꾸신 두 분 선배와 동문의 거룩한 애국정신을 추모한다”고 전했다.



3·15의거 박주복 열사 별세

2021년 3월 17일 오전 10시 30분 국립3·15민주묘지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자유당 독재정권이 장기집권 유지를 위해 부정선거를 획책하자 이에 항거해 온몸을 던져 투쟁했던 그 날의 영웅 박주복 열사(만 81세)가 3·15의거 61

주년을 맞은 2021년 3월 15일 별세했다.

박 열사는 1960년 3·15의거 당시 마산시 무학국민학교, 남전(옛 한전) 마산지점, 수도산, 마포중·고등학교 앞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해 체포·구속돼 심한 고문을 당했고, 2020년 4월 19일 건국포장을 수여 받아 같은 해 4월 국가유공자인 4·19 혁명공로자로 등록됐다.

박 열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유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립3·15민주묘지에 안장됐다. 이날 안장식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소인원의 유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허윤자 소장의 집례로 거행됐다.

1998년 조성된 국립3·15민주묘지에는 김주열 열사 등 민주열사 50위가 안장돼 있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2021년 4월 12일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은 제61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앞둔 2021년 4월 12일 국가유공자 고(故) 염춘식씨의 자녀에게 명패를 전달했다.

3·15부정선거에 항거해 1960년 4월 19일 혁명에 참여한 고 염춘식씨는 서울역전 파출소에서 총상으로 희생된 공적을 인정받아 1962년 4월 19일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2019년 시작했다. 지금까지 34만여 명의 유공자에게 명패를 전달했다.

무연고 묘소 기일참배

2021년 4월 19일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는 4월 19에 기일을 맞이한 고 김영길·강용기 민주열사 앞에서 헌화·참배하고 묘역을 정화했다.

무연고 묘소 기일참배식은 2021년 올해가 처음이다.

국립3·15민주묘지에는 민주열사 50위가 안장돼 있으며, 이중 11위를 무연고 묘소로 관리하고 있다.



마산 시민극장 개관

2021년 4월 18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



2021년 4월 18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서 마산예총 마산문화예술센터 시민극장 개관식이 열렸다.

이날 개관식에는 허성무 시장을 비롯해 김장희 3·15의거기념사업회장, 박옥순 도의원, 창원시의원, 예술계 및 경제계 인사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마산문화예술센터 시민극장은 시의 지원을 받아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마산지회가 운영될 계획이며, 지난 2009년 문을 연 창동예술소극장(옛 메가라인 마산점 지하)을 옮겨 새롭게 문을 열게 됐다.

그동안 창동예술소극장의 시설 노후화와 낮은 무대 천장 등으로 운영에 지장이 많았

는데, 옛 시민극장 건물로 옮겨오면서 1층에는 100석 규모의 극장과 시민예술 강의실을, 2층에는 분장실, 연습실, 갤러리 등을 갖춰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사랑방은 물론 시민들의 예술 향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한마인성교육-민주주의평화시민교육 특강’

2021년 4월 23일 오후 4시 경남대학교 국제어학관



경남대학교는 2021년 4월 23일 오후 4시 국제어학관 101강의실에서 ‘한마인성교육-민주주의평화시민교육 특강’을 진행했다.

‘한마인성교육-민주주의평화시민교육’은 대학혁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 민주화 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와 올바른 민주주의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 민주, 평화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사회학과 이은진 명예교수는 ‘3·15의 거와 경남대학교’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민주주의 항쟁 정신을 기리기 위한 ▲대학생의 사회적 의식 ▲3·15의거 전 상황 ▲마산 1, 2, 3차 의거 ▲국제적 파장 등 참석자와 3·15의거에 대한 역사와 경남대의 관

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하에 열린 이날 특강에는 한마인성교육 연구 교수진, 김장희 3·15의거기념사업 회장, 설진환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장 및 관계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한편, ‘한마인성교육-민주주의평화시민교육’의 책임교수를 맡고 있는 자유전공학부 정은상교수(언론출판원장)는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 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중점적으로 경남대학교와 동문 졸업생의 활약상을 지속적인 특강을 통해 재조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민주화 운동역사 특별전시회 4·19혁명 전시관

2021년 6월 11일 화정역 광장



고양시에서 민주화 운동 기념 및 추모행사의 일환으로 2021년 6월 11일 화정역 광장에서, '고양시 민주화 운동역사 특별전시회'를 진행했다.

이번 전시회는 '독재를 넘어 민주로! 민주에서 평화로!'를 주제로 ▲3·15의거 전시관 ▲4·19 혁명 전시관 ▲5·18 민주화 운동 전시관 ▲6·10 민주화 운동 전시관 ▲6·15 남북공동선언 전시관 ▲노동운동사 전시관 ▲민주·평화 소원나무 참여 부스로 구성됐다.



3·15의거특별법 통과 기자회견

2021년 6월 30일 경남 창원시청



(사)3·15의거기념사업회는 2021년 6월 30일 경남 창원시청 앞에서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최형두 의원(창원 마산합포) 등 여야 의원 30명이 발의한 이 특별법을 찬성 246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기념사업회는 우선 의거 61년 만에 법 통과로 국가 차원에서 3·15의거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이 가능해진 것을 환영했다.

김장희 3·15의거기념사업회장은 “3·15의거는 4·19혁명의 일부 아닌 몸통이다”며 “늦었지만, 법 통과로 당사자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회는 이어 서울이 아닌 지역사회가 진상조사를 주도하고 3·15의거를 4·19 혁명으로부터 독립된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업회는 또 3·15 관련 단체를 법정단체 인정, 3·15의거 관련자 포상, 기념재단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주열 열사 동상 제막

2021년 10월 25일 오후 4시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



2021년 10월 25일 오후 4시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마산합포구 신포동1가)에서 '김주열 열사 동상' 제막식이 열렸다.

동상 제작은 왕광현 작가가 맡았다. 높이는 기단부 포함 5m, 재질은 청동이다. 교복을 입고 오른쪽 가슴에 두 손을 얹은 김주열 열사가 바다 위로 솟아오르는 모습을 표현했다.

부조벽에는 김주열 열사 생애(1944~1960)와 건립 취지, '김주열 열사 이 바다에 민주의 햇볼로 떠오르다'는 큼지막한 글씨가 새겨져 있다.



3·15의거발원지 기념관 개관

2021년 10월 26일 오후 5시



2021년 10월 26일 오후 5시 3·15의거발원지 기념관이 문을 열었다. 기념관은 마산합포구 오동동 165-7번지 옛 민주당사 터에 들어섰다. 1960년 3월 15일 민주당 마산시장 간부들은 이곳에서 자유당 부정 선거를 폭로했고, 시민들이 이에 호응하면서 3·15의 거로 이어졌다.

당시 2층 목조건물이던 민주당 마산시당은 현재 노 래방·식당이 있는 지하 1층~지상 4층 상가로 바뀌었다. 시는 2019년 당시 터와 건물(지하 1층~지상 4층, 전체면적 812.9㎡)을 사들여 개·보수했다. 이 과정에서 풀 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옛 민주당사 터는 바로 옆 필지와 함께 한 건물로 올라가 있지만, 시는 건물 반쪽만 사들였다. 이 때문에 나머지 반쪽 건물 소유주가 정비공사 과정에서 건물 피해·재산권 침해 등이 생겼으며 지난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창원시는 그동안 이 소유주가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득을 계속해왔고, 마침내 원만히 기념관을 완공했다. 기념관에는 영상 상영관(지하 1층), 전시관·휴게실(1층), 전시관(2~3층), 교육·회의실(3~4층) 등이 마련됐다. 영상실에서는 3·15의거 다큐멘터리 '타오르는 민주주의, 마산 3·15의거'를 상시 상영한다. 1~3층 전시관은 '깊은 울림, 강건한 울림, 힘 있는 울림'이라는 주제로 채웠다.

운영 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창원시는 기념관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1년가량 직접 운영하고 나서, 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창작오페라 ‘3·15’ 공연

2021년 11월 4~5일 성산아트홀 대극장

Changwon Sori-eul
창원시립예술단

plus
changwon

창원시립예술단 3·15의거 61주년 기념
창작오페라 -

3·15

창원시립예술단
창원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2021. 11. 4.(목)~5.(금) 오후 7:30
성산아트홀 대극장
Thu - Fri, November 4 - 5, 2021 at 7:30pm Sungsan Arts Hall, Grand Theater

● 공연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창원시, 창원시립예술단
● 후원: 창원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 공연장: 창원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 공연장: 창원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창원시

창원시립예술단은 2021년 11월 4일에서 5일까지 양일간 오후 7시 30분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대한민국 현대사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15의 거 61주년을 기념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민주화 역사를 예술적으로 재조명한 창작오페라 ‘3·15’를 공연했다.

이번 공연은 오페라 연출가인 김성경 감독이 연출을 맡아 진행되며, 오페라 및 뮤지컬 연출가인 이상민의 대본을 바탕으로, 오페라 작곡의 선두주자인 이호준이 작곡을 그리고 창원시립합창단 공기태 예술감독이 총감독과 오케스트라 지휘를 맡아 진행했다.

김주열 역으로는 창원시립합창단 테너 손상보, 최형빈 단원이 맡았고, 김주열의 어머니인 권찬주 역으로는 창원시립합창단 소프라노 박희정과 이란아 단원이 맡아 참된 민주주의를 위하여 치열했던 삶을 열창하며 민주화의 음성을 선보였다.

창원 ‘민주주의전당’ 건립사업

창원시



창원시가 민주주의전당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전을 개최했다. 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상징공간이자 교육공간으로서의 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하기 위해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사업 설계 공모전’을 개최했다.

민주주의전당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1-2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9000㎡, 연면적 8300㎡ 규모로 전시실, 수장고, 민주도서관, 민주홀 등을 갖춘 시설로

건립되며, 총사업비는 303억 원이다.

이번 공모는 4·19혁명, 부마항쟁 등 대한민국 민주화의 거점 역할을 했던 창원 마산 지역의 유산을 기념하고,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알리는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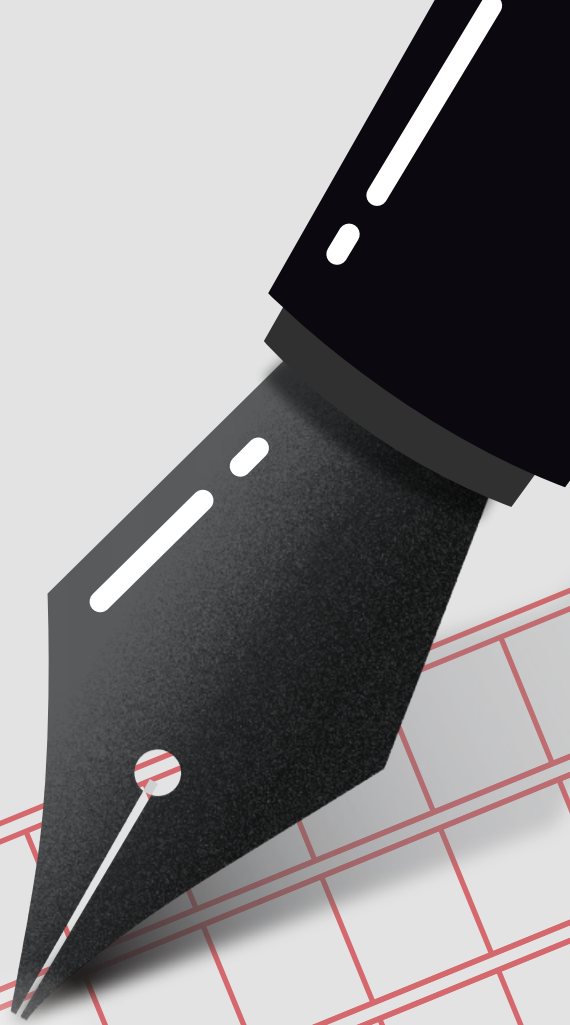
그 결과, 김준성(건국대학교 교수)과 핸드플러스건축사사무소(조종우 대표)의 당선안은 ‘시간의 기록, 장소의 기억’을 주제로 일상적 시간과 장소의 의미를 서사적 공간 전개로 풀었다.

장방형의 입방체에서 출발한 네 개 커를 가진 매스 사이로 보이드 공간을 연출한 설계안에 대해 심사위원단은 부지의 접근, 시설의 진입, 각 시설 공간의 공간적 경험, 원점으로 돌아오는 계단 공간까지의 여정을 높게 평가했다.

창원시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2022년 1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문화의 창



제2회 청년문학상
제37회 3·15의거기념 전국백일장
제12회 3·15미술대전 대상 수상작

3C9



경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3학년
김영욱

마당을 쓸어 보았나요
아직 흙이라고 할 수 없는 작은 돌들이
대비에 쏠려 모여 있었지요
만져 보았습니다 순간
슬픔인지 기쁨인지
떨리며 전해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눈 감았습니다
작은 돌들이 여기까지 온 시간을 생각하며
작은 돌의 틈에서 우주의 나이를 느끼고
내 몸에서 우주의 나이를 느끼고
나 역시 어느 별의 조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만히 눈 감아보세요
그리고 시간을 느껴보세요
저 위에 밤하늘을 보세요
당신도 어느 별의 조각이지요

우주에는 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 퀘이사 3C9라는 별이 있었답니다
3C9의 빛이 지구 나이 두 배인 백억 년을 달려
우주에 반지름을 그었습니다
백억 년 전에 이미 사라진 별을 본 것이지요

어느 지구인이 그 별에
3C9라는 이름을 지었어요3C9,
퀘이사에 이름 짓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나 사랑은
서로의 죽음이나 이별에
이름 짓는 일이 아닐까요
지금 우주의 끝 가까이에는
퀘이사 3C9라는 별의 이름만 남아있지요

제2회 3·15청년문학상 시 부문 심사평

제2회 3·15청년문학상 본심까지 오른 이는 <3C9> <퀘적사진> <페르소나>를 두고한 3명이었다. 모두 시적 형성력이 탄탄하고 사물을 보는 눈이 개성적이어서 앞으로 시인으로서의 역량이 기대되었다.

<3C9>는 시상의 전개가 자연스럽고 억지스러움이 없었다. 인간과 별이 이 우주 속에서 서로 동질적 존재라는 인식이 이 시의 바탕을 이룬다. 이러한 인식은 인간으로서의 내 존재의 가치와 근원을 질문하고 성찰하고 있다. 시적 사고(思考)의 폭이 넓고 깊어 앞으로 시를 쓸 수 있는 미래가 가장 엿보인다는 점에서 당선작으로 정했다.

<퀘적사진>은 ‘나 → 아버지 → 할아버지’로 이어지는 3대의 연속성을 행성에 빗대어 인간 삶의 궤적을 다루고 있다. 시를 발견하는 눈은 밝고 신선하나 의미 간격의 폭이 넓어 전달력이 약한 것이 흠이다. 특히 ‘문명국가에선 살인도 쉼튼해야 한다’는 표현의 의미가 과연 합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페르소나>는 무척 솔직하고 개성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다. 특히 <면접- 모두 평등하지 않아, 나도 특별하지 않을 뿐>은 오늘을 사는 청년 세대의 일상적 고통을 재치 있고 재미있게 표현해 그 아픔을 더 깊게 느끼게 한다. 그러나 시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비록 현재적 삶의 얼굴이 가면이라 하더라도 그 가면을 벗겨야 그 속에 시가 있을 것이다. 가면 그 자체는 시가 아니다.

심사위원 정호승(시인), 박형권(시인)

다다를 수 없는 마음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3학년
김수정

저녁을 먹다가 이모에게 말했다. 낮에 분리수거장에서 싸우는 노인들을 봤다고. 누가 버린 박스를 두고 서로 제 것이라 실랑이를 벌이더라고. 이모는 응, 하고 대답을 하면서 동시에 파래무침을 입 속으로 집어넣었다. 한 노인이 다른 노인을 때리기에 경비를 불렀다는 말에는 질문이 따라 붙었다. 네가? 응. 말하고 보니 괜한 애길 꺼냈나 싶었다. 이인분의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 겸 부엌을 단정히 메웠다. 노인들이 머리도 짧고 체구도 작아서 둘 다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때린 사람이 할아버지더라구. 이모는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냉동실에서 살얼음이 낀 소주병을 꺼냈다. 경비가 와서 그 할아버지를 끌어내는데, 막 떠밀리면서도 끝까지 박스는 안 놓더라. 원래 그런 사람들이 더 독해.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말이야. 이모가 소주를 물컵에 따라 마실 때면 나는 언니가 느꼈던 감정을 어렵풋 알 것만도 같았다.

이모와 언니는 모녀지간임에도 꽤나 껍딱한 구석이 있었다. 반상회나 주민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은 오히려 내 쪽을 가리키며 딸이라 부르곤 했으니까. 딸내미가 참 참하네. 시선이 집중되면 어린 나는 빈 요구르트 병을 빨다가 이모의 뒤로 숨어버리곤 했다. 이모는 사람들 앞에선 티내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와 내 머리를 감기면서 한숨처럼 말을 흘렸다. 애정결핍도 아니고 왜 자꾸 그런 걸 빨아대니. 반면 언

나는 반상회에 따라온 아이들과 격투기 놀이를 하다가 기어코 팔을 부러트리고 마는 쪽이었다. 이모는 계집애가 선머슴처럼 굴면 안 된다는 말을 꼭 밥상머리 앞에서 했고, 언니는 그럴 때마다 밥맛이 떨어져 자주 굶게 되는 것 같다고 나에게 털어놓았다.

그럼에도 이모가 내 나이에 혼자서 두 명의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다는 걸 떠올리면 새삼 아득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처음 이모와 살게 되었던 집은 방이 두 개였는데, 이모는 언니와 나에게 각자의 방을 내어준 뒤 정작 본인은 거실에서 지냈던 사람이니까. 머리가 크고 난 뒤 그때 왜 나에게 방을 내어주었냐고 묻자, 이모는 내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리모컨으로 채널을 훑훑 돌리며 말했다. 그냥 거실에서 티브이를 볼 수 있는 게 좋았다고. 나는 그런 이모의 무심함이 좋았다.

언니는 세 달 전 죽었다. 이모는 언니의 죽음을 꽤나 빠르게 수궁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못한 채였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해도 언니는 자살한 것이 맞았다. 경찰이 동반 자살 카페에 가입했던 언니의 인터넷 흔적을 찾은 것이었다. 그것에 대해서라면 내가 더 잘 알고 있었다. 언니는 재작년 겨울, 자살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과 목포로 떠났다. 차 안에서 가스를 피워 죽으려는 계획이었으므로 차를 가져가야 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언니가 기꺼이 운전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시동을 걸기 직전 언니는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오늘 교통사고 낼 것 같아ㅋㅋ

의미심장한 문자를 받은 뒤 몇 시간 쯤 연락이 닿질 않아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언니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알림이 떴다고 했다. 가족한테 문자 보냈어요?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어요? 지금 당신이 우리한테 끼친 민폐를 생각해봐. 야 이 씨발. 죽고 싶어, 쌍년아? 함께 자살하기로 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원망의 말을 늘어놓다가, 급기야는 누군가 운전 중인 언니의 머리채를 쥐었다. 언니는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다. 언니는 내가 아닌 톨게이트 직원의 신고로 돌아오게 되었다.

단한 방문 너머로 이모가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방바닥에 아이돌 가수의 앨범을 두고 여러 각도로 사진을 찍어보다가, 문득 배경으로 보이는 싸구려 장판이 부끄럽게 느껴져 휴대폰을 내려두었다. 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싸인 앨범이었는데, 언니의 이름이 '혜준'이 아닌 '해준'으로 쓰여 있어 몹시 기분이 나빴다. 언니가 거금

을 들며 싸인회에 다녀왔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더 그랬다. 그래서 인터넷 중고 장터에 게시글을 올렸다.

싸인 앨범 팝니다. 이름이 '해준'인 분께는 택배비만 받고 그냥 드릴게요.

반나절이 지나고 댓글이 달렸다. 마침 자신의 이름이 해준인데, 앨범의 실물을 꼭 보고 싶다면서. 나는 분홍색 차림이불의 한 부분을 손으로 잘 펼친 뒤, 그 위에 앨범을 펼쳐 싸인된 부분이 잘 나오도록 사진을 찍었다. 몇 분 뒤 대댓글이 달렸다. 제대로 인증을 해 달라며 내 아이디가 적힌 쪽지를 물건 위에 올려두고 다시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다. 파는 게 아니라 거저 주는 것인데도 까다롭게 구는 것이 영 성가셨다. 원하는대로 인증을 마치자 상대는 직거래를 원한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동네가 어디이니 가까우면 만나자는 댓글을 남겼다. 나는 자신이 사는 곳을 아무에게나 말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다가, 란아 드라마 할 시간이야, 밖에서 이모가 나를 부르는 소리에 몸을 일으켰다. 거실로 나가니 이모는 이미 바닥에 이불을 다 깔아놓은 채였다. 아무 생각 없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도 찻찻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다. 대뜸 만나자니. 아무것도 인증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믿고? 곱씹을수록 불쾌감이 솟구쳤다.

언니에게는 인터넷에서 만난 친구들이 많았다. 살아있을 때 나에게 분명 대학 동기, 스테디에서 만난 친구, 같이 일하다가 친해진 동생이라고 소개했던 사람들 모두가 인터넷 친구들이었다. 이모는 언니가 마냥 사교성이 좋은 줄 알았다. 언니는 종종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 재우곤 했는데, 주로 콘서트가 늦게 끝난 날이나 음악 프로그램 방청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하는 날이었다. 이모는 답지 않게 쭈뼛대다가 언니와 친구들에게 거실을 내어주었다. 이모는 자신이 사는 모양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걸 싫어했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지만 언니는 무감했다. 다들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건데 왜 남들 눈치를 보냐면서. 이모는 언니의 그런 점이 선머슴 같다고 했다. 경찰에게 언니의 인터넷 기록을 받은 날, 젖은 머리를 말리지도 않고 티브이를 보던 이모는 한참동안 리모컨을 만지작대다가 물었다.

그 애들이 나쁜 애들 같진 않았어.

이모는 분명 언니를 죽인 사람이 따로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믿는 편이 차라리 편하다면 그대로 놔둘 생각이었다. 이모와 나는 드라마를 보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다. 불현듯 눈이 떠져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려는데 새로운 댓글을 알리는 푸쉬가 와

있었다. 그런데 혹시 탈덕하신 거예요? 잠결이라 그런지 헛웃음이 먼저 튀어나왔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변변한 직업을 가지지 못했다, 고 이모는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그것이 결코 한탄조는 아니었다. 그냥 어떤 운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물컵에 든 소주를 두어 모금씩 나누어 마시다가 중얼거리는 게 다였으니까. 이모는 우리를 키우면서 줄곧 은행 일을 하다가 언니가 경리로 취직한 뒤에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러다 언니가 죽고 마트 캐셔로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을 썩 좋아하진 않았지만 ‘마트 캐셔’라는 이름은 마음에 든다고 했다.

나는 수도권 의 어느 영화학과를 졸업했지만 감독이 되기는커녕 촬영을 하려는 시도조차 않고 있다. 그래도 시나리오 쓰는 게 계속 쓴다. 가끔 대학 동기들의 촬영을 도와주는데, 이상하게도 현장을 발로 뛰다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잘 될 수 있을 것만 같고. 그래서 몇 달 전 쓰다 만 시나리오에 대사를 덧붙이다가, 또 의욕을 잃고 노트북을 덮는 것이다.

요즘 내 시나리오에는 마트가 자주 나오는데, 아마 이모의 영향일 것이다. 사실 언니가 죽었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이 바로 그런 나의 관성이었다. 살아있을 때 언니는 내 영화를 싫어했다. 왜 엄마의 얘기를 함부로 쓰냐면서. 다들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거라며. 내가 반박하자 언니는 입만 아프다는 듯 나를 방문 밖으로 밀쳐내면서 말했다.

너 이러려고 우리집 들어왔니?

언니는 그 말을 내뱉은 이후 단 하루도 발을 제대로 뺨고 잔 적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발이 꺾인 채로 죽었다. 건물에서 떨어질 때 에어컨 실외기에 다리를 부딪쳤고, 그 때문에 장의사는 언니의 부러진 다리에 나무판자를 대고 끈으로 묶어 고정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다리가 묶인 채 입관한 언니. 살아서도 발을 뺨고 잔 적이 없는 언니. 그런 언니를 떠올리면 이 집에 들어온 내가 정말로 하나의 화^禍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나는 여태껏 내가 일곱 살이 되던 해에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이모의 손에 키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사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엄마가 수원역 근처 노래주점에서 서빙을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걸 엄마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 이모는 이제 엄마와 연락도 닿질 않는다면 그런 말을 덧붙였다. 다들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정말로 힘들면 그렇게 된다고.

이모가 출근하고서는 역 안의 편의점 앞에서 직거래 상대와 만났다. 해준 씨 맞으세요? 말을 내뱉고서야 언니의 이름과 같은 발음에 적잖이 놀라버렸다. 가장 익숙한데도 어쩐지 생경하다고 해야 하나. 보통은 언니를 ‘언니’라고 불렀지 이름으로 부르진 않았으니까.

별새님이세요?

인터넷상의 닉네임으로 직접 불러보긴 처음이었다.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나로서는 낯부끄러운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 역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걸 그랬나. 해준을 만나기로 결심한 건 오늘 새벽 그가 보낸 쪽지 때문이었다. 고삼이라 아이돌 덕질하는 걸 엄마한테 걸리면 죽는다면서. 그러니 택배로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고. 그게 좀 짱하기도 하고 귀엽게 느껴지기도 해서, 나는 수많은 해준 중 고삼 해준에게 앨범을 넘기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다.

키가 큰 해준은 구부정한 자세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묘하게 들뜬 표정을 보아하니, 내가 저와 같은 류의 취미를 가지고 있으리라 짐작하는 듯싶었다. 껄끄러운 마음이 들어 돌린 시선이 해준의 올 나간 스타킹에 가닿았다. 그런 채로 몇 번이나 세탁을 한 듯 구멍 주변에 보풀이 일어나 있었다. 이번에는 내가 묘한 기분이 되어 해준을 마주했다. 미안하게도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다. 그러자 해준은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앨범을 중고로 사게 된 것에 대한 변명이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중고 거래를 하게 되었지만 자신은 ‘진짜 팬’이라며. 그리고는 대뜸, 언니, 하고 나를 불렀다. 언니. 저 멀리 전철이 역으로 진입하며 내는 굉음 속으로 두 음절의 단어가 빨리 들어갔다. 미안해요. 해준이 작게 중얼거렸다. 도대체 무엇이? 결국 이런 입장이 되고 싶진 않았다.

해준은 앨범이 든 종이 가방을 받고서는 자신의 백팩에서 네스퀼과 사탕 몇 개가 든 봉지를 나에게 건넸다. 택배비 대신 주는 거라면서. 역까지 함께 걸으면서는 왜 탈덕했냐며 은근한 책망의 눈빛을 보내기에, 무심코 언니가 팬이었다고 말해버렸다. 그러자 더 궁금해 하는 눈치였는데, 죽은 사람의 물건이라고 하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찝찝할 것 같아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다. 고삼이면 가뜩이나 미신이나 운 따위에 예민할 시기였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갑자기 해준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는 충동이 일었다. 그러나 생각이 실행으로 옮겨지기도 전에 해준은 나와 반대 방향 전철에 몸을 실었

다. 괜찮겠지. 언니는 사람에게 해를 끼칠 귀신이 못 된다. 다리도 묶여있고.

해준과 헤어지고서는 혼자 닭갈비를 먹으러 갔다. 요즘은 1인분을 시키면서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어 좋다. 알바생이 나를 4인석으로 안내했는데, 잠시후 사장이 와서는 2인석으로 자리를 옮겨달라는 부탁을 했다. 알바생이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해를 좀 해달라고. 자리를 옮기는 것쯤이야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닌데 왜 부러 그런 말을 덧붙였을까.

이십대 초반으로 보이는 알바생은 정말로 초짜가 맞는 듯했다. 옆 테이블의 남은 닭갈비에 밥을 볶고 있는 그녀에게로 사장의 잔소리가 계속해서 따라붙었다. 나는 알바생이 사장에게 또 한소리를 들을까 노심초사 하느라 무엇 하나 제대로 먹지 못했다. 내가 돈을 지불하고 얼마간 자리를 차지한 이곳이 누군가의 일터라는 것. ‘혜’를 ‘해’로 발음하는 것만큼이나 새삼스러웠다.

언니가 일하는 모습을 딱 한 번 본 적이 있다. 내가 대학 졸업반이고 언니는 막 구직을 시작했을 무렵이었다. 언니는 디지털 플라자의 개업 기념으로 입구에 마련된 상판에 올라가 호객 행위를 했다. 대형 스피커에서 유행이 지난 댄스곡이 흘러고, 언니는 치어리딩복 같은 옷을 입고 춤을 췄다. 시내 한복판에서. 나는 건너편 신호등에서 언니가 춤추는 모습을 무작정 지켜보다가 서둘러 발길을 돌렸다. 언니가 하는 일이 부끄러웠던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기보단 언니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괴로웠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변변한 직업을 가지지 못했다, 고 이모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것이 떠올라서. 변변한 직업이란 건 흔히들 떠올리는 노동의 형태와 가장 멀리 떨어진 것이니까.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 언니와 나는 이모처럼 마냥 달관할 수 없었다. 우리는 남들과 달리 특별하게 살 수 있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에는 꼭 ‘언젠가’라는 조건이 붙었다. 때로는 어떤 막연함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것 같았다. 십 년쯤 뒤엔 우리도 뭔가가 되어 있겠지, 지금과 다르게 살고 있겠지, 하고.

언니는 그렇게 해서 번 돈의 절반을 아이돌에 썼다. 콘서트 티켓만 해도 십만 원 안팎인데다 그 외에도 굿즈니 뭐니 자잘하게 들어가는 돈이 많았다. 이모와 언니는 그 일로 자주 부딪혔는데, 우리 가족은 언제나 한 푼이 아까운 상황이니 나 또한 이모를 편들 수 밖에 없었다. 크게 싸우고 한 달간 말을 섞지 않은 적도 있었다. 아이돌을 위해 모금 활

동을 시작할 것이라는 언니의 말이 화근이었다. 생일 기념으로 지하철에 광고판을 달아 줘야 한다면서. 나는 그때 처음으로 언니를 언니의 이름으로 불러보았다. 박혜준 너 정신 좀 차려라, 개는 강남 산다며, 30억짜리 건물도 있다며, 모금은 우리가 받아야 할 판이라고. 내 말을 이모가 옆에서 거들었고, 구태여 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집안의 사정 따위를 구구절절 늘어놓기 시작했다. 언니는 뭐라 반박도 하지 않고 가만가만 이모의 잔소리를 듣다가 출근했다. 말을 엿지르고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못할 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모는 마트에 출근하고서부터 친구가 생겨 좋다고 했다. 그곳의 젊은 직원들이 자신을 ‘여사님’이라 불러주는 것도 마음에 든다고 했다. 그렇지만 가끔 듣는 ‘아줌마’라는 말도 괜찮은 것 같다고 했다. 쉼 넘으면 할머니 소릴 들을 줄 알았다며 제법 우스갯소리를 할 줄도 알게 되었다. 이모가 화장을 지우는 동안 나는 부엌 겸 거실에 이불을 폈다. 언니가 죽은 뒤로 나는 거실에서 이모와 함께 잠을 잤다. 이모는 티브이에 관해서라면 모르는 것이 없었다. 몇 시에 어디에서 드라마가 시작하고, 드라마가 끝나면 8번에서, 다른 곳은 절대 안 되고 꼭 8번에서 뉴스를 봐야 한다, 는 나름의 루틴과 철칙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날은 어쩐지 한참동안 채널을 넘기다가, 어느 케이블 채널에서 <인간극장>이 재방송하는 걸 보고서야 리모컨을 내려놓은 것이다. 국수집을 하는 노부부의 이야기였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가게를 임대로 내놓는 장면이 방영되고 있었다.

<인간극장>엔 어떤 사람들이 나가는 거야?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럼 이모랑 나도 나갈 수 있어?

우린 너무 평범하잖아.

평범한 사람들이 나가는 거라며.

그 중에서도 희로애락이 있는 사람들.

우린 희로애락이 없어?

우린 너무 평범한 희로애락이지.

이모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어쩐지 수궁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엔 잠든 이모 옆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시나리오 파일을 열었다. 이모와 나눴던 대화를

옮겨 적어 보았다. 우린 너무 평범하잖아. 커서가 오래도록 깜빡였다. 며칠 전 동기가 독립 영화제에 낸 작품이 본심에 올랐다. 그런데 선뜻 축하의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내 존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국수집 부부는 가게라도 내놓을 수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팔 것도 없다. 언니가 살아있었다라면 이 말을 했을 텐데. 남들만큼 사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다고.

나는 올해로 스물여덟이 되었다. 내후년이면 서른이 된다. 서른. 나는 이 문장을 자주 발음해보곤 했다. 내가 마흔이나 일흔이 되어도 새삼스럽지 않게 말이다. 가끔은 내가 늙어가는 어떤 여자의 몸에 갇힌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한다. 내 모든 감각과 취향, 기억은 모두 열여덟 언저리에 머물러 있고.

언니가 좋아하던 아이돌 가수는 더 이상 잘나가지 않았다. 언니는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다. 요새 개는 영 식었어, 골 빈 아줌마들만 좋아하잖아. 음악 프로그램 관계자가 지나가며 언니가 서 있는 방청객 줄을 가리켰다. 언니는 곧장 줄을 이탈해서는 들고 있던 응원봉으로 관계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러나 언니와 함께 방청을 간 친구들 중 관계자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방송국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더는 공개 방청에 참여할 수 없었으니까. 나는 언니가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했다. 지금이야 변명해 보자면, 그렇게 말한 건 다 언니를 위해서였는데.

죄송합니다, 언니가 정신병원에 다녀요. 한 번만 봐주세요.

언니는 자신이 정신병자로 몰린 데 화가 난 건 아니라고 했다. 그럴 이유도 없고. 다만 그때 너무도 쉽게 머리를 조아리던 나의 태도가 자꾸 떠오르고, 그러면 참을 수 없이 괴로워진다고 했다. 너 때문에 나는 진짜로 골 빈 아줌마가 됐어. 언니는 울지도 않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악물어서 그런지 턱이 덜덜 떨렸다. 나는 가끔 이모가 그토록 찾는 언니를 죽인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은 특정한 한 가지 이유로 죽지 않아요, 내 고해성사를 들은 상담의는 꽤나 단호하게 조언했다. 어쩌면 방청에 함께 갔던 친구들이나 이모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면서.

병원에 다니는 걸 언젠가 이모에게 말해야 할 테지만 선불리 먼저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다. 대학 동기들과의 술자리에서, 나 요즘 약 먹거든, 하고 가볍게 흘린 말이 그들에

게 매번 화두가 된다는 걸 얼마 전이야 알았기 때문이다. 대개는 걱정하는 투로 시작하지. 나는 그것이 불쾌하고 또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병원을 찾는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화나지도 우울하지도 자해하고 싶지도 누군가를 죽이고 싶지도 않고, 다만 그 모든 감정을 느끼는 것을 포기하고 싶다. 상담의는 통계학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의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 알려주었고, 나는 내가 보편성에 기대어 속할 수 있는 어떤 집단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여 또다시 무언가를 먹고 글을 쓰고 이모와 티브이를 보고…… 가끔은 엄마가 보고 싶어진다.

나에게는 이모와 언니가 있고, 우리는 우리를 가족이라고 부르지만, 어쩐지 나는 이모와 언니 사이에 내가 맞지 않는 모양으로 끼어있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초등학교생이었던 언니와 나는 각각 12색 싸인펜 세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언니의 싸인펜은 뚜껑이 없어 자주 말라 굳어버렸었지. 반면 나는 그런 것을 잃어버리는 아이가 아니었다. 이모는 언니가 선머슴 같다고 말하면서도 언젠든 새 싸인펜을 사주었고. 나는 되도록이면 언니가 쓰던 것을 물려받았다. 물론 이모가 그런 것으로 나를 차별했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어린 나를 만날 수 있다면 싸인펜을 막 쓰는 아이가 되라고 말하고 싶다. 누가 빌려간 싸인펜을 돌려받았을 때, 끝이 뭉툭해졌다며 밤새 시무룩해 하지 말고.

언니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유년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언니는 매번 뚜껑을 잃어버렸잖아. 그러나 언니는 그것에 관해서라면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다며 쓰게 웃었다. 일곱 번쨰가 뚜껑을 잃어버렸을 때 처음으로 이모에게 종아리를 맞았다고. 너는 맞아본 적이 없지, 라면서.

얼마 전에 언니 앨범 팔았어. 밥을 먹다가 이모에게 이실직고 했다. 언젠가는 말해야 했다. ‘혜준’이 ‘해준’으로 쓰여 있어 불쾌했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언니의 물건 같지 않았다고. 나에게 상을 차려주고서 본인은 한창 출근 준비 중이던 이모가 갑자기 고개를 획 돌렸다.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언니가 그 싸인 받으려고 수십만 원을 썼어, 그런데 이름을 그따위로 써줬다니까? 이모가 양말을 신다 말고 내 쪽을 뻗히 쳐다보았다. 어떤 감정을 참고 내리누르는 듯한 표정으로.

다시 받아와.

이미 팔았다니까.

혜준이 유품이야. 그걸 함부로 팔아?

이모도 차 팔았잖아. 언니가 큰 맘 먹고 산 거였어.

그게 그거랑 같니? 혜준이가 좋아하는 가수였잖아.

이모 진짜 웃긴다. 언니 살아있을 땐 한 번을 이해 못하더니, 죽으니까 다 이해가 되고 그래?

말이 헛나온 걸 알았지만 이제와 주워 담을 수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 오히려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마음이 편해진 것 같기도 했다. 이모가 건조대에서 마트 상호명이 박힌 앞치마를 네모반듯하게 개었다. 이모는 출근 직전에야 실핀이며 립스틱, 앞치마 같은 것을 아무렇게나 가방에 욱여넣는 사람인데. 나는 한참 동안 느적느적 밥알을 씹다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이모를 향해 던지시 말을 건넸다. 잘 갔다와. 대답 대신 문이 쾅 닫혔다.

언니는 어렸을 적에 아이들이 되고 싶어했고, 그 다음엔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싶었고, 그마저도 되지 않자 연예 매니지먼트에 입사하려고 했지만 결국 어느 택배 회사의 경리가 되었다. 지금은 이렇지만 쉼이 넘으면 아이돌 숙소의 '청소 이모'가 되는 게 꿈이라는 얘길 진지하게 하기도 했다. 나는 그런 언니가 마냥 신기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욱망할 수 있는 게 대단하기도 했고, 그래서 더 궁금했다. 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 명제가 틀렸다면 나는 여태껏 언니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나. 고민하다가도 이모와 내가 언니의 죽음에 대해 가지는 태도, 그 의연함이 너무나도 가족적이지. 가족같지.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마는 것이다.

이십대 중반 쯤 언니는 식이장애 판단을 받았다. 적어도 십 년 이상은 지속된 것 같은데 왜 이제야 병원을 찾았냐며 의사에게 혼이 났다고 했다. 언니는 잘 먹지 않았다. 그냥, 먹는 행위 자체가 귀찮은 사람처럼 보였다. 특히 가족 셋이서 하는 식사를 가장 힘들어했고, 종종 토기가 치민다고도 했다. 나는 그것이 이모의 탓이라고 생각했으며…… 아니다. 그만 두자.

인정한다. 이모와 나는 언니가 특히 힘들어 했던 것, 죽음에까지 결부될 수 있을 만한

기억을 취소선택하고 있었다. 언니는 식이장애를 달고서도 잘만 살았다. 새벽에 방에서 혼자 끓여먹는 라면을 좋아했고, 나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해준에게 쪽지를 보냈다. 싱크대에 걸쳐 놓은 고무장갑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 물건은 사실 언니의 유품이고, 다시 돌려주었으면 한다는 내용의 짤막한 글을 적어내리고 보니 나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다. 남은 그릇을 마저 닦다가 고무장갑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 싱크대 앞에 쪼그려 앉아 울었다. 누가 이모와 화해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언니가 죽은 뒤 이모와 나는 서로에게 죄책감을 떠넘기지 못해 안달난 사람처럼 굴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니를 잘 알지 못했으니까.

해준은 교복 위에 품이 넓은 후드 집업을 걸치고 있다가, 나를 발견하고서는 그 안에서 싸인 앨범을 꺼내었다. 어제 주고받은 텍스트 상으로는 꽤나 화난 듯해 보였는데 실제로 마주하니 꼭 그런 것 같지만도 않아 보여 다행이었다. 물론 굉장히 뽀루퉁한 얼굴이긴 했지만, 나는 햄버거 세트가 포장된 종이 가방을 건네었다. 해준이 안을 들여다보고서는, 학원가야 돼요, 하고 그것을 다시 나에게 내밀었다.

들고 가서 나중에 먹어요.

그런 거 두면 냄새 난다고 애들이 지랄해요.

나는 의기소침해져 해준이 건넨 것을 백팩에 욱여넣었다. 어른답게 행동하지 못해서 인지 되려 해준이 내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다. 해준과 나는 서로를 의식하며 어물쩍 서 있다가, 굳이 우리 사이로 지나가는 남자를 피해 한 발자국씩 떨어졌다. 미안해요. 사과를 건네자 나를 말끄러미 쳐다보고 있던 해준이 이내 시선을 떨구고서 우물우물 대답했다. 어차피 엄마한테 걸리면 더 혼났을 거라고. 부모님이 연예인 좋아하는 걸 싫어하시니까요. 덕질하느라 공부 안 하는 줄 알아요, 저번에 딱 한 번 학원 짜고 공부 갔다 온 적 있거든요. 전철이 막 도착했는지 사람들이 우리를 지나쳐 에스컬레이터를 성큼성큼 뛰어 내려갔다. 그러다 누군가 내 백팩을 툭 쳤는데, 그 바람에 안에 든 콜라가 쏟기는 느낌이 들었다.

뭐라도 좋아해야 살지.

내가 목포에서 언니를 찾았을 때, 언니는 다른 할 말이 없다는 듯 덤덤하게 그런 말만을 반복했다. 때린 사람들을 고소하자는 말에도 그저 헨들을 꼭 쥐고서 아무것도 없는

도로를 내다볼 뿐이었지. 내가 콜라 범벅이 된 백팩을 정리하고 있자, 가만가만 지켜보던 해준이 열린 언니의 앨범을 가져가 자신의 소매로 그것을 닦았다. 나는 아홉 살이나 어린 고등학생 앞에서 덤벙대고 있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저 학원 늦었어요. 해준이 들고 있던 앨범을 내 손에 쥐어주고선 꾸벅 인사를 했다. 나는 에스컬레이터를 향해 뛰어가는 해준의 뒷모습을 보다가 문득 언니의 앨범 사이에 쪽지 같은 것이 끼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 쪽 귀퉁이가 콜라에 젖은 쪽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 글자도 허투루 쓰지 않은 해준의 동글동글한 글씨체를 꼼꼼히 들여다보았다. 노래 가사 같은 것과 함께 적힌 말이었다. 목포에서 서울까지 돌아오던 길에도 차 안에서 노래를 들었다. 차창을 반쯤 열어둔 탓에 바람이 머리칼을 사방으로 나부끼게 했고, 나는 그것이 영 성가서 인상만 팍 구기고 있었다. 노래가 반복 재생될 무렵 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언니가 중학생일 적에는 밥 먹고 옷 사 입을 돈 아껴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을 사고 콘서트에 가는 것이 꽤나 대단한 일이었다. 그런데 한두 살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되더라고. 개 스타킹 봤어? 완전 너털너털하더라니까, 같은 팬인 게 쪽팔린다. 고삼 때였던가. 같은 반 친구가 뒤에서 핀잔어린 말을 늘어놓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이젠 그 친구의 이름도 얼굴도 기억나질 않는데, 다만 자신의 다리를 말끄러미, 조금의 숨김도 주저함도 없이 그저 말끄러미 쳐다보던 열 몇 개의 눈동자들만 떠오른다고. 그래서 쓸모도 없는 아이돌 앨범이며 굿즈를 자꾸만 사들이게 된다고. 어쩔 수가 없다고. 나는 괜히 머리칼을 귀 뒤로 빗어 넘기며 탄성을 부렸다. 언니가 그런 것들을 ‘쓸모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가. 해준의 쪽지를 입안으로 웅얼거려본다. 그런다고 그때 언니와 들었던 멜로디나 가사말이 떠오르는 것은 아니었는데도. 그때 들었던 노래의 가사가 맞는 것 같다. 혼자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트 앞 아파트 단지에서 이모를 기다리며 찌그러진 햄버거를 먹었다. 포장지에 소스와 기름이 눅눅하게 배여 식은 채였지만 맛은 좋았다. 나는 이곳 벤치에 앉아 분리수거장 보는 걸 좋아한다. 아무리 봐도 아직 쓸 만한 걸 내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어떤 여자가 15권짜리 완결 만화책을 버리는 것을 보았다. 흥미가 생겨

분리수거장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와중 경비가 대뜸 말을 붙이기에 재빨리 자리를 피했지. 일전에 말했던 노인들의 싸움도 이곳에서 보았다.

내가 아주 가끔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언니도 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는데, 그건 그 사람이 너무나도 싫기 때문이라고 했다. 몇 년 전 우리는 이모 몰래 그 사람을 만나러 간 적이 있다. 이모와 언니의 아버지는 언니가 돌도 지나지 않았을 때 헤어졌다. 그 후 언니가 직장인이 되도록 연락 한 번 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양의 술집에서부터 전화가 온 것이었다. 제발 느이 아버지 좀 데려가라고. 언니는 자는 나를 깨워 택시에 태우곤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사람의 번호는 맞지만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아니었으니까.

언니의 아버지는 방 안에 들어온 언니를 보고선 대뜸 노래를 불러보라고 했다. 그것이 몇 십 년만의 조우였다. 나는 그의 껍값이며 외상값까지 계산하는 언니가 참 답답하지만서도 무어라 말을 엮지는 못했다. 언니와 언니의 아버지와 나는 한참 동안 거리를 배회하다가 어느 국밥집에 들어갔다. 그는 술버릇이라 하기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욕설을 지껄였다. 씨발것의 술집년들이 나를 무시했다, 는 부분에서 나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조용히 좀 하세요, 다른 손님들도 있잖아요. 말을 내뱉고선 바로 후회했다. 곧장 맞을까봐 손이 벌벌 떨렸는데, 그는 그저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다가 다시 국밥에 고개를 처박았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초라한 노인의 얼굴을 하고.

언니는 이후로 몇 번인가 더 그를 만났다. 내가 말려도 속수무책이었다. 나는 이모가 양육비를 언급하기만 하면 연락두절이 되었던 그가 언니의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꺼림칙하게 느껴졌는데, 언니는 그가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데 적잖이 충격을 받은 듯했다. 언니는 내가 이모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 직전에야 그와 연을 끊었다.

얼마 전에 태어난 딸이 있다. 그러면서 나한테 같이 동사무소에 가자는 거야.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한 건가 싶었어. 맨정신에는 절대 말 못할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냥 동사무소에 따라갔는데…… 애 이름을 박헌년으로 짓겠다는 거야. 동사무소 직원이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해 달라더라. 정말로 이렇게 해드리냐면서. 근데 난 그러는 거 보고도 뒤에서 가만히 있었어. 께쌈하기도 했고, 굳이 내가 참견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자꾸 후회가 되더라. 아무리 그래도 애한테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나는 언젠가 상담의에게 자주 꾸는 꿈에 대해 말했다. 언니의 이름이 박혜준이 아니라 박헌년이 되는 꿈인데, 나만은 언니를 ‘언니’로 부를 수 있어 꿈속에서도 다행이라 여겼다고. 실제로 그런 이름의 아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도, 내 언니가 아니라 다행이라는 생각만 한다고. 이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냐고. 나의 말에 상담의가 무어라 대답했지만, 솔직히 잘 기억나지 않았다. 그냥 내가 이리이러한 생각들을 남에게 털어놓았다는 사실만이 나를 수치스럽게 했다.

이모는 내가 애써 되가져온 언니의 앨범을 보고도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가는 길에 빵집 들렀다 가자, 세일한대. 영똥한 말만 늘어놓았다. 나는 그게 이모만의 화법이라는 걸 알았다. 이모는 껄끄럽고 불편하지만 해야만 하는 말을 할 때 늘상 티브이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운을 뗐다. 내가 문방구에서 립스틱 모양 사탕을 훔쳤을 때, 학교에서 매일 검사하는 일기장에 엄마의 진실을 써놓았을 때, 언니의 교복 치마에서 담배가 나왔을 때,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양육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 이모는 무어라 혼을 내는 건지, 무슨 요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궁시렁대는 건지 모를 투로 그저 상대에게 할 말을 흘리다가 어느 순간 입을 꼭 닫았다. 말을 하면 할수록 초라해지는 것 같다, 고 이모는 말했다.

이모는 언니와 나에게 아주 어렸을 적의 기억, 그러니까 시골에 살면서 몰래 아기 고라니를 키운 일이나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죽을 뻔한 일 따위를 추억에 젖은 얼굴로 말하다가도, 상경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언니가 목포에서의 사건을 없었던 일과 같이 여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는 엄마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내 곁에 엄마가 없다는 것이 더 구체적인 사실로 와닿기도 했거니와, 이모의 눈치가 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모가 눈치를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렇지만, 어떤 예감이, 그러니까 내가 엄마 얘기를 꺼내면 이모는 “네 엄마한테 가”라고 미련 없이 말할 것만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다. 이것이 바로 언니가 싫어했던 내 졸업 영화의 내용이다. 상영회에서 돌아오던 길, 언니는 핸들을 쥔 채 말이 없었고 이모는 반으로 접힌 영화 포스터를 손에 꼭 쥐고 차창 밖을 응시했다. 뒷자리에 앉은 나는 수많은 꽃다발과 선물에 적힌 카드를 읽어보고 있었지. 선배님, 졸업 축하해요. 영화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재, 개네. 혜준이가 좋아하던 애.

반값 세일 커스터드 빵을 조금씩 떼어 먹던 와중 이모가 턱짓으로 티브이를 가리켰다. 익숙한 얼굴이 번쩍번쩍한 조명을 잘도 받아내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카메라는 틱틱이 무대 아래에서 응원봉을 흔들고 있는 팬들에게로 앵글을 돌리기도 했다. 그렇게 티브이로 송출되는 팬들은 대부분이 백인이었고, 나는 언니가 저런 곳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기만적이라고 생각했다. 이모는 젊고 아름다운 아이돌 가수의 얼굴이며 몸짓 같은 것을 하나하나 뜯어보다가, 불현듯 나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혜준이가 어렸을 때 꿈이 가수였는데.

이모, 정확히는 아이돌이었어. 말을 얹으려다 말고, 한참 동안 빵을 입안에 가득 넣고 우물거리다 입을 열었다. 그런데 이모, 응? 이모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어쩐지 이모의 정면을 보는 것이 너무 오랜만이라고 느꼈다. 그러니까, 나의 정면과 이모의 정면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이. 그 사람이랑은 어쩌다가 만났어? 그 바람에 진짜 묻고 싶은 말을 하지 못했다. 대신

나는?

하고 명청하게 질문을 내던졌는데, 그와 거의 동시에 이모의 시선이 다시 티브이로 향했다. 너는 영화 만들 거잖아. 그거 말고, 나 어렸을 때 꿈 말이야. 이모는 당황하지도 않고 내 앞에 있는 커스터드 빵을 가져다 손톱만큼을 떼어내면서 말했다. 넌 어렸을 때 얌전했지, 난 네 언니가 사고 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이모가 웃기에 나도 따라 웃었다. 내 꿈은 엄마를 다시 찾아가는 것이다.

이따금씩 목포에서 돌아온 언니와 보냈던 저녁을 떠올린다. 백화점 식당가를 몇 번이나 빙빙 돌면서도 먹고 싶은 것이 없다가에 억지로 아무 곳이나 데려가려던 찰나였지. 교보문고의 음반 코너 앞에 멈춰선 언니가 아차 싶은 표정으로 내 소매를 끌어당겼다. 나 여기 가야 돼. 언니가 가리킨 곳에는 앨범을 사면 싸인회 응모권을 준다는 공지가 적혀 있었다. 언니는 그 자리에서 수십만 원 어치의 앨범을 샀다. 당장 죽으려던 사람이. 나는 그때 언니를 이해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냥…… 언니는 그런 사람이다. 언니의 그런 삶을 나는 그저 인정해야만 하고, 우리는 결국 저녁을 먹지 못한 채 백화점을 빠져나왔다. 언니가 죽고 나는 그것 딱 하나만을 후회했다. 그래도 함께 밥을 먹었어야 했다고.

제2회 3·15청년문학상 단편소설 부문 심사평

본심에 오른 작품은 「재생」「그럼에도 아침」「다다를 수 없는 마음」 세 편이었다. 먼저 「재생」은 새로운 호스피스케어를 가상현실로 이야기한다. 부모의 대학시절이 현재시간에 소설적 활기로 작동하지 못할 뿐더러 가상현실 속을 해매는 죽음을 앞둔 인물의 이야기가 그렇게 설득력 있게 그려지지 못했다, 서사방법은 소재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통로이기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현실은 치열한데 젊은이들이 그걸 피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아침」은 보습학원에서 국어과목 조교로 일하는 작가지망생 주인공의 이야기로 다소 평범하다. 스토리가 확장되지 않고 주인공의 일상과 자의식에 갇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데 그 자의식조차 그렇게 개성적이지 않다. 투고자는 소설이 왜 허구와 과장을 허용하는지를 숙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다를 수 없는 마음」은 사촌언니의 자살과정을 살피는 일인칭 소설로 안정된 문장력과 짜임새 있는 구성을 통해 오늘날 젊은 세대의 모습을 설득력 있게 그렸다. 소외와 대리만족, 타인에 대한 이해, 가족관계 등의 다층적 문제의식을 스토리 속에 잘 녹이면서 인물들을 생동감 있게 창조했다. 소재를 풀어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넘치지 않으면서 자유로운 작가의 숨씨가 돋보인다. 당선작은 신인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찬사를 받을만한 작품이다.

당선자와 예심통과자는 물론 모든 투고자의 정진을 바란다.

심사위원 **이정임**(소설가), **조갑상**(소설가)

선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4학년
김민

소풍 날까지 수아와 함께여야 한다니. 나는 수아가 싫었다. 낮은 코에 눈꼬리가 위로 올라간 작은 눈, 그리고 한두 박자씩 느린 말과 행동. 수아가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은 학기 초부터 진작에 알아차렸다. 선생님은 수아가 우리들과 조금 다를 뿐 똑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아리송한 말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저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수아더러 창가 쪽에 앉으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러고는 의자의 경계선을 따라 손가락을 죽 그었다.

“여기가 금이야. 넘어오면 안 돼.”

“넘으면?”

“넘으면…….”

미처 거기까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 벌칙이 필요하긴 했다.

“……넘으면 네 도시락 다 내 거야.”

내 말에 수아는 히죽거렸다. 제대로 알아듣거나 한 건지. 아마 이것도 놀이의 일종으로 여기는 모양이었다.

“아무튼 난 말했다. 넘어오지 말라고.”

짐짓 위압적으로 말했지만 수아는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거두지 않았다. 주먹 쥔 손에 검지만 펴서는 경계선 부근을 콧코 건드리기까지 했다.

“야!”

나는 수아의 손등을 툭 쳐냈다.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져서 재빨리 선생님의 눈치를 살폈다. 다행히 선생님은 아직 기사아저씨와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다.

“너 진짜……”

수아가 인종을 오므렸다. 곤란할 때마다 짓는 표정이었다. 나는 저 버릇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면 될 것을 뭘 저렇게 버티는지.

“마지막 경고야. 이 선 넘지마.”

나는 선심 쓰듯 주의를 일렸다. 그리고는 몸을 반대편으로 돌렸다. 나와 친한 친구들이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원래대로였다면 내가 저들 중 하나와 짝이 됐어야 하는데. 선생님의 부탁을 괜히 들어준 것 같다는 후회가 들었다.

며칠 전, 수아가 물에 한 바가지나 젖는 일이 있었다. 청소 중이라고 여자애들이 화장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모양이었다. 불일이 급했던 수아는 하는 수 없이 남자화장실에 들어갔던 것이고, 이를 그냥 지나칠 리 없던 남자애들이 수아에게 물세례를 퍼부으면서 물난리가 났다. 화장실 청소 당번 때 물장난을 하는 건 흔한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달리 소란스럽다고 느낀 나는 지나가던 길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던 중에 내 바지에 물줄기가 옮겨붙은 것이다. 화가 난 나는 당장 호스를 들고 있던 남자애한테 달려들었다.

“너 몇 학년이야. 3학년이 4학년한테 이래도 돼?”

2층 화장실은 3학년의 청소구역이었다. 세면대 근처에 있던 남자애가 얼른 수도꼭지를 걸어 잠갔다.

“별로 묻지도 않았으면서……”

개중에 한 녀석이 입을 배죽 내밀었다. 옆에 있던 다른 녀석도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고 거들었다.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면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그들의 말처럼 내 옷에 묻은 물 자국이 크지는 않았다.

“나 말고 얘 말야!”

순간 나도 모르게 손끝으로 수아를 가리켰다. 지켜보던 아이들의 시선이 수아에게 집중됐다. 입술을 머금은 채로 어쩔 줄 몰라 하던 수아는 그대로 울음을 뿔 터뜨렸다. 담임 선생님이 온 것도 바로 그때였다.

그날 종례시간에 선생님은 반 아이들 앞에 나를 세워두고 내 선행을 칭찬했다.

“여러분도 친구가 곤란한 처지에 놓였을 때 모른 체해서는 안 돼요.”

같은 반 아이들의 박수 소리가 옆반에 들릴 정도로 컸다. 멋있다, 대단하다, 친한 친구들이 한마디씩 보탤었다. 나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결눈으로 수아의 빈 자리가 보였다. 물에 젖은 수아는 벌써 수아네 엄마가 데려가고 없었다.

‘그런 게 아닌데…….’

나는 이 모든 게 오해라는 걸 알았지만 기분이 좋아서 아무 말 않고 가만있었다.

“네가 수아를 근처에서 살피주는 것은 어머니?”

그 제안을 선뜻 거절할 수 없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선생님에게 난 용감하고 착한 학생일 테니까. 내 대답을 기다리는 선생님의 눈망울이 맑게 빛났다. 뭐랄까, 기대감 같은 게 잔뜩 어려있는 눈빛이었다.

“……저는 상관없어요.”

아무리 말을 그렇게 했다지만 소풍 날까지 수아를 떠넘기는 건, 정말이지 선생님이 너무했다.

버스가 출발하고도 나는 옆자리에 관심을 주지 않았다. 초콜릿이나 쿠키 같은 간식거리도 뒷자리 친구들하고만 나누었다. 시끄럽게 떠드는 우리 사이에 수아도 끼고 싶었는지 슬금슬금 내 눈치를 보았다. 나는 수아를 의식하면서도 아무런 내색을 았았다. 수아와 나 사이엔 분명 지켜야 될 선이 있었다. 그럼에도 수아는 자꾸만 고개를 기웃거렸다. 그리고 보니 언젠가 수아가 남들보다 잘 안 보이고 안 들린다는 말을 들은 것도 같았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서 보고 들으려고 그러는 건가. 하지만 나와 친구들은 매번 얼굴을 들이미는 수아를 부담스러워 했다. 내가 수아를 챙기게 되면서부터는 나한테도 그런 분위기를 풍겼다. 불편하고 결끄럽다는 게 말끝과 눈끝에서 느껴졌다. 아무래도 수아는 어딘지 묘하게 거북하니까…… 우리와 다르면서도 똑같은 거?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건, 수아는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였다.

“……혹시 밥까지 같이 먹어야 되는 건 아니겠지?”

혜지의 말에 윤아가 설마, 하고 웃었다. 나도 얼른 따라 웃었지만 친구들이 주고받는

눈길이 미묘했다. 나는 껌싸게 수아가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조그맣게 속삭였다.

“나한테 다 생각이 있어.”

사실이였다. 네 번째 현장학습이지만 그때마다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아무렴 친구들과 들끼리 둘러앉아 도시락을 꺼내 먹는 점심시간이었다. 엄마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싸준 김밥과 유부초밥…… 과일까지. 친구들과 나눌 목적으로 넉넉하게 준비했지만 수아와 공유할 순 없었다.

“뭔데, 뭔데?”

혜지와 윤아가 천진하게 물었다. 나는 알려줄 듯 분위기를 고조시키고는 비밀이라며 췌, 하고 검지에 바람을 넣었다. 친구들과 나는 뭐가 그리 웃기다고 한참을 깔깔대며 웃었다. 우리들의 웃음을 비집고 수아도 함께 킁킁했지만 아무도 알은체하지 않았다.

버스가 멈춘 곳은 넓은 주차장을 낀 공원이었다. ‘자연휴양림’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우거진 수풀로 온 사방이 푸릇푸릇했다. 나들이를 나온 할머니와 할아버지들도 많이 보였다. 차에서 내린 우리들은 앞반을 따라 길게 두 줄로 섰는데, 어디든 이동할 때마다 우선인 앞반이 부러웠다. 혜지와 윤아, 그리고 나는 날쌔게 선생님 앞에 섰다. 그러나 수아가 보이지 않았다.

“야, 김수아!”

나는 맨 뒷줄에 선 수아의 팔뚝을 꼬집었다.

“왜 안 따라오고 여기 있어. 너 때문에 나까지 맨 뒤잖아.”

“나도 너 찾으려고……”

“아 됐어. 앞이나 봐.”

나는 수아의 말을 끊었다. 선생님이 말씀 중이었다. 예전엔 이렇게까지 수아를 무시하지 않았는데 요새는 수아가 무슨 말을 하든 귀찮아 죽겠다.

“조금만 이동하고 밥 먹을 거예요. 다들 도시락과 돛자리 챙겼죠?”

“네!”

그간 들어왔던 같은 반 아이들의 목소리 중에서 지금 게 제일로 컸다. 모두들 나와 같은 생각인지 큰 소리를 내어 웃었다. 아마 다들 나처럼 들뜨고 설레는 모양이었다. 우리

는 대열을 유지한 채로 숲길을 걸었다. 저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짝꿍과 장난을 쳤다. 다들 신이 난 모습이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한 건 나와 수아뿐이었다.

“멀리 가지 말고 이 근처에서만 식사하도록 하세요.”

하지만 나는 금세 활기를 되찾았다. 널찍한 잔디밭에 서니 친구들과하고 밥 먹을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선생님은 정자 아래 다른 선생님들 곁으로 돌아갔다. 우리도 서둘러 그들을 찾아보라며 혜지가 말했다.

“잠깐만, 나는 수아랑 어디 좀 다녀올게.”

나는 수아의 손을 붙들고 잔디밭 외곽으로 향했다. 화장실 부근, 친구들과 얼마간 동떨어진 자리에 나무 의자가 놓여있었다. 나는 그곳에 수아와 마주 앉았다. 의아하다는 듯 수아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다른 애들은……?”

“쉬 좀 싸고 싶어서 너 데려왔어.”

아하,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기다려줘.”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척 애써 태평하게 자리를 떴다. 그러나 등 뒤가 싸해서 발걸음이 무거웠다. 나는 괜한 걱정이 들어 도로 수아에게 돌아갔다.

“나 배가 많이 아파서 그런데……”

수아가 얼굴을 바짝 댔다.

“너 먼저 밥 먹고 있어도 돼.”

“응, 알았어.”

수아는 이번에도 걱정 말고 다녀오라며 손짓했다. 나는 화장실 건물을 에둘러서 수아가 보지 못하도록 몸을 숨기고는 친구들이 있을 법한 나무 그늘 쪽으로 내달렸다. 다행히 혜지와 윤아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김수아는?”

“다른 데서 밥 먹고 있으라고 했어.”

윤아는 그게 진짜냐며 잘했다고 내 어깨를 두드렸다. 전속력으로 뛰어와서 그런지 얼

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물 마셔, 물.”

헤지는 가방에서 물을 꺼내 건넸다. 그리고 보니 수아도 따로 물을 챙겼을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런 걱정도 차나였다. 난 보기 좋게 물을 한입에 털어놓고는 어른 흉내를 냈다.

“카, 좋다.”

친구들의 웃는 얼굴이 환했다.

차 안에서 먹을 걸 이미 먹어서 그런지 도시락을 몇 번 들추지 않았는데도 금방 배가 불렀다. 다른 반 남자애들이 어슬렁거리며 우리 음식을 하나둘씩 뺏어 먹기도 했지만 그래도 많이 남았다. 과일은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때였다. 선생님이 두리번거리며 수아를 찾기 시작한 것은.

“주희야, 네 짝은 어디 있지?”

“아…… 수아요.”

나는 수아가 화장실에 갔다고 일렀다. 금방 데려오겠다고도. 근데 선생님은 의아한 듯 되물었다.

“화장실에도 없던데, 혹시 간 지 얼마나 됐니?”

나는 헤지와 윤아를 번갈아 봤다. 그들도 모르겠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한 삼십 분쯤……?”

선생님의 얼굴이 대번에 굳었다. 나도 불길한 마음이 스쳤다. 혹여나 나쁜 일에 휘말리더라도 한 게 아닌가…… 그럼 다 나 때문인데. 어른들이 나를 타박하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실망감으로 뒤바뀐 선생님의 표정도. 나는 한번 찾아보겠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위험하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어.”

선생님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그렇지만 수아를 화장실로 데리고 간 건 나였다.

“수아를 마지막으로 본 게 저예요.”

“……그럼 주희만 선생님 도와주겠니?”

나는 수아와 함께 갔던 방향으로 선생님을 이끌었다. 혜지와 윤아는 어찌나 싶어 멀뚱 멀뚱 쳐다만 봤다. 나도 무서웠다. 수아가 정말 어떻게 되더라도 했다면…… 아니다. 수아만 무사히 찾으면 된다. 그럼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아무런 일도.

하지만 내가 아까 수아를 내버려 두고 온 곳에는 빈 의자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었다. 수아의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선생님은 내게 수아를 마지막으로 본 곳이 여기가 맞느냐고 물었다.

“네, 아마 여기서……”

“여기서?”

나는 망설였다. 여기서 수아가 혼자 밥 먹고 있을 줄로만 알았다고 얘기한다면 내가 선한 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이 들통나고 만다. 그렇지만 나 때문에 수아가 큰일이 났을 수도 있다. 영영 되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내가 여기서 혼자 밥 먹고 있으려다가 나쁜 일에 휘말린 것 같다고, 서둘러 경찰도 부르고 CCTV도 뒤져서 수아를 찾아내자고, 그렇게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데…… 목멘 것처럼 목구멍이 일렁여서 어떤 말도 내뱉을 수 없었다. 누군가 내 속내를 끄집어줬으면, 하고 바랐다. 그때였다. 수아가 선생님과 나를 부른 것은.

“둘이 뭐하세요?”

“김수아 너……!”

선생님과 나는 깜짝 놀랐다.

“주희랑 선생님이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아니!”

선생님이 수아의 등짝을 때렸다. 어디 가면 간다고 말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꾸중을 놓았다. 수아는 어찌 된 일인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멍하니 서서 아무런 말도 없었다. 수아의 한 손엔 도시락 보따리가 멀쩡하게 들려있었다.

“친구들 있는 곳으로 가자.”

선생님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나와 수아는 선생님의 손을 잡고 걸으며 이번에도 암말도 말았다. 수아는 왜 내 핑계를 대지 않았을까. 왜 밥을 먹지 않았을까. 어렴풋이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도록 입을 다물다가 학교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야 물어봤다.

“아까 거기서 뭐하고 있었어?”

수아가 나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나 찾고 있었던 거야?”

“네가 안 나오길래……”

“바보야. 뭣하러 그래. 내가 안 오면 먼저 밥 먹고 있으랬잖아.”

수아는 또 입술을 물었다. 짜증이 났다. 수아 말고 나한테.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면 될 것을 나는 또 뭘 이렇게 버티고 섰는지. 차마 미안하단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우리 둘의 대화가 시끄러웠는지 뒤에서도 알은체했다.

“아니……”

그 순간 나한테서 좋은 생각이 났다. 수아에게 사과하지 않고도 미안한 마음을 덜어내는 유일한 방법. 나는 등받이 쪽으로 몸을 돌리고서 머리를 위로 빼꼼 내밀었다.

“우리 학교에 도착하면 남은 도시락으로 저녁 놀이할래?”

“저녁 놀이?”

“응, 소꿉놀이처럼.”

예상대로 혜지와 윤아의 반응이 좋았다.

“좋다, 그거. 근데 우리 도시락 셋이 먹기엔 부족하지 않을까.”

나는 이번에도 대단한 비밀이라도 숨어있는 양 ‘그쭈이야’ 하는 표정으로 주의를 끌었다. 혜지와 윤아가 뭘데, 뭘데, 하며 귀를 기울였다.

“수아도 데리고 가는 거야.”

“뭘?”

혜지와 윤아의 눈동자가 동시에 커졌다.

“내가 봤는데, 수아 도시락 하나도 손 안 댔더라고.”

“그래도 그건 좀……”

혜지와 윤아는 서로 흘끔 쳐다보더니 혀를 내둘렀다. 자기 이름이 불리는 걸 알았는지

수아도 어깨를 살짝 들썩였다. 나는 태연하게 굴었다.

“수아야, 도시락 뭐뭐 썼어?”

“응?”

수아가 뭔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되물었다.

“도시락 반찬, 뭐냐고.”

“아, 판다 주먹밥이랑 문어 소시지, 토끼 사과……?”

“토끼 사과?”

혜지와 윤아의 눈빛이 반짝였다. 수아의 도시락은 1학년 때부터 주변 아이들의 관심사였다. 항상 선생님과 먹거나 저 혼자였지만, 수아네 부모님이 신경을 쓴 게 한눈에 보일 정도여서 주위를 서성이던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나도 한입 먹어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어때?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놀면 될 것 같은데.”

혜지와 윤아는 서로 눈치를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속으로 만세를 불렀다.

“수아 너는?”

수아가 입술을 달싹였다.

“……좋아.”

“아썩!”

소리가 컸는지 선생님이 똑바로 앉으라며 주의를 주었다. 그리고 보니 어느샌가 나와 혜지, 윤아, 그리고 수아까지 넷은 모두 얼굴을 가까이 맞대고 웃고 있었다. 창밖에는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우리가 지나왔던 숲이 점점 멀어지는 중이었다. 수아가 저것 보라며 창가를 가리켰다. 무언가가 선을 굿듯 구름을 찢으며 날고 있었다. 나는 자세히 보기 위해 수아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나와 수아 사이에 아무런 경계도 없었다.

제2회 3·15청년문학상 동화 부문 심사평

- 동화는 깊고 그윽하고 아름다워야

올해 신설된 분야라서 그런지 응모 편수가 적은 것도 아쉬운 일인데, 전체적인 수준마저 미흡해 아쉬움이 크다.

예심에서 올라온 세 편중에서 <검정 돼지>는 그림책을 연상하게 하는 문장 형태가 동화 쓰기의 기본을 의심스럽게 하고, 주인공 선정과 그 여정에 통찰과 깊이가 부족하다.

<한 번만 더 보고 싶어>는 그리움의 대상인 저 세상의 주인공들을 판타지로 소환했지만, 문방구의 정체와 공책 등의 설정과 전개에 개연성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선->은 주제를 설정하고 완성도를 높이려 노력했으나 접근하는 방법이 제멋에 넘치고 제목이 너무 소설적이다. 또, 등장인물의 성격 설정이 섬세하지 못하고 문장 또한 치밀하지 못해 가벼운 느낌을 주는 소년소설이다.

세 작품 중에서 아동 심리를 들여다보는 여문 눈이 두 작품보다 돋보인 <선->을 당선작 없는 가작으로 뽑는다. 이는 한 계단만 더 올라가면 정상이 보인다는 암시기도 하지만, 더 멀리 내다보고 끝없이 정진하라는 격려이기도 하다.

동화, 그중에서 단편 동화는 한 편의 시나 다름없다. 깊고 그윽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그 위에 재미를 더해야 한다. 어쩌면 젊은이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장르일 수도 있지만 아직 채 가지지 않은 동심이 있기에 가장 빛나는 작품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응모한 모든 분에게 박수를 보내며, 입상한 분에게는 꾸준히 나아갈 것을, 그래서 또 하나의 새 별이 되길 당부드린다.

심사위원 **배익천**(동화작가), **김문주**(동화작가)

제2회 3·15청년문학상 당선작
표절·중복 검사 결과

박종주

제2회 3·15청년문학상 당선작 소설 부문 <다디를 수 없는 마음>, 동화 가작 <선>, 시 당선작 <3C9> 등 3편을 대상으로 구글, 네이버 웨일, 다음, 줌 등의 포털을 이용해 중복 혹은 표절 검사를 진행함. 검색 포털마다 한 번에 입력·검색 가능한 단어 수가 제한되어 있어, 각 작품의 중요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를 검색 가능한 단어 수만큼씩 잘라 반복적으로 검색을 진행함.

소설 <다디를 수 없는 마음>은 ‘이모’ ‘언니’ ‘자살카페’ ‘아이돌’ ‘연탄가스’ 등 등장인물이나 작품 전개과정의 주요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사이니 중현 자살 예고, 누나가 신고-숨진 채 발견”(2017. 12. 21, YTN 등) “인터넷 카페서 만나 자살여행”(2010. 8. 25, KBS 등) “20대 남녀 4명 숨진 채 발견”(2015. 3. 23, 매일신문 등) “합천 3명 동반자살 방조”(2011. 1. 7, SBS 등) 등 다수의 사회면 기사가 검색되었으나, 비슷한 내용을 다룬 문학작품은 발견하지 못함.

어머니와 분리되어 이모집에서 양육된 화자(話者)의 성장환경과 내면 갈등, 인간관계 등을 감안해 의붓딸, 이복 남매 등 유사한 관계들도 검색해 보았으나 구성이 겹치는 작품은 없었음.

동화 <선>은 초등학생 등장인물, ‘소풍’과 ‘도시락’ 등 소재가 비교적 평이한 탓에, 이를 다룬 다수의 작품이 발표되어 있음. 그러나 <여우사냥>(박동균, 한솜미디어), <세상의 큰형

들)(전승태 외, 도서출판 난다), 〈달링 하버〉(훈, 예원북스)를 비롯한 여러 작품은 선생님의 도시락 준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고, 〈그날 속의 4.3〉(제주4.3연구소, 도서출판 선인), ‘가난에 새긴 선생님의 사랑’(문교행정 1987) 등 일부에서 선생님이 형편이 딱한 학생을 위해 소풍 도시락을 준비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선〉과 같이 약간의 발달장애를 지닌 것으로 보이는 친구와 동급생들간의 미묘한 심리 묘사를 다룬 작품은 키워드, 구성 등에서 중복 사례를 찾을 수 없었음.

시 〈3C9〉 검색 결과 정호승의 ‘기쁨이 슬픔에게’와 ‘기쁨’ ‘슬픔’ ‘밤하늘’ 등 몇몇 시어(詩語)가 중복되나, 정호승의 주제는 ‘그리움’ ‘외로움’ 등이고 자신을 떠난 사람을 달이 모습을 감춘 밤하늘과 대비해 시화한 반면, 〈3C9〉는 마당=우주, 마당의 돌=퀘이사 3C9로 병치해 별의 이름짓기를 ‘우리의 삶이나 사랑은/서로의 죽음이나 이별에/이름 짓는 일’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주제, 구성, 시어 등의 유사점을 찾을 수 없었음.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외부은하(external galaxy)인 퀘이사 3C9를 소재로 한 다른 문학작품도 찾을 수 없었음.

거울



경기 고양예술고등학교 2-1

정지윤

이웃집 남자가 원숭이를 키운다 가족도 애인도 없이 혼자, 아니 원숭이와 둘이 사는 그 남자는 매 식사마다 원숭이와 나란히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다 뉴스를 보며 혀를 쫓쫓 차고 형편이 어려운 이가 나오는 다큐멘터리에 눈물을 흘리고 연예인 누가 누구와 사귀다더라 같은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는 원숭이가 먹고 싶어 하는 과일이 있다면 한밤중에라도 사러 나간다 마치 가족 같다는 말에 화내는, 원숭이야말로 자신의 가족이라는 남자의 말에 이웃들은 현관에 쌓인 조간신문에도 그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지만

가운데가 둥그렇게 뚫린 식탁에 원숭이를 끼운다 펄펄 끓는 물을 부어 소독을 하며 기절시킨 뒤 사람과 지능이 비슷하다는 머리에 콩기름을 뿌린다 쥐나 개 고양이를 먹는 나라에서 추잡하다며 질타한다 원숭이에게 코코넛 채취를 시키는 누군가도 덩달아 손가락질하자 돼지를 훈련시켜 송로버섯을 찾게 하는 이들이 당신들은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하루에 수많은 나무를 베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네 발로 기어다녔다는 사실이 치욕스러워 조상이 다르다고 말하는 우리는 선택권이 없다 결국 인간은 자연의 일부 추우면 보일러를 틀고 더운 날엔 에어컨 바람을 쐬는, 팔다리에 털이 많은 우리의 별명은 원숭이다.

제37회

3·15의거기념전국백일장

고등부 산문 장원

운동



서울 경인고등학교 2-11

설수진

“이라, 이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녘을 찌렁 울린다.

무더운 여름. 할아버지는 긴 팔 긴 바지를 입은 채 자신의 몸보다 두 배는 큰 소를 몰고 밭을 가셨다. 할아버지에게는 한 가지 고집이 있는데, 바로 벗겨질 듯하면서도 벗겨지지 않고 한 몸처럼 찰싹 붙어있는 할아버지의 검정 고무신이었다. 연세가 드셔서 좋은 신발을 신지 않으면 밭이 아플 법도 한데, 할아버지는 검정 고무신이 아닌 다른 신발은 절대 신지 않으셨다. 뒤통치에 배긴 굳은살을 보며 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신발 안 불편하세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듯 꺄꺄 웃었다. 불편하기는, 이게 나랑 찰떡궁합이여.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계속 머물러 있었다.

“이건 그냥 운동인 거여, 운동. 그러니 걱정 말어. 운동이라도 하고 살아야지.”

할아버지의 대답에 아빠는 못마땅한 듯한 표정을 짓고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며칠 전 시골로 내려오면서 아빠가 할아버지의 생신 선물로 사 온 신발 때문이었다. 검정 고무신만 신는 할아버지를 위해 산 고가의 운동화였는데, 할아버지는 그 신발을 돌 보듯 쳐다보지도 않았다. 할아버지. 왜 아빠가 사 준 운동화 안 신으세요? 할아버지는 내 질문에 착잡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예전에는 가난해서 신발 한 짝 못 사줬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그 운동화를 신겠냐…”

그제야 할아버지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다. 어렸을 적 가난했던 할아버지는 아빠에게 많은 걸 해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중 하나가 운동화였는데, 아빠가 초등학생 때 유행하던 최신 운동화를 반 친구들 중 혼자서만 가지지 못했다는 이야기였다. 평생 먹고살기 위해 움직였지만,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고, 아빠가 결혼할 때 돈도 얼마 보태주지 못했다. 모두가 살기 위해 죽을 때까지 움직인다지만, 할아버지의 움직임은 깨진 장독대에 물을 붓는 것 같았다. 가난에 허덕이며 아무리 일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장독대 말이다. 발뒤꿈치가 부풀어 오를 때도, 할아버지는 이 모든 일을 가볍게 ‘운동’하는 거라고 웃어넘기시고는 했다. 부끄러운 마음에 새로 신은 신발을 슬쩍 뒤로 뺐다. 할아버지가 평생 견뎌온 운동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짐작도 가지 않았다.

할아버지 댁에 도착한 다음 날. 맑았던 하늘은 어디 가고 거짓말처럼 비가 세차게 왔다. 할아버지는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도 일을 하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셨다. 비가 온다고 해서 일을 거르면 일에 차질이 생긴다고. 가볍게 운동할 겸 갔다 오마. 할아버지의 운동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다. 아빠는 새로 산 운동화를 들이밀며 나갈 거면 편한 신발이라도 신으라고 말했지만, 결국 할아버지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집을 나섰다. 할아버지가 우비를 입고 묵묵히 받을 갈자 아빠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할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나는 우산을 쓰고 그 둘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비가 와서 더 심한지, 고무신에 뒤꿈치가 쓸려 거무튀튀한 굳은살 사이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이 순간에도 운동하고 있었다. 평생 몸에 습관처럼 밴 하나의 운동을. 그 정제된 움직임은 아직 한 사람의 인생이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다.

결국 우리가 집에 가는 날까지, 할아버지는 한 번도 운동화를 신지 않으셨다. 차에 탄 우리에게 손을 흔드는 순간까지도 검정 고무신을 신고 있으셨다. 할아버지는 어떤 심정으로 평생 저 신발을 신어온 걸까? 집에 돌아와 신발장에 서니 너무 많은 수의 신발이 있었다. 비 올 때 신는 신발, 공 찰 때 신는 신발, 그리고… 나는 내 신발로 인해 어질러진 신발장을 정리했다. 운동화들을 바라보며, 시골에서 검정 고무신을 신고 ‘운동’이라는 것을 매일같이 하실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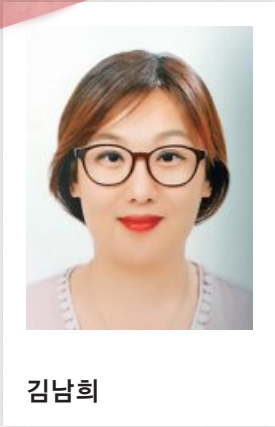
정리를 다 하고 나선 방으로 들어가 곧장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 운동할 땐 운동화 신고해야 해요. 운동 계속하셔도 되니까 꼭 운동화 신으세요!”

내 말에 할아버지는 귀엽다는 듯 껄껄 웃으셨다. 운동화가 그래서 운동화라는 이름을 붙인 거냐고 하시면서. 할아버지는 운동화를 신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할아버지가 정말 운동화를 신으실지는 모르는 일이다. 아빠의 생일 선물을 신든, 아니면 평생 함께 한 검정 고무신을 신든. 확실한 건 어떤 형태의 신발을 신어도 할아버지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운동을 계속할 거라는 사실이었다. 그 단정한 습관이 할아버지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할아버지는 인생을 보여주는 운동을 한 셈이다. 나도 앞으로 신발장에 있는 운동화들이 다 닳을 때까지 계속해서 운동을 할 것이다. 할아버지와 같은. 나만의 발걸음이 드러나는 그런 운동을 말이다.

안개



김남희

그날은 목구멍 안으로, 늙은 어미의 젖무덤 사이로, 안개가 콧 막혀왔다.

세월을 끌어안은 짙은 안개 안에서는 그 누구도 길을 잃기 일쑤였다.

가까이 다가가면 다시 한걸음 밀려나는 안개 속에서, 타자와의 거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어디선가 때 이른 서리가 내렸다 했다, 3월이라지만 차가웠던 바다, 검은 거리 위로, 작은 틈새 사이로 여전히 불안은 몸집을 키웠다. 어디선가, 웅웅, 불온하게 전깃줄은 흔들렸다. 부풀어져 가는 것은 소문이었다. 툭툭 불은 무언가가 떠내려 왔다고 했다.

거짓말처럼, 오른쪽 눈은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는 젊디 젊은 나이라 했다, 아직은 피어나지 않은 꽃이라 했다. 안식을 얻지 못한 이름들이 떠돌아다녔던, 그해.

기어이, 고개를 내밀어, 왈각, 쏟아져 나온, 꽃들, 서릿발 같은, 봄꽃들,

맞잡은 손길마다 뜨거운 함성으로 피어오를 때,

비로소 봄이 왔다.

습관



오현주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아버지다. 구순이 넘은 지금도 운동과 책 읽기 습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정하신 아버지를 보면서 ‘습관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을 실감한다.

유년의 희미한 기억 속에서도 아버지의 손에 들린 책이며 몸을 움직이던 모습만은 또렷하다. 세상 소리도 잠든 새벽 운동화 끈을 조여 매고 집을 나선다. 거리는 아버지 발소리에 꿈틀대며 잠에서 깬다. 구들장의 따뜻한 온기가 발목을 잡아도 매일 아버지는 등산을 거르는 적이 없다. 비가 오는 날 우비를 입고 등산을 하고 온 날은 엄마의 잔소리가 밥상머리 반찬처럼 엮힌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두드릴 때 흙 문은 운동화를 축담 모서리에 터는 소리가 난다. 운동화 정리를 하고 화단에 물을 준다. 물소리는 우리 형제들이 일어나는 신호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되었다.

허리춤까지 내려간 이불을 머리끝까지 당기고 더 깊숙이 몸을 넣는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에 퍼진다. 물소리가 나기 전에 잠깐이라도 더 자고 싶어 베개 사이로 빠져나가는 잠꼬리를 잡고 늘어진다. 호스에서 내뿜는 물보라에 꽃들의 수다가 시작된다. 그 모습에 아버지는 얼굴에 미소를 짓는다. 마당의 시끄러운 소리에 잠은 달아났다. 그제야 게으른

몸뚱이는 기어서 이불 밖으로 나온다.

방으로 들어선 아버지는 어젯밤 읽다 머리맡에 밀쳐둔 책을 작은 상에 놓고 읽는다. 잠만 나면 책을 펼친다. 텔레비전을 본다든가 멍하니 있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 책을 읽다가 메모지에 옮겨 적기도 한다. 아버지의 책 읽는 습관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졌다.

월급날이면 아버지는 새 책과 과자를 들고 퇴근한다. 늘 먹는 과자보다 무슨 책인지 궁금해서 일제히 책으로 손을 뻗어 보지만 오빠가 항상 먼저 만지고 읽는다. 오빠 먼저 보고 책을 봐야 하는 나는 짜증을 내고 때를 써 봐도 소용이 없다. 오빠 어깨 넘어 구경하는데 김새를 알고 겨드랑이에 책을 숨기는 오빠가 알미웠다. 학교 마치고 뛰어와 오빠 책상에 꽂혀 있는 새 책을 읽고 안 본 척하고 혼자 웃을 때가 좋았다.

공부방에는 천장까지 높은 책장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아버지가 읽는 역사책, 소설, 시집, 화집, 한문으로 된 책들이 한 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다. 옆에는 위인전, 추리소설, 동화책, 등 우리 형제들이 읽을 책이 가득했다. 우리는 벽에 기대고, 방바닥에 누워서 책 읽기를 놀이처럼 즐겼다. 더 많이 읽으려고 경쟁을 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큰 키에 군살 없는 몸에 다정한 목소리를 가졌다. 욕이나 상스러운 말을 쓰지 않는다. 어떤 질문도 막힘없이 답해 준다. 그런 아버지가 참 좋고 자랑스럽다. 나는 칭찬을 듣기 위해 신문도 먼저 챙기고, 신발 정리도 열심히 했다. 그러나 오빠, 언니, 동생 사이 내세울 것 없는 중간치라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아버지한테 칭찬을 듣기 위해 궁리 중에 기회가 왔다. 조회 시간 교장 선생님이 '체력 향상을 위해 아침 일찍 운동장에서 체조와 달리기를 하는데 상도 준다'고 했다. 나는 상받을 욕심에 열심히 다녔다. 한두 방울 빗방울이 내릴 때도 학교에 달려가 교문 옆에 숨어서 하는지 확인도 했다. 처음에는 참석자 수가 많았는데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수가 줄었다. 수첩에 보라색 날짜 도장이 늘어갈수록 아침에 일어나기도 쉬웠다. 한 달이 지나고 상을 받았다. 우리 반에서 나 혼자였다. 집에 가는 발걸음이 가볍다. 아버지는 상장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형제들에게 나를 치켜세우며 칭찬했다.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처럼 의기양양했다.

내 책 읽는 습관은 아이를 키울 때도 변함이 없었다.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했다. 도서관에서 책을 가방 가득 빌려오면 유치원 다녀온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한 권 한 권 표지부터 본다. 간식도 먹지 않고 읽어 달라고 보챈다. 서점가서 책 구경하고 사러 가는 것을 좋아했다. 침대에 누워 책을 몇 권 읽어 줘야 잠이 들었다. 주위에서 남자애가 책을 많이 읽는다고 부러워했다. 아버지 책 읽는 습관이 손자에게까지 이어진 것이다.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했다.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다.

“아버지 요즘도 운동하러 갑니까?”

“어, 사람은 밥 먹듯이 운동을 하고 몸을 움직여야지”

“연세도 있으신데 살살 적당히 하이소”

“무슨 소리 하노, 내 지금 죽어도 억울한 것도 없다. 지금 누우면 너거 고생시키는데 나는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죽는 기 소원이다”

젊어서는 당신을 위해 운동하고 나이 든 지금은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운동을 한다. 매사에 잔소리 없이 몸소 실천하여 보여 준다. 흐트러진 모습을 본 적이 없다. 평생을 자신에게 엄격한 삶을 살았다. 한 번쯤은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는데 당신은 용납하지 않는다. 불심이 깊은 수도승처럼 철저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먼지 앉은 운동화를 꺼내 신고 현관문을 나선다. 운동은 꾸준히 하기가 힘들었다. 게으름을 바쁘다는 핑계로 포장하고 나를 속였다. 불룩한 배가 다른 때보다 더 부끄럽고 창피하다. 가파른 산길을 오른다. 새들이 화들짝 놀라서 날아간다. 싱그러운 풀 냄새가 코끝을 간질거린다. 목덜미 땀이 산바람에 시원하게 느껴진다.

나무



통영 충렬여자중학교 3-4

배소현

정원사는 정장을 입었대. 손에는 가위를 들었대. 첫 번째 신부는 심한 곱슬머리 백당나무. 드레스와 어울리지 않아 파혼을 당했다고 해. 두 번째 신부는 열 세가지 꽃이 피는 어느 행성의 과일나무래. 레몬이 잎사귀를 끊임없이 낳던 날이었던대. 일렁이는 별과 코끝에 감도는 상큼한 향기 때문에 상견례는 일찍 끝났대. 카시오페아 자리로 신혼여행을 떠나자 녹음이 구름에 가득 했다던데.

코넬리안, 우리는 면사포를 쓰고 여행을 떠날 거예요. 밀 폐된 하늘과 초록을 잘라 떠날 겁니다. 아이보리색 벽지로 맞춰 입고 떠나는 게 좋겠군요. 태양의 발에 튀어나온 연골을 보고 놀라지 말아요. 채충과 홍염이 손을 잡고 있을 뿐 이니까요. 월식이 일어날 때가 됐군요. 보라색 스카프를 챙겨 빨리 떠나도록 해요.

제37회

3·15의거기념전국백일장

중등부 산문 장원

취미생활



마산 성지여자중학교 3-1

오주솔

아주 어릴 적, 엄마의 권유로 다도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꼬마였던 터라 다도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새로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떨리고 설레었다. 처음 엄마 손을 잡고 다도학원 문을 열었을 때가 아직도 눈에 선하다. 예쁜 한복을 입고 계시는 선생님이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차실 안에는 사극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다기와 족자, 그리고 전통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오색방석에 앉으라고 하시더니 차와 다식을 권했다. 차는 쓰고 맛이 없었지만 예쁜 다식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난다.

어릴 적 나는 '털파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무엇을 먹을 때마다 계속해서 흘리기도 하고 컵을 깨기도 하였다. 이런 어릴 적 조심성 없는 습관을 고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다도다. 다도를 하려면 여러 가지 다법을 익혀야 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인내를 길렀고 다도 한 세트가 끝날 때까지는 10분 정도를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하는데 6살의 아이가 버티기는 쉽지 않았고, 10분이 10시간 같은 느낌이었다. 한 번 할 때마다 다리에서 쥐가 나고, 차 주전자에서 숙우로, 숙우에서 다관으로 물을 부을 때마다 여기저기 물을 쏟았다. 그러다 한번은 서울에서 열리는 다도대회에 참가했는데, 그때도 여기저기 물을 흘렸고, 순서를 정확하게 하

지 못했다고 한다. 다도대회가 끝이 나고 시상식과 경품 추첨 행사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 받아 보겠다고 햇볕이 내리쬐는 무더운 날씨에 오랫동안 서 있었던 기억이 난다. 한명 한명 이름이 불릴 때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기다렸고, 그걸 지켜보시는 엄마는 그만하고 들어오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고 이름을 부르던 아저씨를 또 쳐다보고 또 쳐다봤다. 결국 난 우수상을 받았고 그 상이 엄청 좋은 상인 줄 알고 좋아했고, 엄마도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셨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상을 기다리는 나에게 들어오라고 여러 번 손짓하던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께 참 감사한 일들이 많다. 다도학원에서는 운행하는 차가 없어서 엄마께서 데려다주시고 데리고 가셨는데 6살 터울이었던 어린 동생을 업고 다도가 마치는 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려 주신 엄마께 감사한 생각이 든다.

노력 끝에는 꼭 결과가 있는 법인 것 같다. 이렇게 집중을 못 하고 조심성이 없던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중 우호교류전’에 한국을 알리는 어린이 다도 시연도 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는 ‘대한민국 다향 축전’에서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도 받았다.

내가 이렇게 다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몇 가지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먼저, 인내를 배우게 되었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참 차분하고, 말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게 다도의 힘인 것 같다.

다음으로는 자존감과 예절을 배우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보통 남에 대한 예를 잘 갖춘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예를 지키기는 쉽지 않다. 다도를 배우게 되면서 나의 대한 존중과 예절을 가지게 되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차를 우릴 때도 예를 갖추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존중할 때 비로소 남에 대한 예의를 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또래 친구들보다 우리 문화 역사에 관심이 더 많은 것이 이 때문인 것 같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다도를 하니 자부심이 생겼고 뿌듯한 마음이 생겼다.

어린이집을 하시는 엄마는 직업의 특성상 오롯이 나의 엄마였던 적이 많이 없었다. 어린이집 원장인 엄마일 때는 다른 아이들에게 더 엄마인 것 같았다. 그래서 난 늘 엄마를 빼앗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속상했는데 다도 연습을 하는 날 만큼은 나를 기다려 주

시고 지켜봐 주셨다. 특히 다도대회 날은 나만을 위해서 예쁜 화장과 아름다운 한복을 입혀주시고 하루 종일 나만 쳐다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러한 점에서 다도가 너무 좋았다. 이렇게 나에게 다도란 엄마의 사랑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도는 나의 자존감이고 나의 나라 사랑의 자부심과 긍지다.

아직도 가끔 집중을 못 하고 기분이 붕 뜨는 것 같을 땐 차 한잔을 우리며 나의 마음을 다스린다. 이렇게 무기력하고 힘든 일상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취미생활은 작은 행복이 자 삶의 원동력이다.

제37회

3·15의거기념전국백일장

초등부 고학년 운문 장원

봄



경기 합천초등학교 6-3

이예진

봄은 나에게 버티기 힘든 계절

봄이 되면 오는 개학

개학은 학교의 시작

수학 문제집

첫 장을 푸는 느낌

두툼하게 남은 뒷장에

저절로 나오는 한숨

어른들은 그때가 좋은거다 하지만

학생들한테는 너무나도 힘든 공부

덥고 추운 여름 겨울엔

방학이라도 있지만

이제 시작한 봄은

학교 갈 날이 한참이나 남았다

방학까지 멀고 먼 봄은

나에게는 버티기 힘든 계절

제37회

3·15의거기념전국백일장

초등부 고학년 산문 장원

군것질



거제대우초등학교 5-솔

심소희

나는 군것질을 좋아한다. 아니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이다. 군것질을 많이 한 탓에 살이 급속히 붙어났기 때문이다. 엄마는 군것질과의 전쟁을 선포하셨다. 나의 친구들과 이별이라니!

내가 사랑하는 군것질은 초콜릿, 사탕, 젤리이다. 특히 그 쫄깃쫄깃하고 달콤한 젤리의 식감은 반하지 않을 수 없다. 달달한 것이 땡길 때는 사탕이지. 그리고 초콜릿은 또 어떠한가! 달콤하고 씹싸름한 그 맛은 단연 군것질로 최고이다. 그런데 이제 먹을 수 없다니 너무나 슬펐다.

군것질은 끼니 외에 군음식을 먹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군것질을 많이 한 날이면 밥맛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기도 했다. 그리고 몸에 좋은 야채 대신 자극적인 맛이어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즉 내가 선택한 군것질은 내 몸에 무엇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이었다.

어느 날 할머니와 통화를 하게 되었다. 요즘 군것질을 하지 못해 뿔루뿔한 내 목소리를 듣고 할머니는 무슨 일이 있냐며 걱정하셨다. 그러다 군것질 이야기가 나왔고 할머니의 최애 군것질은 옥수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옥수수가 군것질거리라니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할머니는 옥수수 외에도 감자, 누룽지 등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보니 할머니께서 드신 군것질은 모두 몸에 해롭지 않은

건강한 음식이었다. 할머니는 군것질 대신 ‘주전부리’라고 표현하셨다. 주전부리? 낯선 단어다. 사전을 찾아보니 ‘맛으로, 혹은 심심풀이 삼아 먹는 음식’이란 뜻을 지니고 있었다. 할머니께서는 맛도 생각하고 건강도 고려한 음식을 간식으로 드셨던 것이다.

그리고 보니 내가 좋아하는 군것질은 할머니께서는 입에도 대지 않으셨다. 할머니와 함께 하는 군것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군것질을 하며 이야기도 나누고 할머니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텐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건강한 군것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건강도 맛도 고려하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군것질이 무엇이 있을까? 선뜻 생각나지 않았다. 아마도 내가 먹는 군것질이 한정적이라서 잘 모를지도 모른다. 이제부터 함께 할 수 있는 군것질거리를 찾아보아야겠다. 그리고 그런 음식이 많이 없다면 개발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의 여러 가지 꿈 중에 하나가 요리사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콤함,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단백질 그리고 무엇보다 몸에도 좋은 군것질! 그렇다고 열량이 너무 높거나 포만감이 심해서 다음 끼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적당한 가벼움!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 모두 함께 두런두런 앉아서 이야기 나누며 먹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음 주에는 할머니의 입맛도 내 입맛도 사로잡을 후보 군것질을 몇 가지 찾아서 할머니 댁에 가볼 생각이다. 이야기 주제는 군것질! 건강한 군것질로 맛도 건강도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도 챙기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제37회

3·15의거기념전국백일장

초등부 저학년 운문 장원

교실



마산 합포초등학교 3-2

박현지

수업시간 창밖을 보니
어린 새싹이 인사를 한다
봄이 왔나 봐!
나도 덩달아 마음속으로 인사한다
저 어린 새싹은 자라서
어떤 꽃이 될까? 수업시간 창밖을 보니
어린 새싹이 인사를 한다
봄이 왔나 봐!
나도 덩달아 마음속으로 인사한다
저 어린 새싹은 자라서
어떤 꽃이 될까?

생일



마산 합포초등학교 3-3

김예은

나에게는 기억에 남는 생일이 많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생일은 즐겁고 신나는 추억도 있지만 슬픈 추억도 있다.

내가 7살 생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다. 할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 응급실에 갔다. 그날이 토요일이라 의사 선생님 진료가 안된다고 해서 응급처치만 하고 그냥 집으로 오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혹시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내 생일 때, 선물을 못 사주실까 봐 미리 사주신다고 하셨다.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골랐다. 내가 꼭 갖고 싶었던 인형이었다. 인형이 할아버지가 나에게 마지막 생일 선물이 되어 버렸다. 할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 하면 손잡고 등하교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늘 나라 구름 위에 집을 지으셨다. 지금 인형은 나의 애착 물건으로 내 옆에서 잠을 잔다. 탐을 내는 동생에게도 주지 않는다. 나에게는 그만큼 소중한 선물이니까.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면 인형을 세게 ‘꼭’ 안아 본다. 나는 기억한다. 얼마나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많이 사랑하셨는지 많이 아껴주셨는지... 지금은 우리의 옆에 안 계시지만 멀리서 “우리 손녀 잘한다” 응원하며 활짝 웃고 계시는 모습이 그려진다.

언제나 늘 그러셨으니까. 나의 첫 번째 친구였던 개구쟁이 할아버지가 생일이 다가오니 더 보고 싶어진다.

글의 초점과 주제 의식의 명징함을 바람

- 2021년 3·15의거 61주년 기념, 제37회 전국백일장 심사 총평

1. 머리말

(사)3·15의거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마산문인협회가 주관하는 제37회 전국백일장이 올해도 작년과 같이 공모전으로 시행되었다.

심사는 마산문인협회 회원으로 있는 시인, 아동문학가, 수필가, 문학평론가들이 예심을 거쳐 수상 범위에 드는 작품을 선정하는 한편, 본심에서 각 부문별 심사위원 전체 토론을 거쳐 최종 심의를 하였다. 심사 기준은 운문의 경우, 시적상상력, 체험의 진정성, 서정의 깊이, 감동의 확산, 짜임의 밀도를 중심으로 하였고, 산문의 경우, 체험의 진정성, 기록의 치밀함, 체험의 공감도, 서사 양식의 적절성, 글의 전개와 짜임을 중심으로 심의하였다. 결과에 따른 총평은 다음과 같다.

2. 몸말

2-1. 운문 수상작에 대하여

초등학교 저학년부 운문 장원을 차지한 박현지 학생은 순연한 마음을 시로 오롯이 담아내었다. 교실 밖 어린 새싹과 인사를 주고받는 교감의 감수성에다가 “저 어린 새싹은 자라서 / 어떤 꽃이 될까”라는 말 건넬므로 새싹은 물론 시적 화자 역시 자신의 미래를 꿈꾸었다.

차상을 차지한 엄효린 학생도 바람과 꽃향기와 교실이 하나로 어우러져 즐거운 모습을 친구로 견주었다. 애써 동시를 짓기 위해 그럴듯하게 형상화하기보다 아이의 눈과 마음으로 보고 듣는 감각적 세계를 고스란히 담아내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 운문 장원을 차지한 이예진 학생이 돋보인 점은 백일장 시제로 주어진 '봄'을 자기 체험의 세계에 빚대어 시적 상상력을 펼쳤다는 데에 있다. 시적 화자에게 있어 봄은 “수학 문제집 첫 장을 푸는” 희망 가득한 설렘이기도 하지만 “두툼하게 남은 뒷장에 저절로 나오는 한숨”이라는 막막한 부담으로 다가선다. 봄에 관해 너무도 뻔한 구태의연한 빗담이거나 익히 알고 있는 시적 발화를 뛰어넘어 이른바 생소화의 시적 긴장을 크게 높였다.

차상을 차지한 박서준 학생은 봄을 “안경, 부메랑, 난로”에 견주면서 그 까닭에 관한 해석적 관점을 시로 부러놓았다. 아쉬운 점은 일정한 해석적 관점의 틀을 앞세워 동시의 입내를 내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의 발칙한 상상력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야겠다. 아이들의 상상력이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말랑말랑한 고무공과 같다. 그 자체가 다른 것 조금도 섞이지 않고 제대로 온전한 아이들의 세계이다.

중학교부 운문 장원을 차지한 배소현 학생의 작품은 단연코 압권이다. 산문시로서 갖추어야 할 시적 요건을 고루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적 상상력 역시 자유자재 그 자체로 시원스럽게 탁 트여 있다.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간접화법을 바탕으로, 1연에 정원사의 등장과 신부로 풀바꿈한 나무의 상상력을 펼치고, 2연에 “밀폐된 하늘과 초록을 잘라”여행을 떠나는 극적 묘사와 “태양의 밭과 채충과 홍염과 월식”이라는 비유와 상징 등으로 독자의 상상 및 유추를 한껏 자극하고 있다. 거침없는 감성의 일탈과 확장, 앞으로의 시적 장력이 크게 기대되는 유망주이다.

차상을 차지한 조우희 학생의 시적 발상도 만만치 않았다. “나무 조각 하나를 떼어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꽂는” 순간, “세상을 위해 희생된 사람은 모두 꽃이 된다.”는 시적 발화를 가능케 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이야기의 방향을 바꾼 것은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알레고리를 통해 시적 완성도를 높였다. 상상력이란 나의 내부에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다. 이러한 까닭에 조우희 학생에게 거는 기대

가 크다.

고등학교부 운문 장원을 차지한 정지윤 학생의 물화된 상상력은 빼어나다. 거울의 예사로운 1차적 상상력은 ‘거울 속의 나’와 ‘거울 밖의 나’라는 현상적 차원에서 전개된다. 그런데 이 학생은 ‘거울 속의 나’를 ‘원숭이’로 끌바꿈하여 물화된 상상력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산문시의 서술적 전략을 통한 발화 내용의 단절 및 비약, 압축 및 암시 등을 근간으로 하였다. 시의 기법과 전략은 나름대로 갖추었으나, 주제 의식의 몰입도가 떨어져 산만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예컨대 1연에서는 원숭이로 치환되어 혼밥 먹는 이웃집 남자(혹은 시적화자)의 무망한 삶이 제시된 반면에, 2연과 3연에서는 이빨 뽑힌 채 코코넛 채취를 하는 태국의 노예 원숭이와 돼지의 후각으로 송로버섯을 채취하는 행위를 적시 하면서 “하루에 수많은 나무를 베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팔 다리에 털이 많은 우리의 별명은 원숭이다”라며 환경 파괴를 질타하는 쪽으로 비약한다. 차라리 1연 혼밥 먹는 이의 무망한 삶을 시의 초점으로 삼아 몰입도를 높였으면 주제의식의 명징성과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되었을 것이다.

차상을 차지한 박연우 학생은 “고통은 항상 거름이 된다 거울이 됐다”라는 에피그램을 앞세워 자신이 창조한 시간과 공간에서 펼치는 구체적 감각을 근간으로 시적 감성을 쏟아내었다. 시적 언어를 갈무리하는 품도 만만찮았다. 아쉬운 점은 시적 화자가 펼친 구체적 감각의 세계가 독자들과 더불어 경험하고 지각하는 존재가 아닌 까닭에 자칫 공소한 외침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독자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이 크다. 게다가 나름대로 구체적 감각으로 표상된 세계가 시의 마지막 구절인 “역사의 과수꾼 생명을 부여받은 개척자이자 뜨거운 심장을 안고 있는 거울”이라는 주제 의식을 든든하게 받쳐주기에는 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크다. 아쉬움으로 남았다.

대학일반부 장원을 차지한 김남희 씨는 1960년 4월 11일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주검으로 떠오른 김주열의 바다를 안개의 극적 상황으로 떠올렸다. 아울러 김주열의 어머니가 참담하게 겪었을 내적 상황을 “늙은 어미의 젖무덤 사이로 안개가 콧 막혀왔다.”라고 하며, “세월을 끌어안은 짙은 안개 안에서는 그 누구도 길을 잃기 일쑤였다. 타자와의 거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등의 직서적 진술을 서슴지 않았다. 김주열 시

신 인양지에서 바다 안개와 술하게 조우하여, 사물 그 자체의 직관적 상상력이 시적 표상으로 승화되거나 내면화의 구체적 감각어로 발화되는 시적 진술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3월이지만 차가웠던 바다”라는 ‘관념으로서 바다’의 공소함, 마음에 와닿지 않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차상을 차지한 이성은 써는 안개를 “식은 숨이 섞인 죽음이 설새 없이 들끓”는 “하얀 호흡”으로 내면화하였다. 지나치게 추상적인 진술에 치우쳐 시적 화자의 과거 지각의 여러 요소 혹은 구체적 경험이 안개가 불러일으키는 이미지의 세계와 교감하여 창조적으로 풀바꿈되어 나오는 상상 표상에 이르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2-2. 산문 수상작에 대하여

초등학교 저학년부 산문 장원을 차지한 김예은 학생의 작품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답게 할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생일 선물로 갈무리하였다. “7살 생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할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면 선물을 못 사준다면 생일에 앞서 인형을 나에게 주었고, 세상을 떠나셨다. 할아버지는 “하늘나라 구름 위에 집을 지으셨다. 지금 인형은 나의 애착 물건으로 내 옆에서 잠을 잔다.” 따라서 할아버지 집은 내 옆집과 같다. “나의 첫 번째 친구였던 개구쟁이 할아버지”를 향한 순연한 마음을 잘 드러내었다.

차상을 차지한 임서운 학생은 “내 생일은 8월 15일 광복절, 우리 엄마 생일은 10월 9일 한글날, 우리 아빠는 3월 7일 평범한 날”을 글감으로 삼아 이야기를 펼쳤다. 마법을 써서 아빠의 생일을 바꿔줌으로써 아빠의 생일도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초등학교 3학년 다운 발상이 도탑다. 서로의 관계에 사랑이나 인정이 많고 깊은 것을 귀하게 여겼다.

초등학교 고학년부 산문 장원을 차지한 심소희 학생은 언어 쓰임새가 탁월하고 이야기 짜임도 탄탄한 점이 돋보였다. “내가 사랑하는 군것질은 초콜릿, 사탕, 젤리”인데 반해, “할머니의 최애 군것질은 옥수수”인 것을 견주면서, 건강과 맛을 고루 갖춘 군것질 거리를 개발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자신의 꿈인 요리사에 잇닿아 이야기를 펼친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 모두 함께 두런두런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며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며 가족 공동체의 이상을 떠올림으로써 주어진 글감의 주제 의식을 드높였다.

차상을 차지한 이승현 학생은 이야기를 감칠맛 나게 이끄는 품이 남달랐다. 군것질인 허니버터칩 “바사삭 소리 한 번이면 어느새 9살 동생이 내 옆에 자석처럼 딱 붙어 앉으며, 바사삭 소리 두 번이면 64살인 우리 외할머니도 은근슬쩍 살랑 부는 봄바람이 되어 옆에 앉으신다. 55년 나이의 휴전선을 뛰어넘어 우리 가족은 통일을 이루었다.”라는 표현의 산뜻함과 기지가 돋보였다. 같은 이야기라도 재치 발랄하게 이야기를 펼치는 것, 결코 무겁지 않게, 그러면서도 “군것질은 타임머신이다.”라고 하며 모든 이와 즐거운 추억을 공유할 수 있다는 메시지 전달은 이 글의 참신성으로 더욱 빛난다.

중학교부 산문 장원을 차지한 오주솔 학생의 작품은 자신의 체험을 오롯이 담아내는 품이 남달랐다. 다도를 배우게 된 계기와 어려움, 보람과 의의를 보고 듣고 느끼는 감성의 세계와 함께 보여주었다. 다도를 통하여 “자존감과 예절,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여, 자칫 지나치게 자기의 의견을 앞세우거나 읽는 이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의도가 도드라져서 논설적인 품으로 떨어지는 것을 감성적 필치로 극복하였다.

차상을 차지한 정다원 학생도 감성적 글쓰기가 돋보였다. 외할머니가 애지중지하시던 돌에 관한 이야기란 다름 아닌 아름다운 추억을 다시금 불러내는 거멸못이라는 것. “그 때 그 시절, 장소에서의 추억도 함께 보관된다는 게 좋아서, 나도 내가 갔던 바다에서 마음에 드는 돌을 하나씩 주었던” 기억 속에 “엄마랑 파란 하늘과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는 교감의 마음과 “오래오래 할머니의 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갈무리하는 생각의 품이 남달랐다.

고등학교부 산문 장원을 차지한 설수진 학생의 작품은 “무더운 여름, 자신의 몸보다 두 배나 큰 소를 몰고 밭을 가는 할아버지” 그리고 “바로 벗겨질 듯하면서도 벗겨지지 않고 한 몸처럼 찰싹 붙어있는 할아버지의 검정고무신”이라는 도입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른 행위, ‘검정고무신’이라는 초점화로 이야기를 이끄는 이른바 서사구조가 탄탄하다. 할아버지의 생신 선물로 아빠가 사온 신발을 두고 할아버지는 “예전에는 가난해서 신발 한 짝 못 사줬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그 운동화를 신겠냐”하며 내친다. 고된 노동을 운동이

라 여기며 “검정 고무신을 신고 집을 나서는 할아버지”에게 “운동할 땐 운동화 신고 해야 해요.”라고 말 건네는 1인칭 화자인 ‘나’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서사구조의 짜임을 지녔다. 설수진 학생 개인의 가족사 체험의 서사라고 한다면 이는 단연코 압권이다.

차상을 차지한 한수희 학생도 평생을 고된 노동으로 애쓰신 할머니의 말씀 “할미에겐 그냥 운동이라니까”라는 것을 글의 초점으로 삼았다. “아빠가 할머니 댁에 가자고 했을 때 나는 짜증부터 났다.”는 도입과 오일장에 나가는 할머니를 만류하는 아빠에게 “이건 운동, 운동이어서 괜찮여”라는 할머니의 말씀, 그리고 ‘나’에게 “느그 아빠 키울 때 나물이나 농사지은 걸 팔면서 느그 아빠 먹여 살렸어.”라는 할머니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장터에서 할머니와 더불어 물건을 파는 체험을 공유하는 전개와 할머니의 인생을 오롯이 담아낸 장터 오가는 길의 의미를 되새기는 결말이 있다. 할머니에 관한 부정적 인식에서 긍정적 인식으로의 극적 전환이라는 서사구조에 바탕을 두었다. 한수희 학생 개인의 가족사 체험의 서사라고 한다면 역시 압권이다.

대학일반부 장원을 차지한 오현주 씨는 아버지에 관한 기억의 서사를 감성적 언어로 참신하게 풀어내는 산문정신이 남달랐다. 시간은 시간을 일깨우고 공간은 공간을 들추어내는 가운데, 시간의 공간화에 따른 내면화까지 이야기의 감성을 극대화한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아버지이다.”라는 첫머리 발화에 값하는 아버지의 소탈하면서도 성실한 습관과 다정한 목소리를 자아 성찰로까지 승화하는 품이 빼어나다.

차상을 차지한 조명래 씨는 “나는 농사를 짓는 농부이다.”라고 하며, 각자의 습관에 따라 “비닐하우스의 창문에 매어놓은 줄의 매듭”이 아내와 어긋나는 것을 이야기의 첫머리로 삼았다. 자연스럽게 자신이 살아온 삶의 습관을 되돌아본다. 한편으로 “붙임성 있게 살아라.”는 아버지의 유언이 자신의 습관을 바꾸고 성격을 바꾸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는 습관에 관한 인식의 전환을 불러일으켜 “익숙해진 습관에 자신이 길들여질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것으로서 “오늘따라 아내가 매어놓은 비닐하우스 창문의 매듭이 웬지 어색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글맺음으로 마무리된다. 습관의 의미를 자기 인식의 전환으로 되새기는 품이 넉넉하였다.

3. 맺음말

제37회 개최라는 만만치 않은 연륜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응모작의 수준이 기성의 작품과 견줄 만큼 빼어나다. 초등학교의 운문의 경우 교감의 감수성과 순연한 감각의 세계를 눈여겨보았다. 산문의 경우 글감의 주제 의식과 참신성이 눈에 들었다. 청소년부 운문의 경우 시적 상상력의 자유자재함, 자기 내면의 시간과 공간의 창조를 통한 시적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산문의 경우도 초점화로 이야기를 이끄는 서사구조의 탄탄함을 통한 주제 의식의 확장성은 물론, 언어 씹씹이, 감성의 밀도에 이르기까지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대학일반부 운문의 경우, 사물 그 자체의 직관적 상상력이 시적 표상으로 승화되거나 내면화의 구체적 감각어로 발화되는 시적 진술과 거리가 멀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산문의 경우 기억의 서사를 감성적 언어로 풀어내는 산문정신과 자아성찰의 넉넉한 품이 남달랐다고 하겠다. 함께 해주신 분들의 정진을 기원하며,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글·심사총평: **이성모**(문학평론가, 창원시김달진문학관장)

제12회 3·15 미술대전

서양화 대상



시선1



박영옥



조가화무



박계동

투고 환영

『3·15의거』회지는 무료 배부합니다. 이 회지를 읽고 3·15의거기념사업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의견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고가 게재된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3·15의거』회지 구독을 원하시거나 주소가 바뀌신 분들도 연락 바랍니다.

자료 수집

3·15의거와 연관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의거 당시의 사진이나 관련 문헌을 소장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본 회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미공개된 당시의 투쟁사를 증언해 주실 분도 환영합니다.

보낼 곳



(사) 3·15의거기념사업회
The Society of 3-15 Democracy Movement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135, 3·15 아트센터 3층

TEL. 055. 223. 0315

FAX. 055. 222. 6409

E-mail. masan315@hanmail.net

Homepage. www.masan315.net





1985년부터 조성된 봉암공단은 총면적 625,158㎡ (189,090평)으로 현재 입주업체 650여 개사 중 80%가 제조업체이며, 연간 매출 1조 원, 고용 근로자 수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단법인 봉암공단기업협의회

회장 정일규 | 수석부회장 한청수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로62(협회사무국 3층)

TEL. 055-298-3737 FAX. 055-296-5278



내일을 향한
새로운 도전

상공회의소가 응원합니다

기업경영의 든든한 동반자, 상공회의소 회원 기업이 되십시오.
기업의 경쟁력이 달라집니다.



창원상공회의소

T. 055) 210-3030

편집위원장 **서익진** 창원시정연구원 초빙연구원
편집위원 **송성안** 경남대 교수 **이경미** 인류학 박사
 이재성 시인 **박정선** 사무국 과장
자문 **라상호** 창동예술촌장

3·15의거 스물세번째

발행일 2022년 2월 1일

발행인 김장희

발행처 (사)3·15의거기념사업회
 51322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135, 3·15아트센터 3층
 T. 055. 223. 0315 F. 055. 222. 6409
 H. www.masan315.net

제작처 불휘미디어
 51722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10길 87
 T. 055. 244. 2067
 M. 2442067@hanmail.net

ISSN 2586-5846

*본 책자는 국가보훈처·경상남도의 예산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에스스지**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은행
사회적 가치의 의미를 실천하는 은행
지속 가능한 발전에 앞장서는 은행이 되겠습니다

ESG경영을 선도하는 착한기업
푸른 미래를 그려 나가는 은행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금융

BNK경남은행입니다





(사) 3·15의거기념사업회
The Society of 3·15 Democracy Movement

T. 055. 223. 0315 H. www.masan315.net